

1960年 10月 7日 創立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25권 제1호 통권 27호 2006

目 次

▶ 卷頭言	김평일 (6)
▶ 일제강점기 칫솔과 치약 광고에 관한 연구.....	신재의 (7)
▶ 일본 치과의료보험의 역사	권호근 (18)
▶ 도시 빈민과 영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치과 진료 봉사	김평일 (39)
▶ 식민지 조선의 치과의업자(齒科醫業者):1905~1945	조영수 (51)
▶ 은상시대의 구강의학(제3장)	김재형 (107)
▶ 齒牙의 衛生.....	김경집 (113)
▶ 연세대학교 치의학박물관의 개관 소개.....	김희진 · 김성오 (115)
[資 料]	
▶ 일본국 최초의 치과의사회 규칙	(123)
▶ 學會活動.....	(126)
▶ 會員動靜.....	(127)
▶ 任員名單.....	(128)
▶ 投稿規程.....	(129)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25., No. 1. Series 27. 2006

Contents

- President address.....Kim Pyung Il (6)
- Study on the sdvertisement of Tooth paste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Shin Jae Eui (7)
- History of dental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Kwon Ho Gun (18)
- Dental treatment service to the poor citizens and
poorly occupied foreign labors.....Kim Pyung Il (39)
- Dental practitioner in Colonial Chosen 1905~1945..... Cho Young Soo (51)
- Stomatology of Yin-Shang Dynasty.....Kim Jae Hyung (107)
- Hygien of teethKim Kyung Jip (113)
- General introduction of Dental Science Museum of
Yon Sei University.....Kim Hee Jin et al (115)
- Rules Japanese Dental Society, the first in Japan(123)
- KAHD activities.....(126)
- Members News(127)
- A List of KADH Officers.....(128)
- Rules of Contribution.....(129)

치과 인문학에 대한 재인식

김 평 일*

이 세대는 학문이 학문이기 이전에 돈 버는 도구이기를 바란다. 작년 12월15일 광운대학교는 인문학과인 국문과·영문과·중국학과·일본학과와 비 인문학과인 국제통상학과 이렇게 5개 학과를 통합해 2008학년도에 국제통상학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대학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5개 학과 중 국제통상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국문학과는 폐과시켰다.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서 “인문학의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영어, 일어, 중국어는 인문학의 가치보다 국제통상을 위한 언어기술 수단으로 살아남았다.



근자의 화두, 의료법 개정도 그렇다 현행규정에는 의료비 할인,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유인, 알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 의료법은 비 급여 치료비용에 한해 할인,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유인, 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의료비는 다운 된다는 것이 당국의 홍보 내용이다. 인술(仁術)이라는 인문학적 개념은 무시되고 치료비용이라는 이윤추구만이 살아남아, 새 의료법개정 이후 의술은 더 이상 인술이 아니다.

1998년 풀리처상 수상작인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밝힌 연구, 보고서다. 인류 문명의 발달 속도 차이를 명쾌하게 분석한 이 책은 역사를 기록한 종족이 역사를 모르는 종족을 지배하여 후자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연 20세기 초 식민주의 제국주의 침략에도 오로지 자신의 문화를 잃지 않고 거의 완전하게 자신의 문화로 살아남은 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닌가 한다. 왕조실록을 비롯한 무수한 우리 역사학적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만의 고유문자 한글을 가졌기 때문이다. 역사와 문자가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처럼 사망했을 지라도 2000년 만에 부활하기도 한다.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이 영어를 우리 공용어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자고 한다. 동남아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는 영어를 전 국민이 사용하여 무역통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한 주장이니 물론 돈 되는 국가 경쟁력만을 생각한 무지함이다. 그러나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민족은 영어를 쓰고 싶어 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남길 기록을 표기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갖는 우리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존재인가를 모르는 까닭은 바로 인문교육, 역사의식의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치과인문학은 확고하게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치과 인문학의 대표 과목인 치과의사학은 역사학으로 그 뿌리가 단단해야 우리 치과의 정체성을 오롯하게 세울 수 있다. 또한 치과윤리학은 환자 유인, 호객을 권하는 새 의료법 시대에서 의술을 다시 인술로 살아남게 할 절대 필수 카드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일제강점기 칫솔과 치약 광고에 관한 연구

신 재 의*

1. 머리말 - 전근대 칫솔과 치약

인류는 그 문명과 함께 도구를 사용해 오고 있다. 칫솔과 치약은 입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되었다.

기원전 10세기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지방의 수메르(Sumer)인은 황금 이쭉시개를 사용하였다. 옛날 유대 율법이던 탈무드(Talmud)에서는 케셈(qusem)이라는 나뭇가지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로마에서는 이쭉시개를 유향나무로 만들다가 기원전 1세기에는 금이나 은 또는 청동으로 만들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 언어 '나다가슬타(dantakastha)'는 이쭉시개 혹은 치목을 말하는 것이었다.¹⁾ 이것이 중국으로 불교와 함께 들어와 양지(楊枝)라 부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여인들이 이쭉시개를 족집게, 귀이개, 가름마타개, 줄 등을 화장 겸 위생도구 묶음으로 사용해 왔다.

입안을 청결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던 인간은 청결과 구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치약을 사용하게 되었다. 기원전 1,550년 에베르스(Ebers) 파피루스는 두루마리 길이가 21미터에 달하며 치과의술

분야에 대한 많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치분(tooth powder)에 대한 처방으로 '테레핀 수지와 황토, 공작석(孔雀石)을 1:1:1로 혼합하여 갈아서 치아에 바른다고 하였다. 로마와 아라비아에도 그들의 치약 처방이 있었다. 14-15세기부터 소금이 치약에 추천되었다. 한국에서는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치약 처방이 있다.

근대적인 칫솔은 1780년 영국인 아디스(Addis)가 뼈를 칫솔대로 하여 몇 개의 구멍을 뚫고 동물의 털을 철사로 묶어 칫솔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칫솔과 치약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1924년 4월 21일 함석태(咸錫泰)의 『구강위생(口腔衛生) 긴급(緊急)한 요건(要件)』이라는 동아일보 기사에서 일본인 학생은 100명중 2-3명이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나, 한국인 학생은 손가락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이를 닦는 학생도 매우 적다고 하였다.

이러한 칫솔과 치약에 대한 기록은 이한수²⁾, 이병태³⁾, 기창덕⁴⁾, 신재의⁵⁾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1925년 이후 한국에 칫솔과 치약에 광고가 치과 전문지에 게재되게 되었다. 저자는 『조선

*신재의치과의원 원장, 본회 명예회장

1) 길이 15cm, 폭 1.5cm로 한쪽 끝을 씹어서 사용했다. 강도와 맛을 고려하여 만다라수(曼荼羅樹), 아육수(阿育樹), 자구화수(刺楸花樹)로 만들었다.

2) 李漢水, 『週末의 齒科醫』, 석암사, 1973.

李漢水, 『李漢水齒學博物誌見』, 석암사, 1976.

李漢水, 『東西齒學見聞記』, 석암사, 1977.

치과의학회잡지(朝鮮齒科醫學會雜誌)』와 『경성 치과의학회잡지(京城齒科醫學會雜誌)』 월간지 『조선지치계(朝鮮之齒界)』와 『만선지치계(滿鮮之齒界)』에서 칫솔과 치약에 광고를 발췌하였다. 이것을 한국인의 구강위생 인식과 당시의 치과의 사회에서 주관한 ‘충치예방의 날’과 연관하여 분석 평가하려 한다.

2. 칫솔과 치약의 광고

1) 한국인의 구강위생

한국에 근대 치의학이 시술된 것은 제증원에서 알렌(Horace N. Allen)이 발치를 한 것이 효시이다. 그 후 일본의 한국 침략과 함께 일본 치과의사에 의해 도입되고, 미국 선교 치과의사에 의하여 근대치의학이 직접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치약과 칫솔이 소개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1903년 한국에서는 인천 제물포 상점에서 일본인 아라이 도라다로오(新井虎太郎)가 칫솔을 라이온 치약과 함께 팔았을 것으로 추측된다.⁶⁾

1924년 한국인의 칫솔과 치약에 관련된 구강위생에 관한 기록을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함석태의 글이다. 함석태는 한국인 학생의 칫솔질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인 학생의 이 닦는 습관과 치아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에게 구강위생에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일본 학생의 칫솔의 사용률은 연령이 7-11세에서 20-30%였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이 보다 더 적을 것이었다. 일본 학생이 사용하는 치약과 칫솔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 학생은 식염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게 하였다. 이처럼 소금과 손가락으로 닦는 습관과 치아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에게 구강위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염양치일망정 어른들이 규칙적으로 시키는 가정도 적었다. 서울의 한국 학생들도 일본 학생과 같이 과자나 당분을 많이 먹게 되었다. 충치를 예방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의 치아 건강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구강위생은 중대 문제라는 것이었다.⁷⁾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李漢水, 『서양 치과 의학사』, 군자출판사, 1995.

3) 이병태, 『치의학 역사 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4)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5) 辛在義,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운, 2004.

辛在義, 『한국치의학사연구』, 참운, 2005.

6) 李漢水, 『서양 치과 의학사』, 군자출판사, 1995. 163쪽.

李漢水, 『週末의 齒科醫』, 석암사, 1973. 83쪽.

7) 咸錫泰, 『口腔衛生』, 『東亞日報』, 1924년 2월 11일자

齒刷牙子의 使用率 卽 每日 規則的으로 養齒를 하는 兒童의 數를 調査한 比例로 말함하여 보면 小學敎生徒 一學年으로 四學年까지의 兒童年齡이 七八歲로 乃至 十, 十一歲間인데 此程度 兒童의 齒刷牙子 使用하는 數가 大略 百에 對하여 二十 乃至 三十이나 됩니다. 그런데 朝鮮兒童의 同程度의 年齡으로 每日 正規)로 이를 닦는 數가 如何할가 하면 더욱 小數로 생각합니다. 其理由는 日本 兒童의 使用하는 齒磨粉은 甘味가 있고 容器가 美麗하고 잇솔이 입부닛가 兒童이 一種 好奇心으로 玩具品가치 使用하는 故로 不知不識間에 習慣이 되야 每日 계속 使用하지 만은 朝鮮兒童은 家庭의 自來慣習에 依하여 多部分은 齒磨用으로 食鹽을 使用하나니 食鹽은 鹹刺할 뿐 아니라 此를 手指에다 못쳐서 딱그라고 命令的으로 가르친데야 到底히 兒童心理에 嗜好할배 萬無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食鹽養齒일망정 어른들이 規則的으로 勵行시키는 家庭도 僅少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京城가튼 都會地兒童들은 朝鮮 兒童들도 日本兒童과 가치 菓子나 糖分을 만히 먹습니다. 그러면 齒牙를 破壞하는 것은 가치하고 此를 豫防하는 것은 그와 가치 떠러지면 그 結果가 如何하게읍니까 實로 彼此의 重大問題임니다.

1926년 주한 선교사 ‘반복괴’ 부인은 치아의 건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치아를 잘 닦은 것이 가장 좋으며, 1년에 2번씩 치과의사에게 치료 받아야 된다. 어른의 치아는 32개요, 아이는 20개이었다가 차차 더 나게 된다. 한번 교환한 치아는 다시 나오지 않고, 그것이 늙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 해 넣은 치아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치아는 앞니와 어금니에 따라 기능과 형태가 다르다. 치아의 속에는 수질이 있고 그 속에 신경이 들어 있다. 치아의 밖은 에나멜(법랑질)이라는 신체 가운데 가장 단단한 부분이 있다.

이 에나멜을 잘 보존하려면 첫째는 치아를 깨끗이 하고 둘째는 틈이 벌어지지 않거나 깨지지 않게 하여 세균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세균은 먹을 것이 있으면 모이고 틈만 있으면 자리 잡고 신경을 향하여 깊이깊이 파고 들어간다. 에나멜은 한번 상하면 회복이 안 되므로 단단한 것을 피하고 잘 보호하여야 한다.

치아를 벌레 먹지 않게 하는 법은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가. 칫솔이 잇몸을 상하지 않을 뽀뽀하고 치아 사이로 들어가야 되므로 너무 가늘지 않을 것. 나. 치약을 사용할 것. 다. 매일 식전마다 칫솔과 치약으로 칫솔을 빙빙 돌려가면서 골고루 닦을 것. 라. 잘 때와 식후에도 꼭 깨끗이 닦을 것이다.’라고 하였다.⁸⁾

1926년 박준영은 새로 도입되는 문명에 따른

치아위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입 속이 청결하지 못하면 당분으로 인해 충치, 풍치, 구취가 발생하므로 어릴 때부터 아침저녁으로 이닦는 습관을 가르치라고 하였다.⁹⁾ 1928년 박준대는 지금은 피상적 문화이며 ‘진적 문명’이 아니며 충치는 일종의 문명병이라 하였다. 특히 충치 예방에는 식물성 식품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부와 어린이의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¹⁰⁾

이와 같이 한국인 치과의사는 구강위생 향상을 위하여 칫솔과 치약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2) ‘충치예방의 날’과 치약과 칫솔 광고

일본에서는 1920년 11월 5일 일본연합치과의사회와 동경시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체로 내무성 지원 아동위생전람회를 계기로 ‘우치(齲齒)의 날’ 행사를 하였다.¹¹⁾ 서울에서는 1926년 5월 4일 ‘호치일(護齒日)’로 정하고 구강위생계몽을 하게 되었다. 1927년에는 구강위생강연회를 하였다. 1928년 6월 4일 제1회 ‘충치예방의 날’은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행해진 행사로 각 치과의사회, 문부, 내무성 그리고 치약회사의 지원으로 발전하였다.¹²⁾

1927년 라이온 치약은 품질에 관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페이스트 형태로 튜브 속에 들어 있고, 향과 맛이 좋아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었다.¹³⁾ 또한 30년간의 경험으로¹⁴⁾ 최신 과학의 정수로 우수한 원료 채택하여 향과 맛이 좋은 세계적 대량 생산하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품질이나 저렴한 가

8) 반복괴 부인, 「건강 이(치아)」 『기독교신보』, 1926년 6월 16일자.

9) 박준영, 「치과위생」, 『동아일보』, 1926년 11월 16일, 17일자.

10) 박준대, 「충치와 음식의 관계」 『동아일보』, 1928년 5월 13일, 15일자.

박준대, 「부인과 구강위생」, 1928년. 5월 22일, 23일자.

박준대, 「어린이들의 구강위생」, 1928년 10월 2일, 3일, 4일자.

11)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96쪽.

12)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96쪽.

13) 『朝鮮齒科醫學會雜誌』 4호, 1927. 7. 25.

14) 『朝鮮齒科醫學會雜誌』 6호, 1927. 11.20.

15)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0호, 1928. 12. 25.

라이온 로션의 병원세균 발육억제 성적표					
세균종 \ 실험법	배양기량	물치약양	배양온도	배양시간	성적
백색포도상구균	한천배양 10cc	0.1cc 0.5cc	37℃	48시간	발육×
황색포도상구균	한천배양 10cc	0.1cc 0.5cc	37℃	48시간	발육×
폐렴구균	한천배양 10cc	0.1cc 0.5cc	37℃	48시간	발육×
대장균	한천배양 10cc	0.1cc 0.5cc	37℃	48시간	발육×
연쇄상구균	한천배양 10cc	0.1cc 0.5cc	37℃	48시간	발육×
우식간균	한천배양 10cc	0.1cc 0.5cc	37℃	48시간	발육×
대조	한천배양 10cc	0.1cc 0.5cc	37℃	48시간	발육×

격이라는 것이었다.¹⁵⁾

1927년 치약 광고는 인간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만화로 구성된 라이온 치약 광고 ‘아버지의 소포’에는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편지와 소포가 왔습니다.’

‘고맙군. 아버지가 보낸 거야. 빨리 열어봐.’

‘어, 이건 라이온 페이스트형 치약. 그런데 왜 보내신 거지.’

‘먹고 마시는데 조심해라. 「자기 전 3분간」이 딱기를 실행하거라. 그래서 라이온 페이스트 치약을 보낸다. 아버지가¹⁶⁾

1929년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자기 전에 이 닦자’라는 표어로 자기 전에 칫솔질하는 효과적인

칫솔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강위생상 담배가 좋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는 쉬우나 행동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하며 자기 전에 3분간의 라이온 치약을 칫솔질은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다.¹⁷⁾

1928년 라이온 물 치약의 광고는 효과로 청량감을 주는 근대적인 맛을 주는 방향 구강청정제라는 것이었다.¹⁸⁾ 이 물 치약을 2, 3방울 컵에 떨어뜨리고, 물을 붓고 잘 흔들어, 입을 행구면 입속은 상쾌해 지며, 기분이 청량해지며 충치를 예방하여 구강내의 여러 질병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다. 이것은 내가 외출에서 돌아와서, 입 냄새가 날 때나, 병상에서나, 자기 전에 사용하며, 이웃을 위하여 손님을 맞을 때와 방문할 때에 사용한다고 했다. 가격은 납작 소병 30전, 중간 병 40전, 납작 병 45전, 큰 병 85전, 덕용 병 일원이었다.¹⁹⁾

16) 『朝鮮齒科醫學會雜誌』 5호, 1927. 9. 20.

17)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1호, 1929. 06.30.

18)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0호, 1928. 12. 25.

19)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권 3호, 1932. 10. 20.

1930년 초 라이온 물 치약은 구강청정제라 하며 치과의원에 대량 판매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였다. 구강청정제의 병에 붙일 상표를 1명당 2백장씩(의원명 기입) 기증되기도 하였다.

1930년 초 라이온 물 치약은 세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성적이 광고용으로 공개되기도 하였다.

- 가. 표중에 한천배양기 10cc속에 라이온 로션 0.1~0.5cc를 섞었다. 이 양은 보통 청정제로 희석해서 이용하는 양과 같은 양이다.
- 나. 실험에 이용한 세균은 구강내에 상존하는 병원균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세균을 새로 배양한 것을 일정 균부유액으로 시험에 사용하였다.
- 다. 37도(체온)에서 48시간 정확히 방치하여 두어도 역시 완전히 발육하지 않았으므로 이 성적은 절대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물 치약은 방부구강청정제로 “로빙”²⁰⁾, “오테 로션”²¹⁾, “오도놀”²²⁾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판매되기도 하였다.

1930년 제3회 ‘충치예방의 날’은 전단지 배포, 무료 구강위생 상담, 신문에 기사 및 광고를 하였다. 1930년 8월 30일 쿠라부(Club) 치약에서는 치마교련용 학생 칫솔이 3000개를 기증하기도 했다.²³⁾ 1933년 제6회 ‘충치예방의 날’은 치아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중점이 주어졌다.²⁴⁾

1930년 초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아침에 일어

나 양치질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번 더 자기 전에 효과가 뛰어난 라이온 치약으로 양치질하면, 구취를 없애고, 수면을 상쾌하게 하며, 또한 입속으로 들어온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고, 향기와 맛이야 말로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⁵⁾

1930년 6월 라이온 칫솔의 광고는 일본에서 의치용 브러쉬의 선구로 주요 특색은 3가지였다.

- 가. 의치 안쪽의 오목한 부분이 깊어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
- 나. 앞쪽의 검은 모 부분으로 의치 안쪽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 다. 손잡이 끝부분을 주걱모양으로 만들어, 딱딱한 부착물도 제거할 수 있다.²⁶⁾

1931년 11월 라이온 칫솔의 광고는 완전히 소독된 칫솔을 판매하고 있었다.²⁷⁾ 1932년 1월에는 내구성이 길며, 열탕 소독이 가능하고, 치아를 닦기에 충분한 힘이 들어가도 휘지 않는 칫솔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문구로 보아 그 때의 칫솔의 단점은 내구성, 소독의 어려움, 변형이 문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칫솔의 종류도 소아용, 초등학생용, 부인용, 일반대인용을 구분되었으며, 유제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²⁸⁾

1932년 12월 쿠라부(Club)치약과 쿠라부(Club) 칫솔의 광고는 이를 닦는 좋은 습관과 진보하는 좋은 치약은 근대인의 건강생활에 필요한 제1조건이라고 했다. 쿠라부화장품 제조 발매원 나카야마(中山) 타이요도(太陽堂)였다.²⁹⁾ 치약의 값은

20)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0권 1호, 1934. 4. 20.

21) 『滿鮮之齒界』 8권, 광고

22) 『滿鮮之齒界』 8권, 광고

23) 『朝鮮之齒界』 1권 4호, 1931.

24) 『滿鮮之齒界』 2권 7호, 1933. 42쪽.

25) 『朝鮮之齒界』 제1권 제4호 1930.12. 20

26)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3호, 1930. 6.20.

27) 『朝鮮之齒界』 1권1호, 1931.

28)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권1호, 1932. 1.20.

10, 20, 30전이였다.

1933년 1월 쿠라부(Club)치약과 쿠라부(Club) 칫솔의 광고는 품질에서 향과 맛, 감촉, 효력이 제일이며,³⁰⁾ 또한 아침에 쿠라부 페이스트 치약의 사용은 오늘도 상쾌하며,³¹⁾ 자기 전에 칫솔질은 편안한 잠과 내일의 건강에 좋다고 했다.³²⁾ 청량감과 상쾌감을 주어 여름을 유쾌하고 기분 좋게 지나게 한다고 하였다.³³⁾ 쿠라부 페이스트치약과 칫솔 사용은 건강하고 빛나는 좋은 치아가 되게 한다.³⁴⁾ 세계적 품질과 근대적 향으로 세계에 내놓을 우량 일본제품 중 하나라 했다.³⁵⁾

1934년 충치예방의 날'행사는 충치를 국민병이라 하며 박멸하자고 했으며,³⁶⁾ 1934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충치예방의 날' 행사를 할 때 관청의 후원이 증강되기를 희망하는 건의안이 결의되기까지 했다.³⁷⁾ 이러한 행사에 치약과 칫솔 제조사는 후원을 하며 광고도 하게 되었다.

1934년 1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기술이 소비자의 격찬을 받는다고 하였다.³⁸⁾ 1934년 2월 기술

은 오랜 역사로 해마다 평판이 좋아진다고 하였다.³⁹⁾ 1934년 3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치과 의사에게 자기 전에도 아이들에게도 라이온 치약을 치아건강을 위해, 이 습관의 실행을, 모든 가정에 권하기를 부탁하고 있었다.⁴⁰⁾

1934년 4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경품을 걸고 판매하였다. 상품으로 특등으로 금 속목시계 200명, 사진기 100명, 오르간 100명, 자전거 100명, 1등 크롬손목시계 1000개, 기타 5등까지 20만 명이나 되는 경품을 건 판매였다. 이것은 많은 수량의 치약이 팔리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성이 좋은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 때의 치약 값은 16전이였다.⁴¹⁾

1934년 7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윤제(潤製) 라이온 치약을 광고하였다. 또한 여름인 계절에 따른 광고로 청량한 효과와 향을 강조하였다. 이 치약은 계속 유지되는 적절한 정도의 윤택을 갖는 윤제 라이온 치약이라 했다.⁴²⁾ 1934년 8월 '윤제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29) 『滿鮮之齒界』 1권 2호, 1932.

30) 『滿鮮之齒界』 2권 1호, 1933.

31) 『滿鮮之齒界』 2권 9호, 1933.

32) 『滿鮮之齒界』 2권 2호, 1933.

33) 『滿鮮之齒界』 2권 7호, 1933.

34) 『滿鮮之齒界』 3권 2호, 1934.

35) 『滿鮮之齒界』 3권 8호, 1933.

36) 다음 요지의 강연을 방송했다.

오늘은 제7회 '충치예방의 날'입니다. 요즈음 위생이 진보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실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치아의 위생이 비교적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특히 충치는 문명의 진보에 따라 날로 많아지는 경향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9할이 충치에 걸려 있습니다. 이 충치가 신심상에 미치는 해독은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도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치아를 깨끗이 하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37) 『滿鮮之齒界』 3권 10호, 1934. 44쪽.

38) 『滿鮮之齒界』 3권 1호, 1934.

39) 『滿鮮之齒界』 3권 2호, 1934.

40) 『滿鮮之齒界』 3권 3호, 1934.

41) 『滿鮮之齒界』 3권 4호, 1934.

42) 『滿鮮之齒界』 3권 7호, 1934.

가. 원료 분말이 미세하다.

나. 분가루가 절대 날리지 않는다.

다. 광택(윤)이 고르다.

라. 맛과 향이 아주 좋다. 또한 입을 행군 후 입안에 향이 남는다.

마.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다고 하였다.⁴³⁾

1934년 10월 ‘윤제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새로운 상품이 ‘팔린다, 팔린다, 윤제가 팔린다. 재미있게 팔린다’고 하였다.⁴⁴⁾

1934년 고토후운도(後藤風雲堂)경성출장소치과부는 방부구강제로 “로빙”등을 판매하였다.⁴⁵⁾

1934년 광고에서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1934년 4월 ‘쿠라브(Club)치약은 일본의 자랑이며, 올바른 마음은 국가를 지키고 좋은 치약은 신체를 지킨다.’와 같았다. 1934년 5월 쿠라브 치약으로 치아는 건강의 제1선이므로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자고 하였다.⁴⁶⁾ 1935년 2월 일본의 자랑 다이남코표(大楠公印) 쿠라브 치약을 사용하므로 ‘나라를 지켜라’, ‘치아를 지켜라’라는 것이었다. 치아는 건강의 생명선으로 건강호국의 희망에 불타서 아침저녁으로 양치질하자는 것이었다.⁴⁷⁾ 쿠라브 치약은 놀라울 정도로 치아를 튼튼하게 해서 충치가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⁴⁸⁾

1934년 10월 쿠라브(Club) 치약에서는 구강위생전람회를 조지야(丁字屋)백화점에서 개최하였

다. 행정기관과 치의학계 후원으로 처음 열린 이 전람회는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수십 종의 포스터, 실물모형, 사진 등이 활용된 치과 전반을 다룬 큰 규모의 행사였다.⁴⁹⁾

주최; 쿠라브(Club) 치약 본포 나카야마 타이요도(中山太陽堂)

장소; 정자옥 백화점 4층 홀

기간; 1934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후원; 조선총독부 위생과, 경기도 위생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경성치과의사회,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구강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기 위하여 쿠라브(Club) 본포 표어인 ‘뉘으면 빛나는 이(齒)와 마음’, ‘입의 관문은 좋은 이(齒)로 지켜라’라는 표어로 포스터, 실물모형에, 사진 등을 이용하여 전시회를 하였다. 치아 병증의 난치로 알려진 치조농루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채로운 것은 구강중심감염계통을 나타낸 높이 11척이 넘는 나체미인 모형에 전기응용으로써 구강질환의 각 감염계통에 대하여 전시한 것이었다. 참관자가 많아 정리와 설명에 힘이 들었는데 출품 목록 96가지였다.⁵⁰⁾

1935년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관계 당국 및 라이온 구강위생부의 후원도 활발하게 되었다.⁵¹⁾

1935년 6월 4일 행사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가

43) 『滿鮮之齒界』 3권 8호, 1934.

44) 『滿鮮之齒界』 3권 10호, 1934.

45)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0권 1호, 1934. 4. 20.

46) 『滿鮮之齒界』 3권 10호, 1934.

47)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권 3,4호, 1935. 2. 27.

48) 『滿鮮之齒界』 6권 7호, 1937.

49) 『滿鮮之齒界』 3권 10호, 1934. 40쪽. 구강위생전람회

크라브 본포 표어인 “뉘으면 빛나는 이와 마음” 등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구강중심감염계통을 나타낸 높이 11척의 나체미인 모형은 전기장치응용이었다. 구강질환에 대한 96항목의 전시였다.

50) 『滿鮮之齒界』 3권 10호, 1934. 40쪽

입은 현관청소가 중요

입안의 매균은 피 속에 들어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순환계통에 오는 병의 경로)

사람의 신체의 하수도과 매균(임파계통에 질병을 일으킴)

맹 지역 치과의사회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인 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1936년 6월 4일 행사는 선전물을 각 치과의사회에 더 많이 보내어 구강위생사상을 널리 알리게 하였다.

1937년 이후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일제와 치약회사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표어를 제정하고, 이 표어에 맞게 전국민에게 치과위생 지식 보급과 실천하도록 하였

결핵과 입안의 매균(호흡기 계통에 질병을 일으킴)

류머티스의 사람은 없는가(호흡기계통에 질병을 일으킴)

위(胃)에는 이(齒)가 없다(소화계통에 질병을 일으킴)

입과 이(齒) :

1. 구강 2. 구강의 위치 3. 치아 4. 상악두(上顎竇)와 이(齒) 5. 이(齒)의 이름 6. 치의 구조 7. 유치의 발생 8. 유치의 형성기 9. 영구치의 발생 10. 유치의 맹출과 그 순서 11. 영구치의 맹출과 그 순서 12. 영구치의 출은 13. 각종 동물과 이 = 성성(猩猩), 견(犬), 중(狢), 호(虎), 웅(熊), 마(馬), 우(牛), 러(麗), 면양(綿羊), 저(猪), (돈)豚 외 4종 14. 구강의 기계적 소화 15. 식괴 형성

16. 저작운동 17. 타액선 18. 이와 발음 19. 이에 분포하는 신경과 혈관

이(齒)와 용모

20. 이(齒)와 미(美) 21. 치아의 형태와 안모 22. 이(齒) 및 악골과 안면미 23. 이(齒) 및 치궁과 안모의 기형 24. 토순 25. 여성의 용모와 치아 26. 치아와 장식

우식과 치조농루

27. 우치의 성장 28. 우치의 구조

29. 우치이환률 가. 구미 학동 각 영구치 우식 이환률표(미브트씨) 나. 구미 학동 각 영구치 우식 이환률표(셋프씨) 다. 일본인 각 유치 우식 이환률표(中山 구강위생연구소 조사) 라. 일본인 각 영구치 우식 이환률표(中山 구강위생연구소 조사) 마. 우치의 소유자가 몇 명 있는가? 바. 한 사람이 몇 개의 우치를 갖는가? 사. 일선 학동 우식 이환률 비교표 30. 우식의 호발부위 31. 문화와 우식 32. 원시인과 우식 33. 야만인과 우식 34. 직업과 우식 35. 영양과 우식 36. 설탕류와 우식 37. 설탕 소비량 가. 세계지부 나. 조선지부 다. 일본지부 38. 우식의 계발증 39. 치성상악 축농증 40. 치조농루 41. 마모증 42. 교모증 43. 침식증

구강의 질병

44. 괴양성 구내염 45. 아프타성 구내염 46. 홍독성 구내염 47. 납 중독 48. 수암 49. 아구창 50. 티푸테리 51. 매독성 구강점막 괴양 52. 결핵성 구강점막 괴양 53. 구강 매독 54. 선천성 매독 55. 구강암 56. 구강내 세점 57. 구강중심감염(대모형)

여성과 구강위생

58. 임신과 영양 59. 어린이 한 사람에 우치 1개 60. 임신 중의 질병과 치아 61. 임부의 정신격동과 치아 62. 유아의 발육 63. 유아의 영양 64. 유아와 비타민 65. 유아와 당류의 과식 66. 유아와 편식 67. 치열 부정 68. 치열부정의 원인 69. 아데노이드에 인한 치열 부정 70. 소녀와 치열 부정 71. 소녀시대에 일어나기 쉬운 구강 질병 72. 어머니로서의 주의 73. 어머니의 책임

가정과 구강위생

74. 조리과 치아 75. 오징어는 왜 맛있는가? 76. 장수법의 비결 77. 유아의 구강위생 78. 가정에 있어서의 구강위생

학교와 구강위생

79. 학동의 구강진사 80.이 닦기 교련 81. 저작교련 82. 치아교환 83. 학교에 있어서의 치과진료 구강위생

84. 중치(中齒)의 도깨비 섬 85. 치석 제거 86. 虎와 狢 87. 정확한 칫솔 사용법 88. 칫솔에 대하여 89.치약 90. 양치질하는 방법 91. 呂宋人의 이(齒)

입과 이(齒)에 관한 문예품

92. 俳句 93. 川柳 94. 和歌 95. 標語

입의 미 :

96. 내외 미인의 사진

51) 『滿鮮之齒界』 4권 7호, 1935. 45쪽. ; 4권 8호, 1935. 26-40쪽.

다. 더불어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와 협력하여 행사를 하도록 했다.

이 시기에 특징 있는 행사는 치마교련(齒磨敎鍊)이었다. 1937년 5월 29일 치마교련은 라이온 치마본포 구강위생부에서 계획·실시되었다. 이것은 군대 훈련의 한 방법인 교련을 이닦기에 도입한 것으로 군국적인 요소가 가득 찬 합동체조, 행렬, 합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⁵²⁾ 1937년 6월 23일 경성치과의학회 경성지부회는 치마교련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⁵³⁾ 특히 1938년 6월 4일 오오사까(大阪)에서 행해진 치마교련은 7000명이 나 되는 학생들이 참여한 사진이 오늘에 남아있기도 하다.⁵⁴⁾

1937년 6월 4일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제10회로 일반인의 구강위생 인식을 새롭게 하자고 하였다.⁵⁵⁾ 1938년 6월 4일 제11회 ‘충치예방의 날’은 전쟁 중인 일제와 치약회사의 주도로 선전 방법이 다양화되고 강렬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바른 치열에 빛나는 건강’이라는 표어로, 국민정신총동원의 강령인 국민체위향상과 일반민중보건의생의 취지에 맞게 실시되었다.

1939년 1월 일본은 중일전쟁 후 치약의 광고에서 ‘신동아 건설’이라는 말로 그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들어내고 있었다. ‘빛나는 신동아 건설의 신춘을 맞아, 세상의 건강을 빛과 아울러 앞으로 더욱 라이온 치약의 애용을 바랍니다.’⁵⁶⁾ 1939년 9월 천만인(10,000,000) 협력대운동으로 자기전의 라이온 치약으로 라디오 시보에 맞춰 칫솔질하자고 확일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충치세균은 밤에 자는 동안에 번식하므로, 자기 전에 라이온 치약

과 같은 우수한 치약으로 칫솔질하여 세균을 섬멸한 후 자는 습관을 오늘밤부터 하자는 것이었다.

1939년 3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충치, 치조농루를 예방하고, 건강을 강화하는 약용 라이온 치약의 아침저녁 애용으로 건강의 한길을 가자고 했다.⁵⁷⁾ 1939년 5월 라이온 치약은 입자가 미세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라이온 치약은 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여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강한 흡착제거 작용과 상쾌한 사용감으로 항상 치과계의 왕좌에 있다.’⁵⁸⁾

1939년 다이남코표(大楠公印) 쿠라브 치약은 약용 쿠라브 치약을 개발했다. 치약에 살균제 크롤 카르바크롤 및 요오드 티몰을 배합하였다. 구강내 세균은 번식하여 충치·구취·치조농루 등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며 악성 유행병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약용 쿠라브 치약에 배합된 살균제 크롤 카르바크롤 및 요오드 티몰은 10,000배의 희석액이라도 티프스균, 결핵균을 완전히 사멸시킬 정도의 우수약제로 충치예방으로 건강증진에 더할 나위없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8대 전매특허

제 101971호 산소를 함유케 하는 치약 제조법
제 102120호 오존을 함유케 하는 치약 제조법
제 103433호 과산화수소를 안정된 상태로 함유케 하는 치약 제조법
제 115263호 과산화수소를 안정된 상태로 함유케 하는 치약 제조법
제 116641호 신살균제 크롤 카르바크롤을 함유시킨 치약

52) 『滿鮮之齒界』 6권 6호, 1937. 43쪽.

53) 『京城齒科醫學會雜誌』, 6권 2호; 1937. 127쪽.

54) 『滿鮮之齒界』 7권 7호, 1938. 37쪽.

55) 『滿鮮之齒界』 6권 7호, 1937. 36-39쪽.

56) 『滿鮮之齒界』 8권 1호, 1939.

57) 『滿鮮之齒界』 8권 3호, 1939.

58) 『滿鮮之齒界』 8권 5호, 1939.

제 121478호 신살균제 요오드 티몰을 함유시킨 치약

제 124219호 크로라민을 함유시킨 치약

제 125700호 은콜로이드를 함유시킨 치약

이러한 쿠라부 페이스트치약은 13전이며, 각종 반 페이스트 18-25전이였다.⁵⁹⁾

1939년 산쿄(三共)주식회사는 치조농루 예방에 “알베치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강력한 소독약 Chlorcarvacrol을 주성분으로 한 페이스트형 치약으로 사용감이 쾌적하며, 치조농루의 예방, 치석의 침착 방지, 구강 청소 등에 추천되었다.⁶⁰⁾ 또한 오가와(小川)치과기계점 약품부는 방부가글제 “오데로션”⁶¹⁾과 이시이 세이코(石井正高)상점본점은 “오도놀”을 판매하기도 했다.⁶²⁾

3. 맺음말

인류는 입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칫솔과 치약을 사용해왔다. 칫솔 이전에 이쑤시개는 수메르(Sumer)인, 유대인, 로마인이 사용했고, 고대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양지(楊枝)라 부르며 사용되었다. 근대적인 칫솔은 1780년 영국인 아디스(Addis)가 뼈에 몇 개의 구멍 동물의 털을 이용하여 철사로 묶어 칫솔 만들었다고 한다.

입안을 청결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던 인간은 청결과 구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치약을 사용하게 되었다. 14-15세기부터 소금이 치약에 추천되었다. 한국에서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치약 처방이 있다. 1903년 인천 제물포 상점에서 일본인 아라이 도

라다로오(新井虎太郎)가 칫솔을 라이온 치약과 함께 팔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920년대 칫솔과 치약의 사용은 구강위생에 관한 홍보와 함께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함석태 등 한국인 치과의사와 주한 선교사 반복기 부인의 글에서 알 수 있다.

1927년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품질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때의 치약 광고는 인간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1928년 이후 충치예방의 날은 치과의사회의 주관과 치약회사의 후원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1928년 라이온 물 치약의 광고는 효과로 청량감을 주는 근대적인 맛을 주는 방향 구강청정제라는 것이었다. 1930년 초 세균에 미치는 실험성적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1929년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자기 전에 이 닦자’라는 표어로 자기 전에 칫솔질하는 효과적인 칫솔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30년 8월 30일 구강위생을 사회와 학교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행사는 쿠라부 치약에서는 치마교련용 학생 칫솔이 3000개를 기증하기도 했다. 1930년과 1931년 내구성, 소독의 어려움, 변형이 없는 칫솔과 의치용 특수 칫솔을 광고하고 있었다. 1932년과 1933년 쿠라부(Club)치약과 쿠라부(Club) 칫솔의 광고는 이를 닦는 좋은 습관과 진보하는 좋은 치약은 근대인의 건강생활에 필요한 제1조건이라고 했다.

1934년 ‘충치예방의 날’행사는 충치를 국민병이라 하며 박멸하자고 했다. 1934년 광고에서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1934년 4월 ‘쿠라브(Club) 치약은 일본의 자랑이며, 올바른 마음은 국가를 지키고 좋은 치약은 신체를 지킨다.’와 같았다.

59) 『滿鮮之齒界』 8권 9호, 1939.

『京城齒科醫學會雜誌』 7권 4호, 1939.

60) 『滿鮮之齒界』 8권 5호, 1939.

61) 『滿鮮之齒界』, 8권, 1939.

62) 『滿鮮之齒界』, 8권, 1939.

1934년 10월 크라부 치약에서는 구강위생전람회를 조지야(丁字屋)백화점에서 개최하였다.

1934년 4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경품을 걸고 판매하였다. 1934년 7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원료 분말이 미세한 윤제 라이온 치약을 광고하였다.

1937년 이후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일제와 치약회사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와 같이 행사를 하도록 했다. 이 시기에 특징 있는 행사는 치마교련(齒磨敎鍊)이었다. 이것은 군대 훈련의 한 방법인 교련을 이닦기에 도입한 것으로 군국적인 요소가 가득 찬 합동체조, 행렬, 합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8년 6월 ‘충치예방의 날’은 국민정신총동원의 강령인 국민체위향상과 일반민중 보건위생의 취지에 맞게 실시되었다. 1939년 1월 일본은 중일전쟁 후 치약의 광고에서 ‘신동아 건설’이라는 말로 그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들어내고 있었다. 1939년 9월 천만인(10,000,000) 협력대운동으로

자기전의 라이온 치약으로 라디오 시보에 맞춰 칫솔질하자고 획일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1939년 3월 라이온 치약의 광고는 충치, 치조농루를 예방하고, 건강을 강화하는 약용 라이온 치약의 아침저녁 애용으로 건강의 한길을 가자고 했다. 쿠라브 치약은 치약에 살균제 크롤 카르바크롤 및 요오드 티몰을 배합하여 약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돌이켜 보면 처음의 칫솔과 치약의 광고는 인간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구강위생을 사회와 학교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1934년 광고에서는 ‘쿠라브(Club)치약은 일본의 자랑이며, 올바른 마음은 국가를 지키고 좋은 치약은 신체를 지킨다.’와 같이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1937년 이후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와 같이 군국적인 요소가 가득 차게 되었다. 1939년 천만인(10,000,000) 협력대운동으로 자기전의 라이온 치약으로 라디오 시보에 맞춰 칫솔질하자고 획일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일본 치과의료보험 제도의 역사

권 호 근*

1. 1883년-1917년 일본 의료보험 제도의 시작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비스마르크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독일에 유학한 내무성 위생국에 있었던 후등신평(後藤新平)이 귀국해서 위생국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일본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입안하였다. 후등은 광산, 방적, 제지, 기계, 인산(燐寸), 조선의 6가지 사업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질병보험을 시행시키고, 여기에 국고 보조한다는 “노동자질병보험 법안”이라는 형태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독일제도를 완전히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은 아직 일본의 공업화가 진전되지 않았고 후등 자신도 대만으로 진출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15년 남짓 후 러일전쟁 후에는 공업화가 진전됨과 동시에 전후의 경제공황이 도래하여 생활빈곤자층이 넘쳐나게 되어 이에 대한 민간의 구빈, 구호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또한 기간산업이었던 방적, 철강, 조선 등의 기업에서는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상호공제조직을 만들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1910년대가 되어 종방공제조합, 미쓰비시 조선 구호기금, 8번째철소 직공공제회, 제국철도청구호조합 등이 한꺼번에 설립된다. 방법은 모두 기업이 중심이 되고 거의 직영영업소의 형태 아니면, 지정축탁제라는 형태였다. 한편, 영국의 우애조합

을 모델로 한 노동조합 같은 것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 상호부조라는 형태의 것도 보여 진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직영식에 가까운 것으로 대상은 공상(公傷:공무집행 중 입은 부상)이 중심으로 되었다. 한편 민간의 구빈활동과, 이에 수반하여 각지 의사회 등에 의한 구호권의 발행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구호활동은 국고지출의 긴축 때문에 생각할 수 없었고, 사회불안이 높아가는 것에 대해 민간의 각종 자선사업활동에 보조금을 지출한다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였고 이를 위해 중앙자선협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가운데 명치천황은 1911년 “어려운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 보급이 없어, 천수를 누릴 수 없음은 짐이 최고 진념하여 애석한 것”라는 취지의 “시약구료의 대소”를 낸다. 그것에 이어서 내탕금(內帑金) 150만엔과 각지의 유산자로부터의 기부금 2,400만엔으로 은사재단제생회가 설립되고, 각지에 의료시설을 만들어 구호활동을 하게 된다. 바로 그 무렵 의사법, 치과의사법 제정에 기초하여 의사회, 치과의사회 규칙이 제정되고 군, 시 단위에서 더욱이 부현 단위의 의사회, 치과의사회가 만들어져 이들 모임에서도 제생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스스로 구호활동을 하는 것도 활발해진다.

鈴木은 池田 외 5명 등과 같은 금융계의 진보적인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재단법인실비진료소를 설립하여,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등의 5개소의 병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본 글은 일본 구강보건협회가 발간하고 사카키바라 유키덴로우가 저술한 사회보험치과의료소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글이다.

원을 만들어 “비단 의료는 아니지만 면포의료”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저가의 진료를 시작하였다.

그 무렵 치과 쪽에서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2개의 치과의학전문학교의 졸업생이 나오게 되고 치과의사의 수도 많아져 치과의사회도 활발히 활동하게 되어 靑秋치과의사회, 靜岡縣치과의사회, 福岡縣치과의사회 등을 시작으로, 각 지에서 구호권을 발행하여 시료의 활동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喜多見은 “치과와 빈민구호”라는 논문을 쓰고 구호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에 대해 치과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喜多見가 일본치과의학회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할 때에 도중에 중단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2. 1917년-1922년 건강보험제도 발족의 준비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실제 전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제1차 대전을 계기로 중공업이 발전하여, 인구의 도시 집중화, 노동계층의 증가, 이에 수반되는 소위 중간층의 발생이라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전쟁 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생활 불안이 증대되어 정부는 폭리 단속령 등을 내고 이를 억제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었다.

그 무렵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그것에 이어지는 형태로 전국 각지에서 소위 쌀 소동이 일어났다. 7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었다는 점에서 혁명 전야의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회 불안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먼저 탄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 종의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이 때, 소위 민간 사업단체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정부도 구제사업조사회를 만들고 소위 공인시장

의 설치, 주택개량, 실업보험대책 등을 내놓았다. 이런 배경 하에서 尾崎 외 3명 등 당시의 비교적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야당의 헌정회에서는 강령으로 “사회개량의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호를 걸고 대응하였다.

쌀 소동 직후 노동보험제도의 도입을 정하고, 江木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법안, 공장법개정안, 질병보험법안 등 일련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시책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 43회 제국의회에서는 “질병보험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또한 독일 비스마르크 형의 정책 취지로서 “노동자의 질병에 의한 고통을 구제하여, 노동자들의 사상이 좌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조한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체 54조에 걸친 구체적인 제안이었지만, 심의를 못하고 끝났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농상무성 공무국 중에 노동과를 만들고, 노동보호대책의 검토를 시작하며, 사무관 靑水를 구미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일본 의사사회도 이런 움직임에 부응하여 부내에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제도 조사회”를 만들고, 주로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헌정회의 질병보험법안은 제 44제국의회에서도 제안되었지만, 심의를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전체의 흐름은 확실히 그 필요성에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안요강”을 모아서, 이를 노동보험제도조사회에 자문하고, 답신을 경유하여 제45회 제국회의에 정부제안으로 제출하고, 같은 때 제출되어 있던 헌정회안 보다도 먼저 심의되고 가결되어, 1922년 3월에 공포되게 된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1) 피보험자는 공장법 및 광업법 적용사업소 노동자로 하고, 년 수입 1,200엔 이하의 자로 한다. 단, 임의보험자로 되는 것은 인정한다.
- 2) 보험사고는, 업무상 또는 업무상 외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으로

한다.

- 3) 보험자로서는 상시 300명 이상을 사업주는 건강보험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 이외는 정부관장으로 한다.
- 4) 보험료는 임금배례식이다.
- 5) 급여에 가족 급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 6) 일응(一應)지정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이미 민간 공제조직의 운용 상황을 참고하고, 또 당시의 유럽 제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 실은 정부가 모두를 관장하는 방법으로 외국에는 없던 방법이었다. 또 업무상의 것까지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소위 건강보험 파업의 한 가지 원인으로 된다. 이 제도에 대해 의료계로서는 일응지정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치과의사 측으로부터의 큰 반발도 일어났다.

이 때 치과의사의 급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설명 중에서 과도적인 규정으로 정부관장의 경우에는 당분간 치과의료 중 보철치료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치과보철치료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이를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편이 보험재정상 안전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연합치과의사회는 즉시 회장 이름으로 내무대신에 대해 치과의료는 보철치료를 포함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철치료를 제외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한편, 일본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취합하는 움직임을 시작한다.

- 1) 의료급여에 대한 보험자와 의사회가 잘 협정하는 것
- 2) 피보험자에게 의사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소위 단체자유선택주의를 취한다는 것
- 3) 진료에 관한 보수는 완전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할 것

- 4) 의료비에 대한 규정 등은 미리 의사회와 협의하는 것

일본의사회의 자유선택제라는 것은 “의사의 지정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독일의 질병 보험 초기, 의사회 측이 강하게 주장하였던 자유선택제와는 약간 다르다. 일본의 자유선택제의 경우는 먼저 일본의사회와 정부당국과의 사이에 계약을 맺고 피보험자는 의사회 회원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때 이미 운영되고 있었던 공제조합에서는 직영식과 지정축탁의 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연합치과의사회에서는 이미 치과의사법 개정 문제와 진료보수규정, 치과기공소 문제 등의 검토를 위해 만들어져 있었던 치과의제조사 회 중에서 새로운 제 4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 생긴 건강보험법의 대응방법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일본연합치과의사회는 일본의사회와 공조하여 회장 血脇은 내무성 사회국장관 長岡에 대해 다음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상신을 시행하였다.

- 1) 요양의 급여는 단체자유선택주의를 시행할 것
- 2) 이는 지역치과의사회를 단위로 하여 시행할 것
- 3) 지역치과의사회가 실무를 담당할 것
- 4)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급여하는 요양급여증을 제시하여 요양을 받을 것
- 5) 지역치과의사회 회원은 일정의 양식에 의해 각자가 치료한 피보험자의 치료 및 기공비 청구서를 일정 기간 내에 지역치과의사회에 제출할 것
- 6) 일본치과의사회에 건강보험부를 만들어 전국 지역치과의사회의 통일을 꾀할 것
- 7) 지역치과의사회는 보험심사위원을 두고 회원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청구에 대해서 검토 사정을 하여 일본치과의사회에 보고할 것
- 8) 치료 및 기공비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의 총회에서 정할 것. 그 비용은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고액일 경우에는 엄정히 심사할 것

- 9) 지역치과의사회는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의 가입인원에 대응하여 의료급여비를 받을 것
- 10) 지역치과의사회는 보험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의 일부를 사무비로 하고 그 중에서 일정 표준에 의해 일본치과의사회건강보험부의 사무비로 납부할 것
- 11) 지역치과의사회는 요양급여비 및 사무비에 잉여금이 생길 때에는 예비비로 하여 적립하고 예비비의 일부를 가지고 사회적 사업을 시행함

단체자유선택제를 전제로 하여 의사회, 치과의사회의 조직을 공공법인으로 바꿀 필요에서 먼저 의사법의 개정이 시행되고 새로운 일본의사회가 설립되어, 北里가 회장이 되었다. 정부도 실시준비 중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정부의 운영에도 다소의 장애가 발생하자 건강보험법의 실시를 연기하고 약간의 법 수정을 거쳐서 1927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앞의 의사회의 선례를 따라서 치과의사법의 일부 개정이 시행되고 일본연합치과의사회는 해산되었으며 새로운 공공법인으로 일본치과의사회가 설립되었다. 국가로서는 내무성 보험국에 보험부를 두어 체제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전국 50개소에 건강보험서를 두었다. 결과적으로 소위 단체자유선택제는 관철되었고 주요 실무는 지역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제도 전반으로는 먼저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절반이 원칙이지만 피보험자는 표준보수액의 3/100 이하의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길 때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무렵 급여는 소위 노동자의 업무상의 상병에 대한 보험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의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관련하여 업무

상 외의 것이 배제되기 시작한 때는 태평양전쟁 후의 노동기준법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제정된 이후이다.

급여비 지불 방식에 대해 정부관장에서는 일본의사회, 일본치과의사회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그것에 기초하여 지역치과의사회 마다 전월 말의 피보험자 수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청부액이 지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조합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합이 주로 지역치과의사회, 사업소 의원, 공립병원 또는 축탁의 등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지불방식에 맡겨져 있었다. 정부관장분에 대해서는 청부방식을 취하고 일본의사회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1명당 1년에 7원42전6리7모, 일본치과의사회는 68전5리의 액수로 계약하였다. 지역 별로 전월 말의 피보험자 수에 대응해서 청부액의 1/12를 수취하고 여기에서 8.5%의 비율로 사무비를 공제한다는 것을 회원의 그 월 가동점수에 응하여 지불한다는 방식이었다. 각 진료내용별 진료보수 점수는 일본치과의사회 건강보험진료보수 점수계산규정의 별표로 구해졌다. 이것은 그 무렵의 관행진료보수를 토대로 하여 1점을 10전으로 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 같은 준비를 갖추어서 1926년 12월 16일에 일본치과의사회장과 사회국장 사이에 “정부 대 일본치과의사회 계약서 및 각서”를 교환하고 조인해서 익년 1월 1일부터 발족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정부관장분의 사업소 수는 43,628개였고, 피보험자 수는 1,140,865명이었다. 이에 대해 조합관장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합 수는 316개였고 피보험자 수는 800,581명으로 양쪽을 합해도 200만 명이 넘지 않았다.

이 무렵 외국의 제도에서는 정부가 보험자가 되는 소위 정부관장이라는 방식은 없었고,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었지만, 이미 이 무렵 관업공제조합과 동시에 민간 기업체에서도 공제조합을 갖고 그것이 의료의 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었다.

1922 시가

3. 1922년도 건강 보험 도입 시 일본 치과 의료계의 상황

건강보험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에는 치과의학 전문학교 8개, 치과대학교 3개가 있었다. 치과의 사수도 13,000명 정도로써, 주로 도, 시 단위로 치과 의사사회가 조직되었다. 각 시(市)의 치과 의사사회도 일본연합 치과 의사회의 가맹단체 중 한곳이었다. 그 무렵, 일본전체에서는 결핵이나 급성전염병에 대응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였으며, 한편 빈곤과 질병과의 관계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회·의학적 시각이 대두되었다. 당시의 일본 치과 의사회의 위상은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하면서 직업적 자율성이 확립되려던 시기였다. 당시 일본 치과 의사회 회장은 치과 치료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노동자의 복지를 위하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비 진료라는 형태로라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치과 의사회장의 이러한 생각은 보철치료가 건강보험에 도입되게 하였다. 이당시의 일본 치과계의 임상 진료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당시, 경비(經費)진료라 불리는 치과 진료는 기준이나 원칙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물론 그 당시 일부 뛰어난 임상가들 이나 치과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에 치과 의료의 수준이 매우 뛰어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약 13,000명의 치과 의사 중에서 정규 치과의전문학교 출신자는 연령이 낮았고, 그 비율도 낮았다.

4. 건강보험에서 보철급여의 도입 시 상황

1922년 일본에서 건강 보험 시작 시 보철 치료의 경우는 일반 의료와는 성격상 다르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일본 후생성 관리는 보철 급여를 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였으나 일반의 예상과

는 달리 치과 의사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치과 의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현재의 일본 치과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

후생성 관리가 보철 급여를 배제시키려 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기에 모델이 되었던 유럽의 건강보험 현황

- 유럽 15~6개국 이 건강보험제도를 시행 중이었고, 치과급여를 하고 있던 곳은 그 중에 절반 정도였으며 이중 보철급여를 하고 있던 곳은 영국, 헝가리, 소련 등 극소수였다. 그것도 법정급여가 아니라, 부가급여가 대부분이었다.
- 사회적 통념상 치과보철치료에 대한 인식은 의수나 안경처럼 상병치료 결과로 남은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수단일 뿐 치료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질병 발생 시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 재활 치료적 성격의 보철 치료를 포함 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후생성 관리들은 생각하였다.
- 건강보험이 상병치료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치과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철치료를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이유는 그런 의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로 보험 재정상의 문제였다.

상기 이유로 유럽의 제도, 특히 독일의 제도를 모델로 삼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당초 보철급여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후생성 관계자들 내에서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1922년경, 보험국장은 치과보철은 매우 고가이므로 제도의 운영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보험재정 안전을 위하여 정부 관장 보험에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치과 의사사회에서는 보철급여에 관하여는 경우에 따라서 급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

험에 보철급여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치과계 전체에서도 태도가 일치되지 않았다.

1935년에 국민건강보험제도안에 대한 일본 치과계의 의견은 치과의원 경영상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과보철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철 수입은 치과 의사에게 있어서 중요하므로 보험에서 제외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실제로 당시의 시, 동, 면의 재정상태로 보아도 치과보철 급여에 관하여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고, 보철급여를 하지 않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당시의 일본연합치과의사회는 치과급여에서 보철 제외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보철급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시행 즉시 보험재정상의 이유로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보철급여의 제한이 시작되게 되었다. 당시 일본 치과의사회가 보철급여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배경은 치과의사의 전문가적·직업적 위상이 의사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

5. 건강보험제도 발족 시 급여범위와 급여체계

보철 급여범위: 고무상(床)의치, 도치관, 구치금관(충전으로 수복의 가망이 없는 것에 한정)이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 즉 전치금관을 제외하면 대략 당시의 보철범위 대부분에 해당한다. 재정상의 이유로 급여금액이 1회 20엔을 초과할 때는 미리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은 보철급여의 경우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발족 시에는 정부관장분에 대해 일본치과의사회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급여의 지불은 인두제 방식으로 1인당 치과진료 부담액을 연간 68전으로 급여 받고, 그 중에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부관장

분에 관하여는 먼저 도, 시 마다 그곳의 피보험자수에 따라서, 도급금액이 배분되고, 그것을 각각의 총 청구 점수로 나누어 그 월의 1점단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각 의사에게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도, 시 또는 매월 마다 1점단가가 변하였다. 이는 현재 대만의 총액예산제와 유사한 제도이다.

6. 보철 급여 제한을 위한 조치

(가) 승인제의 도입

치료받는 비율 및 금액에 관한 폭이 넓어서 도급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보철급여에 대해 도급제를 포기하고, 각 항목에 관하여 정액으로 급여하게 되자 금액으로 표시하였다. 보철을 제외한 도급액을 61전으로 하고, 보철의 경우는 사전에 건강보험조합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였다. 이른바 승인제의 도입이다.

(나) 책임기간의 설정

8월에 정액(定額)을 약간 수정하였다.: "보철에 관하여는 보철 완료시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조절 제작하고, 수리한 경우는 그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른바 책임기간이 설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조치로 단가 격차는 다소 수정되어 전체적으로 개선은 되었지만, 이것은 치과급여 전체에 관하여도 수진의 용이성과 피보험자의 치과에 대한 의식 등에 따라서 수진 양상이 크게 좌우되었다. 수진상황에 따라 단가 차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므로, 1927년 10월의 계약갱신시, 총액에 관하여는 제한이 있었지만, 치과급여 전부를 인두제가 아닌 정액식으로 개선하고 금액 표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철급여 제한은 치과 의료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일본 치과의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제한철폐 및

완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험재정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 철폐 주장은 현재 보철 보험을 반대하는 한국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외적인 사례이다.

(다) 치아수 제한의 완화 (특별보철 명목)

직장건강보험이 발족할 즈음 6개 치아 이하 결여 시 저작능률이 50%이상인 경우는 특별보철로 급여한다고 개선하였다. 즉, 치아수의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 특별보철 조건은,

- 1) 연속 3개 치아 이상의 결손, 또는 대구치 3개 치아 이상 결손인 경우
- 2) 대구치 및 소구치의 합계가 4개 치아 이상 결손인 경우
- 3) 5개 치아 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로 되었고, 직장건강보험이 정부관장보험에 통합되었을 때 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라) 특별보철이란 명목 폐지

1941년 4월에는 이 특별보철이란 명목도 폐지되었지만, 이때 치아 수 제한만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1948년 이후에 완전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철급여 제한은 치의학적 입장이나 국민의 요구보다는 보험재정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 되었다.

(마) 초기 급여 상황

실제 시행초기 피보험자 1명당 급여액 상황은 급여액의 1/4이 보철급여였다. 일본에서 초기 보철 급여의 제한은 재정적인 제한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7. 일본에서 보철급여 시 차액 징수제 논쟁의 역사

보철 치료의 재료사용의 다양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본의 경우 보철급여의 초기부터 차액징수제가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보철 치료 재료의 사용 역사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제도 초기에는 보철의 금속재료로써 금합금이 사용되었다. 1931년 말 국가에서 금 수출금지 조치가 취해질 무렵부터 금값은 급등하였고 치과재료로써 금사용도 어렵게 되어 대용합금이 활발히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보철급여와 clasp용으로써 18-8구리, 관용으로써 은합금, 은파라디움 금합금 등이 도입되어, 금합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1955년경 금의 사용도 부활하여 급여되었다. 한편 구개측바, 설측바 등의 18-8동, 니켈크롬합금, 모리브덴합금 등의 도입 등으로 재료가 다양해졌다. 그와 동시에 그 재료에 관하여는 국가검정제도가 실시되었다. 주조clasp가 급여에 도입되었을 때 14k 금합금이 채용되고 금합금의 사용 폭이 점차로 넓어지게 되었다. 합금관의 적응증 명시 : 1955년이 되어서, 잠시 중지되었던 금관 급여가 부활되었을 때, 합금관과 금관이 급여로 공존하게 되었으므로 합금관에 대하여 금관 적응증을 명시할 필요가 생겼다.

(1) 차액징수의 적용

합금관 적응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금관을 원할 경우, 급여 계약에 없기 때문에 합금관을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의 해결책으로 차액징수제를 제시하였다.

- “술자의 관행요금(점수로 환산하여)에서 사회보험의 금파라디움관 또는 은합금관의 점수를 공제한 금액을 본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하여도 좋다.”고 허용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차액징수를 허용한 시초이다.

(2) 차액징수 범위의 확대와 논쟁

1967년 11월에 더욱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통첩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과급여의 차액징수에 관하여 격렬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 차액징수에 대한 논쟁의 2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른바 관행요금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비싸다는 것으로써, <차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기술료의 이중 계산론> 이었다.

이것은 당시 의료분업과 겹쳐서 진료수가 구성은 <보철물> 과 <기술> 단가의 총합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만일 그렇다면 합금관의 급여액 중에는 대상물으로써 합금부분과 기술부분과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재료를 합금에서 금합금으로 바꾸는 경우에 차액이란 재료부분만을 차액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금관으로 정해진 관행요금과 급여금액과의 차액이 된다면, 기술부분이 이중으로 계산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합금관을 위한 기술과, 금관을 위한 기술에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은 있었지만, 그 차액의 크기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이를 계기로 사회적인 분규가 일어났다.

논란의 결과 1976년이 되어서 이른바 <재료차액>만을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철급여의 경우 수가에 대한 생각으로써 단순히 <기공물> 과 <기술>로 나누고, <기공물> 그 자체도 <기공물을 제작하는 기술>과 <의료 기술>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다.

8.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상황

이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어 전국 동원체제가 됨으로서 1942년에 국민의료법에 의한 치과의사회의 개편이 시행되어 일본치과의사회장도 관선으로 선출하게 되었고, 의사회의 성격도 자율성을 없는 국가 종속기관처럼 변했다. 건강보험에 관하여도 그때까지는 일본치과의사회나 도, 시의 치과 의사회가 지도감독을 해왔으나 개편 이후 국가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까지 일본치과의사회와 정부와의 계약에서 정한 <치과진료방침>이 후생성대신의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 보험치과 의료 담당규정>으로 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박탈은 결국 일본 치과계가 어려워진 원인 중에 하나이다.

(1) 1945년 종전 후 건강보험의 진료방침에 의해 견인되는 시기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져 건강보험제도도 거의 기능을 잃고 있었다.

(가) 종전 후의 치과임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당시 일본의 치과 의료 수준은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점령군본부의 공중위생복지부 치과담당관은 일본 치과의 부적절한 진료를 지적하고 경고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게 되어 건강보험 진료방침의 영향력도 점차 커졌다. 이 후 일본 치과이사회는 보험 진료의 수준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많은 진료 지침을 개발하였다.

(나) 보험급여의 점수는 계속 상승

이른바 자유진료 보수와의 갭이 커져서 차액징수 일부를 용인하게 되었다.

10. 1947년

사회보험진료수가산정협의회 개설과 정부주도 운영

1944년 전쟁 중에 정부와 일본의사회, 일본치과 의사회와의 계약에 따라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은 종결되었고 진료수가는 정부가 주도하게 되었으며, 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어도 급방식을 중단하고 정액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단가점수방식이 시작되었다. 즉 진료수가를 정하려면 정부와 의사회, 치과의사회의 계약이 아니라 학자들이 포함된 별개의 기관을 만들어서

협의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사회보험진료수가 산정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현재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전신이다.

(1) 의약분업의 준비와 시행

의약분업은,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강하게 요청하였다.

1951년 1월, 임시진료수가조사회에 <진료수가>를 <대상물의 보수>와, <기술보수>로 분리하는 새로운 의료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자문을 내렸다. 즉, 의약분업 실현을 전제로 신 의료비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진료수가 단가 인상에 대한 후생성의 제안과 분류 : 갑표와 을표의 실시

후생성은 1932년 3월의 의업경제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1958년 제경비의 변동을 감안하여 분석하고, 그 때의 상태를 8.5%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가인상이라는 기계적 방법이 아니라, 점수의 불합리한 점도 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담당자의 사무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겸하여 1점 단가를 10엔으로 고정하려고 의도하였다. 점수개정에 관하여는 갑표와 을표 2가지안으로 보험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긴다고 제안하였다.

- 갑표 : 기본진료비와 특별진료비로 나누어, 기본진료비에서는 건수 당 지불하는 방안을 가미하고, 초진 시 및 재진 시로 구분하였다. 특별진료비에서는 각각에 관한 비용을 넣어서 기본진료비를 가산하였다.

- 을표 : 종래의 낮은 금액이었던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에 점수를 올리고 그 외는 대체로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분류가 발생하였었다. 일본병원협회가 일본의 사회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일본 의사회는 회의를 보이콧하였다. 결국 후생대신과 일

본의사회장과의 절충에 의해 1958년 6월에 고시되어 10월에 갑표 및 을표가 실시되었다.

(3) 갑표와 을표의 선택과 단가 고정

일본의사회 회원의 95%는 을표를 채택하고 일본치과의사회 및 국공립병원은 갑표를 채택하였다. 갑표는 대상물과 기술을 나누고 기술을 중요시 하였으며, 을표는 종래 형태의 수가체계였다. 이때부터 단가를 10엔으로 고정시키고 점수를 수정하면서 진료수가를 개선한다는 물이 생겨났지만 이에 대하여 일본의사회가 불만을 품고 1960년대 말에 제한진료의 철폐, 1점단가 3엔인상, 청구사무 간소화, 지역편차의 철폐, 갑을2표의 일원화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정치투쟁에 돌입하여 1961년 2월 중 하루를 일제히 휴진을 하였다.

국가에서는 진료수가 인상을 실시하였지만, 단가가 아닌 점수로 1.12를 곱하는 방법이였기 때문에 다시 분류가 발생하였으며, 그해 연말에 긴급시정이라는 형태로 인상을 실시 단가를 10엔으로 고정하고, 점수개정으로 진료수가를 개정한다는 방식은 정착되었다.

11.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약칭 중의협)의 연혁

일본에서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기관은 중의협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직이다. 일본의 경우 중의협을 둘러싸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이 갈등과 협조의 과정을 거쳐 왔다.

(1) 도입 시기 (중의협의 전신인 진료수가 산정협의회)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는 각각의 조합이 의사회, 치과의사회와 계약하고 보수금액을 결정하였다. 최초에는 인두도급방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치과에서는 일본치과의사회

가 관행의 요금규정을 참고로 1점 10전을 기준으로 점수표를 만들고 그 점수표로 청구하는 것이었다. 계약이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정부와 의료기관단체의 2자 구성이었다. 치과가 전부 금전표시를 정액식으로 하였을 때에도 역시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보험 재정은 항상 어려워져 계약 갱신 시 원만하게 결정된 적이 없었다. 태평양전쟁의 추이에 따라서 거국일치제도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되자 정부와 일본치과의사회와의 계약도 점차로 국가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일시도급방식으로 되돌아 온 것을 1943년이 되어 정액식으로 수정하였으나 이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액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가 내려졌고 당시의 건강보험법에 <요양비용을 결정하는 후생대신이 일본지사회장, 일본치과의사회장 또는 일본약제사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대로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가 미리 대안을 만들어 놓고 논의하는 형식이었다.

(2) 태평양 전쟁 후 사회보험진료수가 산정협회의 개편

태평양전쟁 후에 이러한 관주도형 기관은 사회보험에 적절치 않다는 점령군본부의 시사에 의해 협의회는 새롭게 후생성령으로써 건강보험진료수가 산정협회의 규정을 결정하고 법률적인 위치를 확실하게 하였다. 그 구성도 4자 구성으로 변경되었고 회장도 선출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한 구조이다.

협의회 구성 조직은 보험자를 대표하는 자 5명,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자 3명,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2명, 의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자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5명과 후생성은 보험자 1명으로써 참가하여 구성되었다.

단순히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1949년 1월

에 다시 사회보험진료수가 산정협의회령이라는 이름의 정령(政令)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협의회는 중의협의 원형이 되었다. 이 당시 일본의사회, 일본치과의사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었고, 특히 점령군본부에서 국회와 함께 사회보험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산정협의회 위원은 일본의사회, 일본치과의사회의 대표는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보험의 및 요양을 담당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험진료 지도사항을 심의하고 권고한다.>는 목적에서 사회보험진료협의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산정협의회와 새롭게 설립된 사회보험진료협의회와의 성격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진료수가 산정과 지도 등을 나누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그 무렵 각 관청에 있는 협의회, 심의회, 위원회 등의 통합관리가 행정차원에서 필요해져 1950년 3월 새롭게 <사회보험의료협의회령>이 만들어졌고, 산정협의회와 진료협의회가 통합되었다. 새롭게 통합된 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탄생되었고, 이른바 중의협이 되었다.

최초의 총회는 1950년 6월 16일에 개최되었고 치과 항목점수의 대폭적인 개정 등이 제안되었다. 이 검토 과정에서 러버댐 시술방식 도입이 제안되고 인레이 점수를 높일 것이 제안되었지만 실제 개업의 상황은 건강보험 인레이의 재장착 청구가 많은데다 종말치료 방법으로 부적당하다는 반론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단가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계속되어 일본의사회, 일본치과의사회, 건강보험조합연합회, 피보험자대표측등에서 각각의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격렬한 논의가 있었으나 좀처럼 합의되지 못하였고 결국 12월 7일 대신(장관)고시라는 형태로 해결되었다.

(3) 차액징수를 둘러싼 논의

1974년 11월 제82회 중의협 총회에서 치과의 특이성에 관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

에 대하여 치과전문부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 무렵 치과의 급여에 관한 차액징수 문제가 시끄럽게 논쟁되고 있었는데 이 부회도 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1976년 2월 19일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다.

- 1) 보험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써 차액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 2) 차액징수의 금액을 지역별로 3단계 정도로 결정한다.
- 3) 차액의 경우 사전에 환자의 승낙서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 4) 차액의 경우 요금표를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한다.
- 5) 도, 시마다 고충처리체제에 충실 한다.

치과의 차액징수에 관하여 일본 의사회 측은 <재료 차액에만 국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중의협은 인정하지 않아 이를 중심으로 일본 의사회와 일본 치과의사회의 관계에도 암영이 드리웠다. 차액징수의 취급을 둘러싸고 중의협은 중단되었지만 1977년 8월에 재발되어 의료비인상과 접수배분의 개정이 심의되었다.

중의협은 1978년 1월에 의료비인상에 관한 답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의료기술의 진보에 대응하여 항목을 신설한다.
- 2)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항목을 신설한다.
- 3) 기술의 적정평가를 실시하고, 행위 간, 과목 간의 격차를 시정한다.

(4) 1984년 9월 건강보험법의 개정

병실료나 치과재료의 차액징수에 관하여 법령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하여 특정요양비제도를 도입하여 차액징수를 명확하게 하였다.

차액징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특별 병상의 제공

2) 전치부의 주조치관수복 또는 치관계속에 사용하는 금합금 또는 백금합금의 적용.

3) 대학병원 또는 치학대학 부속병원 기타 고등 전문병원 중에서 지정된 병원의 초진.

4) 특별 주문식품을 포함하는 급식 제공.

의료보험 범위에 들어가기 어려운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고도의 최신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등장하여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런 경우 처리와 보험급여의 조정이 필요해져서 이에 관하여 특정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하였다.

특정요양비로써 고액의 비용 중 일반 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급여를 하고 차액은 본인 부담이었다.

9. 1960년대의 고도 성장기의 급여내용의 다양화와 충실

(가) 치과의사 상황의 변화

1960년대의 경제 고도성장기에는 치과임상의 흐름이 바뀌었다. 경제호전에 의한 치과 의료 수요의 증가와 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수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치과 의료는 융성기를 맞이하였다. 임상가가 직접 외국연수를 가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국내 연수 붐도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치과 의료내용이 충실되고 향상되었다.

(나) 건강보험 상태

한편으로는 치과 의료 보수의 급격한 상승, 치과의사측이 환자를 선택 하여 진료하는 문제가 겹쳐서 치과의사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증가되고 사회문제로까지 되었다. 그러나 치과 의료 내용도는 충실했다.

• 사회보험의료 급여액과 관행보수의 갭은 당연히 커지고, 국민개보험 달성 등, 사회보험의 이용도는 높아졌다. 이것이 이른바 차액징수발생의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대응 방법을 둘러

싸고 분류가 생겨 일본의사회와 일본치과의사회의 관계에도 간극이 생겼다.

- 1970년대에 들어서, 치과의학 교육기관이 급증하고 그 와중에 학원분쟁이 겹쳐서 치과대학 교수요원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교원공급이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교수의 자질과 숫자도 정제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들어 치과의학 교육기관 전체가 치과임상 전체에 미치는 대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 1970년 후반 이후에는 사회보험치과 의료 급여의 다양한 점들이 무원칙은 아니었지만, 비원칙적으로 도입되었다. 넓은 의미로는 사회보험 치과 의료 내용의 충실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된 재정 하에서 진료 항목이 증가됨으로서 보험재정에는 무리한 압박이 가해지고 적절한 진료수가 인상이 억제되는 측면도 발생하였다.

2000년 진료수가

12. 1984년부터 2000년 까지 일본 치과계의 잃어버린 16년

84년 개정으로 정착한 약가재원 충당 방식에 의한 개정은 일본 의사회의 발언력을 현저히 강화시켰다 하였다. 일본의 의사들의 당시 약가 마진은 35.6%(84년. 개인설립 일반의원)의 극히 고율이었다. 의사의 주요한 이익원인 약가기준의 인하만큼 이익이 소멸한다. 일본 의사회는 일본의 의사 기술료가 낮기 때문에 약가 마진은 그것을 보충하는 <잠재적 기술료>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종래는 원칙적으로 의과, 치과의 진료수가 개정이 각각 독립되어 움직여 왔었다. 그러나 개정의 주요 재원이 약가인하 의존 재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약제 비율이 낮은 치과는 거출재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력이 약해지고, 진료수가개정이 치과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구도가 되었다.

81년 6월부터 97년 4월까지의 16년 간의 기간

에 일반적인 진료수가개정이 10회 실시되었지만 의과, 치과의 개정율은 극히 불균등하고, 압도적으로 의과 우위의 개정이 지속되었다. 의과 개정율을 100으로 치과개정율을 상대 비율로 보면 가장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88년의 의과100대 치과 26.3, 가장 격차가 축소되는 때가 85년의 의과 100대 치과71.4로 상대 관계에서 커다란 격차가 보인다. 이 기간의 진료수가개정의 개정 누적치를 계산하면 의과가 48.9%, 치과가23.4%로 치과 인상율은 의과에 반 이하의 수준이라는 참상이고, 실로 <치과의 잃어버린 16년>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중지부를 찍은 것이 의과, 치과 균등 배분의 진료 보수개정이 실현되는 2000년 이후의 개정이었다. 16년간에 걸친 의과, 치과 불균형 개정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였던 것은 중의협의 당시 공익위원(경제학자)이었다. 그 논점은 아래와 같다.

- ① 약가 기준 인하는, 의료 기관의약품 구매 코스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기관의 의업 수입이 감소하여도, 그것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
- ② 약가 인하 재원을 개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의사에게 주로 배분하는 것은 단순한 기득권의 옹호에 불과하다.
- ③ 약가 마진이 의사의 <잠재 기술료>인 것은 용인하지만, 약가인하에서 생기는 의료기관의 약가 마진 상당액을 넘어서는 기술료로의 교체는 불공정하다.
- ④ 약가 인하로 생기는 재원은, 본래는 의료비의 지불자인 국민에 귀속해야하는 성격의 것이고, 의과, 치과 구별 없이 진료 보수의 적정화를 위해 충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수가개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시대 풍조 하에서 이 같은 주장은 당연히 경시되

었고, 의과 우위 진료 보수 개정이 지속되어 왔다.

진료수가 개정의 정책목표는 진료수가개정의 본래의 정책 목표를 통해서 의료 기관의 미시적 안정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80년 이후의 치과 의료 기관의 경영 불안전은 일본의 진료수가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98년 이후 진료수가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 ① 정부의 정책 당국(후생노동성, 재무성)이 종래까지의 불합리한 진료수가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제도 수정을 한다.
- ② 이어서 약가 기준의 인하로 약가 마진이 대폭으로 저하하고, 일본 의사회의 약가 인하분의 기술료 교체의 주장이 약해진다.
- ③ 90년 이후 일본치과의사회가 열심히 해온 의과, 치과진료수가의 불균형 시정 요구가 겨우 용인된다.

1998-2002년 까지 사이에 실시된 3회의 개정에서는 약가인하 재원이 의과, 치과에 균등히 배분되는 것으로 된다. 이 때문에 의과, 치과의 개정을 의 겹은 해소되었고 동율의 개정이 계속되었다.

13. 현재의 일본 의료보험제도

현재의 의료보험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피용자보험(이하 사보)과 지역보험인 시정촌(市町村) 국민건강보험(이하 국보) 그 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사업인 노인보건 법에 의한 의료로 대별된다.

의료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1997년 이후 약가 제도의 수정에 의한 약가 차익의 축소와 포괄화 추진 등 진료보수체계를 수정하고 병상 구분의 수정 등을 시행하는 의료법의 개정, 고령자의 정 율 1할 부담의 도입 등에 수반하는 건강보험법 등 의 개정 등 착실히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더욱이 2002년 7월에는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법이 성립 하여 각 제도와 세대를 통한 급여와 부담이 수정

되고 후기 고령자에 대한 시책의 중점화 및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의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표 1. 일본 건강보험 주요연표

1. 건강보험 사전단계	
1883년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 실시
1888년	이시카와도조선소동맹 진공회 아인광산 우호동맹 오사카 자혜병원
1889년	후쿠이제생회 구호권 발행
1892년	後藤新平, 대일본위생회에서 “노공 질병보험법”의 제언 고송의사회 구호권 강산의사회 구호권
1893년	록아도의사회 구호권 선태의사회 구호권 과생약약송에 제생병원
1894년	황병 십전병원 시료
1897년	노동자 질병보험에의 보조제안 (후등) 철공의회 편산채 킹슬리관
1898년	대일본 구호원 설치
1899년	미도자선회 시료 横山源之助 “일본의 하층계급” 출판 경대부속병원 시료
1900년	육천촌죽촌병원 시료
1905년	종방 공제조합 8번제철소 직공공제회
1906년	의사법, 치과의사법 공포 삼정 자선병원
1907년	제국철도청 공제조합
1908년	중앙자선회 설립

	전매국 공제조합
1909년	하천풍언신호에서 구호활동
1911년	시약구료에 대한 소칙
	은사재단 제생회 설립
	재단법인 실비진료소(鈴木梅四郎)
	청추치과 의사회 구호권
	정강현치과 의사회 구호권
	히다견정행 “치과와 빈민 대책” 발표
1916년	대일본 의사회
1917년	군사구호법
1918년	일본연합치과 의사회

	9월	관동대지진(건강보험법시행연기)
	11월	공공법인 일본의사회 설립
	12월	일본연합치과 의사회 치과 의료제도 조사회 제4회 특별위원회
1926년	3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4월	치과 의사법 개정
		내무성 사회국에 보험부 설치
	5월	일본연합치과 의사회로부터 상신
	10월	건강보험서 설치, 촉탁(50개소)
	11월	공공법인 일본치과 의사회 설립
		일본 의사회 정부와 계약
	12월	일본치과 의사회 건강보험부 설치
		일본치과 의사회 대정부 계약
1927년	1월	건강보험법 실시

2. 건강보험제도 준비단계

1917년	오사카에서 방면위원 위촉
	폭리 단속령
10월	러시아 혁명
1918년	8월 쌀 폭동
	구제사업조사회 설치
	대일본 의사회 질병상해보험제도 조사회
	오사카시치과 의사회 특별진찰권 발행
1920년	3월 헌정회 “질병보험법안” 국회 제안, 심의미료
	9월 농상무성 공무국에 노동과 설치
	12월 건강보험제도조사를 위해 清水玄을 외국 파견
1921년	3월 질병보험법안 심의 미료
1922년	3월 건강보험법안 성립(4월22일 공포)
	11월 내무성 사회국 제2 보험과
1923년	3월 의사법 일부 개정
	9월 일본연합치과 의사회의 보철취급에 대한 의견서

3. 건강보험제도의 초기 단계

1927년	1월	건강보험법 실시
	2월	報知(호우치)신문사 報知(호우치)진료소
	4월	치과급여 중 보철을 정액제로 하고, 승인제로 함
	8월	관공립병원을 의료기관에 편입
	10월	치과의 급여를 전부 정액식으로 함
1929년	4월	일반 진료 방침을 지시
	7월	건강보험서 폐지, 지방청으로 이관
	8월	경찰부에 건강보험과를 둠
1930년	1월	대기 무산자 진료소
1931년	1월	오사카 무산자 진료소
	4월	노동자 재해원조 책임보험법 공포
		동경 의료이용조합
		치과의 정액 10% 인하
	11월	치과 진료 방침 지시
1932년	7월	서병 무산자 진료소
	10월	정액 개정(ウイプラ 도입)
1933년	10월	치과급여를 인두청부식으로 재변경

1934년 3월	의료이용조합
9월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소 건강보험에 포함
10월	건강보험상담소
11월	일본건강보험조합 총연합회 설립
1935년 9월	월곡 순정회
1936년 12월	건강보험조합연합회(1937년 5월 사단법인)

4. 국민건강보험 확대단계, 그리고 의료통제

1835년	(천보)축전중상군에서 정례의 시작
1919년	시마네현 청원촌 의료이용조합
1921년	오사카 매일신문사 자동차, 배로 순회
1922년	간이 보험진료소
1927년 1월	건강보험법 시행
1930년	대기 무산자 진료소
1931년 2월	오사카 무산자 진료소
1932년 4월	국민의료이용조합 협의회
7월	소병 무산자 진료소
9월	도경의료이용조합진료소
1933년 10월	건강보험치과 인두제로 됨
1934년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안 요강(내무성)
10월	건강보험건강상담소(12개소)
1935년 3월	간이보험진료소 치과의 계약(할인)
9월	소화병원, 정강현 도전 공생병원 얏수현 강척병원, 상북병원
12월	국민건강보험 유사조합 설립

5. 치과 보철에 대해서 진료보수제도에 관한 제도개정의 주요 경위

1927년	건강보험법 시행 치과진료에 대해서 급부 개시 단, 의치에 대해서는 7개 치아 이상의 상실 등에 급부를 한정 보철 치아 수의 제한을 개정
1939년	현재의 진료보수 점수표가 제정
1958년	1점 단가는 10엔으로 고정
1961년	국민개보험제도의 확립
1967년	치과재료가격 기준 제정
1970년	장착료, 치관형성료 등의 신설
1972년	보철 시 진단료를 신설
1974년	교합채득료, 임시 시적 신설
1981년	신제작 유상의치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재제작을 규제(제도 발족 당초, 1년 이내 재제작 규제) 유치 금속관의 평가 신설
1985년	지대치 축조의 신설 (1978년 메탈코아 가산 신설)
1986년	전장주조관의 평가 신설
1992년	dummy 3치아 이상의 브릿지를 보험 도입
1994년	금속상의 총의치를 특정 요양비화
1996년	보철물 유지 관리제도 신설 고정의치에 대해 2년 이내의 재제작의 급부를 제한
2002년	초기 우식증의 진행 억제를 평가

한국의 초창기 한국의 치과건강보험은 일본의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 및 인구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 치과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한국 치과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많은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글은 사카키바라 유키텐로우가 저술한 일본구강보건협회 발행 社 會保險齒科醫療 小史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역자 주

* 일본 보철 보험 연대표

1922년	8월 9월	노동보험조사회회의 시행령요강안 (보철은 급여 하지 않는다) 일본연합치과의사회의 반대 제기
1927년	1월 2월 3월 4월 8월 10월	건강보험법 시행 (보철급여) 보철급여에 관한 제도 (7개 치아 50%) 동경도의 3공장에서의 조사 보철급여를 도급액에서 제외하고, 정액식 (금전표시)로 한다. 보철급여의 경우 전부 정액식 치과급여 전부 정액식
1928년	7월	보철 수리급여도 50% 제한으로 한다.
1930년	9월	상하악 교합이 긴밀한 경우, 금속치아 또는 브릿지를 급여한다. 18-8강의 상(床), 관을 취급하는 치과기공소가 설립되었다.
1936년	11월	금대용 합금clasp(위이프라, 브라놀) 급여
1938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39년	6월	보철치아수 제한개정(특별보철) 금대용 합금관 급여
1941년	4월	보철치아수 제한폐지
1942년	4월	은합금, 은파라지움 금합금 급여
1944년	8월	<양익레스트 clasp에 관하여> (후생성)
1950년	9월	금관급여의 부활, 구개측바, 설측바 급여 10월 치과용 재료의 국가검정제도
1951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보험에 보철급여
1952년	11월	14K 주조clasp 급여
1953년	12월	금파라지움 은합금관 급여
1955년	8월	금 사용의 경우, 차액징수 용인 통지 치과기공법 공포
1958년		흑, 스퍼 급여
1965년	1월 3월	유리단의치 가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제한 폐지
1967년		치과재료 가격기준 스터디모델 급여, 합금관 폐지
1972년	9월	탈보험, 계획진료의 어필(일본치과의사회)
1974년	2월	교합채득 급여
1975년	2월	<치아의 112번>
1976년	8월	rebase 급여 차액징수 폐지 통지(재료차액 만)
1981년	6월 7월	사운드체커, 먼테이오키네지오그래프, 체크바이트, 판드그래프, 고딕아치 급여 폴리선폰상(床) 급여
1983년	2월	노인보건법에 근거한 유상의치지도료 급여 니켈크롬 합금주조관 급여
1985년	3월	니켈크롬, 코발트크롬 주조clasp 급여

연대표

1927년	3월	보철급여제한 (7개 치아 50%)
1931년	11월	치과진료방침 (일본치과의사회)
1942년	4월	인레이, 합성수지도입
1943년	3월	건강보험 보험치과의요양담당규정 (고시)
1946년	7월	건강보험 보험치과의요양담당규정 개정 (고시)
	8월	치과교육심의회 보고서
1947년	7월	사단법인 일본치과의사회 설립
1949년	8월	양익레스트 clasp에 관하여 (후생성)
1950년	7월	요양담당규정 개정
	9월	구개측바, 설측바 도입
		가나가와현 치과의사 사회보험강습회(51년 2월까지)
	10월	치과재료 국가검정
1951년	4월	14K 인레이 도입
		사회보험 구강치료 지침(후생성)
	7월	미국 치과사절단 방일
	8월	보험의지도강습회 기준 (일본치과의사회)
1951년	11월	영화 <사회보험치과진료> (일본치과의사회)
	4월	복근관 가산도입
	11월	치조농루 잠간고정 도입
1952년		14K 주조clasp 도입
1953년	5월	치과영역에 있어서항생물질 사용기준
	12월	금파라지움 은합금 도입
1955년	7월	요양담당규정 개정
	8월	보철 차액징수 용인통지
1957년	4월	보험의료기관 및 보험의요양 담당규칙 (성령(省令))
1960년	3월	치조농루증의 치료지침 (일본치과의사회)
1961년		치조농루증의 치료지침 (고시)
	10월	유아초진시 가산도입
	12월	유리단 가산도입
1962년		항생물질 사용기준개정
	10월	일본유아치과학회 창립
1964년	4월	리베이스 도입
	10월	스터디모델 도입
1967년	9월	러버댐 가산도입
		치조농루증 치료지침 개정
	12월	브릿지 도입

1968년	7월	치과재료 보험기준개정
1970년	4월 8월	일치중앙연수테마 <주조clasp> 특정약제 도입
1974년	2월 10월	지도비 가산 흡입진정법 도입 원피스캐스트 인상채득 도입
1975년	2월	치아의 112번
1976년	7월 8월	차액징수 금지 자켓크라운 도입
1978년	2월	4세유아 가산, 근관형성 가압근충, 유아보철 예칭 도입
1979년	11월	비주조용도 파라지움 합금도입
1981년	6월	만디오키네지오그래프 / 판드그래프 덴탈사운드체커 도입 폴리설편 수지
1982년	4월	보철 감시과
1984년	3월	만성질환 지도료
1985년	3월	치과구강외과 지도료 치조농루증 지도료

연대표

1841년		의사 준비료 금지
1873년		의제공포 (태정관 공포)
1927년	1월	건보 인두제방식
	10월	치과급여 전면 정액식(금전표시)
1931년	4월	정액을 10% 인하
1933년	10월	건보 전부 인두제방식 (단가 점수식)
1940년	6월	건강보험제도 확충시안 요강(후생성)
1941년	3월	점수표를 시, 군, 으로 나누다. 직원건강보험, 건강보험에 통합
	2월	도급식을 그만두고 단가점수 방식으로 하다 단가를 갑, 을, 병 3가지로 나누다 6월 사회보험진료수가산정협의회 (가정)
1946년	6월	사회보험진료수가산정협의회 개조
	11월	의업 경제조사 실시
1947년	9월	건강보험진료수가산정협의회 (성령(省令))
1948년	8월	사회보험진료수가 지불기금법 공포 사회보험진료수가 산정협의회령 (정령(政令))
	7월	임시진료수가 조사회, 임시의약제도 조사회
1950년	9월	약값 기준
	1월	임시진료수가 조사회 답신
1951년	6월	이른바 의약분업법 공포
	12월	단가개정 (갑, 을, 2 지역)
1952년	6월	임시의료보험심의회 (마르탄) 발족
1954년	7월	신 의료비 체계 발표
	12월	조세 특별조치법 공포 (28%)
1955년	4월	7인 위원회 발족
1957년	5월	제 3차 ?안 발표
	6월	일본치과 의사회 <치과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1958년	6월	갑표, 을표 (단가 10엔으로 고정)
1960년	8월	일본 의사회 단가개정요구
1961년	2월	일본 의사회 하루 일제히 휴진
	7월	단가 인하 고시 보험의 총사퇴 성명
1976년	3월	일본치과 의사회 <치과 진료의 기술지수>
	6월	차액징수의 폐지 통지
1980년	7월	의료비 통지제 (후생성)
1982년	2월	순악구개열환자 수정급여
1984년	8월	특정요양비 (고액의료비 본인부담) (법)
1985년		진료수가합리화 항목제시 (중의협)
	2월	특정승인 보험의료기관제도 (법) 치주질환 치료계획제

연대표

1927년	1월 4월 10월	인두도급방식 (1인 68전) 보철만 정액급여 치과급여를 전부 정액식	연대표
1931년	4월	정액을 10% 인하	
1933년	10월	인두제방식으로 되돌아 갔다 (1인 89전)	
1941년	4월	저무표를 시(市)부와 군(郡)부의 2가지로 한다.	
1943년	4월	단가를 10전으로 하는 정액식 (단가점수식)	
1944년	5월	단가 갑13전, 을11.5전, 병10전	
1945년	2월 10월	단가 갑13전, 을12전, 병11전 단가 13전을 표준으로 조정	
1946년	4월	단가 6대도시 150전, 시(市)130전, 그 외 100전	
1947년	1월 4월 9월	을지표준 25전 을지표준 3전 을지표준 4전	
1948년	3월 8월 10월	을지표준 6전 갑지10엔, 을지9엔 갑지12엔50, 을지11엔50	
1958년	12월	갑표, 을표 (단가 10엔으로 고정) (총 의료비의 8.5% 인상)	
1961년	7월 12월	12.5% 인상 (보철 5%) 2.3% 인상 (유아초진시 가산) (유리단 가산)	
1963년	9월	3.7% 인상 (지역차 철폐)	
1965년	1월	9.5% 인상 (인레이, 충전개정) (직권고시)	
1967년	11월 12월	치과재료 가격기준 (고시) 12.65% 인상 (러버댐)	
1970년	2월	9.73% 인상 (스터디모델, 재진료)	
1974년	2월 10월	19.9% 인상 (교합채득, 가상(床)) 16.2% 인상 (흡입진정법)	
1976년	8월	9.6% 인상 (X레이, 자켓크라운)	
1978년	2월	12.7% 인상 (치내요법, 4세 유아 가산, 예칭, 가압근충)	
1981년	6월	5.9% 인상 (유치관, 폴리선폰수지, 검사급여)	
1983년	2월	노인보건법 관계	
1984년	3월	1.1% 인상 (만성질환 지도료)	
1985년	3월	2.5% 인상 (치주질환)	
1986년	4월	1.5% 인상	
1988년	6월	1.0% 인상	

1927년	1월 4월 10월	단체자유선택제 (인두도급방식) 치과보철단 정액식 (금전표시) 치과급여 전부정액식 (금전표시) (일반은 인두도급방식 그대로)
1933년	10월	치과급여 인두도급방식
1938년	7월	국민건강보험시행과 함께 일부부담금
1940년	1월 6월	자비 금관장착의 취급통지 (보험국장) 직원건강보험 실시 (정액, 20% 일부부담)
1941년	3월 5월	직원건강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통합 정부로부터 보험의에게 보수 직송
1942년	4월	치과의사전원 보험의 지정
1943년	4월	인두제방식 철폐, 단가점수식
1947년	10월	재단법인 사회보험협회
1948년	7월	보험의 지도위원회 (법개정) 사회보험진료수가지불기금 (법)
1950년	9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 (심의회) (차액징수 언급)
1951년	12월	오카야마현에서 과별건수별 정액지불방식 (52년 6월까지)
1952년	6월	임시의료보험심의회 (차액징수를 시사)
1955년	5월	차액징수 통지 (보험국)
1957년	5월 7월	대학부속병원을 지정기관으로 (법개정) 본인 일부부담
1958년	9월	<사회보험의 보철 차액부담에 관하여> (일본치과의사회)
1961년	4월	일본학술회의의 <사회보험의료비 권고>
1963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세대주에게 70% 급여
1967년	11월	치과급여 차액징수의 취급에 관하여 통지(보험국)
1968년	1월	국민건강보험 전부 70% 급여
1972년	9월	<탈보험 / 계획진료> 결의 (일본치과의사회)
1973년	10월	고액의료비 지급
1974년	3월 5월 10월	차액징수 지도에 관한 통지(보험국) 치과영역의 차별징수에 관한 통지(보험국) 중의협 치과부회
1976년	2월 7월	치과표준요금 지시(일본치과의사회) 차액징수폐지 통지 (보험국) 기준요금 지시 (일본치과의사회)
1978년	1월	치과영역의 차액징수에 관한 통지 (보험국)
1984년	9월	특정요양비 설정 (법개정)
1985년	10월	특정승인보험의료기관지정 (법개정) (고도선진의료)

도시 빈민과 영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치과 진료 봉사

김 평 일*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미만이어서 치과 의사 자신도 영세했던 50년대를 넘어 60년대 말 박정희대통령의 치과 순회 진료차 출현 이후 활발했던 무의촌 무료 진료 봉사는 국민개 보험과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적 병폐가 심화되면서 도시빈민과 외국인 영세근로자들은 여전히 무료진료 혜택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바가 현실이며, 이들의 요구는 점점 더 증폭 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 소고는 그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에 나타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진료봉사를 자료모음의 차원에서 수집 기술해 보았다.

1. 인터넷에 올라온 진료 봉사 관련 기사
한해 2만3천명 무료진료사업 펼친 경기도
(2003년 5월 記 /출처: 보건 위생 정책과 안만호
031-249-4347, amanh@kg21.net)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소외계층과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무료 이동 진료차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의 틀니, 보철시술,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취약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도민 등을 찾아가 의료원, 보건소 등과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올해 2만3천여 명에 대해 무료이동 진료사업을 펼쳐 의료서비스를 크게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또는

이와 관련 무료이동 진료를 2개 진료 반으로 해 내과, 치과, 한방과, 안과, 방사선과 등 5개 과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도는 5월에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1천8백여 명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무료 진료일정은 2003년 5월 1일 시흥시 시화공단내 외국인 근로자 120명과 2일 김포시 양촌면에서 장애인 130명 진료에 이어 5월 6일 수원 권선동 중앙양로원 노인 95명, 5월 9일 수원 오목천동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65명, 5월 11일 부천 중동 근로자 종합 복지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150명에 대해 진료한다. 또 5월 13일 의왕시 고천동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서 장애인 100명, 5월 15일 과천시 문원동 문원노인정에서 노인 120명을 진료한다. 또 5월 16일 평택시 비전력키텍동아파트 덕동노인정에서 노인 110명, 5월 19일과 20일 평택시 소사동 동방아동복지학교에서 장애인 260명을 진료한다. 5월 22일에는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무료급식소에서 노인 150명, 5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120명, 5월 26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에서 노인 125명, 5월 27일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파티마성모의 집에서 노인 75명을 진료한다. 또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 자혜학교에서 장애인 140명, 5월 30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회복지관에서 노인 120명을 진료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이원철, 이하 병불

*김평일치과의원장 · 본 학회 회장

련)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바스베르 군(郡) 소재 국립 요양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6월 국내 불자의료진으로서 처음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바양주르흐 구립 종합병원에서 무료진료를 펼친 병불련이 마련한 두 번째 해외 의료봉사다. 당시 봉사단 일행이 몽골 고려사(주지 활안스님)가 후원하고 있는 국립 요양원을 방문해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한 것을 인연으로 이번 의료봉사가 이뤄졌다. 현재 요양원은 현재 무의탁 노인을 비롯해 정신신체, 일반장애인 등 120여명이 열악한 의료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병불련 소속 의료진 1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요양원 환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치과 등의 진료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노안으로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돋보기를 보시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는 치과와 관련된 예방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병불련 양동선 진료단장은 “고려사 활안스님 주선으로 몽골에서 지난해 이어 두 번째 해외의료봉사를 준비했다”면서 “해당 지역에는 노인들이 주로 많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안과진료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의료봉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철 기자 (2006.09.15) hjc@ibulgyo.com">hjc@ibulgyo.com

대전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센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민들을 위해 자비를 들여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온 의료인들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전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센터(이사장 김용우)에서는 05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 천진 시 무청 구 양촌마을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곳은 한국교민 300여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북경에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시간 이

상을 달려 북경이나 천진으로 가야하고, 그나마도 언어적 장벽과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지역 선교사의 요청이 전해졌고, 대전지역 의료인들이 결단을 내렸다. 양방, 한방, 치과 의사 1인씩과 여정을 도와 줄 사람 등 4인으로 진료 팀을 꾸렸다. 모든 것을 자비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기에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키지도 못했다. 간단한 의약품은 한국에서 마련하고, 의료기기는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했다. 500만원이나 되는 비용도 각자 마련했다. 또한 한국의 일터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기에 일정도 '황금연휴'라 불리는 주말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기간으로 잡았다. 오가는 이들을 제외하면 겨우 이틀 밖에 안 되는 일정 속에서 이들은 150여명이 넘는 교민들의 아픈 몸을 돌보느라 녹초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변변한 의료 시설도 없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교민들을 돕기 위해 떠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다. 이에 이진형 교민회장을 비롯한 교민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진료 팀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료 팀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다녀온 김봉구 대전 외국인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소장은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교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앞으로도 교민들뿐만 아니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진료 팀은 지난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매주 일요일 오후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08-16 16:37 © 2006 OhmyNew

2006-11-11일자

가리봉1동 외국인 노동자 전용의원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외국인 노동자 전용의원

은 입원실까지 갖추고 있다. 병상이 의원급으로서
는 최대 규모인 29개나 된다. 지난 7월 5일 저녁
7시 무렵 3층 입원실에서 나이지리아인 아나다
헨리(32)씨가 이완주 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본인이 원하면 며칠 더 있다 가도 된다”는 이 원
장의 말에 헨리 씨는 “할 일도 있으니 내일 나가겠
다.”고 말했다. 헨리 씨는 헤르페스 감염으로 6월
22일 밤에 입원했다. 그는 “나이지리아에는 외국
인 노동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없다”며
“이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느님께서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2004년 7월에 오픈했다. 지금까지 병
원을 이용한 사람은 약 4만 명에 달한다.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다. 인근에 중국 동
포가 5만~6만 명 거주하는 관계로 아무래도 중
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중국 지린 성 허룽 시에 살던 김동구(46)씨는
2004년 11월 한국에서 가정집 지붕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지금껏 반신마비에 기억상실 상태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지난해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2000년 4월에 혼자서 한국에
왔다. 가장이 다치는 바람에 김 씨 가정은 엉망이
됐다.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던 김 씨
의 딸(22)은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
다. 중국에서 목기공장에 다니던 부인 백애자 씨
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해 4월 한국에 와서 여태
껏 남편 간병을 하고 있다. 백씨는 “절망적인 상
황이지만 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代父)’로 불리
는 김해성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지
구촌 사랑 나눔’이 운영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5
명이 상근하며 자원봉사 의사가 100명이 넘는다.
내과, 외과, 안과 등 각종과를 구비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고려대 구로병
원 등 협력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평일 오

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토요일은 휴무.

이 병원 1층에서는 참 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외국인 노동자 전용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목~토 오후
5시~오후 9시, 일요일 오후 1시~오후 6시. 4층
에서는 열린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1주일에 네 번
외국인노동자 전용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은 운영경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
다. 직원 23명의 인건비와 환자들의 의약품, 약값
을 포함해 매달 운영경비가 적어도 5000만원은
들어간다. 그러나 아직 후원회가 결성돼 있지 않
은 탓에 약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병원 행정원
장을 맡고 있는 이선희 목사가 경기도 안산시의
자택을 판 돈을 보태고, 이완주 의무원장이 서울
방배동의 개인병원을 폐업한 뒤 3억 원의 성금을
내는 등 눈물겨운 노력으로 지금껏 버텨왔다. 이
선희 목사는 “지난해 7월 병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을 때 조선일보가 ‘우
리이웃’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병원을 보도해준
덕분에 3억 원이 넘는 성금이 들어와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성금
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김해성 목사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
해 후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후원계좌: 외
환은행 035-22-04431-7)

요셉의원

서울 영등포역 근처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부
설 요셉의원도 소속자와 외국인 노동자, 알코올
중독자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소외된 사
람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곳이다. 이 병원은 1987
년 선우경식 원장이 신림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1998년 영등포로 이사했다. 현재 의사, 간호사, 약
사, 치위생사 등 130여명의 의료 봉사자와 주방,
운전, 청소 봉사를 하는 450여명의 일반 봉사자가
매일 15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13개 과목이다. 모두 현직에 있거나 은퇴한 의사들이 시간을 내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요셉의원 게시판엔 진료시간표가 붙는다. 6월 둘째 주에 안과는 금요일, 정형외과는 월요일과 금요일 등 날짜에 따라 진료과목과 선생님,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어 환자들은 시간표를 보고 병원을 찾아온다. 치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봉사

요셉의원은 봉사자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현재 2000여명의 후원자들이 요셉의원을 돕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정년퇴직을 한 후 청소 봉사를 하던 부인을 따라 행정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로 만들어가는 요셉의원에서 일하는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가 하나 더 있다. 선우경식 의원과 절친한 이동진 ‘착한 이웃’ 대표가 요셉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2003년 5월 ‘착한 이웃’이란 월간 잡지를 창간한 것. 매달 100만 원 가량 되는 수익금 전액을 병원에 기부하고 있다. 월간지 ‘샘터’의 편집장 출신인 김형영 씨가 편집주간으로 있으며 이해인 수녀, 소설가 공지영, 법정스님 등이 무료로 ‘착한 이웃’에 글을 써주고 있다.

분당보건소/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센터

현재 전국에 무료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무료병원의 대부분은 상설 기관보다는 비 상설 기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는 정규 병원처럼 시설을 갖추고 날마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부근의 분당보건소에서 열리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센터’가 대표적인 사례. 여느 보건소와 달리 이곳은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센터는 서울 대치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는 최윤근 박사 주도로 개설됐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인 불법체류자를 무료 진료했던 최 박사가 한국에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병원을 개설하자고 제안했고 뜻있는 의사들이 대거 호응한 게 계기가 됐다. 포천중문의대 의대생과 간호대 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동아리 ‘메드팀’ 100여명은 자원봉사 활동을 맡고 있다.

2002년 1월 첫 진료가 이뤄진 이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상설 병원은 아니지만 여러 과가 개설돼 있다. 경비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다. 성남시가 약값으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최근 후원회 집행부가 바뀌어서 센터 측은 기대를 걸고 있다.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 지앤 넷 사장은 “금융기관을 위주로 기업 회원도 영입하고 후원 회원을 현재 140명에서 300명 선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0-923419)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로 진료하는 병원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며 “정부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시 보건소/ 외국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무료진료 (05년 11월20일)

아산시 보건소는 ‘외국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05년 11월20일)

아산시 보건소(소장 원종성)는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몸이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난 2월부터 매월 세 켤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료진6명, 이. 미용 등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 하고 있다.

무료 진료에 참여하는 김종규 씨(50.여. 아산보건소 진료담당)는 “관공서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다 보니 신원이 유출되어 혹시나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앓을까 라는 의식에 초기

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참석이 저조했으나, 민간단체(외국인노동자 지원 센터, 아산 사랑 나눔 회, 한글학교)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내과, 치과진료 및 건강상담은 물론이고 다과를 곁들인 이. 미용을 실시함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드린다."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편 자원봉사자 김창권 씨(47.아산 사랑 나눔회 조직국장)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탈북동포 및 외국에서 시집은 외국인아내들도 상당수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정착을 했지만, 문화적 차이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으며, "관공서등에서 먼저 이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보건소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보건진료서비스와 이용자 만족도 등 보건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진료를 통해 다가가는 의료행정을 펼쳐 아산시민 뿐 아니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세째 주인 18일(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진료 및 이. 미용 행사 외에도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포천군 공중보건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중앙일보 2001년 11월30일) 29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보건지소 2층 치과진료실. 갈색 피부의 30대 외국인이 입을 벌린 채 누워 썩은 어금니 치료를 받고 있다. 치과공중보건의 임지준(林志俊.30)씨가 10분 쯤 구슬땀을 흘리고 위생사 한 명도 상냥한 미소로 "조금만 참으세요."라며 환자를 안심시킨다.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23만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크고 작

은 치과 질환에 시달리지만 치료비가 겁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 이 일에 나섰습니다." 林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어느 때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오면 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포천군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보건의 5명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란인 에디(30)는 "이가 열개나 빠져 7년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고생하면서도 엄청난 비용 때문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천사 같은 의사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며 고마워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에는 포천군 신북. 가산면 등 교회에서 90여명에게 치아 검진에 이어 간단한 치료까지 해주었다. 지난 25일엔 林씨가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랑나누기 치과의사 모임(<http://www.ovedds.org>)(대표운영위원 林昌潤.63.서울대 치의학과 교수)' 소속 의사 5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조선족교회에서 중국동포 2백여 명을 초청, 구강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모임 회원 2백10명은 내년 9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천명에게 무료 치과검진 및 진료. 보철(의치)치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천5백만 원 가운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받은 2천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원들이 자출하기로 했다. 林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031-532-2592.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전남대병원 치과 진료처/매년 해외 의료봉사 (2006년 5월 27일 (토) 13:29 뉴시스)

전남대병원은 "병원 치과진료처가 6월 구강보건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무료진료는 장성군 거주 무의탁 노인과 가정위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인 10여명에게는 무료 의치장착 치료가 이

뤄진다. 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잇몸 치료와 치석 제거, 치아 색과 동일한 충치 치료술인 광중합레진 수복 및 충치예방 치면 열구 전색법 등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양질의 치료가 실시된다.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치과진료처(전화 220-6013)로 사전 전화예약을 하면 편리한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대병원 치과진료처는 매주 화요일 장애인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도 매년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전공의협의회

한양대학교의료원 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봉)는 최근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 70여 명은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를 받았으며, 기초 신체측정과 혈액, 소변, 심전도, X-ray 촬영 검사 등을 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각과 교수진들과 의대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전공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상웅 교수(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장내과)는 "오래 전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어려움을 겪던 중 본원 미숙아실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아이로 퇴원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봉 전공의협의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많은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치 약만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성동구와 구리시·남

양주시에서 일 년에 3~4차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해왔다. 지난 8월 20일에는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내 '외국인 여성 센터'에서 80여 명을 진료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도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와 협력병원을 체결한 이후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진비 면제, 보험 100%수가 적용 등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창립해 현행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체다. /이유명 기자 jlove@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뉴스시스(06년 9월27일)

보건복지부--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행정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도 무료진료,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녀도 --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보건복지부가 2006년 7월 1일부터 무료진료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이며,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 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 취득 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 한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하며,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 한다

【무료진료실시 의료기관 현황】

지방의료원

지역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서울의료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02-3430-0201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051-507-3000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2	053-560-7575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시 동구 송림동 318-1	032-580-6000	
경기	수원의료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92-3	031-888-0114	
	의정부의료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828-5000	
	안성의료원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031-674-7520	
	이천의료원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44-1	031-635-2641	
	금촌의료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8	031-941-5811	
	포천의료원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243-4	031-539-9114	
강원	원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37	033-761-6911	
	강릉의료원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164-1	033-646-6910	
	속초의료원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91-10	033-632-6821	
	영월의료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72	033-370-9101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5-9	033-572-1141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043-279-2300	
	충주의료원	충북 충주시 문화동 1655	043-841-0114	
충남	천안의료원	충남 천안시 봉명동 39-1	041-570-7200	
	공주의료원	충남 공주시 중동 330	041-855-4111	
	홍성의료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041-630-6114	
	서산의료원	충남 서산시 석림동 568-5	041-661-6114	
전북	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지곡동 29-1	063-472-5000	
	남원의료원	전북 남원시 고죽동 200	063-620-1114	
전남	순천의료원	전남 순천시 매곡동 130-23	061-759-9114	
	강진의료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	061-430-1114	
	목포의료원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	061-260-6500	
경북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054-247-0551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북문동 470	054-858-8951	
	김천의료원	경북 김천시 모암동 85	054-432-8901	
	울진의료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18	054-785-7015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3가 3	055-249-1000	
	진주의료원	경남 진주시 중앙동 4	055-745-8000	
제주	제주의료원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4-17	064-720-2222	
	서귀포의료원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064-730-3101	

적십자병원

지역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4	02-2002-8852-4	
대구	대구적십자병원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7-1	053-252-4701-7	
인천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580-3	032-280-2114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경북 상주시 남성동 33-27	054-530-3107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경남 통영시 서호동 163-22	055-644-8901	
	거창적십자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4-1	055-944-3251	

국립의료원

지역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국립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3	02-2260-7068	

시, 도지사 인증 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사)지구촌사랑나눔회부설 외국인노동자의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02)863-9966	
	다일천사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02)2212-8004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동 8	062)220-5095	
	조선대학교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062)220-3009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남구 양림동 264	062)650-5641	
	광주현대병원	광주시 북구 용봉동 1129-2	062)570-0001	
	서광병원	광주시서구 금호동 766-9	062)600-8000	
대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301-723	042)220-9114	
	대전선병원	대전시 중구 목동 10-7	042)220-8000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대전시 대덕구 범동 285-3	042)670-5114	
	충남대병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042)220-7114	
충북	한국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5-5	043)222-7000	
충남	이화여성병원	충남 천안시 쌍용동494-4	041)570-1204	
전북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	063)230-8193	
경북	안동성소병원	경북 안동시 금곡동 177	054)850-8821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504-1	055)270-1000	
	창원중앙병원	경남 창원시 남양동 5	055)289-9111	

2. 외국인 노동자 전담 진료 봉사 단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1996년 시작
- 양방 : 향린교회 의료선교팀
- 대상 : 조선족동포
- 진료장소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성남 주민교회)
- 시간 : 매주 일요일 7시 ~ 11시
- 주소 : 461-192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7288-11
- 전화 : (031) 756-2143~4

외국인노동자 살림의 집

2000년 8월 11일 시작

- 진료과목 : 내과, 피부과, 치과
- 의료진 : 연세대 의대간호대 연합동아리 '의청'
- 대상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나이지리아 등
- 진료장소 : 살림의 집
- 시간 : 격주 토요일 7시 ~ 11시 • 주소 : 472-84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 2 리 산 33-9
- 전화 : (031) 594-5821

엠마우스

- 2001년 5월 20일 시작 • 진료과목 : 내과, 신경정신과, 한방
- 대상 :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아프리카, 페루, 우즈베키스탄 등
- 진료장소 : 엠마우스
- 시간 : 매월 3째 주 일요일 2시 ~ 4시
- 주소 : 440-1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 전화 : (031) 257-8501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2001년 4월 29일 시작
- 진료과목 : 내과, 치과, 한방, 안과, 가정의학과, 혈액검사
- 의료진 : 오정보진소/ 경기도 이동 진료 팀/ 광명 성애병원 내과 팀/경희대치대봉사동아리 코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자모임
- 대상 :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 진료장소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 시간 : 매월 2째 주, 4째 주 1:00~5:00
- 주소 : 420-020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9-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층
- 전화 : (032) 654-0664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 2000년 4월 23일 시작
- 진료소 명 : 선한이웃클리닉
- 진료과목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방
- 의료진 : 경동교회, 기독의사회
- 진료장소 : 경동교회
- 시간 : 매월 1째 주 3째 주 3시~6시
- 주소/전화 :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110-542 서울 종로구 창신2동 130-102 / 전화 : (02) 3672-9472- 경동교회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26-6 / 전화 : (02) 2274-016

조선족 복지 선교 센터

- 2000년 11월 시작 • 진료과목 : 내과, 간단한 외과적 수술(근처 병원 이용)
- 대상 : 중국 동포
- 진료장소 : 조선족 복지 선교센터
- 시간 : 매월 4째 주 일요일 2~5시
- 약품지원 : 기독청년의료인회, 진료 : 지역개원의
- 주소 : 120-092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2동 28-6
- 전화 : (02) 723-4822~3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

- 2000년 초 시작 • 진료과목 : 치과, 내과 정형외과, 혈압, 혈액 검사, 약국
- 의료진 : 사랑의 교회 의료선교회, 안산보건소
- 대상 :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 진료장소 :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 교육관
- 시간 : 네 째 주 일요일 2시 ~ 5시
- 주소 : 425-846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91-4
- 전화 : (031) 492-8785

갈릴래아

- 1998월 2월 시작 • 진료과목 : 내과, 가정의학과
- 의료진 : 개원의 • 진료장소 : 원곡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 (원곡성당 내)
- 시간 : 2째 주, 4째 주 2시~5시
- 주소 : 425-130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3 인세연립 다동 201호
- 전화 : (031) 494-8411

고양시 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의료진 : 세브란스병원 의료팀
- 대상 : 이란,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등
- 진료장소 : 경기케이بلTV (월마트 건너편)
- 시간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4시 ~ 6시
- 주소 : 411-35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62-1 사회선교센터 내
- 전화 : (031) 921-5006

명성교회

- 교인 가운데 의료진이 참여
- 대상 :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4시간씩 진료
- 주소 : 134-070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 전화 : (02) 3427-3031~5

라파엘 클리닉 <http://raphael.or.kr/about.php>

- 봉사자 : 전국 의대치대 중의 자원 의료진 2000년 5월 이래 팀장 중심의 운영체제 - 봉사팀장 제도의 정립
- 1997. 4. 13. "Clinic Casa"로 혜화동 성당 백동관에서 첫 진료
- 1997. 10. 26 라파엘 클리닉 (Raphael Clinic)으로 개칭
- 대상 : 이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의료봉사. 인권문제 임금체불 등을 해결.
- 1998. 5. 이후 라파엘 구호소 인권상담 시작
- 진료장소 : 백동관에서 시작 가톨릭 신학대학 성신관을 거쳐, 동성고 4층 강당(1998년 6월 13일 이후)
- 시간 : 매주 일요일
- 본부 : 서울대 의대 분관 106호 • 전화 : (02) 763-7595

라파 치과의료 봉사단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1996년 3월 창립되어 매년 구정, 여름휴가, 추석 등 장기휴일에 해외에 나가 무료진료를 실시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모든 것을 자비로 경비를 조달하는 라파 봉사단(단장·성낙훈 박사, 부단장·이형순 박사, 총무·송영유 박사)에서는 창립 후 미얀마, 몽골, 러시아, 필리핀, 사할린, 키르기즈스탄, 연경, 북경, 브루나이, 베트남 등 24차례 해외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지난 8월 초 몽골 무료진료 시에는 KBS에서 방영을 하기도 했다. 또한 매월 1회씩 주말을 맞아 국내 장애인 시설, 고아원, 빈민지역 등에 70여 차례 무료진료를 하였다. 일회 진료봉사에서 1천여 명을 진료하고 틀니 1백 여 개, 금니 50여 개 등을 제작하여 치료했다.

<http://www.epurun.org/> 푸른 시민연대 게시판
자료: 서울 외노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http://www.smwc.or.kr/>
http://www.smwc.or.kr/business/business_4.php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진료시간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후2시~오후5시

-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와 함께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 키·몸무게, 소변, 혈압, 청각, 혈액, 심전도, X-ray 등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업의학과, 안과, 치과 등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의 회원 카드(의료보험증)를 발급합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여권·사진(2매)·가입비(5천원)·월 회비(6천원)를 준비해서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혜택 : 협력병원 소개, 진료비 50~60%할인, 수술비 50% 지원(1인당 최고 100만원), 분만 비 정액지원-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 ☎02-3147-0516~8

치의신보(2003-10-20:제1214호-사람들)

제목 — 따뜻한 인술로 한국인상 심지요” 성동의 외국인진료센터 치과진료 개시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멀리 타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치과의사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내며 웃으면서 이국에 느끼는 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 변영남 원장을 비롯한 치과의사들의 노력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관장 이춘섭)에 치과진료소가 개설돼 지난 12일부터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이곳을 찾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변 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6명의 환자진료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곳 근로자센터에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내과, 소아과 등 일반 무료검진이 실시돼 왔으나 치과진료가 없어 서초구 보건소나 정동교회 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곳에서 치과진료가 실시될 수 있게 된 데에는 변영남(성신치과) 원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그 동안 일원동에 위치한 하상복지회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치과진료를 실시해 오던 변 원장은 최근 그곳에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게 돼 봉사진료 할 곳을 모색해 오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이곳 근로자센터를 소개해 줬다. 근로자센터 3층의 공간 일부를 활용해 실시되는 치과진료를 위해 유닛 체어 2대, 치과진단용 엑스레이, 컴퓨터서, 스케일러, 석션 등의 장비도 하상복지회관에서 옮겨왔다. 변 원장은 가톨릭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들 10명과 함께 이곳에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잇몸 및 신경치료, 치석제거 등 치과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 원장은 “설움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좋게 이야기 하겠다”며 “이런 치과진료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도 바꾸고 그들의 어려움도 따뜻하게 도와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선동수 센터 상담실장은 “치과진료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치과의사들의 도움으로 해결이 됐다”며 “꽤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가 지난 2001년 개설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사)세계 선린 회에 운영이 위탁돼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노동·생활상담, 문화사업, 의료사업 등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치과진료를 도우며 자원 봉사할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를 찾고 있다. 문의 02-2282-7974 이윤복 기자 bok@kda.or.kr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치과 연혁

- 1993년 9월2일 일원동 하상복지회관 내 시각장애자 치과로 출발(故기창덕, 김기주, 변영남 찬조출연)

- 2003년 7월30일 성동 근로자 센터(홍익동)로 철수, 이전(기존 유닛 2대 Xray 1대 소독기 기

구일제)
日本 도쿄 桑幡常昭박사 유니트 1대 기증/ 고재
득 성동구청장 행정지원
• 2003년 10월 2일 진료봉사 준비 모임
참석자: 허만옥 김광현 김기혁 라운영 변영남
이준규 최종태
서정심(간호) 서치 김기자 센터관장 이춘만 상
담팀장 선동수
• 2003년 10월12일 첫 진료
• 봉사자
치과의사
변영남(팀장)

최종태(녹번동 푸른치과 05년4월까지)
이준규(마천2동) 라운영(강남구 05년 7월까지)
정광호(성동구)
이효진(성동구)
신현미(06년 9월 도미)
이형란(04년 1월부터 진료)
홍현중(05년 5월부터 진료)
임용준(05년 6월부터 진료)
간호사(치위생사)---김남숙(05년 1월까지)
권현진, 정혜진
후원자-도쿄 桑幡常昭박사 서정심(필로메나)

식민지 조선의 치과의업자(齒科醫業者) : 1905-1945*

조영수**

1. 머리글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서양근대치과의술이 이식(移植)된 이후 40년 동안 식민지 조선에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굴러왔던 치과의업(齒科醫業)¹⁾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즉, '이 시기 치과의료는 식민 모국(母國)의 내지인(內地人)을 위한 것이며 결국 식민 지배에 기여하였을 따름'이라고 보는 시각과, '당시 선진적이었던 일본 치과의료의 이식이 해방 후 우리나라 치과의료 발전에 토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식민 시기의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1차 자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²⁾.

이 글은 식민지 조선 치과의업의 내용과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시기의 치과의업자, 즉 입치사(入齒師)³⁾와 치과의(齒科醫)⁴⁾의 구성, 분포양태 및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그들의 국적, 출신, 시기별 규모, 지역별 분포, 면허취득배경(치과의), 배치지역 및 영업허가기간(입치사) 등을 분석하여 식민지 시기 치과의업의 성격을 밝히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2. 통감부 시기

19세기 말부터 서구 및 일본인을 통해 근대서양치과의술이 간헐적으로 도입된 이래, 대한제국 시기 보건의료의 자주적 성장은 1905년 이후 일제에 의해 왜곡, 재편⁵⁾되면서 전통 한방의료는 위축되고 치과의업은 뒤늦게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세기 초 조선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일본은 조선으로의 이주(移住)를 적극 장려하여⁶⁾ 일본인 거류민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였다(표1). 러일전쟁 당시 군관립(軍官立)병원 치과 근무를 계기로 조선에 왔었던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개업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1906

표 1. 시기별 일본인 거류민 규모

시기(년)	거류민(명)	증가율
1900	15,829	-
1905	42,460	2.7배
1910	171,543	10.8배
1914	291,217	18.4배

다까사키 소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2006

*이 글은 제5회 대한기초치의학학술대회(2006.11.11)에서 발표하였음.

**백상치과의원 원장, 본학회 총무이사

1) 치과의료(dental care/service)를 의미하는 일본식 용어로 국내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통용됨.

2) 박인순. 일정기의 한국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복지행정논총. 2001; 11(2):149-184.

_____. 일정기의 한국보건의료행정기구 및 시설. 복지행정논총. 2000; 10:215-234.

3) 입치업자, 입치세공업자. 18세기 이래 일본에서 도제(徒弟) 훈련을 거쳐 임의로 치과의술을 시행했던 직종.

4) 공식 명칭은 '치과의사'였으나 통상적으로는 대개 '치과의'로 불렸다.

5) '大韓醫院の設立', 統監府. 韓國施政一般. 1906. 233-8.

6) 山本庫太郎(樂幹). 最新朝鮮移住案内. 1904. 民友社. 152-5.

년 치과의사법 제정으로 치과의사의 진료독점권이 보장되자 이전처럼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입치사들이 점차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 치과의업계의 동향을 보면, 메이지 7년(1874년)에 의제(醫制)가 반포되고 이듬해 실시되었던 의사시험에 한 응시자⁷⁾가 기존의 전문

과 명칭이던 '구중과(口中科)'가 아닌 '치과(齒科)'로 응시한 사례 이후 1879년 의사시험규칙에서 '치과'가 공식문서에 명기되었다. 정부는 1885년부터 입치영업자를 취체규칙으로 관리하였는데 1893년에는 그 수가 치과의사의 4배에 육박하였다. 20세기 들어 치과의사들은 조직을 강화하고(1903년, 대일본치과의회) 1906년 치과의사법 제정으로 진료권을 확보하였다⁸⁾.

이처럼 제도, 법률, 조직 등 일본 치과의업의 체계가 정비되면서 일부 인력이 새로운 미개척지 조선에 유입, 우리나라 치과의업의 원형(原型)을 만들었던 셈이다. 한성(서울)을 비롯하여 일본인이 모여 사는 개항지 및 주요 도시에 적은 숫자나마 이들의 개업이 차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표3).

이 시기 입치사 개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는 표3의 내용을 채울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표4). 서울에서 고모리(小森)의 치과치료소(齒科治療所)⁹⁾와 애생당편동(愛生堂片桐)의 입치충치기술소(入齒蟲齒技術所)¹⁰⁾는 주변 일본인 치과의와 경쟁적 관계였다고 본다. 이 무렵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서양치과의술을 취득한 입치사가 배출되어 종로를 중심으로 '이희박논집', '치술원(齒術院)', '금옥당

표 2. 시기별 일본 치과계 현황

년	치과의(명)	비 고
1884	2	齒科醫籍 등록
1885	16	入齒齒拔口中療治接骨營業者取締方
1888	72	
1890	133	
1893	214	齒科醫會 결성, 입치사 800명
1896	328	
1903	694	大日本齒科醫會
1906	820	치과의사법 공포
1910	1,125	
1916	3,482	
1926	12,549	일본치과의사회(法定)

高木圭二郎 わが國における初期齒科醫師団体の成立並びにその發展過程の展望. 齒學史研究 1969; 2:1-11

표 3. 통감부 시기 입치사·치과의 지역별 분포 (1906-1908)

	연도	한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원산	신의주	계
입치사	1906	2	3						1	1			7
	1907	4	3			2			1	1	1		12
	1908	4	2	1	1	2		1	2	1		1	15
치과의	1907	4	1				4	1	1		3		14
	1908	6	2				3	1	1	1	3		17

통감부 통계연보. 1차(1907), 2차(1908), 3차(1910)

7) 小幡英之助. 메이지 초기 일본에 머물던 미국인 치과의사 St G Eliot(1870년)에게서 치과의술을 습득.

8) 高木圭二郎. わが國における初期齒科醫師団体の成立並びにその發展過程の展望. 齒學史研究 1969; 2:1-11.

9) 황성신문 1902년 7월 8일자.

표 4. 1900년대 입치사

이름	개업	지역	상호명	위치, 기타
고모리 (小森)	1902	한성	치과치료소(齒科治療所)	이현(泥峴) 옥(旭)여관
水島	1904	목포		
愛生堂片桐	1905	한성	입치충치기술소(入齒蟲齒技術所)	판정병원 앞
최승룡 (崔乘龍)	1907	한성	이희박논집 치술원(齒術院) 금옥당(金玉堂)	종로
안중수 (安重秀)	1908	한성		
김환표 (金煥杓)	1908	한성		
김경집 (金敬集)	1908	한성		
신정휴 (申正休)	1908	한성		
임순철 (任舜喆)	1909	개성	대한치과병원(大韓齒科病院)	오세기(大關)로부터 사사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一), 朝鮮之齒界 1930; 1(1):15-8
李漢水, 齒科醫學史. 1988. 116-20, 奇昌德. 增補韓國齒科醫學史. 1995. 310-1

(金玉堂)' 등의 상호로 개업하였다. 이들은 주로 일본인 치과의사나 입치사의 개업에 명의를 빌려 주거나¹¹⁾ 그 밑에서 일하면서 도제 훈련을 받아 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통감부 시기 지방행정을 관할했던 이사청(理事廳) 산하 경찰서에서 조선인 입치사에게 감찰(鑑札)을 부여한 것은 일본의 1885년 입치영업자 관리 방식을 본 딴 것이다.

최초의 치과의사로 1893년 제물포 개업 이듬해 서울로 이전한 노다 오오지(野田應治), 한국주차군(駐劄軍)사령부 및 한성병원 치과 근무를 위해 왔다가 1907년에 개업한 나라사끼 도오요오(梶崎東陽) 및 이이쓰가 데쓰(飯塚 徹), 이렇게 3 명은 남산 아래 일본인 거주지역에서 개업 1세대를 이루었으며 조선 전체로는 10여명이 개업하고 있었다(표5). 서양인 치과의사로는, 일본에 개업하면서 출장 형식으로 조선에 잠시 방문하곤 했던 Robinson (1897년), H. Slade(1898년), J. Sours (1905년), D.

Nye(1905년) 등을 제외하면 Edward Hahn(韓大衛)이 최초로 1906년 한성에 개업하였다.

3. 제도, 정책, 관립의원

1) 규칙, 등록

조선총독부는 1914년 의업자들을 등록케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¹²⁾. 면허 등 모든 업무는 경찰조직이 담당하였으며, 기존의 한의사들은 의생(醫生)으로 격하하고 '성행(性行)과 기량(技倆)'을 심사받았다¹³⁾. 치과의사규칙으로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규정하고 무면허 치과의업을 금하였으며, 입치영업취체규칙¹⁴⁾으로 입치사의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경력, 성행 및 기량, 출원지역의 개업 치과의사 또는 입치영업자의 유무, 기타 등을 조사하여 경무부장이 기간(5년 이하) 및 영업지역을 결정하였다¹⁵⁾. 치과의사규칙은 1917년¹⁶⁾, 1921년

10) 황성신문 1905년 7월 1일자.

11) 殷仲基. 韓國時代ニ於ケル齒科業界ニ就イテ. 朝鮮之齒界 1931; 2(2):8-9.

12) 의사규칙(총독부령 100호), 치과의사규칙(총독부령 101호), 의생규칙(총독부령 102호). 관보 389호. 1913.11.

13) 취급수속. 경무총감부 훈령 갑 제45호 (관보 411호, 1913.12.11).

표 5. 1900년대 치과의

이름	개업	명칭, 위치	경력, 기타
노다오오지 (野田應治)	1893	야전(野田)치과전문의원, 경성 본정 2정목 百冊銀行 건너편	1887 인천의원 조수
후가에 (深江尙弟)	1897	부산	
시게시로 (重城養二)	-	1905년 이직	1904 團立한성병원
Edward Hahn(韓大衛)	1906	남대문 내, 달성위궁 뒤	
나라사끼 (檜崎東陽)	1907	남산정 3정목 -> 남산정 2정목 160번호	1905 한국주차군사령부
이이쓰가 (飯塚徹)	1907	반충(飯塚)치과의원, 泥岬邑 城館 위 본정 1정목통 1-18	1905 共立한성병원
오세기 (大關)	1907	평양	
나카무라 (中村ヤス)	1909	본정 3정목, 영락정 2정목 3번호	-
시메우찌 (注連内堅石)	1909	장곡천정 1정목	1907 한국주차군사령부
와다나베 (渡邊定亮)	1909	대한의원 치과	1909 대한의원
후지이 (藤井彌三郎)	-	대전	
橋本清四郎	-	육정 4정목 50번호	
요구라 (與倉)	-	마산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一), 朝鮮之齒界 1930; 1(1):15-8
李漢水, 齒科醫史學. 1988. 116-20, 奇昌德. 增補韓國齒科醫史學. 1995. 310-1

¹⁷⁾, 1924년¹⁸⁾, 1932년¹⁹⁾ 등 몇 차례 개정되었다.

1914년 이후 1920년까지 의업자들의 등록 연 인원 추이를 보면, 표6과 같이 의사가 410명, 의생은 무려 6,588명이 등록하였으나 치과의사의 신규 등록은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하였다. 입치사는 249명으로 치과의사의 20배 이상이였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18년 말 기존 개업의사와 한지(限地)의사²⁰⁾를 합치면 993명으로 총인구(16,968, 997명) 기준으로 의사 일인당 인구는 17,088명이였다²¹⁾. 식민지 시기 치과의사와 입치사의 총 규모와 분포는 4장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2) 조선치과의사시험제도

1920년에 35만 명에 달한 일본인 거류민 규모에 견주어 볼 때 치과의업자는 대단히 부족하였다. 총독부는 단기간에 치과의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1921년 치과의사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²²⁾.

치과의사시험은 의사시험제도에 준하여 운용되었으며,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서 주관하여 1921년 9월 13일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제1차 시험이 시행된 후, 1924년까지는 봄가을 교대로(1922.9, 1923.5, 1924.10), 1925년부터는 연1회 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또는 경성치과의학교에서²³⁾

14) 경무총감부령 제5호(관보 423호, 1913.12.25). 입치영업취체규칙취급수속 개정(관보 1995호, 1932.1.4)

15) 입치영업취체규칙 취급수속. 경무총감부 훈령 제46호 (관보 426호, 1913.12.29)

16) 총독부령 68호(1917.9.20). 일본 중학 졸업자가 아닌 조선인의 일본 정규치과의학교 이수 자격 보장.

17) 총독부령 26호(관보 2550호, 1921.2.14). 치과의사시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18) 총독부령 52호(관보 3628호, 1924.9.15). 의사에 의한 치과의업 범위 명시.

19) 총독부 훈령 3호(관보 1495호, 1932.1.4).

20)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여 한지의사면허를 부여, 외국인 의사를 통제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였다.

21) 당시 일본의 의사 일인당 인구는 1,378명 (小串政治. 朝.衛生行政法要論. 1921).

표 6. 직종별 연도별 의업자 등록 현황 (1914~1920)

	의사	限地醫師	의생	치과의사	입치사
1914	71	112	3,109	3	55
1915	113	132	6,045	6	93
1916	162	140	6,095	7	121
1917	229	155	6,281	8	147
1918	299	172	6,405	9	191
1919	362	185	6,481	9	226
1920	410	200	6,588	11	249

총독부관보 1915.1-1921.1

실시하다가, 1929년부터 봄, 가을 연 2회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²⁴⁾에서 시행하였다. 1928년부터 과목 보유(保有)제도를 도입하여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3년간 효력을 인정해 주었다²⁵⁾.

이 제도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치과의사시험위원회²⁶⁾를 매년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1923년까지 총독부의원 원장이었으나 이후 경무국장이 맡았고, 총독부의원의 의관(醫官), 의원(醫員), 기사(技師),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표7)²⁷⁾

총독부의원 치과과장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의지와 총독부의원 원장의 지원으로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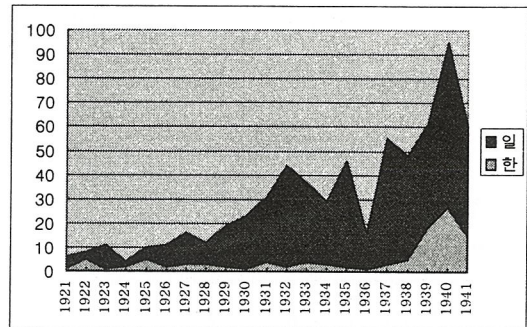


그림 1. 치과의사시험(검정) 출신 치과의사 등록추이 (총독부관보 1921~1944)

- 22) 일본 국내에서 문부성(文部省, 1931년부터 내무성) 관할로 연2회 시행되던 치과의사시험과는 별개임.
- 23) 총독부고시 74호(관보 354호, 1928.3.7), '경성치과의학교 및 동교 신축교사' (고시 223호, 관보 538호, 1928.6.15)
- 24) 총독부고시 12호(관보 910호, 1929.1.17)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지정 후.
- 25) 총독부령 제1호 치과의사시험규칙 개정 (관보 311호, 1928.1.16), 千葉徳一郎, 朝鮮醫師齒科醫師受驗指針, 경성, 1928.
- 26) 치과의사시험규칙(총독부령 제 27호), 치과의사시험위원규정(총독부 훈령 8호, 1921).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 및 주事 1명(총독부 혹은 소속관서 고등관 중 임명), 書記 약간명(判任官 중 축탁). 위원 중 일부는 민간인 축탁도 가능
- 27) 표7은, 총독부의원 치과과장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독보적 지위가 1930년을 넘어서면서 그 후임 이구다 싱호(生田信保)에 의해 추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930년대에 두 사람은 조선치과의학계를 둘로 나누어(조선치과의학회, 경성치과의학회) 각각의 맹주로 군림하면서 반목하였다. 총독부 기사(技師) 西龜三圭 사무관은 1930년대 내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주사(主事)로 있어 의업 행정의 실세였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 그는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총독의 칙사를 대독하고 총독부의 정책방향을 통고하였다.
- 28) 총독부고시 28호(관보 3760호, 1925.2.28). 이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인가받고(고시 25호, 관보 627호,

표 7. 조선치과의사시험위원회 연도별 구성 (1923~1938)

	1923년 1월		1925년 4월		1926년 5월		1929년 1월		1931년 7월	
위원장	총독부의원장	志賀潔	경무국장	淺利三朗	경무국장	三矢富松	경무국장	三矢富松	경무국장	池田清
위원	총독부의원醫官	柳樂達見	총독부 技師	天岸敏介	의원 醫官	柳樂達見	의원 醫官	柳樂達見	技師	天岸敏介
	총독부 技師	天岸敏介	城大교수	津岐孝道	技師	天岸敏介	총독부 技師	天岸敏介	城大교수	津岐孝道
	경의전 교수	上田常吉		梶村正義	城大교수	中西政周	경의전교수	佐藤剛藏	城大조교수	衛藤忠雄
	총독부의원醫官	生田信保	城大부교수	德藤忠雄		津岐孝道		津岐孝道		生田信保
	총독부의원醫官	村澤昶		生田信保	의원 醫員	生田信保	의원 醫員	生田信保		柳樂達見
	-	三品敬吉		三品敬吉		三品敬吉	의원 醫員	野澤鈞		三品敬吉
			囑託	野澤鈞	경무국축탁	渡邊定雄	-	三品敬吉	축탁위원	野澤鈞
				渡邊定雄	-	野澤鈞				森哲郎
			성대 講師	柳樂達見	-		-			-
主事	총독부 事務官	關水武	技師	西龜三圭	事務官	石川登盛	事務官	關水武	技師	西龜三圭
書記	총독부 屬	藤井熊之助	총독부 屬	大沼勘造	총독부 屬	大沼勘造	총독부 屬	大沼勘造	총독부 屬	小松武
		綿引武雄		小松武		小松武		小松武		池内勝太郎
		大沼勘造		池内勝太郎		의원 書記	中西右一	의원 書記		吉井孝
	총독부의원書記	佐藤十郎	城大 書記	中西右一		-		-		村上武一
		中西右一		-		-		-	城大 書記	中西右一
	1932년 4월		1935년 7월		1936년 7월		1937년 8월		1938년 4월	
위원장	경무국장	池田清	경무국장	池田清	경무국장	田中武雄	경무국장	三橋孝一郎	경무국장	三橋孝一郎
위원	技師	天岸敏介	城大교수	津岐孝道	城大교수	津岐孝道	城大교수	津岐孝道	城大교수	津岐孝道
	城大교수	津岐孝道	城大부교수	生田信保	城大부교수	生田信保	城大부교수	生田信保		大塚藤吉
	城大조교수	衛藤忠雄		橋本程次	城大부교수	橋本程次	城大부교수	橋本程次	城大부교수	生田信保
		生田信保		柳樂達見		柳樂達見		柳樂達見		橋本程次
	囑託	柳樂達見	囑託	三品敬吉	囑託	三品敬吉	囑託	三品敬吉	囑託	柳樂達見
		三品敬吉		野澤鈞		野澤鈞		野澤鈞		三品敬吉
		野澤鈞		森哲郎		矢尾太郎		森哲郎		野澤鈞
		森哲郎		矢尾太郎		恒見庸三		矢尾太郎		森哲郎
		矢尾太郎		恒見庸三		-		恒見庸三		矢尾太郎
	-		-			-		-		恒見庸三
主事	技師	西龜三圭	技師	西龜三圭	技師	西龜三圭	技師	西龜三圭	技師	西龜三圭
書記	총독부 屬	小松武	총독부 屬	吉井孝	총독부 屬	吉井孝	총독부 屬	吉井孝	총독부 屬	細川市衛
		池内勝太郎		村上武一		村上武一		細川市衛		梶原司
		吉井孝		細川市衛		細川市衛		尾形千等		-
		村上武一		尾形千等		尾形千等		梶原司		-
	城大 書記	中西右一		-		-		-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1923-1938

표 8. 총독부의원 치과 직원 현황 (1916~1926)

	나기라 다쓰미 (柳樂達見)			이꾸다 싱호 (生田信保)		노자와 (村澤暁)		宮田健四郎	
부임	1914			1917		1922			
1916.1	醫員	2급			-	-		촉탁(囑託) 기공사무	월80
1917.1									
1918.1	副醫官	7등 5급	치과 장	從7					월88
1919.1									
1921.1	醫官	6등(年2,350)	치과 장	正7	醫員	4 월66	醫員	월 70	助手 4 월170
1923.1		5등 6급		從6		5			-
1925.4		5등 5급		從6		5			
1926.5		4등 5급		正6		4			

총독부 직원록 1923-1929

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던 경성치과의학교가 1925년 2월 28일 치과의사규칙에 규정된 치과의학교로 지정되고²⁸⁾ 졸업생이 무시험 특전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받기 시작하면서 치과의사의 증가 속도는 배가되는 반면 입치사의 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되었다.

1930년대 들어 시험 합격자와 교육기관 졸업생 배출이 누적되면서 치과의사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자 치과의사회에서는 시험제도 폐지를 청원하였고 결국 치과의사시험규칙은 1934년 11월 총독부령 제110호로 개정되어 1941년 이후 치과의사 시험의 폐지를 예고하였다²⁹⁾. 1940년까지는 종래 시험규칙에 의거 시행하게 하였고 1부 합격자는 1942년까지 2년간 수험 특전을 주었다³⁰⁾.

3) 관립의원

일제는 자기네 의료수준의 선진성을 과시하고 자국민(自國民) 진료에 충실하기 위하여 경성에 총독부의원, 각 도에 자혜의원(후에 도립의원)을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총독부의원 치과는 1911년 3월 외과에 부설된 이래 몇 명이 근무³¹⁾하다가, 1914년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³²⁾가 부임하고 1916년 외과로부터 독립 이후 점차 성장하였다(표8). 1917년 이꾸다 싱호(生田信保)³³⁾, 1922년 노자와(村澤暁)³⁴⁾가 부임하였다. 조선인은 무급조교로 있었으나³⁵⁾ 정식 직원발령은 받지 못하였고,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학위과정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자혜의원(도립의원)은 1909년 12월 이후 1930

1929.2.5), 치과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의 치과의학교로 지정됨(관보 910호, 1930.1.17).

29) 시험규칙 개정: 제3조 2, 제3항 단서를 삭제. 3년간 합격과목증명서 적용(총독부령 185호, 관보 3488호, 1938.8.31).

제4조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고등여학교 또는 여자고등학교 졸업자로 수업연한 3년 이상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외국치과의학교에서 3년 이상 치과의학 과정을 수료한 자가 아니면 受하지 못함. (총독부령 233호, 관보 4138호, 1940.11.6).

30) 細川市衛. 朝鮮醫師齒科醫師受驗指針. 경성. 1939.

31) 와다나베(渡邊定亮) 야스나가(安永鹿三郎). 기노시다(木下芳夫)

32) 치과의학특업사(得業士), 1916년 총독부의원 치과과장서리, 경성의전 검임 조교수(관보 1102호, 1916.4.1).

33) 치과의학특업사(得業士), 1928. 6.1 총독부의원 치과과장(관보 462호, 1928.6.1).

표 9. 도립의원 치과 직원 현황 (1937~1941)

지역 명칭	설립	이름	출신	지위	1930.3	1937.9	1938.9	1939. 9	1940. 9	1941. 9
경 기	水原 1910. 9	荒木靜夫	조선검정	醫員	8급	-				
기	開城 1925. 4	渡邊道夫		축탁	120圓	-				
충 북	淸州 1909.12	佐瀬武夫	문부성검정	醫員	5급	-				
		德永亮太郎		醫員	-	7급	70원	6급	6급	5급
전 북	全州 1909.12	小坂豊		축탁	120원	-				
		松田春一		축탁	-	100圓	100원	-		
		黒木聲		축탁	-			100원	100원	100원
	群山 1922. 2	廣瀬清		醫員	5급	-				
		北川(信)修		醫員	-	4급	3급	3급	3급	2급
전 남	順天 1922. 2	小池忠太	안과 兼	醫員	6급	-				
	濟州 1912.10	趙 源		축탁	-	95圓	95원	95원	-	
		竹候利一		축탁	-				120원	-
경 북	大邱 1910. 9	高達	東京齒校	醫官	7등10급	4등 2급	4등 6급	4등 6급	3등 6급	3등 5급
		福田博		醫員	-	8급	60원	醫員 7급	7급	70원
		白洪鎮 (伯野和勝)		축탁	-			25원	55원	-
		郭學壹		축탁	-					55원
	安東 1912.10	井口經敏	東京齒專	醫員	5급	6급	6급	5급	5급	-
황 해	海州 1910. 9	斐珍極 (慶光珍極)	조선검정	醫員	4급	2급	2급	2급	2급	2급
평 남	平壤 1910. 9	片瀬幸俊	東京齒校	醫官	7등 2급	4등 7급	4등 7급	4등 6급	3등 6급	3등 6급
		岩山一雄	日本齒校	醫員	6급	-				
		鈴木信吉		醫員	-	8급	-			
		横井太郎		축탁	-	60圓	醫員 10급	9급	8급	8급
		塚野多四郎		축탁	-				월250	-
		今井清澄		축탁	-					65원
평 북	新義州 1921.12	佐藤俊雄		축탁	-		125원	135원	醫員 6급	5급
	春川 1910. 9	高塚秀也	검정	醫員	7급	5급	4급	4급	4급	3급
강 원	江陵 1912. 8	李成模 (平野一成)	조선검정	醫員	5급	3급	3급	3급	2급	-
		迺開正彦		醫員	-					6급
	鐵原 1931. 4	久恒文男		축탁	-	110圓	의원 70원	6급	6급	6급
함 남	咸興 1910. 1	降旗一雄	조선검정	醫員	7급	5급	4급	4급	4급	3급
		金星淵龜		축탁	-					70원
	羅南 1910. 9	永富辰己	日本齒校	醫員	4급	-				
		内田操男		醫員	-	6급	6급	5급	4급	4급
함 북	城津 1923. 8	伊規須秀吉		축탁	-	85圓	90원	95원	-	
		木原繁		축탁	-				80원	85원
	會寧 1912. 8	金川澄	東京齒校	醫員	4급	-				
		小林弘		축탁	-	85圓	90원	95원	-	
		原口利郎		축탁	-				130원	醫員 6급
	龍井* 1918. 4	木下誠一郎		축탁	-	115圓	-			

* 龍井출장원진료소, 나머지는 道立醫院

朝鮮道立醫院概況

1930, 朝鮮道立醫院要覽 1937-1941

년대까지 전국에 총 45곳이 설립되었는데 그 중 20곳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었다(표9). 대부분은 일본인 치과의사가 임용되었는데 조선인으로는 황해 해주의원에 배진극(裴珍極), 강원 강릉의원에 이성모(李成模), 전남 제주의원에 조원(趙源)이 근무하였다³⁶⁾. 그중 배진극은 1922년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주의원에 근무하면서 경성제대 약리학 교실에서 조선인 치과의사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해주 온천지역의 반상치(斑狀齒) 연구를 비롯하여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 업적을 발표한 바 있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도립의원 치과의 진료 수입은 도립의원 전체의 수입에서 입원은 0.24%~0.49%, 외래는 4.11%~5.46%, 입원과 외래를 합하면 1.82%~3.0%를 차지하고 있었다(표10).

4. 치과의 · 입치사 구성과 분포

총독부는 치과의업자 신규 등록과는 별도로 치과의사규칙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 개업중인 치과의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1914년 3월경성의 일본인 6명, 19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1명이 확인되어 있는데, 그중 조선인은 7명으로 이종돈(李鍾敦, 부천), 룡광택(瀧光宅, 통영), 오장환(吳章煥, 재령), 차세호(車世鎬, 개천), 김정삼(金鼎三, 평양), 김기용(金基溶, 운산) 등 6명은 9월에 지방에서, 함석태(咸錫泰)는 10월에 경성에서 개

업하였다.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1912년), 1914년 2월 5일 면허 1호로 등록했던 함석태를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은 면허 등록한 기록이 없다. 1914년 이전에 개업하고 있던 기득권은 인정받았으나 치과의사규칙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표11)³⁷⁾.

이 시기 치과의업에 종사했던 치과의업자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의 명부는 이 글 말미에 수록하였다(첨부1,2). 지역별, 의료기관별 분포는 총독부에서 발행한 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치과의업자 개개인의 국적, 본적, 폐업, 사망 등 신상자료는 총독부 관보를 탐색하여 치과의와 입치사 전수(全數)를 추적하였다. 분석 대상인 치과의사 면허번호는 1,157번까지 발급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142명이며³⁸⁾, 입치사 면허번호는 664번까지 발급되어 있으나 실제 인원은 557명이다³⁹⁾.

1) 시기별 추이

1914년부터 1944년까지 등록된 치과의사(1,142명)는 입치사(557명)의 2배를 넘지만 시기별로 기복이 크다. 1919년까지도 치과의사 11명에 입치사 220명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였으나 1920년대 치과의사시험제도 도입과 경성치과의학교 설립으로 치과의사 배출이 증가하면서 그 격차는 좁혀지고 1933년을 기점으로 역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34)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병원 과장대리(1930~1937).

35) 1931년 李昌錫, 1933년 殷仲基, 趙吳衍 安斗漢, 李定煥, 1934년 高義龍, 1936년 金讚圭, 1937년 高義龍, 趙毅錫, 鄭用國, 鄭海永, 1938년 李聖民, 李迥柱, 潘泰收 韓宅東, 許沐, 1939년, 趙來燦, 吳紘敏, 1940년 文東先 金永龍, 金允淑, 1942년 金永昌, 1943년 金與煥

36) 조선총독부. 朝鮮道立醫院 要覽. 1937-41

37) “内地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조선에서 그 업에 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하등의 考査없이 무제한의 치과의업을 허가... 경성에 이런 특별허가를 받은 치과의업 영업자가 실로 수십명에 이르러... 치과의사와 다른 취체영업자, 자유영업, 조선인 무면허영업자 상호... 危害弊風 백출...” 白石保成. 朝鮮衛生要義. 경성. 1918. 75쪽.

38) 등록번호 1,157번 중 면허증 망실(亡失)로 재발급받은 15명이 중복되어 있어 실인원은 1,142명이다. 국적, 본적 등 분석에서는 관보누락 및 자료접근이 불가능한 10명을 제외한 1,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9) 입치사 등록번호는 664번까지 발급되었으나 1944년 1월, 번호 23개(636~658)가 건너뛰어 있어 실제 연번호는 641번이다. 그 중 동일번호에 2명 이상이 중복 등록된 사례로 42명이 추가되어(2명 등록 30건, 3명 등록 6건),

표 10. 독립의원 치과치료일수 및 수입 현황 (1932-1940, 日, 圓)

지역/명칭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開城	-	25							-									
경기 水原	-		-	64	-		-	21	-	51	-		-		-	24	-	
安城													768					
충북 淸州	4	2,351	12	3,615	26	4,152	24	3,901	-	5,263	8	6,739	123	9,025	-	7,014	-	7,803
전북 全州	-	1,780	-	1,751	-	2,211	-	2,426	-		-	2,145	6	2,415	35	2,071	30	1,568
群山	74	2,995	56	2,846	52	2,923	142	3,278	69	3,022	41	3,172	71	2,794	180	2,516	21	2,202
전남 濟州	-	1,338	20	2,272	1	3,028	-	1,659	-	2,176	3	2,088	20	1,646	13	2,349	24	3,238
경북 大邱	110	7,932	190	7,817	239	6,510	100	7,590	332	8,605	171	11,087	326	12,085	206	12,067	288	11,426
安東	8	5,601	27	4,596	94	4,381	27	5,573	13	5,558	7	6,874	30	8,393	116	7,294	96	8,486
황해 海州	5	6,761	-	6,127	-	5,414	51	5,977	20	5,607	-	6,493	5	6,783	4	6,801	-	5,707
평남 平壤	119	8,400	126	8,499	168	9,957	122	11,854	159	12,422	139	14,007	187	18,994	489	23,226	486	21,494
평북 新義州	-	6,287	-	4,202	-	4,587	8	4,999	8	3,499	28	3,242	24	4,657	20	4,259	42	8,147
楚山	1	669	8	787	6	327	-	300	-	160	-	123	-	32				
春川	-	4,159	-	6,276	8	6,106	-	7,623	-	5,780	21	7,138	41	6,960	4	9,223	-	7,590
강원 江陵	30	3,413	19	3,709	111	4,193	35	4,154	20	2,963	23	3,454	33	4,045	38	2,557	85	2,095
鐵原			-				48	2,244	50	4,566	13	3,963	24	3,661	-	2,555	37	2,454
長箭																	12	2,312
함북 咸興	33	7,794	-	7,500	73	8,398	82	7,498	32	7,140	81	6,529	34	6,457	47	7,397	144	9,967
羅南	38	3,276	125	5,264	180	6,001	309	4,202	170	3,907	267	4,116	390	5,060	433	4,866	459	5,364
城津	7	1,054	-	1,020	53	1,169	70	1,300	31	1,160	-	1,185	36	1,382	22	2,009	181	2,966
會寧	-	5,271	-	6,212	2	5,273	66	4,157	21	3,036	66	4,009	55	2,033	119	3,315	6	945
龍井*	-	1,234	-	1,138	-	1,994	-	2,019	4	1,935	-	1,359						
계	429	70,340	583	73,692	1,025	76,610	1,084	79,784	929	76,851	868	86,716	1,417	98,113	1,736	99,403	2,012	104,734
치과 입원		2,338.30		4,055.61		3,861.41		4,997.25		4,268.67		3,642.98		4,531.39		6,428.60		8,181.79
수입 외래		40,336.13		49,095.24		55,129.28		59,242.69		58,478.35		64,499.29		66,523.63		68,572.80		74,966.37
(圓) 계		42,674.43		53,150.85		58,990.69		64,239.94		62,747.02		68,142.27		71,055.02		75,001.40		83,148.16
입원		697,198.74		834,854.66		944,936.44		1,114,353.08		1,224,973.67		1,543,294.38		1,858,296.33		2,242,488.92		2,748,151.41
전체 수입 외래		801,909.68		938,917.20		1,019,559.40		1,085,140.46		1,217,539.94		1,283,056.25		1,381,294.84		1,519,464.72		1,821,989.73
(圓) 계		잘못된 계산식		1,773,771.86		1,964,495.84		2,199,498.54		2,442,513.61		2,826,360.63		3,239,591.17		3,761,953.64		4,570,141.14
치과 입원		0.34		0.49		0.41		0.45		0.36		0.35		0.24		0.34		0.30
수입 외래		5.03		5.23		5.41		5.46		5.46		4.80		5.03		5.03		4.11
비중 (%) 계		2.85		3.00		3.00		2.92		2.92		2.57		2.41		2.85		1.82

* 龍井출장원진료소, 나머지는 道立醫院

朝鮮道立醫院要覽 1937-1941

표 11 기존 개업 치과의 현황

이름	개업시기		주소		이전 개업지 / 비고	관보		
						호수	년	월일
野田 應治	1894		경성 옥정 4정목 50번호	개업	제물포, 남대문로	498	1914	3.31
飯塚 徹	1907		경성 본정 1정목 裏通 무번호	개업				
橋崎 東陽	1907		경성 남산정 2정목 160번호	개업				
注連内堅石			경성 장곡천 정 1정목 무번호	개업				
中村ヤス			경성 영락정 2정목 3번호	개업				
橋本清四郎			경성 영락정 1정목 2번호	개업				
滿田 朝	1915	10	충남 연기군 복면 조치원리	개업		730	1915	1.12
			경성 櫻井町 1정목	이전	(1930년 5월 본정 2-64)	964	1915	10.20
伊東喬	1915	6.9	경기도 경성부 한강동 12번지	개업		937	1915	9.16
鈴木正久		9.15	경성부 한강동 16번지 19호	개업		991	1915	11.23
可藤愼一		9.14	평남 평양부 壽町 134번지	개업				
德永壓作		8.28	함남 원산부 幸町 16번지	개업				
今村兵次		9.12	함남 원산부 中町 213번지	개업				
花曲清作		9월	내지 귀환	이전	청남 평양부 본정			
松島榮藏		9월	전남 순천군 순천면	이전	전남 광주군 광주면			
荒木武夫		9월	내지 귀환	이전	전남 여수군 여수면			
李鍾敦		9월	경기도 부천군	이전	잔남 광주군 효천면			
瀧光宅		9월	경남 통영군 통영면 조일정 424	이전	경남 고성군 철성면 성내동			
生田愼一郎		9월	황해 재령군 재령면 재령읍	이전	황해 장연군 해안면 조니동			
吳章煥		9월	황해 재령군 재령하류면 신원동	이전	황해 재령군 재령면 楠亨동			
福永豊綱		9월	전북 순창군 순창면	이전	황해 안악군 음내면 안악읍			
車世鎬		9월	평남 개천군 군내면 서변리	이전	평남 진남포부 원당면 후포동			
金鼎三		9월	평남 평양부 본정	이전	평남 평양부 장별리			
金基溶		9월	평북 운산군 북진면	이전	평남 안주군 임석면 임석리			
松島榮藏		9월	전남	이전	평북 강계군 음내면 포흥동			
咸錫泰		10월	경기도 경성부 송현동 68번지	개업		998	1915	12.1
福井鳴人		10.19	경남 부산부 영정 9정목 11번지	개업				
藤井康基		10.9	평남 평양부 본정 6번지	개업				

총독부관보 1914-1915

1941년 등록치과의사 수가 유독 많은 것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학제 변경으로 졸업식이 2차례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기 후반에 갈수록 입치사. 특히 일본인 입치사의 등록 수 감소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난다(표12).

2) 국적

치과의사 1,142명 중 일본인(753명, 66.5%)은 조선인(375명, 32.8%)의 2배를 넘고, 그 외 소수의 미국인(7명)과 대만인(1명)이 있었다. 입치사 총 557명은 일본인(48%)과 조선인(52%)으로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다(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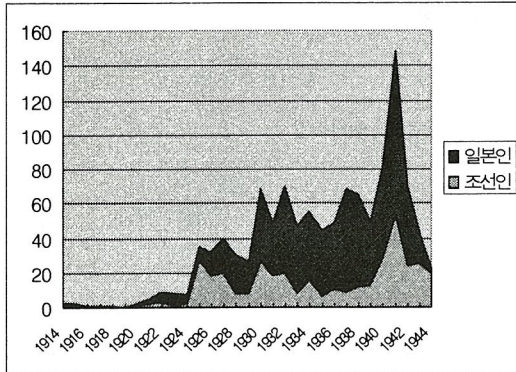


그림 2. 등록치과의사 연도별 추이
(총독부관보 1913~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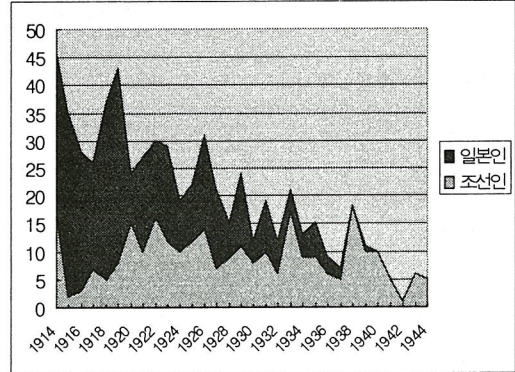


그림 3. 등록입치사 연도별 추이
(총독부관보 1914~1944)

3) 출신지역 (본적)

일본인⁴⁰⁾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가사끼(長崎), 카고시마(鹿兒島), 쿠마모토(熊本), 후쿠오카(福岡) 등 규슈지방 출신이 가장 많아서 전체 치과의사의 1/3, 전체 입치사의 4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야마구치(山口), 시마네(島根), 히로시마(廣島), 오카야마(岡山) 등의 중국지방과 애히메(愛媛), 코-치(高知) 등의 사국지방을 포함하면 전체 치과의사의 65%, 전체 입치사의 72.5%를 차지한다(표13).

조선인 치과의사는 경기, 경남, 평남 출신이 50.3%로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치사⁴¹⁾는 황해도 출신이 가장 많았다(표14).

4) 지역 분포

총독부 통계연보에 수록된 치과의업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15, 16과 같다⁴²⁾. 입치사의 경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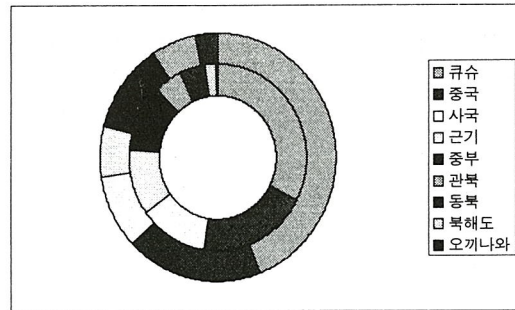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인 치과의업자 본적 분포
(총독부관보 1914~1944)

역별 통계는 취체규칙 제정이전에 국한되어 있는데⁴³⁾, 경기(경성), 경남(부산), 평남(평양)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조선인은 대부분 경성에 분포하고 있다(표15).

개업치과의사 분포를 보면 경성 및 경기도가 전체의 25%~30%를 차지하며 경남(부산), 경북

실제 등록수는 683명이다. 한편, 동일인이 기존지역에서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가 드물지 않아 (동일인이 번호 2개 받은 경우 71건, 번호 3개 받은 경우 10건, 번호 4개 받은 경우 10건, 번호 6개 받은 경우 1건) 결국 이미 등록된 사람에게 중복 배당된 총 126개의 번호를 제외하면 실인원은 557명이 된다. 국적, 본적 등 분석에서는 관보누락 및 자료접근이 불가능한 19명을 제외한 5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0) 일본인 치과의사 중 5명과 입치사 32명이 본적 자료가 누락되어 제외하고 분석함.

41) 조선인 입치사 중 본적 자료가 누락된 1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42) 해마다 지역 경찰관서에서 경무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당시 경찰위생의 성격에 비추어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보인다.

43) 1914년 이후 입치사는 경찰의 취체대상 수심 중 직업군 중 하나로 취급되어 지역별 자료까지 명기되지 않았다.

표 12. 연도별 국적별 치과의업자 등록 현황 (1914~1944)

	치과의사							입치사				
	일본	조선	미국	대만	누락	계	누계	일본	조선	누락	계	누계
1914	1	1	1			3	3	29	18	10	57	57
1915	2		1			3	6	28	3	1	32	89
1916	1					1	7	16	5		21	110
1917	1					1	8	19	5		24	134
1918	0	1				1	9	33	3		36	170
1919	0					0	9	26	6	1	33	203
1920	1	1				2	11	5	12		17	220
1921	3	2	1			6	17	10	11	2	23	243
1922	6	3	1			10	27	6	16	2	24	267
1923	7	1	1		3	12	39	8	7	1	16	283
1924	5	2				7	46	6	7	1	14	297
1925	8	26			1	35	81	5	9		14	311
1926	21	19				40	121	9	11		20	331
1927	21	19				40	161	12	6		18	349
1928	24	8				32	193	4	11		15	364
1929	19	7				26	219	8	12		20	384
1930	40	26				66	285	4	6		10	394
1931	29	18				47	332	6	9		15	409
1932	49	20				69	401	4	7	1	12	421
1933	39	7	1			47	448	7	11		18	439
1934	39	15				54	502	3	10		13	452
1935	40	5				45	547	4	10		14	466
1936	38	8	1			47	594	2	4		6	472
1937	58	8				66	660	1	6		7	479
1938	51	12			1	64	724	0	26		26	505
1939	36	13			3	52	776	1	11		12	517
1940	52	28		1		81	857	2	16		18	535
1941	95	53				148	1,005	0	6		6	541
1942	46	24			1	71	1,076	0	2		2	543
1943	18	25			1	44	1,120	0	8		8	551
1944	3	19				22	1,142	0	6		6	557
계	753	371	7	1	10	1,142		258	280	19	557	
%	66.5	32.8	0.6	0.1				48.0	52.0			

총독부관보 1914-1944

표 13. 일본인 치과의사, 입치사 출신지역별 규모 및 비율

	치과의 명(%)	입치사 명(%)	현(縣)별		
				치과의	입치사
큐슈지방	244 (32.5)	100 (44.2)	나가사키 長崎	42	25
			사가 佐賀	31	7
			카고시 鹿兒	41	21
			쿠마모토 熊本	37	17
			후쿠오카 福岡	46	18
			오이타 大分	26	10
중국지방	149 (19.9)	42 (18.6)	미야자키 宮崎	21	2
			야마구치 山口	44	12
			시마네 島根	10	1
			히로시마 廣島	53	13
			오카야마 岡山	36	15
			돗토리 鳥取	6	1
사국지방	95 (12.7)	22 (9.7)	애히메 愛媛	30	4
			코치 高知	28	10
			토쿠시마 徳島	12	4
			카가와 香川	25	4
			효고 兵庫	18	5
			쿄토 京都	12	2
근기지방	85 (11.3)	15 (6.6)	오오사카 大阪	14	1
			나라 奈良	8	0
			미에 三重	19	3
			와카야 和歌	14	4
			후쿠이 福井	5	0
			시가 滋賀	5	1
중부지방	87 (11.6)	26 (11.5)	이시카와 石川	9	1
			기후 岐阜	11	5
			아이치 愛知	21	7
			토야마 富山	2	1
			나가노 長野	8	5
			시즈오카 静岡	9	4
관북지방	37 (4.9)	14 (6.2)	야마나시 山梨	9	1
			니이가타 新潟	8	1
			군마 群馬	4	1
			사이타마 埼玉	1	3
			토쿄- 東京	12	6
			카나가 神奈	4	2
동북지방	36 (4.8)	7 (3.1)	토치기 栃木	7	1
			이바라키 茨城	6	0
			치바 千葉	3	1
			미야기 宮城	11	3
			후쿠시마 福島	12	1
			야마가타 山形	3	2
북해도	14 (1.9)	0 (0.0)	아키타 秋田	6	0
			이와테 岩手	3	0
			아오모리 青森	1	1
			홋카이도 北海道	14	0
			오끼나와	3	0
오끼나와	3 (0.4)	0 (0.0)			
누락	3	32			
계	753	132			

조선총독부 관보 1914~44

(대구), 평남(평양)의 비율이 높아 도시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대륙 진출에 맞추어 함남, 함북지방의 개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표14).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관할하였던 1939년 경상북도 내(內)

의업자 분포를 보면, 한지의사, 의생, 입치사는 군(郡) 단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의사, 치과의사는 도시(대구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편중의 정도는 치과의사가 더 심하였다(표17).

5) 출신배경(치과의사)

1921년까지 치과의사 면허등록자는 일본이나 외국의 치과의학교육기관을 졸업하였거나 일본에서 치과의술시험에 합격한 경우였으나, 1921년 이후 조선치과의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1925년 이후 경성치과의학교, 1930년 이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자가 배출되면서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표18)⁴⁴⁾.

6) 입치사에서 치과의사로

정규교육이나 임상수련을 받지 않은 입치사는 치과의사보다 위상이 낮았다. 치과의사시험이나 치과의학교육기관을 거쳐 치과의사가 된 입치사는 총 39명이었다. 그 중 입치사 면허 1호인 이희서(李熙瑞) 등 조선인은 12명, 일본인은 27명이었으며, 치과의사시험 응시가 가증해진 1920년대에 치과의사가 된 경우가 35%에 이른다(표19).

표 14. 조선인 치과의사, 입치사 출신지역(본적) 현황

	치과의/명(%)	입치사/명(%)
경기	101 (27.2)	31 (11.6)
강원	8 (5.2)	14 (2.2)
충북	10 (2.7)	7 (2.6)
충남	23 (6.2)	15 (5.6)
경북	27 (7.3)	25 (9.3)
경남	38 (10.2)	25 (9.3)
전북	13 (3.5)	14 (5.2)
전남	16 (4.3)	19 (7.1)
황해	28 (7.5)	35 (13.1)
평남	48 (12.9)	27 (10.1)
평북	20 (5.4)	26 (9.7)
함남	27 (7.3)	19 (7.1)
함북	12 (3.2)	11 (4.1)
누락	0	12
계	371	99.7

조선총독부 관보 1914-44

표 15. 총독부 초기 입치사 연도별 지역별 분포 (1911~1921)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소계	계
1911	일본인	22	2	4	3	2	5	11	2	4	4	2	1	3	65	77
	조선인	8				2						1	1		12	
1912	일본인	17	2	6	3	5	7	20	1	11	3	6	3	1	85	95
	조선인	8				1						1			10	
1913	일본인	14	1	8	6	8	8	15	3	12	7	5	3		95	106
	조선인	9				1	1								11	
1914	일본인	지역별 자료 없음													111	131
	조선인														20	
1921	일본인	지역별 자료 없음													107	158
	조선인														51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21

표 16. 총독부 시기 치과의사 연도별 지역별 분포 (1911~1933)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33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소계	계
1911	일본인	6		1	2	1	5	6		1			3	2	27	32
	조선인	3				1									4	
	미국인	1													1	
1912	일본인	8					3			1			2		14	15
	조선인														0	
	미국인	1													1	
1913	일본인	7			2	1	5		1	1			1		18	21
	조선인	2													2	
	미국인	1													1	
1914	일본인	8		1		1		6		1	1				18	20
	조선인									1					1	
	미국인	1													1	
1915	일본인	14	1	2		2	2	8	1	3	1		3	1	38	40
	조선인	1													1	
	미국인	1													1	
1917	일본인	24	1	1	2	2	3	10	1	4	2	2	3	4	59	62
	조선인	1													1	
	미국인	2													2	
1918	일본인	20	1	3	3	3	4	13	4	4	0	1	3	5	65	69
	조선인	1								1					2	
	미국인	2													2	
1919	일본인	20	1		5	3	6	16	3	6	1	2	2	5	70	72
	조선인	1					1		1	2					5	
	미국인	2													2	
1921	일본인	22	2	4	5	5	10	25	2	6	4	2	3	7	97	104
	조선인	3						1		1	1				6	
	미국인	1													1	
1922	일본인	25	2	5	5	5	12	24	2	6	3	2	4	5	100	111
	조선인	4					1	1	2	1	1				9	
	미국인	1													1	
1923	일본인	43	2	6	7	11	14	31	2	13	5	1	5	4	144	154
	조선인	4					1	2							7	
	미국인	2				1									3	
1924	일본인	46	2	5	6	13	14	34	1	10	3	1	5	8	148	163
	조선인	4			1	1	1	2	1	3					13	
	미국인	2													2	
1925	일본인	48	4	4	6	18	12	35	5	11	4	1	5	9	162	207
	조선인	14			2	1	2	3	2	11	1	1	4	1	42	
	미국인	2				1									3	
1926	일본인	62	4	5	10	14	15	39	6	9	4	1	7	8	184	246
	조선인	15			2	3	4	7	6	14	2		4	1	59	
	미국인	2				1									3	
1927	일본인	70	5	9	15	15	15	44	6	9	5	2	8	12	215	295
	조선인	19	1		2	5	2	8	9	17	5	2	5	2	77	
	미국인	2				1									3	
1928	일본인	79	4	14	16	15	18	49	6	13	5	3	10	14	246	338
	조선인	27	1	1	2	3	3	8	10	18	5	2	7	3	90	
	미국인	2													2	
1929	일본인	85	2	15	15	16	26	54	5	13	3	4	13	15	266	366
	조선인	30	1		2	5	4	10	9	19	5	3	6	3	97	
	미국인	2				1									3	
1930	일본인	106	1	15	17	17	26	54	8	15	6	6	17	14	302	415
	조선인	31	3	3	2	5	3	11	11	20	4	3	10	5	111	
	미국인	2													2	
1932	일본인	144	4	22	19	21	29	70	8	23	11	7	25	21	404	557
	조선인	43	1	4	4	6	6	18	16	27	6	7	7	5	150	
	미국인	2				1									3	
1933	일본인	158	6	32	21	27	31	68	8	28	11	9	24	25	448	605
	조선인	41		4	4	6	9	15	16	30	8	8	8	5	154	
	미국인	2				1									3	

표 17. 경상북도 의업자 현황 (1939.12.31)

	의사	한지 의사	의생	치과 의	입치 영업
대구부	56	0	34	28	2
달성군	1	2	14	0	0
경산군	2	1	15	0	1
영천군	4	1	26	2	0
경주군	8	1	25	3	1
영일군	11	3	28	4	2
영덕군	4	1	14	1	2
영양군	1	0	4	0	0
청송군	1	0	6	0	0
안동군	6	1	22	3	1
의성군	2	2	19	1	0
군기군	3	0	7	0	1
침곡군	2	1	10	0	0
김천군	5	1	20	5	2
상주군	5	1	14	4	0
예천군	2	2	9	1	1
영주군	5	0	18	1	1
봉화군	3	0	6	1	1
문경군	3	1	7	1	0
성주군	2	1	17	0	1
고령군	1	0	9	0	0
청도군	3	0	15	0	1
선산군	2	1	6	0	0
울릉군	1	0	2	0	0
계	133	20	347	55	17

慶尙北道 警察部 慶北衛生の概要 1940

표 18. 치과의사시험 합격자 및 경성치과의학교/전문학교 졸업자

	조선치과의사 시험 합격자							경성치과의학교/전문학교 졸업자							
	조선인		일본인		소계		계	조선인		일본인		계			
	一 차	二 차	一 차	二 차	一 차	二 차		경 치 교	경 치 전	경 치 교	경 치 전 본 과 별 과				
1921	1		5		6		6								
1922	5		(3)		8		8								
1923	1		(10)		11		11								
1924	(2)		(2)		4		4								
1925	(5)		(5)		10		10	23		4			27		
1926	(2)		(9)		11		11	20		18			38		
1927	(3)		(13)		16		16	16		-			8	-	24
1928	(3)		(9)		12		12	17					22		39
1929	1	1	6	11	7	12	19	5		8		13			
1930	1	0	12	10	13	10	23	10	17	3	22	52			
1931	1	3	11	16	12	19	31	10	2	8	31	51			
1932	2	0	22	20	24	20	44	-	14	-	38	52			
1933	2	2	15	18	17	20	37	2	15	2	56	75			
1934	1	2	13	13	14	15	29	-	20	-	57	77			
1935	1	1	23	21	24	22	46		16		88	104			
1936	1	-	15	-	16	-	16		16		94	110			
1937	3	0	34	18	37	18	55		18		67	85			
1938	5	0	28	15	33	15	48		24		33	31	88		
1939	-	18	-	43	-	61	61		17		39	24	80		
1940	12	15	23	45	35	60	95		36		38	26	100		
1941	15		45		60		60		51		27	33	111		
1942									41		22	23	86		
1943									52		27	21	100		
1944								61	29	10	100				
1945								28	88	22	138				
1945								20		16	27	63			
계	176	328	426	690	459	347	642	265	503	428	495	393	0		
								551		1,062					

조선총독부 관보, 1921~1941,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동창회명부 2004

- 44) 표18에서 '조선치과의사시험 합격자'는 총독부관보에 게재된 합격자 명부와 면허등록자를 대조하여 정리한 것으로, 개인 명부가 게재되지 않는 1928년까지는 괄호로 표기하였고, 1936년 2차 및 1939년 1차 시험 합격자 명부는 게재되지 않았다. 확인된 합격자 642명 중 면허 미등록자도 적지 않았다. '경성치과의학교 및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자'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동창회 명부와 면허등록자를 대조하여 정리한 것으로, 총 1,613명 중 대부분 치과의사 면허 등록을 하였으나 1940년 이후 조선인들은 창씨명으로 등록되어 있어 동일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표 19.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입치사 명부

	입치사			치과의사		
	면허번호	기간	지역	면허번호	등록연월	비고
李熙瑞	1	1914.2~1922.2	개성	68	1925.7	시험
馬場 豊	3, 144	1914.2~1921.10	밀양, 여수	14	1921.10	
藤井彌三郎	74	1915.6~1918.10	울도	34	1923.7	
齊藤孝	78	1915.7~1922.7	진남포	42	1924.9	
劉昌宣	124	1917.2~1922.1	재령	24	1922.1	
劉貞善	126	1917.2~1917.8	평원	186	1928.10	
大和田助次郎	137	1917.7~1922.6	군산	43	1924.11	
清水繁雄	143	1917~1922.11	여수	23	1922.11	
水島小一郎	187	1919.1~1921.10	목포	13	1921.10	
方貞均	218	1919.8~1922.11	원산	67	1925.7	
塚本券司	255	1921.5~1923.7	평양	33	1923.7	
李鎬坤	260	1921.7~1926.5	강서군	98	1926.5	
鄭道成	338	1923.12~1940.7	보령	837	1940.7	
嚴鉉宗	371, 391	1925.5~1926.5	평원, 신천	333	1931.11	1938.3 사망
永田利治	378	1925.9~1925.11	영광	214	1929.9	
竹下春高	404	1926.8~1928.8	논산	212	1928.8	
永野風生	418	1927.3~1932.6	연백	360	1932.6	
片岡長五郎	432	1927.10~1931.6	이천	358	1931.6	
松浦鐵市	436	1927.12~1931.6	경주	559	1936.1	
渡邊眞藏	437, 462	1928.1~1929.4	경주, 과산	224	1930.1	
李應嵩	453	1929.1~1930.1	고양	236	1930.4	
朴再順	463	1929.4~1939.12	양산	836	1940.7	
右田正喜	470	1929.8~1930.7	부천	270	1930.7	
田中重降	479	1930.7~1931.1	의성	289	1931.1	
橋本金作	489	1931.3~1932.7	산성	317	1931.7	
増永増美	499, 554	1931.11~1938.7	의주	709	1938.7	
山路義郎	500	1931.11~1934.11	괴산	500	1934.11	
飯田豊	502	1934.11~1933.1	경주	410	1933.1	검정 경치전
江野村重雄	508	1932.9~1933.6	길주	372	1933.6	
高橋豊	515	1932.9~1934.2	함안	459	1934.2	
申東寅	526	1933.7~1940.1	풍산	794	1940.1	
木下灌男	546	1934.8~1943.8	청양	1116	1943.9	
齊藤新	551	1934.10~1937.4	청주	624	1937.4	
杉野市平	559,	1935.8~1941.7	봉화	945	1941.7	
堀永儀人	571	1936.1~1936.12	-	600	1936.12	
永田忠富	578	1936.11~1936.12	금화	729	1938.1	
金玟洙	593	1937.1~1941	청주	795	1940.2	
石原重一	593, 630	1938.7~1945	고영	541	1935.10	
久禮眞積	598	1938.11~	영변	984	1941.10	
盧東遲	607	1939.9~1939.11	풍산	781	1939.12	

조선총독부 관보 1914~1944

5. 과제

지금까지 식민지 시기 치과의업자 현황을 살펴본 것은 이 시기 치과의업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었다. 식민지 조선 치과의업에 대한 접근은 서양 근대치과치료의 전개과정, 메이지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식민지 조선에 이식하는 과정, 해방 후 미국식 체계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는 과정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서구사회에는 ‘치아/구강(口腔)과 몸’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였다. ‘치아를 몸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 시각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19세기 중반부터 치과의사가 의사와는 별도의 전문직(profession)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이런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한편, ‘입은 당연히 몸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은 남부유럽에서 연원하여 20세기 초반 구(舊)소련, 동구 사회주의권,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북한에서 ‘의과(medicine)’의 한 분과, 즉 구강과(口腔科, stomatology)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 나라에는 치과대학이나 치과의사(dentist)는 없으며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구강과 수련을 거친 구강의사(stomatologist)가 있다. 이러한 2원적 현상은 과학적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역학관계 또는 역사적 정황(context)의 산물이었으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체계가 남북에 나뉘어 공존하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대한제국에서 활발하게 성장하던 근대보건의료체계는 러일전쟁 이후 식민 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재편되었으며, 전통 한방의료는 억제되어 의생(醫生) 차원으로 격하되었다. 조

선에 뒤늦게 소개된 치과의업의 경우 처음부터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식되면서 종속적, 식민적 성격이 특히 두드러졌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영업이 불법화되자 조선으로 이주하여 ‘성업(盛業)’을 극(極)⁴⁵⁾ 하였던 입치사(入齒師)들이 좋은 예이다.

일제는 강점 이후 ‘무단통치의 이면(裏面)’에서 효율적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을 위해 ‘신문계(新文界)’ 등 월간지를 간행하였는데⁴⁶⁾ 그 중에는 조선인 입치사 1세대였던 ‘금옥당(金玉堂) 주인’ 김경집(金敬執)의 글도 실려 있다. 당시 입치사를 통해 접한 신식(新式) 문물(일본식 서양치과기술)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 且 何等 故障이 無한 齒라도 金으로 甲齒을 入는 事도 有한니 此는 世人의 “하이칼라”의 華飾이라는 批評이 有한 事實은 決코 不然한 理由는 蛀病 及 穢臭를 防禦함이니...”⁴⁷⁾

또한, 식민시기 전반에 걸쳐 조선인 입치사는 물론 치과의사도 사회적 지위와 활동이 제한적이었기에, 해방 후 주체적 역량이 취약한 채 미국식으로 재편되면서 혼란을 거치게 되었다.

식민지 시기 치과의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치과의사 조직, 학술활동,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시기별 서술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문화사적 또는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당시 치과의업자들의 삶의 궤적, 또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 일반의 다양한 시선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치과의업의 성격과 그 현재적 의미를 더 풍부하고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45)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一), 朝鮮之齒界 1930; 1(1):15-8

46) 新文界(1913), 반도시론(1917) (한기형, 무단통치기 문화정책과 잡지 ‘신문계’의 역할: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의 이면. 문화예술. 2001; 258:128-135).

47) “...단 하등 고장이 없는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일도 있어 이를 세상 사람들이 ‘하이칼라’적 장식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이가 삭거나 냄새가 나는 것을 막는 것이니...” (金敬執, 齒牙의 衛生. 新文界. 1913; 1(2):73-75)

<첨부1>

식민지 시기 치과의(齒科醫) 면허 등록부

(누락분은 관보 미등제)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1	咸錫泰	1914	2.5	경기	일본치전	1912	482	14	3.11	1915.10 경성 송현동 68 개업(관보998호 15.12.1)
2	飯塚喜四郎		2.8	-			482	14	3.11	
3	E Hahn			미국	필라델피아대	1906				1918.5.24 사망 (관보1758호 1918.6.17)
4	杉本蔚	1915	1.27	岐阜			764	15	2.22	
5	WJ Scheifley		10.8	미국		1915	985	15	11.15	1919.5.30 폐업 (관보2091호 1919.1.7)
6	辰市捨三郎		12	奈良			1037	16	1.21	
7	外圭 三	1916	11	石川			1307	16	12.12	1922. 사망 (관보 2749호 1921.1.10)
8	近律義堯	1917	11.12	茨城			1639	18	1.25	
9	韓東燦	1918	2. 6	평남	동경치전	1917	1682	18	3.18	松林降莊 평양, 1937.12.16 본적변경, 1940.11.8 창씨개명 광화문
10	金昌圭	1920	3.31	경기	동양치전	1919	2309	20	4.24	
11	菅野末盛		7. 8	福島			2410	20	8.21	1919.1 입치사 (목포, 등록번호 187)
12	西野鐵雄	1921	5. 3	熊本			2655	21	6.17	
13	水島小一郎		10.19	岡山	검정	1921	2775	21	11.11	1914.2. 입치사 (밀양, 여수 등록번호 3, 144)
14	馬場豊		10.19	群馬	검정	1921	2775	21	11.11	
15	JJ Boots		11.17	미국	미국	1921	2802	21	12.14	高山莊培 1934.6.19 본적변경, 1941.10.4 창씨개명)
16	高相穆		12.7	경남	검정	1921	2824	22	1.14	
17	李熙昌		12.14	경기	일본치전	1921	2824	22	1.14	松江熙昌 무교동 개업, 1940.1.15 창씨개명 (관보4169)
18	McAnlis	1922	1. 7	미국	미국	1922	2849	22	2.14	
19	野村峯猪		1.13	高知	검정	1921	2849	22	2.14	202번 재하부
20	宮田健四郎		1.18	熊本	검정	1921	2849	22	2.14	
21	和田貞利		8. 22	東京	검정	1922	3027	22	9.13	1928.6.28 본적변경
22	李相喆		10.27	경남	검정	1922	3076	22	11.11	
23	清水繁雄		11.7	東京	검정	1922	3102	22	12.13	1917. 입치사 (여수, 등록번호 143)
24	劉昌宣		11.7	황해	검정	1922	3102	22	12.13	
25	邊世熙		11.9	평남	검정	1922	3102	22	12.13	原田世熙 19??8.5 창씨개명, 1940.11.8 개명 原田
26	内田操男		12.11	山口	검정	1922	3124	23	1.13	
27	岡田三那		12.12	愛知	검정	1922	3124	23	1.13	1933.10.26. 제중병원 화재로 증 소실
28										
29	JK Levie	1923		미국	미국	1923	3202	23	4.17	1921.5 입치사 (평양, 등록번호 255)
30										
31										1915.6 입치사 (울도, 등록번호 74)
32	林博		6.28	愛媛	검정	1923	3275	23	7.11	
33	塚本券司		6.28	静岡	검정	1923	3275	23	7.11	1923.9.25 사망
34	藤井彌三郎		7. 9	山口	검정	1923	3280	23	7.17	
35	中川正哲		7. 9	兵庫	검정	1922	3280	23	7.17	1933. 부산부 행정 자택에서 증 분실
36	前岡勇作		7. 9	三重	검정	1922	3280	23	7.17	
37	井尻○		7. 23	鹿児	검정	1922	3301	23	8.11	1940.12.16 본적변경, 창씨개명
38	重本柳平		9. 10	山口	검정	1922	3354	23	10.16	
39	裴珍極		11. 20	함북	검정	1922	3385	23	11.24	宮本政一 종로 3-842.개업, 1942.10.8 창씨개명
40	降旗一雄	1924	4. 25	長野	검정	1923	3522	24	5.13	
41	金然權		8. 22	경기	검정	1923	3619	24	9.4	1915.7 입치사 (진남포, 등록번호 78)
42	齊藤孝		9. 25	佐賀	검정	1923	3641	24	10.14	
43	大和田助次郎		11. 5	東京	검정	1923	3689	24	11.21	1917.7 입치사 (군산, 등록번호 137)
44	菊地壽直男		11.25	栃木	검정	1924	3695	24	12.6	
45	山下高義		12.1	福岡	검정	1924	3723	25	1.15	金村昌圭 1942.4.15 창씨개명
46	金昌圭		12. 25	경남	검정	1924	3746	25	2.12	
47										1942.4.26 사망
48	趙東欽	1925	4. 28	경기	검정	1924	3819	25	5.12	
49	金岐宇		5. 8	평남	경치교	1925	3843	25	6.9	金原岐宇 1932.9.14 본적변경, 1941.1.10 창씨개명
50	趙 源		5. 8	함남	경치교	1925	3843	25	6.9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51	朴俊榮	1925 5. 8	경기	경치교	1925	3843	25	6.9	木村俊榮	1940.9.13 본적변경, 창씨개명
52	尹秉俊	5. 18	강원	경치교	1925	3843	25	6.9		1939.6.23 사망
53	劉熙慶	6. 2	평남	경치교	1925	3859	25	6.27		
54	崔永植	6. 2	경기	경치교	1925	3859	25	6.27	山本松岡國	1942.10.8 창씨개명
55	李秉哲	6. 2	경기	경치교	1925	3859	25	6.27		
56	南基範	6.2.	평남	경치교	1925	3859	25	6.27		1930.5.3 사망
57	田薰祚	6. 2	평남	경치교	1925	3859	25	6.27		1932.7.19 본적변경
58	李武相	6. 2	황해	경치교	1925	3859	25	6.27		
59	今村 汎	6. 2	岐阜	경치교	1925	3859	25	6.27		
60	金凜伊	6. 19	경북	경치교	1925	3859	25	6.27	金原凜伊	1941.3.14 창씨개명
61	盧龍奎	6. 19	평남	경치교	1925	3859	25	6.27	上田興	1929.1.9 본적변경(평남), 1941.9.1. 창씨개명
62	祖川兼一郎	6. 19	長崎			3859	25	6.27		
63	金官鉉	6. 19	평남	경치교	1925	3859	25	6.27	金澤正雄	1930.2.6 본적변경, 1940.12.16 창씨개명
64	盧基燮	6. 19	황해	경치교	1925	3859	25	6.27	岡本基燮	1943.10.5 본적변경, 창씨개명
65	韓宗鎬	-	평남	경치교	1925				清水宗鎬	1940.11.8 본적변경, 창씨개명
66	朴元一	7. 2	평남	경치교	1925	3872	25	7.13		1928.6.30 본적변경
67	方貞均	7. 2	함남	검정	1925	3872	25	7.13	芳川金	1919.8 입치사 (원산, 등록번호 218)
68	李熙瑞	7. 2	경기	검정	1925	3872	25	7.13	松江熙瑞	1914.2 입치사 (개성, 번호 1) 1940.8.5 창씨개명
69	小島豊藏	7. 29	茨城			3907	25	8.24	大島兵作	1941.1.10 본적변경, 창씨개명
70	盧琬洙	7. 29	평북	경치교	1925	3907	25	8.24		
71	松尾兵作	7. 29	長崎	경치교	1925	3907	25	8.24		
72	八田末吉	7. 29	東京	경치교	1925	3907	25	8.24		
73	小野靜夫	8. 6	福島			3914	25	9.2		1928.6.30 본적변경(부산)
74	申應鉉	8. 6	경기	경치교	1925	3914	25	9.2		
75	李根用	8. 6	평북	경치교	1925	3914	25	9.2		
76	李寶培	8. 29	함북			3941	25	10.6		1926.7.13 사망
77	平井信行	8. 29	福島			3941	25	10.6		
78	高丈夫	9. 4	福岡			3941	25	10.6		
79	鄭東鎭	9. 22	함남	경치교	1925	3941	25	10.6		1929.7.12 본적변경(경기)
80	安鍾書	11.14	경기	경치교	1925	3978	25	11.21	安田鍾書	1942.10.8 창씨개명
81	姜興淑	11.21	함남	경치교	1925	4000	25	12.18		
82	金溶潛	1926 1. 20	경기	경치교	1925	4032	26	1.30	金村溶潛	종로 2-44 1942.10.8 창씨개명
83	吉岡松太郎	1. 20	大阪			4032	26	1.30		
84	河野夏代	2. 18	山口	경치교	1925	4061	26	3.6	若松夏代	1931.8.28 본적변경
85	泉恭一		德島							1929.11.20 사망
86	吳昌錫		경기	경치교	1926					1943.5.11 사망
87	盧漢圭		경기	경치교	1926				上田幸作	1941.5.10 창씨개명
88	松本清秀		경기						松本清秀	1943.3.13 창씨개명
89	安秉武		황해	경치교	1926				安田秉武	1940.11.8 창씨개명
90	崔丙智	4. 26	황해	경치교	1926	4113	26	5.7	沖本晴一	1940.12.16 창씨개명
94	李昌鎔	5. 3	경기	경치교	1926	4133	26	5.31		
95	松岡克己	4. 30	熊本	경치교	1926	4133	26	5.31		
96	金在浩	4. 30	평북	경치교	1926	4133	26	5.31	金本安弘	1940.11.8 창씨개명
97	咸泰榮	5. 5	함남	경치교	1926	4133	26	5.31		1927.7.8 증 분실
98	李鎬坤	5. 7	평남	경치교	1926	4133	26	5.31	松永光博	1921.7 입치사 (강서군, 260) 1941.1.10 창씨개명
99	今村彰	5. 12	愛媛	경치교	1926	4133	26	5.31		
100	姜信述	5.11	함남	경치교	1926	4133	26	5.31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개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91	宋允玉	4.26	경기	정치교	1926	4113	26	5.7	江島蔚雄	1932.11.25 본적변경(경남) 1940.3.5 창씨개명
92	齊藤影丸	4.26	福岡			4113	26	5.7		
93	韓昌鎬	5. 3	경기	정치교	1926	4133	26	5.31		
101	朴準大	1926 5.17	충남	정치교	1926	4133	26	5.31		1933.5.대구 전정 59 이화여관 도난 망실
102	淺野清一	5.19	徳島	정치교	1926	4133	26	5.31		
103	文箕玉	5.29	충남	정치교	1926	4148	26	6.18	文岩範二	1942.10.8 본적변경, 창씨개명
104	李俊燮	5.29	강원	정치교	1926	4148	26	6.18		
105	朴英信	5.29	함남	정치교	1926	4148	26	6.18	新井英信	1942.11.10 본적변경, 창씨개명
106	渡邊榮	5.29	愛媛	검정	1925	4148	26	6.18		
107	趙爽基	5.29	충남	정치교	1926	4148	26	6.18	大田爽基	1941.10.4 본적변경, 창씨
108	金德鄰	5.29	경기	검정	1925	4148	26	6.18		1938.2.28 사망
109	齊藤新平	6.19	愛知	정치교	1926	4164	26	7.7		
110	和泉喜太郎	6.19	北海道	정치교	1926	4164	26	7.7		
111	金翼晟	6.19	함남	정치교	1926	4164	26	7.7		
112	木下誠一郎	6.19	和歌山	정치교	1926	4164	26	7.7		1937 함북 용정 출장원진료소
113	渡邊道夫	7.9	岡山	정치교	1926	4191	26	8.9		
114	阿比留孝	7.13	長崎	정치교	1926	4191	26	8.9		
115	小田都	8.30	大阪	검정	1926	4230	26	9.25		
116	松枝イシ	10.2	佐賀	정치교	1926	4244	26	10.13		
117	早田憲治	10.30	長崎	정치교	1926	4265	26	11.8		
118	吉經一雄	11.25	熊本	검정	1926	4290	26	12.8		1941.3.28 사망
119	藤原弘男	11.25	愛媛	검정	1926	4290	26	12.8		
120	伊東高雄	12.9	福島	검정	1926	9	27	1.11		
121	趙鍾翁	12.16	함남	정치교	1926	9	27	1.11		1897.10.18생, 1939. 12 의사규칙 3월정지
122	堤喜代士	1927 1.11	静岡	검정	1926	35	27	2.14		
123	尹麒學	2.3	경남	검정	1926	35	27	2.14	伊原德治	1943.1.11 창씨개명
124	林榮均	2.20	경기	정치교	1926	63	27	3.18		
125	金近熙	3.8	함남	검정	1926	85	27	4.14		1931.10.15 사망
126	倉橋淵太郎	3.19	大阪	검정	1926	85	27	4.14		
127	中武盛一	3.28	宮崎	검정	1926	85	27	4.14		
128	盧昇模	4.21	평남	정치교	1927	99	27	5.2	長野昇模	본적변경(평북), 1941.8.7 창씨
129	崔祥麟	4.22	평남	정치교	1927	99	27	5.2	松山吉邦	1940.1.16 창씨
130	嚴弘燮	4.22	평남	정치교	1927	99	27	5.2		
131	宋斗燁	4.28	함남	정치교	1927	104	27	5.7		
132	國井定男	5.7	静岡	정치교	1927	131	27	6.8		
133	金敏鐘	5.7	경기	정치교	1927	131	27	6.8	豊田實	1943.7.7 본적변경
134	柿所進盛	5.7	埼玉	검정	1926	131	27	6.8		1933.6.8 사망
135	藤本イレ	5.7	廣島	정치교	1927	131	27	6.8	山野イレ	1939.5.3 본적, 성변경(熊本)
136	岩宮聲	5.7	山口	검정	1926	131	27	6.8		
137	金鎭衡	5.7	평북	정치교	1927	131	27	6.8		1929.1.18 화재로 증 소실
138	李勉泰	5.7	평남	정치교	1927	131	27	6.8	松原敏夫	1941.1.10 창씨개명
139	金在兆	5.7	평남	정치교	1927	131	27	6.8	金岡在兆	1940.11.8 창씨
140	朴俊遠	6.1	황해	정치교	1927	156	27	7.7	井村俊元	1941.2.8 창씨개명
141	徐柱根	6.1	평북	정치교	1927	156	27	7.7	川岸利雄	1940.5.4 창씨
142	申獻植	6.1	경기	정치교	1927	156	27	7.7		
143	清水富美子	6.1	和歌山	검정	1927	156	27	7.7		
144	野中久米次	6.1	佐賀	검정	1927	156	27	7.7		
145	根本アヤ子	6.20	長崎	정치교	1926	156	27	7.7	田中稜子	1934.9.6 경성에서 만주 이동 중 증 분실
146	久勝三郎	6.1	高知	검정	1927	156	27	7.7		
147	盧善敬	7.6	경기	정치교	1927	205	27	9.2		
148	小笠原聲	7.6	愛知	검정	1927	205	27	9.2		
149	崔且興	7.6	경기	검정	1927	205	27	9.2	山本永助	1941.2.8 창씨개명
150	池田昇	7.6	廣島	검정	1927	205	27	9.2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151	山野英子	1927	7.6	福島	경치교	1926	205	27	9.2	
152	永田利治		8.8	鹿兒島			205	27	9.2	1929.8.23 증분실
153	咸泰榮		8.18	함남			233	27	10.9	
154	劉福辰		8.18	경남	경치교	1927	233	27	10.9	河西豊吉 1943.2.24 본적변경, 창씨개명
155	高明天		8.18	평남			233	27	10.9	
156	村辻富美子		10.3	和歌山			267	27	11.18	
157	町田武雄		10.3	山口			267	27	11.18	
158	林義信		10.3	北海道			267	27	11.18	1928.10.2 사망
159	朴基夏		10.3	함남	경치교	1927	267	27	11.18	新井基夏 1940.9.13 본적변경, 창씨
160	高木健吉		11.9	廣島			406	28	5.9	
161	秋月禎一		11.18	佐賀	경치교	1927	406	28	5.9	
162	中山政子		12.9	岡山	경치교	1926	406	28	5.9	
163	徳永亮太郎	1928	2.9	熊本	경치교	1927	407	28	5.10	1937~1941 충북자혜의원
164	山中正男		2.16	熊本	경치교	1927	407	28	5.10	
165	李永泰		3.8	황해	경치교	1927	410	28	5.4	小林義雄 1940.6.15 창씨
166	柏木登良之助		3.8	神奈川			410	28	5.4	河手登良之助 1931.8.28 성, 본적변경(山口) 1934.5.11 사망
167	李正信		3.8	평남	경치교	1928	410	28	5.4	運培正信 1941.1.10 본적변경, 창씨
168	岩村千琦		3.8	栃木	경치교	1928	410	28	5.4	
169	壹岐幸信		5.15	宮崎	경치교	1928	430	28	6.6	1936.3.29 사망
170	岡ヒサコ		5.15	和歌山			430	28	6.6	鈴木ヒサコ 1929.2.27 본적, 성 변경
171	○田勝隆		5.15	島根			430	28	6.6	1930.7.16 사망
172	中野五郎		5.15	長野	경치교	1928	430	28	6.6	
173	長谷川鎭市		5.16	新潟	경치교	1928	430	28	6.6	
174	遠藤重三		5.23	愛媛			430	28	6.6	1936.10.10 하얼빈 자택 강도, 증 분실
175	黒木琴一		5.25	宮崎	경치교	1928	430	28	6.6	1930 경치전 1회, 1937.7.2 폐업
176	廣川淳一		3.31	大阪	경치전	1930	430	28	6.6	
177	長濱直次		6.7	茨城	경치교	1928	464	28	7.16	
178	西川録		6.16	廣島	경치교	1928	464	28	7.16	江頭録 改名
179	花井利道		6.16	新潟			464	28	7.16	
180	朴明鎭		6.16	경기	경치교	1928	464	28	7.16	新井明鎭 1930 경치전 1회, 19 42.10.8 창씨
181	松島直也		6.30	동경			464	28	7.16	
182	吉丸昌武		6.30	동경	경치교	1928	464	28	7.16	
183	安永順		7.2	경기			502	28	8.29	安本炳植 1941.12.2 창씨
184	渡邊マキ		7.10	宮崎			502	28	8.29	1931 경의전-->세브란스
185	佐藤愛子		8.8	宮城	경치교	1928	518	28	9.17	1933 총독부 의무부수
186	劉貞善		9.12	평남	검정	1928	542	28	10.16	忠本貞善 1917.2 입치사 (평원, 등록번호 126)
187	井上寅男		9.12	山梨			542	28	10.16	
188	高坂梅子		3.13	石川			565	28	11.17	
189	金明福		3.19	평남	경치교	1928	565	28	11.17	1930.9.27 본적변경(황해), 1943.2.2 사망
190	孫福珠		3.19	경기	경치교	1928	565	28	11.17	1933.3.11 사망
191	大坪乙年夫		1.11	佐賀	경치교	1928	584	28	12.10	
192	井上良登		11.15	長崎	경치교	1928	584	28	12.10	1931.1.22 폐업
193	濱上靜子		11.15	山口	경치전	1931	584	28	12.10	
194	李天興		12.7	경기	경치교	1928	616	29	1.23	廣宮天興 1942.10.8 창씨
195	官入公男	1929	1.21	群馬			634	29	2.14	
196	南壽熙		3.22	전북	경치교	1928	682	29	4.13	
197	金館衡		3.25				682	29	4.13	門孝尙憲 1940.1.16 창씨개명
198	金喆庸		4.19	경기	경치교	1929	700	29	5.6	1933 총독부 의무부수
199	服部靜		4.19	三重			700	29	5.6	1941.3.10 사망
200	坂井俊雄		5.2	佐賀	경치교	1929	734	29	6.14	1942.1.20 면허 반납(후생대신 면허)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201	保垣コトラ	1929	5. 2 廣島	경치교	1929	734	29 6.14	林 ヨネ 芳賀清	1922.8.22 증소실 1943.11.4 개명 1931.10.15 증 분실 1940.10.21 창씨개명
202	和家貞利		5. 2 東京			735	29 6.15		
203	木村ヨネ		5. 9 福島	경치교	1928	732	29 6.12		
204	大石久雄		5. 15 静岡	경치교	1929	732	29 6.12		
205	金永祚		5. 17 경남	경치교	1929	732	29 6.12		
206	金炳鎬		5. 18 황해	경치교	1929	732	29 6.12		
207	權巨富		6. 14 충남	경치교	1929	734	29 5.31		
208	山岐タキ		8. 22 岩手			793	29 7.4		
209	河手ヒサエ		8. 22 山口			793	29 7.4		
210	酒井天代一		8. 22 山口	검정	1929	793	29 7.5	金本義廣	1936.8.27 사망 1939.5.3 본적변경, 1939.12.16 창씨개명 1926.8 입치사(논산, 등록번호 404) 1925.9 입치사(영광, 378), 1928.8.23 증분실
211	金尙文		8. 22 경남	검정	1929	793	29 7.15		
212	竹下春高		8. 22 鹿児島	검정	1929	793	29 7.27		
213	横田東一		9. 13 新潟	검정	1929	812	29 8.12		
214	永田利治		9. 13 鹿児島	검정	1928	812	29 8.12		
215	見掛信造		9. 13 大阪	검정	1929	812	29 8.19		
216	福田増殖		10. 23 岡山			842	29 9.5		
217	狩野錦司		11. 14 宮城	검정	1929	861	29 11.14		
218	松岡榮		11. 6 福岡	검정	1929	895	29 12.26		
219	山口あやの		11. 9 富山	경치교	1928	895	29 12.26		
220	張志遠		11. 18 경기	경치교	1928	895	29 12.26	松本英翰 春山東煥	1935.1.16 본적, 성 변경 1928.1 입치사 (경주, 괴산, 437, 462)
221	安蘇ふし		12. 6 和歌山			918	30 1.27		
222	梅田清鶴	1930	1. 10 奈良			927	30 2.6		
223	板本岡		1. 21 愛知	검정	1929b	927	30 2.6		
224	渡邊進藏		1. 23 栃木	검정	1929b	927	30 2.6		
225	深見史郎		1. 29 高知	검정	1929b	927	30 2.6		
226	小候義夫		2. 14 大分	검정	1929b	951	30 3.7		
227	岩崎義治		2. 25 島根	검정	1929b	951	30 3.7		
228	川島茂樹		3. 11 高知	검정	1929b	979	30 4.11		
229	森口茂		3. 17 福岡	검정	1929b	979	30 4.11		
230	菅田清治		3. 31 鳥取	검정	1929b	979	30 4.11	長谷川石倉 平岡正淳	1941.3.14 본적변경, 창씨개명 1931 경의전->세브란스 1933 총독부 의무부수 1940.8.5 창씨개명 1938.6.18 본적변경, 1940.11.8 창씨개명 1929.1 입치사 (고양, 등록번호 453) 1941.12.1 창씨 1940.1.16 창씨개명 1940.8.5 창씨개명
231	岩城喜一郎		4. 8 熊本	검정	1929b	1005	30 5.13		
232	蔡善信		4. 8 함북	검정	1929b	1005	30 5.13		
233	李東煥		4. 11 경기	경치전	1930	1005	30 5.13		
234	殷仲基		4. 11 전북	경치전	1930	1005	30 5.13		
235	郭元榮		4. 19 경기	경치교	1930	1005	30 5.13		
236	李應尙		4. 23 경기	교4/ 전1	1930	1005	30 5.13		
237	金溶奉		4. 23 경기	교4/ 전1	1930	1005	30 5.13		
238	崔一漢		4. 23 충남	교4/ 전1	1930	1005	30 5.13		
239	申仁澈		4. 26 충북	교4/ 전1	1928	1005	30 5.13		
240	尹炳翼		4. 26 경기	경치교	1930	1005	30 5.13	田佳徳子 朝野光潤 淸州福熙 金谷禎奎	1939.12.7 사망 1941.5.10 본적변경(평북), 창씨개명 1941.5.10 창씨 1940.11.8 본적변경, 창씨개명 1933 총독부 의무부수 1940.11.8 창씨 1936.9.11 자택화재 소실, 증 무효
241	李三葉		4. 26 평남	경치교	1930	1005	30 5.13		
242	藤原壽一		4. 26 愛媛	경치교	1928	1005	30 5.13		
243	安德孫		4. 28 함북	경치전	1930	1005	30 5.13		
244	金光潤		5. 5 황해	경치교	1930	1025	30 6.5		
245	安福孫		5. 6 함북	경치전	1930	1025	30 6.5		
246	平後園藤吉		5. 6 鹿児島	경치전	1930	1025	30 6.5		
247	李定煥		5. 12 평북	경치전	1930	1025	30 6.5		
248	金禎奎		5. 12 평남	경치교	1930	1025	30 6.5		
249	森清		5. 12 愛知	경치전	1930	1025	30 6.5		
250	鄭信道		5. 12 평남	경치교	1930	1025	30 6.5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고
				출신	년	호수	년월일		
251	朴演杓	1930 5. 12	경남	경치전	1930	1025	30 6.5	新井増吉	1943.11.4 창씨개명
252	崔達亨	5. 12	함남	교4/전	1930	1025	30 6.5	高山幸明	1941.3.14 창씨개명
253	金裕植	5. 12	경기	경치교	1930	1025	30 6.5	金原敏雄	1940.8.5 창씨개명
254	中條英夫	6. 3	香川	경치전	1930	1050	30 7.4		1942.4.10 폐업(후생대신 면허로 증 발급)
255	板本積	6. 3	熊本	경치교	1930	1050	30 7.4		
256	宮崎守	6. 3	山口	경치전	1930	1050	30 7.4		
257	薮下數夫	6. 3	廣島			1050	30 7.4		
258	大村薫	6. 3	廣島			1050	30 7.4	春出薫	1932.6.24 본적, 성 변경
259	近藤春喜	6. 3	高知	경치전	1930	1050	30 7.4		
260	鈴木武夫	6. 3	静岡	경치전	1930	1050	30 7.4		
261	宮本久次	7. 2	奈良	검정	1930	1078	30 8.6		
262	李昌楬	7. 2	평북	경치교	1930	1051	30 8.6		
263	趙明鎬	7. 7	경기	경치전	1930	1051	30 8.6	德山明鎬	1942.10.8 창씨
264	吉岐正男	7. 7	廣島	경치전	1930	1051	30 8.6		1934.5.30 사망
265	吉岡登	7. 7	宮崎	경치전	1930	1051	30 8.6		1934.5.20 사망
266	眞山誠	7. 10	千葉	검정	1930	1051	30 8.6		1939.6.16 폐업
267	山室元仁	7. 19	岡山	검정	1930	1051	30 8.6		
268	林一	7. 29	大阪	검정	1930	1051	30 8.6		
269	小川捨三郎	7. 29	滋賀	경치전	1930	1051	30 8.6		
270	右田正喜	7. 29	大分	검정	1930	1051	30 8.6		1929.8 입치사 (부친, 등록번호 470)
271	百崎武平	8. 11	福岡	경치전	1930	1105	30 9.6		
272	楠國雄	8. 11	宮崎	경치전	1930	1105	30 9.6		
273	石川武敏	8. 11	長崎	경치전	1930	1105	30 9.6		
274	福井實三郎	8. 11	京都	검정	1930	1105	30 9.6		1937.5.11 사망
275	劉相文	8. 14	전남	검정	1930	1105	30 9.6		
276	田村茂義	8. 21	高知	검정	1929b	1105	30 9.6		
277	新徳薫	9. 12	宮崎			1129	30 10.7		
278	邊鎬鐸	9. 15	평북	경치교	1930	1129	30 10.7		
279	關口貞	9. 20	秋田			1129	30 10.7		
280	高本ツマ子	10. 6	長崎	경치교	1930	1153	30 11.6		1931.10.11 사망
281	澁谷幸	10. 15	大阪			1153	30 11.6		
282	加藤孟正	10. 31	香川	경치전	1932	1153	30 11.6		
283	申獻植	10. 31	경기			1153	30 11.6		1927.6.1, 증 분실 발급, 1942.8.31 사망
284	森本みき	11. 13	山梨			1177	30 12.4	林みき	1940.5.4 본적 및 씨 변경(栃木)
285	柳成璣	11. 13	황해	경치전	1930	1177	30 12.4	柳川成璣	1942.4.15 창씨
286	咸始英	11. 2	황해	경치교	1930	1202	31 1.10		1931.3.23 사망
287	更家留一	11. 10	三重	검정	1930	1202	31 1.10		
288	向井節一	11. 10	廣島	경치전	1930	1202	31 1.10		
289	田中重降	1931 1. 6	廣島	검정	1930b	1226	31 2.9		1931.3. 입치사 (의성, 등록번호 479)
290	德増康亥	1. 14	大阪	검정	1930b	1226	31 2.9	村辻康亥	1934.1.29 본적, 성 변경(和歌山)
291	池田寛	1. 22	京都	검정	1930b	1226	31 2.9		
292	洪善樣	1. 26	평남			1226	31 2.9	朴善攘	1941.11.6 본적변경, 창씨
293	李輪運	2. 19	평남			1246	31 3.4		
294	笠原完	2. 23	岡山	검정	1930b	1246	31 3.4		
295	崔錦鳳	3. 2	평남			1275	31 4.9	松岡隆子	1942.2.2 본적변경, 창씨개명
296	○原助一	3. 4	愛知	검정	1930b	1275	31 4.9		
297	上原俊雄	3. 4	鹿兒島	검정	1930	1275	31 4.9		
298	遠藤義見	4. 10	宮城	검정	1930b	1297	31		
299	金殷鍾	4. 18	경남	경치전	1930	1297	31 5.6		
300	洪思根	4. 28	경기	경치교	1931	1297	31 5.6	三井義大	1942.10.8 본적변경, 창씨개명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월일		
301	李景萬	1931	4.28	충남	경치교	1931	1297 31 5.6	西原良平	1941.6.5 본적변경, 창씨개명
302	大澤光義		4.28	靑森	검정	1930b	1297 31 5.6		
303	蔡禧鎔		4.29	평남	경치교	1931	1297 31 5.6	灣川禧鎔	
304	李鍾奭		5.12	충남	경치교	1931	1324 31 6.6	土井英志	
305	多田格		5.12	岡山	경치교	1931	1324 31 6.6		
306	趙基鵬		5.12	평남	경치교	1931	1324 31 6.6		
307	權載永		5.12	평남	경치전	1930	1324 31 6.6	石山光一	
308	李華淑		5.12	평남	경치교	1931	1324 31 6.6	朴澤華淑	
309	北村滿守		5.12	高知			1324 31 6.6	宮崎滿守	
310	吳翊東		5.12	충북	경치전	1931	1324 31 6.6	西川翊東	
311	黃河雲	6.6	전북	경치교	1931	1349 31 7.6			1940.8.5 창씨개명 1938.12.5 본적변경, 19 41.1.10 창씨 1938.2.3 본적 성 변경(愛媛) 1942.10.8 본적변경, 창씨
312	竹田富吉		6.6	石川	검정	1930b	1349 31 7.6		
313	中野弘		6.6	福岡	검정	1931	1349 31 7.6		
314	島田佐太郎		6.6	福岡	검정	1931	1349 31 7.6		
315	李昌榮		6.18	황해	경치교	1931	1349 31 7.6		
316	石桓千鶴子		6.20	福岡			1349 31 7.6	川田千鶴子	
317	橋本金作		6.20	山口	검정	1931	1349 31 7.6	二宮金作	
318	澤田石平		6.24	新潟	검정	1931	1349 31 7.6		
319	若狹修太郎		6.24	京都	검정	1931	1349 31 7.6		
320	趙敬鎬		6.27	경기	검정	1931	1349 31 7.6	潮映行	
321	望月茂	6.30	7.3	靜岡	검정	1931	1349 31 7.6		1941.2.8 창씨개명 1940.11.8 창씨개명 1932.5 사망 1929.5.15 증 분실 1925.5 입치사(평원, 신천, 371, 391) 1937.3.8 사망
322	緒方新		7.3	佐賀	경치전	1931	1376 31 8.6		
323	文平國		7.3	경기	경치전	1931	1376 31 8.6	安邊朝國	
324	平野チヨ		7.23	長崎			1376 31 8.6		
325	田中季雄		7.23	大阪	검정	1930b	1376 31 8.6		
326	田川周治		7.28	三重	검정	1931	1376 31 8.6		
327	白石松太郎		8.12	長崎	검정	1931	1404 31 7.8		
328	江頭保一		8.31	佐賀	검정	1931	1404 31 9.8		
329	若松重義		10.26	鹿兒島	경치전	1931	1450 31 11.5		
330	大石久雄		11.18	靜岡	경치교	1929	1474 31 12.4		
331	橋高米三郎	1932	11.18	廣島	검정	1931b	1474 31 12.4		1942.1.15 창씨개명 1940.12.15 창씨 1941.6.5 창씨개명 1940.11.8 창씨개명
332	金知泳		11.18	함남	경치교	1929	1474 31 12.4		
333	嚴鉉宗		11.20	황해	검정	1931b	1474 31 12.4		
334	山本一郎		12.7	熊本	검정	1931b	1505 32 1.16		
335	鎌谷兼吉		12.12	兵庫	검정	1931b	1505 32 1.16		
336	山根義雄		1.15	山口	경치교	1931	1505 32 1.16		
337	花川正枝		1.15	茨城			1519 32 2.2	尾崎正枝	
338	原滿		1.15	福島	검정	1931b	1519 32 2.2		
339	橋村榮		1.15	熊本	검정	1931b	1519 32 2.2		
340	水田晴治		1.22	兵庫	검정	1930b	1519 32 2.2		
341	吳延龍	2.1	2.1	황해	검정	1931b	1519 32 2.2	佐藤延龍	1940.12.15 창씨 1941.6.5 창씨개명 1940.11.8 창씨개명
342	福村武千代		2.1	奈良	검정	1931b	1552 32 3.12		
343	金基煥		2.1	경남	검정	1931b	1552 32 3.12	海見擊	
344	鎌田不二雄		2.4	鹿兒島	검정	1931b	1552 32 3.12		
345	李成模		2.27	강원	검정	1922	1552 32 3.12	平野一成	
346	李有慶		3.25	평남	교4/전	1930	1572 32 4.6		
347	平木春美		3.23	廣島	검정	1931b	1572 32 4.6		
348	江森武夫		4.6	山口	검정	1931b	1597 32 5.7		
349	金必奎		4.30	경남	경치전	1932	1597 32 5.7		
350	高久勇		4.30	福島	검정	1931b	1597 32 5.7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고
				출신	년	호수	년월일		
351	高漢俊	1932	4.25	전북	경치전	1932	1597 32	高山松雄	1940.1.16 본적변경, 창씨개명
352	安義成		5.7	경남	경치전	1932	1624 32	安田正義	1941.6.6 창씨개명
353	川副富重		5.13	高知			1624 32		
354	黃亮燮		5.13	전남	경치교	1932	1624 32	廣田亮燮	19 40.12.10 의사규칙 위반 3개월 정지 1942.10.8 창씨
355	李尙均		5.13	경기	경치전	1932	1624 32	高峰伯均	1942.10.8 창씨(李伯均), 1942.11.3 창씨
356	韓道洙		5.13	전북	교7/전3	1931	1624 32		
357	鄭用國		5.13	경기	경치전	1932	1646 32		1939 총독부 의무부수
358	片岡長五郎		5.18	德島	검정	1932	1646 32		1928.10 입치사 (이천, 등록번호 432)
359	二宮久男		5.24	愛媛	검정	1931b	1646 32		1927.12 입치사 (경주, 등록번호 436)
360	永野豊生		6.2	長崎	검정	1932	1646 32		1927.3 입치사 (연백, 등록번호 418)
361	永瀬英一		6.2	神奈川	경치전	1932	1646 32		
362	鈴木ヒサコ		6.13	山梨			1646 32		1928.5.15 중 유실
363	茂田寛一		6.16	福井	경치교	1932	1646 32		
364	朴榮福		6.22	함남	검정	1932	1646 32	新本榮	1941.11.6 본적변경, 창씨개명
365	川副秀雄		6.22	佐賀	경치전	1932	1646 32		
366	村田嘸吉		6.22	三重	검정	1931b	1646 32		
367	大沼角藏		6.22	東京	검정	1931b	1646 32		1942. 4.16 사망
368	林載吉		6.24	평남	경치전	1932	1646 32		
369	清水俊次郎		6.24	宮城	경치전	1932	1646 32		
370	崔正薰		6.30	평남			1646 32		
371	小玉唯夫		6.30	廣島	검정	1931b	1646 32		1936.8.24 사망
372	江野村重雄		6.30	岡山	검정	1932	1646 32		1932.9 입치사 (길주, 등록번호 508)
373	杉谷政雄		6.30	北海道	검정	1932	1646 32		
374	鈴木公重		6.30	山梨	검정	1932	1646 32		
375	藤井晃		6.30	山口	검정	1932	1646 32	長崎晃	1936.11.24 본적, 성 변경
376	谷川久作		7.7	長崎	검정	1932	1676 32		
377	吳孝善		7.7	경기	경치전	1932	1676 32	吳孝太郎	1942.10.8 창씨개명
378	堀義助		7.7	宮崎	검정	1932	1676 32		
379	塚木義雄		7.7	大阪	검정	1932	1676 32		
380	安部立美		7.7	岡山			1676 32		1934.4.24 경성부 원정 2정목 68번지 중 훼손
381	趙今松		7.7	전남	검정	1932	1676 32		1938.2.3 본적변경(경기)
382	岡村末松		7.7	山口	검정	1932	1676 32		1936.3.10 사망
383	中瀬吉藏		7.19	岩手	검정	1932	1676 32		
384	吉田光夫		7.19	岡山	검정	1932	1676 32		
385	周田哲		7.26	山口	검정	1932	1676 32		
386	氏原龜吉		7.26	高知	검정	1932	1676 32		
387	前田三郎		8.10	福岡	검정	1932	1700 32		1932.8.10 면허 분실로 자동 무효
388	林金雄		8.13	石川	검정	1932	1700 32		
389	金世卿		8.13	경기	경치전	1932	1700 32		
390	坪井清一		8.20	岐阜	검정	1932	1700 32		
391	山本重男		8.20	廣島	경치전	1931	1700 32		
392	今村正二郎		9.27	福岡	검정	1930	1725 32		
393	金和順		10.8	경기	경치전	1932	1749 32		
394	橋田貞雄		11.11	熊本	검정	1932	1771 32		1944. 4.4 사망
395	健信隆		11.11	鹿兒島	검정	1930	1771 32	健石信隆	1942.8.26 창씨
396	中山保		11.17	山口	검정	1932b	1771 32		
397	前田三郎		11.25	福岡			1771 32		
398	兒玉繁		11.25	鹿兒島	검정	1932b	1771 33		
399	大川松夫		12.5	佐賀	검정	1932b	1801 33		
400	大谷孫平		12.5	愛媛	검정	1932	1801 33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월일			
401	關屋與一郎	1932	12.1	福岡	검정	1932b	1801	33	1.12	原濟莘	1943.11.4 본적변경, 창씨 1932.12.8 증 분실, 1938.8 의사규칙 3월 중지
402	元濟莘		12.8	경기	경치전	1932	1801	33	1.12		
403	柳煥烈		12.8	경기			1801	33	1.12		
404	福岡八百松		12.12	福岡	검정	1932b	1801	33	1.12		
405	新谷壽吉		12.19	廣島	검정	1932b	1801	33	1.12		
406	福岡義孝		12.25	和歌山	검정	1932b	1801	33	1.12		
407	岡村齊次郎	1933	1.16	三重	검정	1932b	1818	33	2.1		
408	佐藤武雄		1.16	長崎	검정	1932b	1818	32	2.1		
409	松本政俊		1.16	鳥取	경치전	1932	1818	33	2.1		
410	飯田豊		1.16	山口	검정	1932b	1818	33	2.1		
411	夏本一男		1.28	廣島	검정	1932b	1818	33	2.1	八木秀明	1934.11 입치사 (경주, 등록번호 502)
412	大石榮太郎		2.3	長崎	검정	1932b	1841	33	3.1		
413	谷川三二		2.13	愛媛	검정	1932b	1841	33	3.1		
414	田中久成		3.3	大阪	검정	1932b	1869	33	4.5		
415	深見浩		4.5	熊本			1888	33	4.28		
416	小林正次郎		4.17	山口	검정	1932	1888	33	4.28		
417	岡田公道		4.28	香川	경치전	1933	1908	33	5.23		
418	三岐守節		5.19	山梨	경치전	1932	1908	33	5.23		
419	李昌男		5.19	경기	경치전	1933	1908	33	5.23		
420	松本文生		5.19	熊本	경치전	1933	1908	33	5.23		
421	松本勝		5.25	高知	검정	1933	1908	33	5.23	博澤擊	1938.1.29 사망 1942.10.8 창씨개명 1934.10.9 사망
422	鄭貴紛		5.29	함북	경치교	1931	1908	33	5.23		
423	西山龜七		5.29	佐賀	검정	1933	1934	33	6.22		
424	菊田文雄		6.7	愛媛	검정	1932b	1934	33	6.22		
425	尾本荒雄		6.7	山口	검정	1933	1934	33	6.22		
426	岩瀬清尊		6.12	香川	검정	1932	1934	33	6.22		
427	菅輝政		6.22	福岡	검정	1933	1934	33	6.22		
428	朴準大		6.28	충남			1967	33	7.31		
429	岡田清		7.17	德島	검정	1933	1967	33	7.31		
430	韓相謙		7.17	평남	검정	1933	1967	33	7.31		
431	小川光治		7.17	長野	검정	1933	1967	33	7.31		
432	堀部良友		7.24	長崎	경치전	1931	1967	33	7.31		
433	布施野?男		8.19	福岡	검정	1933	1998	33	9.5		
434	重本柳平		9.6	-			2024	33	10.6		
435	白澤八郎		9.15	福岡	경치전	1933	2024	33	10.6		
436	田村清一		10.23	山口	검정	1932b	2046	33	11.2		
437	中尾増司		11.6	大分	경치전	1930	2072	33	12.5		
438	日野曾生		11.9	大分	검정	1933b	2072	33	12.5		
439	鄭喆九		11.16	충북	검정	1933b	2072	33	12.5	松本喆九	1942.10.8 창씨 1934.8.23 사망 1935.8.8. 본적 변경(三重) 1941.12.1 본적변경 1936.9.5 본적변경(경기)
440	林達那		11.24	山口	경치전	1931	2072	33	12.5		
441	洪俊杓		11.24	함남	경치전	1933	2072	33	12.5		
442	若狹順一		11.24	愛媛	검정	1933b	2072	33	12.5		
443	本田一男		11.24	熊本	검정	1933b	2072	33	12.5		
444	鄭鎮虎		11.29	충북	경치전	1933	2072	33	12.5		
445	岡嶋○		12 2	熊本	검정	1933b	2099	34	1.12		
446	福武幸一		12 5	岡山	검정	1933	2099	34	1.12		
447	上村稻吉		12 6	山口			2099	34	1.12		
448	JK Levie		12 12	미국	미국		2099	34	1.12		
449	近藤武俊		12 12	香川	검정	1933b	2099	34	1.12		
450	小賀野恵		12 12	德島	경치전	1932	2099	34	1.12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월일			
451	李昌善	1933 12 12	평남	경치전	1933	2099	34 1.12		國本昌善	1941.1.10 본적 변경, 창씨
452	石川暢	12 19	北海道	검정	1929b	2099	34 1.12			
453	宮本繁次	12 19	大分	검정	1933b	2099	34 1.12			
454	杉山常次郎	12 22	三重	검정	1933	2099	34 1.12		岡田常次郎	1942.1.5 본적변경 (軍馬)
455	佐藤豊吉	1934 1.11	神奈川	검정	1933b	2118	34 2.3			
456	久保田久次	1.11	三重	검정	1933b	2118	34 2.3			
457	諏訪辰一郎	1.26	愛媛	검정	1933b	2118	34 2.3			
458	東富良	1.30	鹿兒島	검정	1933b	2118	34 2.3			
459	高橋豊	2.3	宮崎	검정	1933b	2141	34 3.2			1932.9 입 치사(합안, 515) 1940.4.4 본적변경, 창씨개명
460	姜大蔓	2.9	강원	검정	1933b	2141	34 3.2		松江實	1940.5.6 창씨
461	水田徳治	2.15	兵庫	검정	1933	2141	34 3.2			
462	中村金重	2.15	愛知	검정	1933b	2141	34 3.2			
463	小田末吉	2.20	長崎	검정	1933	2141	34 3.2			
464	田薫祚	3.14	평남			2170	34 4.7			1939.8.10 평양부 자택 증 분실
465	大塚徳男	3.14	熊本	경치전	1933	2170	34 4.7			
466	朴榮俊	4.21	경기			2193	34 5.5		林千榮昌	1942.11.10 창씨개명
467	小林圭市	2.25	山口	검정	1933b	2193	34 5.5			
468	金鎮濬	5 9	경기	경치전	1934	2216	34 6.1		金川昌弘	1940.8.5 창씨개명
469	金彩鳳	5 12	함북	경치전	1934	2216	34 6.1		林信江	1944.4.19 본적 변경(평남), 창씨
470	尹恩植	5 17	경북	경치전	1934	2216	34 6.1			
471	金錫永	5 19	경기	경치전	1934	2216	34 6.1			
472	志田?晴	5 22	廣島	검정	1932b	2216	34 6.1			
473	朴迪信	5 22	경기	경치전	1934	2216	34 6.1			
474	安部立美	5.24	岡山	경치전	1932	2216	34 6.1			
475	江野村弘	6.2	岡山	검정	1934	2243	34 7.3			
476	張泰洛	6.2	평북	경치전	1934	2243	34 7.3			
477	永田美降	6.2	鹿兒島	검정	1934	2243	34 7.3			
478	本平二郎	6.11	福岡	검정	1933b	2243	34 7.3			
479	簡井盛枝	6.11	高知	검정	1934	2243	34 7.3			1942. 1.23 사망
480	島田良平	6.11	宮城	검정	1934	2243	34 7.3			1943. 3.4 사망
481	林金之助	6.26	秋田	검정	1934	2243	34 7.3			
482	朴鎔德	6.26	경기	경치전	1933	2243	34 7.3			
483	廣居直輔	6.30	山口			2243	34 7.3			
484	丁南鎮	7.17	경기	경치전	1934	2273	34 8.7			
485	吳明燮	7.17	경기	경치전	1934	2273	34 8.7			
486	田口盛紛	8.14	秋田	검정	1934	2295	34 9.1			
487	西川圓治	8.14	兵庫	검정	1933	2295	34 9.1			
488	北村元	8.18	高知	경치전	1933	2295	34 9.1			
489	川本數光	8.18	長崎	경치전	1934	2295	34 9.1			
490	本川眞澄	8.22	高知	검정	1933	2295	34 9.1			
491	葛卷昌良	8.27	石川	검정	1934	2295	34 9.1			
492	河崎直好	8.29	香川	검정	1934	2295	34 9.1			
493	乾茂男	9.1	高知	검정	1934	2329	34 10.13			
494	田中アヤ子	9.1	熊本			2329	34 10.13			본적변경
495	正國吾六	10.13	廣島	검정	1933b	2347	34 11.6			
496	李昇都	10.20	평북	경치전	1933	2347	34 11.6			1939.10.9 본적변경
497	清藤?記	10.20	熊本	검정	1934	2347	34 11.6			
498	村上忠四郎	11.14	熊本	검정	1933	2372	34 12.6			
499	小野榮秀	11.8	大分	검정	1933b	2372	34 12.6			
500	山路義郎	11.14	廣島	검정	1933b	2372	34 12.6			1931.11 입치사 (괴산, 등록번호 500)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501	李時濤	1934	충남	정치전	1934	2372	34	12.6	牧山時濤 夏山昇	1942.10.8 창씨, 본적변경(경기)
502	曹奎白		전남	검정	1934b	2372	34	12.6		1942.10.8 창씨개명
503	勝原父一		山口	검정	1934b	2372	34	12.6		
504	坪口富士男		長崎	검정	1934	2398	35	1.12		
505	山下勝實		山口	검정	1934b	2398	35	1.12		
506	赤澤定三		新潟	검정	1934b	2398	35	1.12		1943. 3.15 폐업
507	白田虎次		鹿兒島	검정	1934b	2398	35	1.12		1941.1.10 창씨개명, 생년월일 정정
508	金季洙		전남	검정	1934b	2398	35	1.12		1941.2.6 창씨개명
509	十河昇		香川	검정	1934b	2398	35	1.12		
510	崖田耕治	1935	大阪	검정	1934b	2418	35	2.5	大山昌滿	
511	田村三月二三		高知	검정	1934b	2418	35	2.5		
512	大岡原二		岡山	검정	1934b	2418	35	2.5		
513	後藤四郎		三重	검정	1932b	2440	35	3.4		1935.5.15 본적변경
514	岡本浩		三重	검정	1931b	2440	35	3.4		
515	李敏五		충북	검정	1934	2477	35	4.18		1938.10.4 사망
516	末吉喜次郎		鹿兒島	검정	1934b	2477	35	4.18		
517	岡本擊		三重	정치전	1932	2477	35	4.18		
518	田丸直太郎		石川	검정	1934b	2477	35	4.18		
519	伊藤守直		福岡	검정	1934	2492	35	5.7	松原正吉 伊藤章	
520	崔海雲	1935	합남	정치전	1935	2492	35	5.7		1941.1.10 창씨개명
521	尹章皓		경기	정치전	1935	2492	35	5.7		1941.6.5 창씨개명
522	上田正生		山口	정치전	1935	2492	35	5.7		
523	池田義一		山口	검정	1932b	2516	35	6.4		
524	荒川徳次郎		板木	검정	1934b	2516	35	6.4		
525	朱道均		황해	정치전	1935	2516	35	6.4	朱村道均	1940.8.5 본적변경(평북), 창씨개명
526	堀田末之行		福岡	검정	1934	2516	35	6.4		
527	早川正一		愛知	검정	1935	2516	35	6.4		
528	逢坂定一		徳島	검정	1935	2542	35	7.4		1935.9.26 본적변경
529	本壓與一		石川	검정	1934b	2542	35	7.4		
530	中山巖		山口	검정	1935	2542	35	7.4		
531	玉井勝		大分	검정	1935	2542	35	7.4		
532	宮定市次郎		福岡	검정	1935	2542	35	7.4		
533	池田哲		鹿兒島	정치교	1933	2542	35	7.4		
534	佐伯多久二		山口	검정	1935	2542	35	7.4	金山鍾信	
535	金鍾信	1935	전남	검정	1935	2542	35	7.4		1942.10.8 창씨
536	飯尾間論		鹿兒島	검정	1935	2567	35	8.2		
537	加藤安夫		廣島	검정	1935	2567	35	8.2		
538	齊藤豊		北海道	검정	1935	2567	35	8.2		
539	山本勳		福岡	검정	1935	2623	35	10.9		
540	羽立善松		佐賀	검정	1935	2623	35	10.9		
541	石原静一		静岡	정치전	1933	2623	35	10.9		1938.7 입치사(고영, 등록번호 593,630)
542	山口巖		東京早	검정	1930	2623	35	10.9		
543	佐藤武夫		長崎	검정	1935	2623	35	10.9		
544	穴井三夫		大分	검정	1935	2623	35	10.9		
545	藤川益一	1935	大分	검정	1935	2623	35	10.9	金澤正雄	
546	佐藤二男		宮崎	정치전	1931	2623	35	10.9		
547	金官鉉			망실로		2623	35	10.9		1940.12.16 창씨개명
548	森安一		廣島	정치전	1935	2668	35	12.4		
549	中條信次		大阪	검정	1935	2696	36	1.11		
550	本山寶賀		北海道	검정	1935	2696	36	1.11		1939.4.24 본적변경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551	内野千代	1935	12.5	長崎		2696	36	1.11		
552	大野定身		12.5	福岡	검정	1935	2696	36	1.11	
553	竹末勝		12.5	鹿兒島	검정	1935b	2696	36	1.11	
554	時岡良平		12.5	福岡	검정	1935b	2696	36	1.11	
555	福田吉春		12.5	熊本	검정	1935	2696	36	1.11	
556	平山進	1936	1.10	岡山	검정	1935	2716	36	2.4	
557	吉岡義章		1.10	岡山	검정	1935b	2716	36	2.4	
558	藤田兼夫		1.10	鹿兒島	검정	1935b	2716	36	2.4	1934.3.11 본적변경 1941.5.10 재교부
559	松浦儀市		1.10	愛媛	검정	1935b	2716	36	2.4	
560	橋日秀夫		1.10	鹿兒島	검정	1935b	2716	36	2.4	
561	合田新一		1.10	香川	검정	1935b	2716	36	2.4	
562	穴山忠教		1.10	山梨	검정	1935b	2716	36	2.4	
563	岩岐正男		1.10	廣島	검정	1935b	2716	36	2.4	
564	趙鍾台		1.10	경남	검정	1935b	2716	36	2.4	西山纘鐵台
565	棚瀬瀧音		2.10	岐阜	검정	1935b	2741	36	3.5	
566	末末信進		2.17	廣島	검정	1935b	2741	36	3.5	
567	佐野義男		3.7	和歌山	검정	1935b	2769	36	4.9	
568	下田進		3.7	廣島	검정	1935	2769	36	4.9	
569	小谷念一		3.7	和歌山	검정	1935b	2769	36	4.9	
570	富菌睦雄		3.7	鹿兒島	검정	1935b	2769	36	4.9	
571	田中實三郎		3.7	岡山	검정	1935b	2769	36	4.9	
572	金知泳		4.14	함남	경치교	1929	2785	36	4.28	1936.3.19 사망
573	趙基富		4.23	황해	경치전	1936	2785	36	4.28	三中唐民
574	李昌柱		5.9	경기	경치전	1936	2812	36	5.30	德原昌柱
575	崔正喜		5.21	평남			2812	36	5.30	1940.12.16 창씨
576	濱野周吉		6.1	宮崎	검정	1936	2839	36	7.1	
577	吉田千太郎		6.1	愛知	검정	1935b	2839	36	7.1	
578	佐佐木徳丸		6.1	愛媛	검정	1935	2839	36	7.1	
579	許沐		6.1	황해	경치전	1936	2839	36	7.1	
580	柳樂勇		6.1	岡山	경치전	1936	2839	36	7.1	
581	崔昌福		6.1	경기	경치전	1936	2839	36	7.1	廣田昌福
582	山野爲夫		6.1	福島	검정	1936	2839	36	7.1	(검정 1935b) 1941.1.10 본적변경, 창씨
583	村田久雄		6.1	香川	검정	1936	2839	36	7.1	
584	藤江登		6.1	島根	검정	1936	2839	36	7.1	
585	簡井政		6.1	大分	검정	1936	2839	36	7.1	
586	MacAnlis		6.29	미국	미국		2839	36	7.1	
587	具滋喆		7.2	경북	검정	1936	2870	36	8.6	松原孝明
588	江副榮		7.2	佐賀	검정	1936	2870	36	8.6	
589	渡邊勉		7.2	福岡	경치전	1933	2870	36	8.6	
590	車明允		7.2	함남	경치전	1936	2870	36	8.6	1943.1.6 반납 (후생대신 면허)
591	北村昂		7.2	滋賀	검정	1936	2870	36	8.6	
592	大橋清兵衛		8.15	岐阜	검정	1935b	2892	36	9.4	
593	田村舉千代		8.15	和歌山	검정	1936	2892	36	9.4	
594	永淵悅志		8.15	佐賀	검정	1936	2892	36	9.4	
595	塩見國太郎		9.11	京都	검정	1936	2918	36	10.3	
596	長野林藏		10.13	福岡	검정	1935	2951	36	11.13	
597	深澤章		10.13	兵庫	검정	1932	2951	36	11.13	
598	工藤勝		11.24	静岡			2972	36	12.9	
599	山口龍治		11.24	佐賀			2972	36	12.9	
600	堀永儀人		12.5	山口	검정	193?	2999	37	1.16	1936.1 입치사 (등록번호 571)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고
				출신	년	호수	년월일		
601	金東垠	1936	12.5 전남	경치전 7회	1936	2999	37 1.16		1944.1.24 본적변경
602	吉岡薫		12.5 岡山			2999	37 1.16		
603	近藤二郎		12.5 香川			2999	37 1.16		
604	高見滿夫		12.5 長崎			2999	37 1.16		
605	錦仁那	1937	1.7 三重			3017	37 2.6		
606	柳煥烈		1.20 경기	경치교 8회	1933	3017	37 2.6	河東信道	1903.12.25생, 198.8.18 의사규칙 3개월 정지 1942.11.10 창씨
607	鄭信道		1.20 평남	경치교 6회	1930	3017	37 2.6		
608	田邊壽義登		1.7 廣島	검정	1934b	3017	37 2.6		
609	大石眞利		1.7 高知			3017	37 2.6		
610	秋章輝		1.7 경북			3017	37 2.6		
611	丸山利重		1.7 山梨	검정	1936	3017	37 2.6	秋本修一	1941.1.10 창씨개명
612	高島忠男		1.7 島根			3017	37 2.6		
613	尾野潔		1.7 福岡			3017	37 2.6		
614	登山勇		2.10 鹿兒島			3047	37 3.15		
615	遠藤重三		2.10 愛媛			3047	37 3.15		
616	阿曾昇		2.10 兵庫			3047	37 3.15	吉永章一	1940.12.16 창씨개명
617	高見政一		2.10 京都			3047	37 3.15		
618	李鳳璋		2.10 평북			3047	37 3.15		
619	山田一雄		3.13 宮崎	검정	1936	3066	37 4.7		
620	石邊七郎		3.13 宮崎			3066	37 4.7		
621	山下美德		3.13 熊本	검정	1936	3066	37 4.7	松原柱雄	1942.7.9 창씨 1934.10 입치사(청주, 551) 1943.12.30 사망
622	全柱雄		3.13 함남	경치전 7회	1936	3066	37 4.7		
623	梶井甫		3.13 香川			3066	37 4.7		
624	齊藤新		3.13 宮城	검정	193?	3066	37 4.7		
625	高洪烈		3.13 충북			3066	37 4.7		
626	合田政市		3.13 香川			3066	37 4.7		1943.5.29 본적변경
627	中田誠		3.10 山口			3088	37 5.5		
628	小林文一		3.10 廣島	검정	1933	3088	37 5.5		
629	内川進		3.10 長崎			3088	37 5.5		
630	野上治良		5.30 大分	경치전 8회	1937	3115	37 6.5		
631	金山晴顯		5.30 富山	검정	1937	3115	37 6.5		1941.2.8 창씨개명
632	喜多安人		5.30 佐賀	검정	1937	3115	37 6.5		
633	豊川三郎		5.30 愛媛	검정	1937	3115	37 6.5		
634	安藤二郎		6.7 愛媛			3138	37 7.2		
635	梅田邦夫		6.7 北海道	검정	1937	3138	37 7.2		
636	添島義正		6.7 熊本	검정	1937	3138	37 7.2	三宅喜美太	1940.9.13 본적변경, 창씨개명
637	糸瀬國三		6.7 長崎	검정	1937	3138	37 7.2		
638	升井平治		6.7 宮城	검정	1937	3138	37 7.2		
639	松永貞雄		6.7 佐賀	검정	1937	3138	37 7.2		
640	明石喜美太		7.2 岡山	검정	1937	3170	37 8.9		
641	大西晴治		7.2 三重	검정	1937	3170	37 8.9	高山光敏	1940.9.13 본적변경, 창씨개명
642	森田梶太郎		7.2 兵庫	검정	1937	3170	37 8.9		
643	林重夫		7.2 奈良	검정	1937	3170	37 8.9		
644	高木應悅		7.2 島根	검정	1937	3170	37 8.9		
645	崔祐華		7.2 경북	검정	1937	3170	37 8.9		
646	田中義男		7.2 福岡			3170	37 8.9		1939.8.23 사망
647	健信春		7.2 鹿兒島	검정	1937	3170	37 8.9		
648	長谷川忠一		8.10 愛媛	검정	1937	3193	37 9.4		
649	草勝		8.10 香川	검정	1937	3193	37 9.4		
650	小川文志		8.10 宮崎	검정	1937	3193	37 9.4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651	阿喜宗淳	1937	8.10	沖繩	검정	1937	3193	37	9.4	濱中太郎	1938.2.3 본적, 성 변경
652	兒玉完		8.10	廣島	검정	1937	3193	37	9.4		
653	小川彰七		8.10	香川	검정	1937	3193	37	9.4		
654	井上貞雄		8.10	佐賀	검정	1937	3193	37	9.4		
655	富永太郎		8.10	徳島	검정	1937	3193	37	9.4		
656	鬼武正人		9.9	山口	검정	1937	3217	37	10.5		
657	船坂正一		9.9	宮城	검정	1937	3217	37	10.5		
658	山田勝男		9.9	宮崎	검정	1937	3217	37	10.5		
659	栗田登		10.13	佐賀			3243	37	11.5		
660	黒田正憲		10.13	大分	경치전 8회	1937	3243	37	11.5		
661	武田芳一	10.13	兵庫			3243	37	11.5	木原繁	1941.9.23 폐업	
662	金時然	10.13	합남	검정	1937	3243	37	11.5			
663	片淵雄一	11.4	長崎	검정	1937	3266	37	12.3			
664	佐藤誠三	11.4	山形	검정	1937b	3266	37	12.3			
665	森洋	11.4	長崎	경치전 8회	1937	3266	37	12.3			
666	關末喜	11.4	熊本	검정	1937	3266	37	12.3			
667	李丙男	11.4	합북	검정	1933	3266	37	12.3			
668	曾根崎吳	11.4	大分	검정	1937b	3266	37	12.3			
669	吉岡實	11.4	愛媛	검정	1937b	3266	37	12.3			
670	青田壽治	12.8	兵庫	검정	1937b	3292	38	1.10			松山峰万
671	山眼確次	12.8	新潟	검정	1937b	3292	38	1.10			
672	住田繁雄	12.8	廣島	검정	1937	3292	38	1.10			
673	藤田清市	1938	1.10	香川	검정	1937b	3309	38	1.29		
674	大谷正三		1.10	兵庫	검정	1937b	3309	38	1.29		
675	田頭安吉		1.10	岡山	검정	1937b	3309	38	1.29		
676	吉田榮		1.10	茨城	검정	1937b	3309	38	1.29		
677	桑原勝行		1.10	熊本	검정	1937b	3309	38	1.29		
678	上羅周市郎		1.10	兵庫	검정	1937b	3309	38	1.29		
679	大橋太一郎		1.10	福島	검정	1935b	3309	38	1.29		
680	桧和四郎		2.3	岡山	검정	1937b	3341	38	3.9		
681	川崎虎男		2.3	長崎	검정	1937b	3341	38	3.9		
682	趙穀錫		3.8	평북	경치전 8회	1937	3365	38	4.7	大原昌橘	1939 총독구 의무부수
683	横田壽志正	3.8	北海道	검정	1937b	3365	38	4.7			
684	機村清市	3.8	鹿児島	검정	1937b	3365	38	4.7			
685	軀井忠孝	4.9	香川	검정	1937	3387	38	5.5			
686	木村直衡	4.9	愛媛	검정	1937b	3387	38	5.5			
687	崔益鐘	4.9	경기	경치전 9회	1938	3387	38	5.5			
688	松澤廣己	5.13	長崎	검정	1937	3413	38	6.4			
689	梅村英一	5.13	愛知	검정	1937	3413	38	6.4			
690	李昌橘	5.18	평북	경치교 6회	1930	3413	38	6.4			
691	田中益徳	5.13	長野	검정	1938	3413	38	6.4	野城千紗子		
692	泰道武三	5.13	三重	검정	1938	3413	38	6.4			
693	朴昌熙	5.13	충북	경치전 9회	1938	3413	38	6.4			
694	李殷順	5.18	경기	검정	1938	3413	38	6.4			
695	高橋清一	6.9	廣島	검정	1938	3438	38	7.4			
696	荒谷春枝	6.9	廣島	검정	1938	3438	38	7.4			
697	關巖雄	6.9	宮城	검정	1938	3438	38	7.4			
698	藤森一三	6.9	山梨	검정	1938	3438	38	7.4			
699	森勝比古	6.9	大分	검정	1938	3438	38	7.4			
700	斜木吉二	6.9	鹿児島	검정	1937b	3438	38	7.4		糸瀬勝比古	1942.3.18 본적변경, 창씨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월일			
701	河田辰雄	1938	6.22	香川	검정	1938	3438	38	7.4	
702	盧演敬		6.22	황해	경치전 8회	1937	3438	38	7.4	敬平菊孝 1940.1.16 본적변경, 창씨개명
703	沈成勳		6.22	평남	검정	1938	3438	38	7.4	松本成勳 1940.12.15 창씨개명
704	井上若水		6.22	高知	검정	1937	3438	38	7.4	
705	伊藤秋彦		6.22	廣島	검정	1938	3438	38	7.4	
706	金澤傳		6.29	香川	검정	1938	3438	38	7.4	
707	豊島正一		6.29	香川	검정	1938	3438	38	7.4	
708	金貴孫		6.29	황해	검정	1938	3438	38	7.4	金村憲二 1941.1.10 창씨개명
709	増永増美		6.30	熊本	검정	1938	3438	38	7.4	1931.11 입치사 (의주, 499,554)
710	藤波年夫		6.30	岡山	검정	1938	3438	38	7.4	
711	李顯馥		6.30	강원	경치전 9회	1938	3438	38	7.4	李顯儀
712	本定吉		6.30	鹿兒島	검정	1938	3438	38	7.4	
713	大坪乙年夫		6.30	佐賀	경치교 4회	1928	3438	38	7.4	1938.6.30 분실로 재교부
714	稻葉三郎		7.2	静岡	검정	1938	3464	38	8.3	1940.5.1 본적변경
715	桑野敏男		7.9	大分	검정	1938	3464	38	8.3	1942, 10.31 사망
716	松本清之		7.15	愛媛	검정	1938	3464	38	8.3	
717	武内義堅		7.15	滋賀	검정	1938	3464	38	8.3	
718	清岡健一		7.15	高知	검정	1938	3464	38	8.3	小原健一 1940.11.15 본적, 성 변경
719	手塚恵二		7.15	徳島	검정	1938	3464	38	8.3	
720	金讚圭		7.15	경남	경치전 7회	1936	3464	38	8.3	1936 총독부 의무부수
721	權永變		8.2	경북	검정	1938	3492	38	9.5	1939.10.1.3 사망
722	小堀平三郎		8.19	板木	검정	1938	3492	38	9.5	
723	興那城勇		10.12	沖繩			3540	38	11.5	
724										
725	山本新一		11.5	北海道	검정	1937	3563	38	12.3	
726	新森安吉		11.5	宮崎	검정	1938	3563	38	12.3	
727	山岐勇		11.5	福岡			3563	38	12.3	
728	李翰喆		11.5	경남	검정	1938	3563	38	12.3	東翰喆 1943.1.16 본적변경, 창씨개명
729	永田忠富		11.5	鹿兒島	검정	1938b	3563	38	12.3	1936.11 입치사 (금화, 등록번호 578)
730	高橋維正		12.5	新潟	검정	1938	3595	39	1.16	
731	首藤喜久造		12.5	大分	검정	1938b	3595	39	1.16	
732	池田三郎		12.6	鹿兒島	검정	1939b	3595	39	1.16	
733	廣瀬紀佐維		12.16	佐賀	검정	1938b	3595	39	1.16	
734	松岡重作		12.16	愛媛	검정	1938b	3595	39	1.16	松岡重作 1943. 2.17 사망
735	山口○次		12.16	佐賀	검정	1938b	3595	39	1.16	
736	谷陸一		12.23	徳島	검정	1938b	3595	39	1.16	
737	足立保		12.23	愛知			3595	39	1.16	
738	近藤榮	1939	1.10	愛知	경치전 8회	1937	3611	39	2.3	
739	岩崎滿智夫		1.10	長崎	검정	1938b	3611	39	2/3	
740	池田純一		1.10	和歌山	검정	1938b	3611	39	2/3	
741	賀來直人		1.10	大分			3611	39	2/3	
742	小川昇		1.10	島根	검정	1938b	3611	39	2/3	
743	坂ノ上和江		2.13	鹿兒島	검정	1938b	3638	39	3/8	
744	高啓薰		2.13	경기	경치전 9회	1938	3638	39	3/8	
745	白崎繁信		2.13	福井			3638	39	3/8	
746	池繁武雄		2.13	鹿兒島	검정	1938b	3638	39	3/8	
747	平瀬定知		2.13	鹿兒島	검정	1938b	3638	39	3/8	
748	森川萬石		3.2	佐賀			3662	39	4/7	
749	青木德至		4.24	福岡	검정	1938b	3682	39	5/3	
750	金載天		5.3	경기	경치전10회	1939	3710	39	6/5	金田載天 1942.11.10 창씨개명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751	江良廣次	1939	5.3	福岡	경치전 10회	1939	3710	39	6.5	八溪雄 山川義三郎	1942.10.5 창씨개명 1940. 10.5 창씨개명
752	朝野菊夫		5.3	長崎			3710	39	6.5		
753	山下横雄		5.3	福岡			3710	39	6.5		
754	大金進		5.3	茨城			3710	39	6.5		
755	中村義男		5.3	福岡			3710	39	6.5		
756	鄭鳳燮		5.3	경남			3710	39	6.5		
757	山川義三郎						3739	39	7.8		
758											
759											
760											
761	升本輝南		경남				3739	39	7.8		1940.8.5 창씨개명
762	延川洪淵		평북				3739	39	7.8		1941.4.2 창씨
763	清原博		함북				3739	39	7.8		1942.6.13 창씨개명
764	鄭奇永	7.7	충남				3762	39	8.4	上村光市	1941.3.14 창씨개명
765	立入松太郎	7.7	滋賀				3762	39	8.4		
766	松本一雄	7.7	鳥取				3762	39	8.4		
767	久世勇	7.7	京都				3762	39	8.4		
768	高橋辨三郎	7.7	愛媛				3762	39	8.4		
769	劉龍甲	7.28	경남				3762	39	8.4	廣田龍夫	1942.12.2 본적변경, 창씨개명
770	柳澤乾四郎	7.28	長野				3762	39	8.4		
771	大菊義春	8.2	高知				3789	39	9.5		
772	井久保敦雄	8.2	愛媛	경치전 10회	1939		3789	39	9.5		
773	半田一明	8.2	香川				3789	39	9.5		
774	大野孝	9.14	高知				3816	39	10.6		
775	太田和一郎	9.20	京都				3816	39	10.6		
776	山室力	10.9	岡山	경치전 10회	1939		3843	39	11.10		대만출신
777	稻葉實	10.9	京都				3843	39	11.10		
778	執行貞夫	11.11	佐賀				3863	39	12.5		
779	奥野小市	11.11	廣島	검정	1939b		3863	39	12.5		
780	小林俊治	11.11	熊本	검정	1939b		3863	39	12.5		
781	盧東遲	11.11	함남	검정	1939b		3863	39	12.5	上田依臣	1939.8 입치사(풍산, 607), 1940.7.9 창씨개명
782	吉田司	11.11	宮崎	검정	1939b		3863	39	12.5		
783	竹富藤好	11.11	長崎	검정	1939b		3863	39	12.5		
784	奥田雙六	11.11	熊本	검정	1938b		3863	39	12.5		
785	安鐵洛	12.5	경북	검정	1939b		3895	40	1.8		
786	平野旭一	12.5	岡山	검정	1939b		3895	40	1.8		
787	金漢祚	12.5	전남	검정	1939b		3895	40	1.8	金田光倫	1940.1.16 창씨개명
788	西村しづ子	12.5	兵庫	검정	1939b		3895	40	1.8		
789	張學烈	12.5	전남	검정	1939b		3895	40	1.8	岡本學烈	1941.2.5 창씨
790	張能煥	12.5	황해	검정	1939b		3895	40	1.8	岩井清治	1941.2.5 창씨개명
791	横田速夫	1940	1.9	岡山	검정	1939b	3912	40	2.7		
792	金子榮		1.9	경기			3912	40	2.7		
793	栗田好一		1.9	福岡	검정	1939b	3912	40	2.7		
794	申東寅		1.9	함남	검정	1939b	3912	40	2.7	平山東寅	1933.7 입치사(풍산, 526) 1941.6.5 창씨
795	金玟洙		1.9	전남	검정	1939b	3912	40	2.7	金城邦滿	1937.1 입치사(청주, 593) 1941.6.5 창씨개명
796	金京福		1.9	경남	검정	1939b	3912	40	2.7	福澤金作	1940.11.8 창씨개명
797	安野律雄		1.9	福岡	검정	1939b	3912	40	2.7		
798	奥山忠吉		1.9	山形			3912	40	2.7		
799	大仲重雄		1.9	沖縄	검정	1939b	3912	40	2.7		
800	趙受熙		1.9	황해	검정	1939b	3912	40	2.7	飯利溢郎	1940.1.9 창씨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801	朝野豊彦	1940	1.9	鹿兒島	검정	1939b	3912	40 2.7		
802	尾崎者之一		2.7	愛媛	검정	1939b	3939	40 3.9		
803	朴應達		2.7	경북	검정	1939b	3939	40 3.9		
804	中村三郎		2.7	長崎	검정	1939b	3939	40 3.9		
805	吉野秋		2.7	神奈川	검정	1939b	3939	40 3.9		
806	館澤義雄		3.9	岩手	검정	1939b	3965	40 4.11		
807	西根金五郎		3.9	北海道			3965	40 4.11		
808	杉本義夫		3.9	長崎			3965	40 4.11		
809	近藤榮		4.4	大分			3984	40 5.6		
810	田口勝史		4.4	長野	검정	1939b	3984	40 5.6		
811	柳澤秀雄		4.4	충남			3984	40 5.6	吉田實	1943.5.19 본적변경, 개명
812	呂烈通		4.4	대만	검정	1939b	3984	40 5.6		
813	前田勇		4.4	福井	검정	1939b	3984	40 5.6	松江永鎬	1942.10.8 창씨
814	李永鎬		5.4	경기	경치전 11회	1940	4014	40 6.10		
815	林政雄		5.4	福岡	검정	1940	4014	40 6.10	平沼義雄	1940.11.8 창씨개명
816	前田心治		5.4	三重	검정	1939b	4014	40 6.10		
817	岩屋常夫		5.4	長崎	검정	1940	4014	40 6.10		
818	尹寄永		5.4	경기	경치전 11회	1940	4014	40 6.10		
819	松方清		5.4	경기			4014	40 6.10		
820	山本由信		5.4	兵庫	검정	1939b	4014	40 6.10		
821	山口喜代治		5.4	愛知	검정	1940	4014	40 6.10		
822	土佐重己		5.4	廣島	검정	1940	4014	40 6.10		
823	福澤文雄		5.4	板木	검정	1940	4014	40 6.10		
824	辻浩一		5.4	福岡	검정	1940	4014	40 6.10	高鳴浩一	1942.6.13 본적, 씨 변경
825	徐炳益		5.4	전남	검정	1939b	4014	40 6.10		
826	岩田金吾		5.4	岐阜	검정	1940	4014	40 6.10	金星淵龜	1942.3.18 본적변경, 창씨
827	朴光柱		6.15	평북	검정	1940	4042	40 7.12		
828	酒井次郎		6.15	大分	검정	1938b	4042	40 7.12		
829	西森幸馬		6.15	高知	검정	1940	4042	40 7.12		
830	關壽文		6.15	和歌山	검정	1939b	4042	40 7.12		
831	金淵龜		6.15	함남	검정	1940	4042	40 7.12		
832	勢島政司		6.15	兵庫	검정	1940	4042	40 7.12		
833	福島?雄		6.15	佐賀	검정	1940	4042	40 7.12		
834	川人照雄		6.15	徳島	검정	1939b	4042	40 7.12		
835	李德雨		6.15	경남	검정	1940	4042	40 7.12	三木德雨	1941.1.10 창씨개명
836	朴再願		7.9	경남	검정	1940	4065	40 8.8	新井龜吉	1929.4 입치사 (양산, 463) 1943.9.1 창씨개명
837	鄭道成		7.9	충남	검정	1940	4065	40 8.8	米山道成	1923.12 입치사 (보령, 338) 1941.2.5 창씨개명
838	池田三郎		7.9	北海道	검정	1939b	4065	40 8.8	坂平茂光	1942.12.2 창씨
839	福山武憲		7.9	鹿兒島	검정	1940	4065	40 8.8		
840	栗原勉		7.9	高知	검정	1940	4065	40 8.8		
841	坂平泳河		7.9	함북			4065	40 8.8		
842	姜秉熙		7.9	경북	검정	1940	4065	40 8.8		
843	陝内危松		7.9	佐賀			4065	40 8.8		
844	朴敏夏		7.9	함북	검정	1940	4065	40 8.8		
845	宮崎キマエ		7.9	山口	검정	1939b	4065	40 8.8		
846	金文祚		7.9	경북	경치전 11회	1940	4065	40 8.8		
847	吳在德		7.9	경기	검정	1940	4065	40 8.8	杉野文隆	1941.4.2 창씨개명
848	南政利		8.5	長崎	검정	1940	4090	40 9.6		
849	石川伊佐雄		8.5	北海道	검정	1940	4090	40 9.6		
850	梶原信之		8.5	大分	검정	1939b	4090	40 9.6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851	鮮于聖綱	1940	9.13	충남	경치전 11회	1940	4124	40	10.21	中島清一	1942.8.25 본적변경, 창씨개명	
852	花井清一		9.13	전북			4124	40	10.21			
853	財津敏		9.13	福岡	검정	1939b	4124	40	10.21			
854	中村正吉		9.13	熊本	검정	1939b	4124	40	10.21			
855	平田忠		9.13	山口			4124	40	10.21			
856	太錫佑		10.3	경기	경치전 11회	1940	4147	40	11.16			
857	杉原安男		10.5	長崎			검정	1940	4147			40
858	中村貞藏		10.21	和歌山	검정	1940	4147	40	11.16			
859	若菜辨三		10.21	熊本	검정	1940	4147	40	11.16			
860	世良正人		10.25	廣島	검정	1939b	4147	40	11.16			
861	四十川三郎	10.28	北海道	검정	1940	4147	40	11.16				
862	渡邊忠治	1941	11.8	岡山	검정	1940	4169	40	12.13	白川風	1941.1.10 개명	
863	村上義秋		11.8	廣島	검정	1939b	4169	40	12.13			
864	白(川)龍風		11.8	경북	검정	1940	4169	40	12.13			
865	林亮二郎		11.8	廣島	검정	1940b	4169	40	12.13			
866	金海萬春		11.8	경기			4169	40	12.13			
867	盆子原房教		12.16	北海道	검정	1940b	4192	41	1.15			
868	山本善榮		12.16	경기	검정	1940b	4192	41	1.15			
869	小谷竹夫		12.16	廣島	검정	1940b	4192	41	1.15			1942.11.10 본적 변경
870	李家秉漢		12.16	경기	검정	1940b	4192	41	1.15			
871	井上昭		12.16	三重	경치전 10회	1939	4192	41	1.15			
872	飯田利雄		12.16	岡山								검정
873	文洪祚		1.10	경남	검정	1940b	4211	41	2.6			岩本武雄
874	窟田伍一		1.10	兵庫	검정	1940	4211	41	2.6			
875	米野末八		1.10	熊本	검정	1940b	4211	41	2.6			
876	松本豊次		1.10	石川	검정	1940b	4211	41	2.6			
877	三井敏正		1.10	경남	검정	1940b	4211	41	2.6			
878	池龜泳		1.10	함남	검정	1940b	4211	41	2.6			
879	石原進造		1.10	愛知	검정	1940b	4211	41	2.6			
880	金原義明		1.10	함남	검정	1940b	4211	41	2.6			
881	明石實則		1.10	鳥取	검정	1940b	4211	41	2.6			
882	川原義岡		1.10	北海道	검정	1940b	4211	41	2.6			
883	山口喜久次		1.10	佐賀	검정	1939b	4211	41	2.6	中村喜滿	1941.5.10 창씨	
884	松浦茂	1.10	岐阜			4211	41	2.6				
885	原權平	1.10	岐阜	검정	1940b	4211	41	2.6				
886	中喜滿	1.10	鹿兒島	검정	1940b	4211	41	2.6				
887	田島慶次	1.10	鹿兒島	검정	1940b	4211	41	2.6				
888	高山晴光	1.10	경남			4211	41	2.6				
889	金本相讚	2.8	경북	검정	1940b	4246	41	3.20				
890	岡本定	2.8	高知	검정	1940b	4246	41	3.20				
891	池邊聲	2.8	전남			4246	41	3.20	1942, 5.11 사망			
892	中村正吉	2.8	熊本	검정	1939b	4246	41	3.20				
893	雙城興洙	2.8	전남			4246	41	3.20				
894	大野勝弘	2.8	경북			4246	41	3.20				
895	柳迫生宗	2.8	廣島			4246	41	3.20				
896	本之内治夫	2.8	千葉			4246	41	3.20				
897	檜山青利	2.8	경북			4246	41	3.20				
898	長谷川博	2.8	충남			4246	41	3.20				
899	小原榮	2.8	香川	검정	1940b	4246	41	3.20				
900	吉出志寅	2.8	평남	검정	1940b	4246	41	3.20				

번호	이름	등록년월 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본명/ 창씨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901	白村準培	1941	2.8 황해	경치전 11회	1940	4246	41	3.20	金準培	1941.9.1 본적변경(山口)
902	村上芳一		2.8 山口	검정	1940b	4246	41	3.20		
903	泰應鉉		2.8 경기	경치전 11회	1940	4246	41	3.20		
904	猪原武二		2.8 廣島			4246	41	3.20		
905	加藤武市		2.8 愛知	검정	1940b	4246	41	3.20		
906	内山徳四郎		2.8 新潟	검정	1940b	4246	41	3.20		
907	河村正人		2.8 山口	검정	1940b	4246	41	3.20		
908	山縣軍一		2.8 廣島	검정	1940b	4246	41	3.20		
909	稻塚鉄吉		2.8 京都	검정	1940b	4246	41	3.20		
910	新井清一		2.8 경남	검정	1940b	4246	41	3.20		
911	高倉保		2.8 福岡	검정	1940b	4246	41	3.20		
912	山口清吉	3.14	板木	검정	1939b	4265	41	4.14		
913	金鍍泳	3.14	경북	검정	1940b	4265	41	4.14		
914	福井鉉二	3.14	함남			4265	41	4.14	金城鉉二	1942.3.18 창씨
915	睦英一	3.14	경남	검정	1940b	4265	41	4.14		
916	秋山薫	3.14	大阪	검정	1940b	4265	41	4.14		
917	奥井勝美	3.14	兵庫	검정	1940b	4265	41	4.14		
918	桑山邦松	4.2	東京府	검정	1930	4293	41	5.19		
919	内田松二郎	4.2	島根	검정	1940	4293	41	5.19		
920	松下英雄	4.2	愛媛	검정	1940b	4293	41	5.19		
921	笠原久	4.2	長野	검정	1940b	4293	41	5.19		
922	淺津貫一	4.2	島根			4293	41	5.19		
923	花村忠嗣	4.2	경기			4293	41	5.19		
924	鎌田幹造	4.2	鹿兒島	검정	1940b	4293	41	5.19		
925	竹山鐘文	4.2	경북			4293	41	5.19		
926	金谷米藏	5.10	강원			4318	41	6.17		1944.4.19 본적변경(大阪)
927	安田基和	5.10	황해			4318	41	6.17		
928	平山健吾	5.10	경남			4318	41	6.17		
929	津守戸吉	5.10	大分	검정	1941	4318	41	6.17		
930	大竹直美	5.10	東京	검정	1941	4318	41	6.17		
931	玉川晴敏	5.10	경북	검정	1941	4318	41	6.17		
932	田中正衛	5.10	鹿兒島	검정	1940b	4318	41	6.17		
933	枝久雄	5.10	廣島			4318	41	6.17		
934	三川雲經	5.10	경남	검정	1941	4318	41	6.17		
935	兒玉盛榮	6.5	岐阜	검정	1941	4342	41	7.15		
936	西池季比コ	6.5	京都	검정	1941	4342	41	7.15		
937	千代喜三次	6.5	香川	검정	1941	4342	41	7.15		
938	上城吾六	6.5	廣島	검정	1941	4342	41	7.15		
939	野田太一	6.5	福岡	검정	1941	4342	41	7.15		
940	稻目鍾夫	6.5	宮城	검정	1941	4342	41	7.15		1935.8 입치사(봉화, 등록번호 559)
941	上野立男	6.5	廣島	검정	1941	4342	41	7.15		
942	大槻春造	6.5	福島	검정	1941	4342	41	7.15		
943	松井三涉	6.5	전북	검정	1941	4342	41	7.15		
944	原田治	6.5	三重	검정	1941	4342	41	7.15		
945	杉野市市	6.5	福岡	검정	1941	4342	41	7.15		
946	松林潤東	7.3	경기	경치전 12회	1941	4365	41	8.11	薛潤東	
947	増田正行	7.3	愛媛	검정	1941	4365	41	8.11		
948	平昭賢次郎	7.3	전북			4365	41	8.11		
949	岡村武雄	7.3	경기	검정	1941	4365	41	8.11		
950	山田春日	7.3	佐賀	검정	1941	4365	41	8.11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전 본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951	藤井勇	1941	7.3 廣島	검정	1941	4365	41	8.11	李允和	
952	小山房之助		7.3 群馬	검정	1941	4365	41	8.11		
953	武田修造		7.3 충북	검정	1941	4365	41	8.11		
954	牧野彰		7.3 경기			4365	41	8.11		
955	萩原正二		7.3 福井	경치전 7회	1936	4365	41	8.11		
956	柳村秉呂		7.3 평북	검정	1941	4365	41	8.11		
957	平田正行		7.3 香川	검정	1941	4365	41	8.11		
958	中庭神太郎		7.3 兵庫	검정	1941	4365	41	8.11		
959	青木晴輝		7.3 福岡	검정	1941	4365	41	8.11		
960	大淵唯義		7.3 福岡	검정	1941	4365	41	8.11		
961	神崎正		7.3 千葉	검정	1941	4365	41	8.11		
962	光井武		7.3 徳島	검정	1941	4365	41	8.11		
963	平海博		7.3 황해	검정	1941	4365	41	8.11		
964	佐藤政藏		7.3 秋田	검정	1941	4365	41	8.11		
965	園田允和		7.3 평남	경치전 12회	1941	4365	41	8.11		
966	松本星玉		7.3 경북	검정	1941	4365	41	8.11		
967	中村正雄		7.3 奈良	검정	1941	4365	41	8.11		
968	上原治榮		8.7 경기			4387	41	9.5		
969	岡美男		8.7 岡山	검정	1941	4387	41	9.5		
970	小林義郎		8.7 山口	검정	1941	4387	41	9.5		
971	百合野末雄		8.7 長崎	검정	1941	4387	41	9.5		
972	米田親夫		8.7 愛媛	검정	1941	4387	41	9.5		
973	竹河盛隆		8.7 鹿兒島	검정	1941	4387	41	9.5		
974	青木千代子		8.7 황해			4387	41	9.5		
975	安藤瑞峰		8.7 岡山	검정	1941	4387	41	9.5		
976	伊井利雄		8.7 宮崎	검정	1940b	4387	41	9.5		
977	堀眉亨		8.7 山口			4387	41	9.5		
978	新井源一		8.7 경남	검정	1941	4387	41	9.5		
979	鄭潤鈺		8.7 전북	경치전 12회	1941	4387	41	9.5		
980	松本晏子		9.1 충남			4412	41	10.7		
981	新井蒼徳		9.1 경기	검정	1941	4412	41	10.7		
982	森永二三		9.1 佐賀	검정	1941	4412	41	10.7		
983	松田得一郎		9.1 長崎	검정	1936	4412	41	10.7		
984	久禮眞積		9.1 경북	검정	1941	4412	41	10.7		1938.11 입치사(영변, 등록번호 598)
985	小松操		9.1 山梨	검정	1940b	4412	41	10.7		
986	岡本杉三		9.1 和歌山	검정	1941	4412	41	10.7		
987	徳光秀康		9.1 경기			4412	41	10.7		
988	南平燦東		9.1 충남			4412	41	10.7		
989	松田林造		10.4 충남	검정	1941	4438	41	11.10		
990	宮田正		10.4 鳥取	검정	1941	4438	41	11.10		
991	大島一夫		10.4 愛知			4438	41	11.10		
992	西村仁雄		10.4 충남			4438	41	11.10		
993	横山勝		10.4 高知			4438	41	11.10		
994	中野龍馬		10.4 山口	검정	1941	4438	41	11.10		
995	安藤俊夫		10.4 경기			4438	41	11.10		
996	築原伸吾		11.6 群馬			4468	41	12.15		
997	城逸雄		11.6 熊本			4468	41	12.15		
998	天馬眞一		11.6 愛知			4468	41	12.15		
999	古井豊		11.6 岡山			4468	41	12.15		
1000	福柳松郎		11.6 高知			4468	41	12.15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전 본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1001	松平容穆	1941	11.6	경기		4468	41	12.15		
1002	佐佐木茂		12.1	滋賀		4495	42	1.23		
1003	北村末松		12.1	徳島		4495	42	1.23		
1004	小島秋男		12.1	熊本		4495	42	1.23		
1005	大野國一		12.1	奈良		4495	42	1.23		
1006	中眉八四二		12.1	愛知	검정	1937	4495	42	1.23	
1007	垣本宣雄		12.1	大分		4495	42	1.23		
1008	平田順泰		12.1	전남		4495	42	1.23		
1009	松尾梅雄		12.1	佐賀		4495	42	1.23		
1010	森一男		12.1	香川	검정	1941	4495	42	1.23	
1011	國本昇用		12.1	경기		4495	42	1.23		
1012	田中數男		12.1	廣島		4495	42	1.23		
1013	川端了		12.1	山口		4495	42	1.23		
1014	泉雅俊		12.1	山形	검정	1940b	4495	42	1.23	
1015	武田根俊		12.1	경남		4495	42	1.23		
1016	木村文治		12.1	충북		4495	42	1.23		
1017	寺内繁男		12.1	廣島		4495	42	1.23		
1018	小城重行		12.1	宮崎		4495	42	1.23		
1019	金海種玉		12.1	강원		4495	42	1.23		
1020	安部實		12.1	大分	검정	1939b	4495	42	1.23	
1021	金岡泰誠	1942	1.15	경북		4504	42	2.9		
1022	川池鼎		1.15	鹿兒島	검정	1939b	4504	42	2.9	
1023	田島哲次		1.15	鹿兒島		4504	42	2.9		
1024	渡瀬力男		1.15	岡山	검정	1939b	4504	42	2.9	
1025	金村永龍		1.15	충남	경치전 11회	1940	4504	42	2.9	金永龍
1026	吉田準一郎		1.15	岐阜	검정	1941	4504	42	2.9	
1027	向山悦敬		1.15	三重		4504	42	2.9		
1028	桂豊		1.15	福岡	검정	1935	4504	42	2.9	
1029	重頭彦三		1.15	廣島		4504	42	2.9		
1030	長谷川隆明		1.15	福岡		4504	42	2.9		
1031	瓜生虎雄		1.15	福岡	검정	1941	4504	42	2.9	
1032	高木哲郎		2.2	愛知	경치전 13회	1941b	4533	42	3.10	
1033	吉田菊四郎		2.4	長崎	검정	1941	4533	42	3.10	北村壽義登
1034	山口三良		2.2	岐阜	검정	1940b	4533	42	3.10	
1035	川畑光雄		2.2	宮崎		4533	42	3.10		
1036	原田廣吉		2.2	奈良	검정	1937b	4533	42	3.10	
1037	文岩義之		3.4	경기		4556	42	4.8		
1038	菊川明義		3.4	愛媛	검정	1941	4556	42	4.8	
1039	藤坡好武		3.7	熊本		4556	42	4.8		
1040	清韓東喆		3.19	충남	경치전 13회	1941b	4556	42	4.8	清東喆
1041	安田炳三		3.19	평남	경치전 12회	1941	4556	42	4.8	安炳三
1042	白川在善		3.19	평남		4556	42	4.8		
1043	増井忠猪		4.4	高知		4583	42	5.12		
1044	白石正雄		4.15	전북	검정	1941	4583	42	5.12	
1045	佐藤勇藏		4.15	秋田		4583	42	5.12		
1046	武内清		4.15	岡山		4583	42	5.12		
1047	文平章益		4.15	충남	경치전 13회	1941b	4583	42	5.12	文章益
1048	武兼政大		4.15	岡山	검정	1941	4583	42	5.12	
1049	廣田正雄		5.2	평북		4606	42	6.8		
1050	窪田千年		5.2	高知		4606	42	6.8		
1051	河田篤雄		5.2	廣島	검정	1939b	4606	42	6.8	
1052	金本潤堅		5.2	경남		4606	42	6.8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창씨전 본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1053	谷卵三郎	1942	5.2	香川	검정	1940b	4606	42	6.8	金根植	1942.5.18 사망		
1054	幸野曄		5.2	大分			4606	42	6.8				
1055	太田耕		5.2	高知			4606	42	6.8				
1056	松原義明		5.2	경북			4606	42	6.8				
1057	津田華正		6.13	廣島			4634	42	7.10				
1058	松永春次		6.13	佐賀			4634	42	7.10				
1059	古石三七男		6.13	廣島			4634	42	7.10				
1060	南陽堅補		6.13	평북			4634	42	7.10				
1061	安本起一		6.13	경남			4634	42	7.10				
1062	渡邊榮吉		6.13	鹿兒島			4634	42	7.10				
1063	柏村幸彦		7.9	경북			4657	42	8.6				
1064	菅積		7.9	廣島			4657	42	8.6				
1065	高岡平作		7.9	愛媛			4657	42	8.6				
1066	清原利男		8.26	경북			4683	42	9.5				
1067													
1068	磯兼六郎		9.7	愛媛	경치전 11회	1940	4709	42	10.8				
1069	佐藤次雄		10.8	熊本			4737	42	11.13				
1070	新井横河		10.8	경남			4737	42	11.13				
1071	朝日俊明		10.8	경남			4737	42	11.13				
1072	松田金重		10.8	熊本	검정	1941	4737	42	11.13				
1073	西致		10.8	岡山			4737	42	11.13				
1074	谷川寅之助		11.10	長崎			4759	42	12.10				
1075	二宮崇一		11.10	평북			4759	42	12.10				
1076	西田保		11.10	山口			4759	42	12.10				
1077	槁田新市		11.10	長崎			4759	42	12.10				
1078	鍾等好光		11.10	島根			4759	42	12.10				
1079	藤井辰和		11.10	石川			4759	42	12.10				
1080	松田勝盛		11.10	鹿兒島			4759	42	12.10				
1081	吉村團藏		11.10	福岡			4759	42	12.10				
1082	大江達己		11.10	廣島			4759	42	12.10				
1083	大橋善一		12.2	宮崎			4783	43	1.14				
1084	山本信丘		12.2	경기			4783	43	1.14				
1085	岡仲良		12.2	東京			4783	43	1.14				
1086	田口利四郎	12.2	長崎	검정	1940	4783	43	1.14					
1087	玉川東瓚	12.2	경기			4783	43	1.14					
1088	大山均喪	12.2	경북			4783	43	1.14					
1089	水野昌芳	12.2	경남			4783	43	1.14					
1090	金林薰	12.2	전북			4783	43	1.14					
1091	安川清	12.2	경기			4783	43	1.14					
1092	信田重義	1943	1.11	秋田	검정	1940b	4804	43	2.8				
1093	豊川龍雄		1.11	평북			4804	43	2.8				
1094	金谷根植		1.11	황해			4804	43	2.8				
1095	水ノ江定		1.11	大分			4804	43	2.8				
1096	松原憲一		1.11	경북			4804	43	2.8				
1097	金光秀雄		1.11	함남			4804	43	2.8				
1098	平昭哲秀		1.11	경기			4804	43	2.8				
1099	高村麥		1.11	경남			4804	43	2.8				
1100	中村正		1.2	京都	검정	1939b	4830	43	3.11				
1101	加藤正博		2.10	廣島			4830	43	3.11				
1102	夏木新一		1.2	황해	검정	1941	4830	43	3.11				
1103	高島德淳		3.13	경북			4854	43	4.9				
1104	秋山白	3.13	長野	4854			43	4.9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면허취득자격		관보			장씨전 본명	비 고
				출신	년	호수	년	월일		
1105	大谷浩友	1943	4.2 전남			4877	43	5.8		
1106	徳山在邇		4.7 평남			4877	43	5.8		
1107										
1108	永田満男		4.20 島根	검정	1941	4877	43	5.8		
1109	康本昌龍		5.29 평남	경기전 14회	1942	4903	43	6.8	康昌龍	
1110	小林佑吉		6.8 愛知	검정	1939b	4930	43	7.9		
1111	大城秀夫		8.19 경남			4982	43	9.8		
1112	花嶋光雄		8.19 宮城			4982	43	9.8		
1113	石松松夫		8.19 大分			4982	43	9.8		
1114	中田義次		8.19 岡山			4982	43	9.8		
1115	松崎正人		8.19 福岡			4982	43	9.8		
1116	木下瀧男		8.19 福岡	검정	1943	4982	43	9.8		1934.8 입치사 (청양, 등록번호 546)
1117	徳山清鍊		8.19 전남			4982	43	9.8		
1118	平本相玉		9.1 경기			5007	43	10.9		
1119	榑原利男		9.1 愛知			5007	43	10.9		
1120	竹本基一郎		9.1 경기			5007	43	10.9		
1121	鈴間満		9.1 和歌山			5007	43	10.9		
1122	坂崎國繼		9.1 熊本	검정	1941	5007	43	10.9		
1123	泉福義臣		10.7 長崎			5033	43	11.11		
1124	吉田秀夫		10.14 충남			5033	43	11.11		
1125	河野晴一		10.20 山口			5033	43	11.11		
1126	中野悦次		10.20 佐賀	검정	1938	5033	43	11.11		
1127	川本貞一		10.29 경북			5033	43	11.11		
1128	安田尙駿		10.29 경기	경기전 15회	1943	5033	43	11.11	車尙駿	
1129	石川彌來		11.4 경기			5056	43	12.9		
1130	豊川高吉		11.4 경남			5056	43	12.9		
1131	三井健弘		11.4 경기			5056	43	12.9		
1132	米倉榮元		12.9 경기	경기전 15회	1943	5078	44	1.11	金榮元	
1133	金田國雄		12.9 경기			5078	44	1.11		
1134	永島聲		12.9 강원			5078	44	1.11		
1135	安田文雄		12.9 평남			5078	44	1.11		
1136	洪豊植	1944	1.15 충남	경기전 15회	1943	5102	44	2.8		
1137	金田耕次		1.24 평남			5125	44	3.7		
1138	新田鼎鎮		1.24 경기			5125	44	3.7		
1139	松岡秀男		1.24 경기			5125	44	3.7		
1140	金山禮煥		1.24 평남	경기전 15회	1943	5125	44	3.7	金禮煥	
1141	柳英雄		1.24 황해			5125	44	3.7		
1142	金滿圭		1.24 경기	경기전 15회	1943	5125	44	3.7		
1143	大原豊作		3.11 경기			5151	44	4.8		
1144	松本政一		3.11 충북			5151	44	4.8		
1145	豊川民基		3.11 전북	경기전 15회	1943	5151	44	4.8	任民基	
1146	條嶋民雄		3.11 京都			5151	44	4.8		
1147	金光然浩		3.11 경기	경기전 15회	1943	5151	44	4.8	金然浩	
1148	金本能羽		3.11 평남	경기전 15회	1943	5151	44	4.8	金能羽	
1149	今村久郎		3.11 三重			5151	44	4.8		
1150	竹下源仲		3.11 충남	경기전 15회	1943	5151	44	4.8	崔源仲	
1151	岡山秀夫		4.19 평남			5174	44	5.8		
1152	平山龍得		4.19 함북	경기전 15회	1943	5174	44	5.8	申龍得	
1153	高木直英		5.2 전북			5198	44	6.5		
1154	山田武一		5.2 평북			5198	44	6.5		
1155	川元光雄		5.2 鳥取			5198	44	6.5		
1156	岡村正男		5.2 경기			5198	44	6.5		
1157	金原英文		5.2 평남			5198	44	6.5		

<첨부2>

식민지 시기 입치사(入齒師) 면허 등록부

(빈칸 : 관보 미등재로 누락)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1	李熙瑞	1914. 1.30	경기	경기	개성군	5 460	14 2.13	1889.02.25 생, 1919.2, 1921.2 갱신, 1925.7 치과의사(68)
2	孫啓弘	2.2	경기	경북	대구부	3 488	14 3.18	1877.11.2 생, 1917, 1925, 28,31, 34, 37, 40 갱신, 1942.1.2 사망
3	馬場 豊	2.2	軍馬	경남	밀양군 김해군	2 488	14 3.18	1890.2.6 생, 1917.10.26 여수, 신규(144), 1921.10 치과의사(14)
4	林炳奎	2.10	경기	경기	경성부	3 488	14 3.18	1881.7.31 생, 1917, 1919 갱신, 1922.3.4 사망
5	尹貞爽	2.20	경기	경기	경성부	3 488	14 3.18	1881.4.24 생, 1917, 20, 23, 31,33, 35 갱신, 1937.9.10 사망
6	安騰樂只	3.2	長崎	함남	원산부	2 521	14 4.28	1878.9.18 생
7	崔益本	3.2	경기	경기	개성군	5 521	14 4.28	1876.10.19 생, 1919,21,23,26,32, 37, 40, 43 갱신, 창씨개명(佳山武雄)
8	申正休	3.1	경기	경기	경성부	3 521	14 4.28	1880.2.19 생, 1917, 1920 갱신, 1923.3.21 폐업
9	金成正之	3.12	神奈川	경남	김해군	3 521	14 4.28	1876.10.19 생, 1917, 1920 갱신
10	高允道	3.16		평북	강계군	3 521	14 4.28	1886.2.1 생, 1917 갱신
11	李鍾冕	3.19	함남	함남	원산부	2 521	14 4.28	1878.2.25 생
12	朴允文	3.28	경기	강원	철원군	3 521	14 4.28	1886.12.28 생
13	金敬集	4.	경성	경기	경성부	3		1917.4.1 (관보 1442. 1917.5.26), 1919,21, 27, 30, 33, 36, 39, 42 갱신
14	-							
15	朴承稜	9.	경기					1919.9.4 (관보 2190. 1919.11.28) 갱신 (2년)
16	崔達洙		평남					1919.3.31 반납 (기간종료, 관보 2028. 1919.5.16)
17	服都岩藏	3.	長崎	함남	북청군 이원면	3		1917.3.12 (관보 1410. 1917.4.19), 1922,25, 28, 31 갱신, 1932.6.15 사망
18								
19	重松寛慈	4.	福岡					1919.4.1 (관보 2028. 1919.5.16), 1920, 21 갱신, 1923.8.24 폐업
20								
21								
22								
23	梅野善次郎	4.	長崎	충북	보은군			1919.7.28 (관보 2110, 1919.8.22) 지역변경 (보은군)
24	金洪達	5.	경북					1920.5.1 (관보 2359.22) 갱신(3년), 1923.4.30 반납 (기간만료)
25	大坪喜一			전남				1917.11.25 폐업 (관보 1680, 1918.2.20)
26								
27								
28	全大淳	5.	황해	황해				1919.5.1 (관보 2056, 1919.6.18) 갱신(3년)
29	新藤喜藏	6.5		경기	연천군	3 618	14 8.22	1869.12.14 생
30	黒瀬 直	6.26		경남	함안군	3 618	14 8.22	1884.10.23 생
31	金練直	6.26		경남	협천군	3 618	14 8.22	1874.9.21 생
32	廣澤茂	6.26	大分	평북	용천군	3 618	14 8.22	1884.3.24 생
33	日出能太郎	7.8		황해	황주군 송림면	2 618	14 8.22	1872.6.18 생
34	太田豊藏	7.8		경기	진위군	3 618	14 8.22	1878.12.25 생
35	千應斗	7.13	경기	경기	수원군	3 618	14 8.22	1894.6.6 생, 1917, 20, 23 갱신, 1926.6.30 폐업
36	日高定吉	7.15		함남	감산군	3 618	14 8.22	1884.12.17 생
37	宮崎竹治	7.15		함북	청진부	2 618	14 8.22	1890.12.23 생
38	山村源治	8.15	宮城	충북	충주군	4 659	14 10.12	1888.7.9생, 1923 갱신 1925 지역확장(제천군), 1926,29,32,35,38,41 갱신
39	松本重峯	8.21		황해	봉산군	2 659	14 10.12	1883.8.9 생,
40	梶井源七	8.21	徳島	함북	경성군	2 659	14 10.12	1879.4.20 생
41	小嶋眞次	8.27		강원	봉강군	3 659	14 10.12	1893.3.18 생
42	井上泰雄	8.27	山梨	충남	대전군	3 659	14 10.12	1879.8.12 생, 1917,20,22, 25,28, 31,34,37 갱신, 1940.9.10 반납(기간만료)
43	河村薫	8.27	佐賀	충남	보령군	3 659	14 10.12	1872.2.4 생, 1917 갱신(5년)
44	中川信太郎	8.27	愛知	평북	운산군 창성군	3 659	14 10.12	1881.3.24 생, 1917 갱신, 1919 지역변경(신의주), 1921,25,28,31,34,37,43 갱신
45	吉田むふ	9.3		경남	김해군 하계면	3 659	14 10.12	1875.2.9 생
46	三山久藏	10.2	長崎	충남	공주군	3 692	14 11.21	1873.5.14 생
47	野村桂治郎	10.9		함남	원산부	692	14 11.21	1883.8.13 생
48								번호 누락
49	山口文太郎	10.29	鳥取	경북	의성군	5 692	14 11.21	1875.3.24 생, 1919, 1922 갱신, 1925.10.10 폐업
50	松江降	10.29	佐賀	황해	평산군	3 692	14 1.11	1874.9.18 생, 1917 갱신(3년)

번호	이름	등록년월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 고	
						호수	년	월일		
51	松本要次郎	1914	11.17	愛媛	전북	정읍군	3	728 14	1.9	1880.7.15 생, 1917 갱신(5년), 1922.1.14 사망
52	趙鎮國		11.17	경기	황해	연백군	3	728 15	1.9	1893.11.6 생, 1917 갱신(5년), 1918.3.27 폐업
53	京極順市		11.27	전북	김제군 부안군	3	728 15	1.9	1886.10.3 생	
54	松下彦熊		12.15	鹿兒島	충북	청주군	5	729 15	1.11	1878.1.12 생, 1919 갱신, 1921.10.10 반납
55										
56										
57	邊世熙			평남						1921 반납(기간만료, 관보 2749, 1921.10.10)
58	阿部源太郎	1915	2.9	山形	함남	함흥군	5	776 15	3.8	1878.4.16 생, 1920, 1927, 1930 갱신
59	大久保義子		3.5	경기	평남	대동군 추을미면	5	812 15	4.21	1890.4.11 생
60	兒島廣		3.5	宮崎	평남	진남포부	5	812 15	1.4	1880.2.7 생, 1920, 1928, 1931 갱신, 1932.3.31 폐업
61	春田武彦		3.18	鹿兒島	경북	경산군	5	812 15	1.4	1883.3.15 생, 1920.3.17 반납(기간만료)
62	原 末吉		3.18	佐賀	경북	김천군	2	812 15	4.21	1884.9.1 생, 1917, 19, 23, 28, 31, 34, 37, 40 갱신, 1943.2.15 사망
63										
64	野田直喜		4.20	大分	전남	광주군 송정면	5	830 15	5.12	1920.3.11 폐업
65	辰川辰藏		4.20	廣島	전남	나주군	5	830 15	5.12	
66	塚本文次郎		4.20	長崎	충북	영동군	5	830 15	5.12	
67	中村菊千代		4.20	福岡	전북	남원군	5	830 15	5.12	1920.4.26 갱신, 1926.5.28 폐업
68	三山久藏		4.29		경북	대구군	3	830 15	5.12	1921, 1923, 1926, 1929 갱신, 1929.10.4 사망.
69	古賀義尙		6.2	長崎	경북	대구부	3	893 15	7.24	1918, 1921, 1924 갱신, 1928.2.1 반납(기간만료)
70	新井直忠		6.2		전북	익산군	3	893 15	7.24	1918.11.4 폐업
71	大久保義子		6.9		경기	시흥군	5	893 15	7.24	1921.2.25 폐업
72	小幡金一		6.9		경남	거창군	5	893 15	7.24	
73	劉泰亨		6.9	전북	전북	군산부 옥구군	5	893 15	7.24	1920, 1925, 1928 갱신
74	藤井弥三郎		6.23		전북	율도군	3	893 15	7.24	1918.10.12 폐업, 1923.7 치과의사(등록번호 34)
75	榮田辰平		6.23	熊本	경북	선산군	3	893 15	7.24	
76	福山武彌		7.9	鹿兒島	전북	군산부및 옥구군	5	912 15	1.8	1919, 1920 갱신
77	迎亨一		7.9	佐賀	평남	진남포부	5	912 15	1.8	1920, 1925 갱신, 1926.4.5 폐업
78	齊藤孝		7.9	佐賀	평남	진남포부	5	912 15	1.8	1920 갱신, 1922.7.26 폐업, 1924.9 치과의사 (등록번호 42)
79	武石常次郎		7.23		경북	대구부	3	912 15	1.8	
80	木村武次郎		7.23		경북	영덕군	3	912 15	1.8	
81	黒川文三郎		7.23	長崎	경북	청도군	3	912 15	1.8	1918, 1923, 1926, 1929, 1932, 1935, 1938, 1941 갱신
82	塚本勝次郎		7.23	長崎	경기	안성군	5	912 15	1.8	
83	小林惠次郎		7.23	静岡	충북	영동군 내영동면	5	912 15	1.8	
84	太田豊藏		7.26		충북	예산군	5	912 15	1.8	
85	梅月右一		7.26	岡山	경남	남해군 사천군	5	912 15	1.8	1920 갱신
86	大野利三		8.14	福岡	경기	이천군	5	937 15	9.16	
87	椿 亥之熊		9.17	熊本	경북	상주군	3	962 15	10.18	1921, 1924, 1927 갱신, 1928.4.13 사망
88	吉岡俊輔		9.25	東京	경북	김천군	3	962 15	10.18	
89	尾上行次		11.15	兵庫	경남	양산군	5	102 16	1.12	1920, 1922, 1925 갱신, 1926.3.27 사망
90	吉田幸五郎		11.23	大分	전북	익산군	5	102 16	1.12	1920, 1923, 1926, 1929, 132, 1935, 1938, 1941 갱신
91	金鎮漢		12	경기						1920.12.4 갱신 (관보 2526, 1921.1.15)
92	塚本勝次郎				경기	이천군 양평군				1919.6.29 갱신(관보 2091, 1919.7.31), 1921.24, 27, 30, 33 갱신, 1934.11.9 사망
93	布勢勝則		12.16	福岡	경남	고성군	3	103 16	1.21	
94	佐伯繁太郎	1916	1.7		경남	사천군 읍내면	5	107 16	3.3	1914.6.27 면허취소(행불, 관보 5717), 1919.2.24 면허취소(관보1975)
95	申澤大藏		2.25		전남	광주군	5	108 16	3.20	
96	山本禹平		3.1	岡山	강원	강릉군	3	112 16	5.4	1919.2.28 반납(기간만료)
97	佐伯繁太郎		4.6		경남	하동군	5	113 16	5.12	
98	廣澤茂		4.22		평북	신의주부	1	113 16	5.12	1917, 1921, 1925, 1928, 1931, 1934, 1937, 1940, 1943 갱신
99	金煥杓		4.24	경기		경성부	3	113 16	5.12	1919, 1921 갱신
100	金煥奎		4.24	경기		경성부	3	113 16	5.12	1919.21.24, 27, 30 갱신, 1931 본적변경, 1933.36.39 갱신, 1942.1.17 폐업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101	朴榮世	1916	4.24	경기	.	경성부	3	1130	16 5.12	1919 갱신, 1921.10.10 반납
102	安重秀		4.24	경기	.	경성부	3	1130	16 5.12	1919. 1921. 1924, 1927, 1930 갱신, 1933.4,7 폐업
103	谷日一		4.27	강원		평강군	2	1130	16 5.12	1918.4.30 반납(기간종료)
104	安藤樂只		4.27	함남		원산부	2	1130	16 5.12	
105	辰川辰藏		5.	전남		나주군	2			1918.6.1 갱신(관보 1786, 1918.7.19), 1922 갱신, 1927.10.20 폐업
106	志方市衛		5.	長崎	경북	영일군	2			1917.10.30 갱신(관보 1577, 1917.11.7), 1921,24,27,30,33,36,39,42 갱신
107	吉原芳松		5.	香川			5			1921.5.30 갱신(관보 2655, 1921.6.17), 1924 갱신
108	小林惠四郎		6.				4			1920.6.7 갱신(관보 2379, 1920.7.15), 1923,26,29 갱신, 1931.7.30 폐업
109	稻井嫺七		8.4	함북	경성군		2	1247	16 9.28	
110	福井興七		8.8	충북	괴산군		5	1247	16 9.28	
111	神谷政雄		8.24	和歌山	전남	장성군	5	1247	16 9.28	1918.7.31 반납(기간만료), 1919.4.28 지역변경(장흥군)
112	淺田喜八		9.9	황해	봉산군		2	1259	16 10.12	1917.9.20 사망
113	諸葛舜		9.9	황해	봉산군		2	1259	16 10.12	
114	香月貞雄		9.9	경북	경주군		3	1259	16 10.12	
115	內藤寛一		9.21	鳥根	경남	울산군	3	1259	16 10.12	
116	日出雄太郎		10.30	황해	황주군 송림면		3	1286	16 11.16	
117	廣瀨末五郎		10.30	함남	서천군		3	1286	16 11.16	1917.10.9 폐업
118	大野利三		11.18	충남	천안군		5	1307	16 12.12	1920 지역추가(아산군), 1921, 24 갱신, 1927.3.31 폐업
119	宮下義貞		11.20	德島	함북	화령군	3	1307	16 12.12	1920.6.30 반납(기간종료)
120	横溝猛男		11.27	福岡	경기	안성군	5	1307	16 12.12	
121	吉田政八		12.27	熊本	평남	개천군 덕천군	2	1333	16 1.17	1918, 1921, 1923 갱신, 1924.6.5 사망
122	鈴木菊治	1917	1.15	전북	전주군	임실군	5	1356	17 2.13	1921.10.10 반납
123	金祥寧		1.22	경북	경북	성주군 고령군	3	1356	17 2.13	1917.8.21 지역변경(경주군), 1920-43 갱신, 1941.1.10 창씨 金山祥寧
124	劉昌宣		2.9	평북	황해	재령군	3	1381	17 3.14	1920, 22 갱신, 1922.11.7 폐업, 1922.1 치과의사(24)
125	門田助太郎		2.13	廣島	평북	용천군	2	1381	17 3.14	1919, 21, 23, 25, 28, 31, 34, 37 갱신, 1940.8.5 폐업
126	劉貞善		2.15	평남	평원군		2	1381	17 3.14	1917.8.14 반납, 1928.11 치과의사 (등록번호 186)
127	廣瀨乙藏		4.11	兵庫	황해	황주군 송림면	3	1442	17 5.26	1877.11.1생, 1912.8.23 허가취소(충북 예천), 1921.2.28 폐업
128	朴弼來		4.11	충남	충남	청양군	5	1442	17 5.26	1922, 25 갱신, 1928 지역변경(예산군), 1931, 34 갱신, 1937.7.2 폐업
129	金遇淵		4.11	함북	함북	명천군 성을군	3	1442	17 5.26	1920.4.5 폐업
130	山根政一		4.11	山口	함북	성진군 길주군	3	1442	17 5.26	1920, 1923, 1929 갱신
131	大村富榮			충남						1917.11.4 폐업 (관보 1608, 1917.12.14)
132	入門太七郎		4.26	福岡	전남	광양군 고흥군	2	1442	17 5.26	1919, 1922, 1925, 1928, 1931, 1934, 1937, 1940, 1943 갱신
133	東郷彦		5.25	熊本	강원	통천군	3	1455	17 6.11	1919.3.15 사망
134	尹喬炳		5.28	경기	경기	경성부	3	1455	17 6.11	1920 갱신, 1923.4.30 반납(기간종료)
135	齊藤文治		7.9	福島	강원	철원군	3	1515	17 8.21	1919 지역추가(평강군), 1920, 23 갱신, 1926.6.30 기간만료
136	榮田辰平		7.16	전북	김제군		5	1515	17 8.21	1922, 1925, 1927, 1928, 1931, 1934, 1937 갱신, 1940.2.26 사망
137	大和田助次郎		7.23	東京	전북	군산부 옥구군	5	1515	17 8.21	1922 갱신, 1924.11 치과의사 (등록번호 43)
138	谷口一		8.28	岡山	함남	감산군 삼수면	2	1538	17 9.18	1919, 21, 24 갱신, 1924.7.31 기간만료, 1927, 30 갱신, 1931.3.25 사망
139	山口盛太郎		9.26	長崎	경북	침곡군	2	1567	17 10.25	1919 갱신, 1921.10.20 폐업
140	中澤六藏		10.22	전북	군산부 옥구군		5	1590	17 11.22	
141	桂利植		10.22	황해	황주군		3	1590	17 11.22	
142	川久保卯三郎		10.22	高知	창원군	상남면	5	1590	17 11.22	1922, 1927, 1930, 1933 갱신
143	清水繁雄		10.26	東京	전남	여수군	3	1590	17 11.22	1920 갱신, 1922.11 치과의사 (등록번호 23)
144	馬場豊		10.26	전남	여수군		3	1590	17 11.22	1914.2 등록번호 3, 1920 갱신, 1921.10 치과의사 (등록번호 14)
145	佐藤成		10.26	大分	전남	강진군	3	1590	17 11.22	1920, 1922 갱신
146	折野助次		10.30	충남	옥천군		5	1590	17 11.22	
147	土佐徳市		11.10	평북	삭주군	창성군	3	1608	17 12.14	
148	金鍾善	1918	1.28	충남	충남	논산군	5	1680	18 2.20	1920 지역추가(부여군), 1928, 1931, 1934, 1937 갱신
149	廣瀨改三		2.2	평북	강계군		5	1682	18 3.18	1918.2.27 폐업
150	小川作一		2.2	廣島	함남	고원군 영흥군	3	1682	18 3.18	1920 지역변경 (해주군)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151	金鍾昊	1918	2.25	경기	전북	전주군	5	1682	18 3.18	1923.1.31 폐업
152	塚本文次郎		3.5	강원 충북	원주	황성 평창 영월 제천	5	1709	18 4.20	1923, 1928, 1931, 1934, 1937, 1940, 1943 갱신
153	永田豊吉		3.9	鹿児島	강원	삼척군	4	1709	18 4.20	1921.6.5 폐업
154	趙鐵國		3.27	경기	개성군		5	1709	18 4.20	1923, 1927, 1928 갱신, 1931.3.2 반납(기간만료)
155	重林小一郎		3.6	山口	평남	진남포부	4	1709	18 4.20	1935.3.5 반납(기간만료)
156	岩尾市郎		4.1	大分	전북	정읍군 태인면	3	1734	18 5.20	
157	宇都良雄		4.11	鹿児島	경북	영천군	5	1734	18 5.20	1921.7.5 폐업
158	朴道煥		4.30	경기	경기	장서군	2	1758	18 6.17	1919.5.10 폐업
159	飯野方		6.6	埼玉	경북	영주군 예천군	5	1786	18 7.9	1923, 1928, 1931, 1934, 1937, 1940, 1943 갱신
160	丸山壽三郎		6.6	熊本	황해	봉산군	5	1786	18 7.9	
161	金益鴻		6.6	황해	황해	서흥군	5	1786	18 7.9	1923, 1926, 1929, 1932 갱신, 1934.1.27 사망
162	森内文平		6.13	熊本	경북	영일군	3	1786	18 7.9	1921.6.5 폐업
163	秋元春三		6.24	岐阜	평북	박천군	3	1786	18 7.9	1919.11.11 지역변경(금산군)
164	稻井源七			徳島			2	1834	18 9.6	1920, 1922, 1923 갱신, 1925.8.31 반납(기간종료)
165	諸葛舜						1859	18 10.18		1920.10.4 반납(기간만료)
166	佐藤忠義		10.8	千葉	함북	경산군	2	1878	18 11.21	1920, 1922 갱신
167	吉岡俊輔		11.21		경북	김천군	2	1907	18 12.16	1921 갱신
168	吉崎文作		12.24	廣島	경성	경성부	2	1932	19 1.18	1921, 1925, 1931, 1933, 1935, 1937 갱신, 1940.2.5 폐업
169	森登一		12.24	廣島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25, 31, 33, 35, 37, 41, 44 갱신
170	永田正二		12.24	鹿児島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갱신
171	永井改作		12.24	東京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갱신, 1923.9.15 사망
172	山田恒太郎		12.24	長崎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1925 갱신, 1929.12.23 사망
173	飯田健太郎		12.24	福岡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갱신, 1923.11.18 폐업
174	應武淵四郎		12.24	岡山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25, 31, 33, 35, 37, 41, 44 갱신
175	伊藤重次郎		12.24	岐阜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25, 31, 33, 35, 38, 41, 44 갱신
176	尾崎政吉		12.24	香川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1925 갱신, 1926.11.19 사망
177	齊藤英壽		12.24	鹿児島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25, 31, 33, 36, 38, 41 갱신
178	鹽谷邦五郎		12.24	埼玉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1925 갱신, 1931.1.10 폐업
179	仁禮竹夫		12.24	鹿児島	경북	영덕군 울릉도	5	1932	18 1.18	1922.7.26 폐업
180	藤井松一		12.24	山口	충남	대전군	2	1932	18 1.18	1921 갱신
181	竹〇一憲		12.24	廣島	충남	대전군	2	1932	18 1.18	1925, 1928 갱신
182	杉山〇太郎		12.24	岡山	경남	밀양군	3	1932	18 1.18	1925 갱신
183	山内治三郎		12.24	京都	경남	창원군 내진해면	3	1932	18 1.18	1921, 1923 갱신, 1925.12.30 폐업
184	布勢勝則		12.24		경남	고성군 사천군	3	1932	18 1.18	1922, 1925 갱신
185	與倉信義	1919	1.15	鹿児島	경남	마산부 창원군	2	1962	19 2.24	1921 갱신, 1923.12.31 반납(기간만료)
186	坂口義藏		1.15	大分	함남	함흥군	2	1962	19 2.24	1925, 1926 갱신
187	水島小一郎		1.15	岡山	전남	목포부	2	1962	19 2.24	1921.11.9 폐업, 1921.10 치과 의사 (13)
188	小倉三郎	1918	12.25	岡山	경성	경성부	2	1932	18 1.18	1921, 1925, 1931, 1933, 1935 갱신
189	田中銀藏		12.27	滋賀	평남	평양부	2	1932	18 1.18	1920, 1924, 1928, 1932 갱신, 1935.1.7 폐업
190	片桐イト		12.27	長野	평남	평양부	2	1932	18 1.18	1920.5.7 폐업
191	田中二ト 後藤啓二		12.27	長野 福岡	전남	광주군	2	1932	19 1.18	1920.6.20 폐업(관보 2410, 1920.8.21) 256번 동일인
192	河内一宗	1919	1.6	大分	경남	총영군	2	1962	19 2.24	1919.8.27 폐업
193	辻常太郎		1.6	岐阜	평북	정주군	2	1962	19 2.24	1921 갱신
194	小池只一		1.6	廣島	전남	광양군	3	1962	19 2.24	1922, 1926, 1930, 1933, 1937, 1940, 1942 갱신
195	吳昌熙		1.15	경북	전남	영광군	2	1962	19 2.24	1921 갱신, 1923.3.31 사망
196										번호누락
197	藤田定二		1.23	静岡	경기	인천부	2	1962	19 2.24	1924.1.21 기간만료
198	長野宇作		1.25	福岡	경기	인천부	2	1962	19 2.24	1920.9.30 사망
199	竹内喜一		1.31	三重	황해	내해주 연백	2	1962	19 2.24	1925 갱신
200	閔丙禹		1.31	경북	충북	부여군 예천군	3	1962	19 2.24	1922.9.13 반납(기간만료)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201	田村久次	1919	2.6	熊本	경기	개성군	2	1981	19	3.19	1924, 27, 30, 33, 36, 39 갱신, 1941.2.6 사망	
202	建山長次郎		3.18	熊本	경남	함양군	2	2001	19	4.14	1918.12.31 폐업(이전기록), 1921.3.5 기간종료	
203	山本禹平		3.27		강원	강릉군	2	2001	19	4.14	96번 동일인, 1922, 27, 30, 33, 36, 39, 42 갱신	
204	安藤 樂只		3.27		함남	북청군 이원면	3	2001	19	4.14	1922, 25, 28, 31, 34, 37, 40, 43 갱신	
205	矢内豊四郎		3.29	兵庫	경기	수원군	2	2001	19	4.14	1920, 1921, 1922 갱신, 1923.3.6 폐업	
206	佐佐木多郎		5.4	長崎	경기	수원군	2	2056	19	6.18	1921, 24, 27, 30, 33, 36, 39 갱신, 1941.12.15 폐업	
207	伊神泰次		5.4	愛知	경남	하동군	2	2056	19	6.18	1920.12.2 폐업	
208	方夏均		5.4	함남	황해	김천군 평산군	2	2056	19	6.18		
209	大倉良知		5.4	岡山	전남	보성군	2	2056	19	6.18		
210	岩本秀太郎		5.24	山口	전북	임실군	3	2056	19	6.18	1922 갱신	
211	才本松太郎		6.17	長崎	충남	공주군	3	2091	19	7.31	1927, 30, 33, 36, 39, 42 갱신	
212	鄭承敏		7.8		황해	황주군	2	2110	19	8.22	1921 갱신, 1922.8.26 폐업	
213	後藤敬三		7.8		三重	경기	수원군	2	2110	19	8.22	
214	朴道煥		7.8			경북	선산군	3	2110	19	8.22	1922 갱신, 1925.12.8 사망
215	松江隆		7.22			황해	장연군	3	2110	19	8.22	지역변경
216	岩松勇		7.22	長崎	강원	통천 고성 양양	3	2110	19	8.22	1922, 1925 갱신, 1928.3.10 폐업	
217	林リノ		8.15	和歌山	함남	원산부	2	2143	19	10.2		
218	方貞均		8.15	함남	함남	원산부	2	2143	19	10.2	1921 갱신, 1922.11.22 폐업, 1925.7 치과의사(67)	
219	李鐘冕		8.19		함남	원산부	2	2143	19	10.2	1921, 24, 27, 30, 33, 36, 39, 42 갱신	
220	平松憲夫		8.19	岡山	경북	서일군 창주면	3	2143	19	10.2	효산면 동해면, 1922 갱신	
221	島田晋藏		11.11	長崎	전남	제주도	3	2213	19	12.25	1922.4.19 폐업	
222	金昌元		11.11	함남	함북	함흥군 웅기면	3	2213	19	12.25		
223	松井九十郎		11.11	和歌山	충북	창주군	3	2213	19	12.25	1922, 27, 30, 33, 36, 39 갱신	
224	藤井多三郎		11.11	廣島	전북	전주군	3	2213	19	12.25	1922.10.31 기간만료	
225	小室寛朔		12.26	東京	충남	보령군	3	2239	20	1.31	1921.7.10 폐업	
	宋前新一		11.18	愛知	전남	순천군	3	2213	19	12.25	1922, 24, 27 갱신	
226	内藤寛一	1920	12.26		경남	울산군	3	2239	20	1.31	1922, 25, 29, 32, 34, 38, 44 갱신	
227	太錫彦		1.17	경기	경성부		3	2266	20	3.4		
228	朴奉圭		2.5	경남	경남	남해군	2	2285	20	3.26		
229	崔贊成		2.25	황해	황해	신천 안악 은율	3	2285	20	3.26	1923, 26, 28, 32, 35, 38 갱신	
230	原田伍一		3.2	山口	경남	동래군	3	2309	20	4.24	1922.4.29 사망	
231	金英一		3.2	함남	함남	함흥군	3	2309	20		1923.3.1 기간만료	
232	永橋角太郎		4.27	埼玉	충남	서산군	3	2339	20	5.29	1923, 27, 30, 33, 36, 39, 42 갱신	
233	金遇淵		5.6		함북	성을 명천 길주	3	2359	20	6.22	1929, 32, 35 갱신, 1938.5.11 폐업	
234	李柱英		5.7	함남	함남	이원군	3	2359	20	6.22		
235	桂澤仲		5.7	평남	평남	진남포부	3	2359	20	6.22	1926, 29, 32 갱신, 1934.7.2 폐업	
236	姜泰鍊		6.1	평북	평북	철산군	3	2379	20	7.15	1921 지역변경(영변군, 1927 정주군), 1930.33 갱신	
237	朱謙吉		6.15	평남	평남	안주군	3	2379	20	7.15	1923.6.14 기간만료	
238	宮下義貞		7.1		함북	회령군	3	2410	20	8.21	1923.6.30 기간만료	
239	雄野寛		7.5	岡山	경북	상주군 함창면	3	2410	20	8.21	1923 갱신, 1926.4.24 사망	
240	徐相晩		7.5	경북	경북	안동군 영양군	3	2410	20	8.21	1923 갱신	
241	梅野善次郎		7.14		충북	영동군	3	2410	20	8.21	1922.6.27 폐업	
242	洪義變	8.4	강원	강원	회천군	3	2432	20	9.17	1921 지역변경(양구군), 1921.4.12 폐업		
243	春田武彦	8.11		함남	함흥군	3	2432	20	9.17	1923.8.10 기간만료		
244	劉光成	9.9	전북	전북	옥구군	3	2448	20	10.8	1921 지역변경(옥구군), 1923.11.30 기간만료		
245	田中豊	9.9	鹿児島	함남	고원영흥 정평	3	2448	20	10.8	1923, 26, 29, 32, 34, 35, 38, 41 갱신		
246	田性錫	9.9	평남	평남	정주군	3	2448	20	10.8	1923 갱신, 1927.3.15 폐업		
247	松江降	10.5		함남	영흥 장주 고원	2	2477	20	11.12	50번 동일인		
248	諸葛舜	11.3		황해	봉산군	3	2498	20	12.8	165번 동일인, 1923, 26, 29, 32 갱신, 1935.4.10 사망		
249	沈龍洙	1921	3.7	강원	강원	삼척군	3	2604	21	4.19	1923 갱신	
	黒澤イト	1920	12.1	長野	평북	평양부	3	2526	21	1.15	1927, 30, 33, 37 갱신	
250	金完永	1921	3.15	황해	황해	신계 곡산 수안	3	2604	21	4.19	1924 갱신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251	屋馬岐年太郎	1921.4.13	石川	충남 천안군	4	2628	21	5.17	1924, 27, 30 갱신
252	大久保義子	4.19		경기 시흥군	3	2628	21	5.17	
253									
254	李洗東	5.12	함북	청진부	2	2655	21	6.17	1923, 26 갱신
255	塚本券司	5.10	靜岡	평남 평양부	5	2655	21	6.17	1923, 7.25 폐업, 1923.7 치과의사(33)
256	後藤啓二	6.1	福岡	부안군	2	2675	21	7.11	1923, 26, 29, 32, 35 갱신, 1938.6.5 폐업
257	玉文振	6.18	평북	선천군		2675	21	7.11	1924,27,30,33,36,39,42 갱신, 1941.5.4 창씨개명(玉名文振)
258	金唐七	6.18		달성군		2675	21	7.11	
259	金甲培	6.29		고령군		2675	21	7.11	
260	李圭明		경남	황해 채령군					1926.5.24 갱신(관보 4133, 1926.5.31), 1929,32,35,38,41 갱신, 1941.6.5 창씨개명(李圭明)
	李鎬坤	7.11	평남	평남 강서군	5	2699	21	8.9	1926.5.17 폐업, 1926.5 치과의사(98)
261	神谷政雄	7.11	함북	성유군	2	2699	21	8.9	
262	小室寛朔	7.11	東京	평북 강서군	3	2699	21	8.9	1924, 27, 30, 33, 36, 42 갱신
263	岡田三郎	7.28	경남	김해군	3	2699	21	8.9	
264	白鳳基	7.3	강원		3	3588	24	7.29	1926.1.11 사망
265	後藤敏三	8.1	三重		3	3619	24	9.4	1927, 30, 33, 36, 39, 42 갱신
266									
267	宇津良雄	10.10	鹿兒島	경북 영천군	3	2775	21	11.11	1924, 27, 30, 33 갱신
268	横構猛夫	10.10	福岡	경기 양주군	3	2775	21	11.11	1924.1.7 폐업
269	朴龍弼	10.10	전남	전남 광주군	3	2775	21	11.11	1924,27,30,33,36,39,42 갱신, 1942.11.10 창씨개명(松山政義)
270	金大淳	10.15	황해	황해 안악군	3	2775	21	11.11	1924,27,30,33,36,39,42 갱신, 1942.12.13 창씨개명(安本大淳)
271	辻常太郎	10.22	岐阜	경기 시흥군	3	2775	21	11.11	1924.5.27 폐업
272	重信義範	11.1	鹿兒島	강원 고성군	5	2802	21	12.14	1926, 29, 32, 35, 38, 41 갱신, 1936.3.7 본적변경
273	小川作一	11.1	廣島	황해 해주군	5	2802	21	12.14	
274	岡崎時雄	11.1	岡山	경북 침곡군	5	2802	21	12.14	1924.7.10 폐업
275	桑原眞澄	11.1	佐賀	전남 광주군	5	2802	21	12.14	1927, 30, 33, 36, 39, 42 갱신
276	神田保平	12.10	兵庫	경북 영일군	3	2824	22	1.14	
277	杉本義滿	12.22	高知	경기 용인군	3	2824	22	1.14	1923.11.22 폐업
278	松江降	1922.1.11	佐賀	경기 부천군 김포군	3	2849	22	2.14	
279	韓秉洙	1.18	황해	평북 철산군	3	2849	22	2.14	
280	金成正之	1.23	神奈川	경남 창원군	2	2849	22	2.14	1923.10.6 폐업
281	福山武淵		鹿兒島	경북 정읍군	3	2897	22	4.13	1927.3.30 갱신(관보85, 1927.4.14),1930,33,36,38,42 갱신
282	金元鎬	3.8	황해	황해 곡산군	3	2897	22	4.13	1928.4.10 갱신 (관보412, 1928.5.16)
	朴龍豊		함북	명천군					
283	李鍾泰	3.16	경기	함남 문천군	3	2897	22	4.13	
284	北島作一	3.29	福岡	경남 기장군	3	2897	22	4.13	1923.3.23 폐업
285	河村薰	3.16	佐賀	충남 홍성군	3	2897	22	4.13	1925, 28 갱신, 1929.11.6 사망
286	申德賢	4.11	평북	평북 위원군	5	2925	22	5.16	1927,30, 33, 36, 39, 42 갱신, 1941.6.5 창씨개명(平山富賢)
287	佐田直廣	4.11	鹿兒島	경북 경산군	5	2925	22	5.16	1927, 29 갱신
288	洪義燮	4.11	강원	강원 고성군	3	2925	22	5.16	1924.6.7 사망
289	金英華	5.3	함북	황산군	2	2952	22	6.16	1924,26,29,32,35,38,41,44 갱신, 1941.6.5 창씨개명(光山英一)
290	秋本春三	5.3	岐阜	자성군	2	2952	22	6.16	1922.11.10 사망
291	朴允文	6.2	경기	경기 개성군	3	2975	22	7.13	
292	大倉良知	6.2	岡山	전남 보성군	3	2975	22	7.13	
293	藤原藤藏	7.8	新潟	경남 김제군	3	3000	22	8.11	
294	金洙溪	7.8	전남	전남 제주도	5	3000	22	8.11	1927,30, 33, 36, 39, 42 갱신, 1942.6.2 창씨개명(金山洙溪)
295	姜基洛	7.8	평북	평북 후창군 비성군	5	3000	22	8.11	1927,30,33,36, 39, 42 갱신, 1942.1.22 창씨개명(大山基洛)
296	濱岐三平	9.6	長崎	경남 통영군	3	3054	22	10.14	1925 갱신, 1927.6.1 지역변경(담양군)
297	杉本義滿	9.6	高知	충남 아산군	3	3054	22	10.14	1925.10.21 갱신, 1925.12.8 폐업
298	梁昌彦	9.6	강원	강원 인제군	3	3054	22	10.14	
299	崔德崙	10.9	함북	함북 명천군	2	3076	22	11.11	1924, 27, 30, 33, 36 갱신
300	神田保平	10.9	兵庫	경북 영덕군	3	3076	22	11.11	1925, 28, 31, 34, 37, 40, 43 갱신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301	金澤龍	1922	11.7	황해	송탄군	3	3102	22 12.13	1925, 28, 32, 34, 37, 41 갱신	
302	梅野善次郎		11.18	충북	영동군	3	3102	22 12.13	1892.2.25 생, 1926.5.26 면허취소	
303	全用瑄		12.12	함남	함남	3	3124	23 1.13	1923.5.1 폐업	
304	松坂勤		12.12	神奈川	전남	5	3124	23 1.13	1923.6.8 반납, 치과의사 면허	
305	金允教		12.12	함남	함남	3	3124	23 1.13		
306	辛芝靈		12.12	함북	함북	3	3124	23 1.13	1926, 29, 32, 35, 38, 41, 44 갱신	
307	金庚七		12.12	경북	경북	3	3124	23 1.13	1925, 28, 32 갱신, 1935.4.6 폐업	
308										
309	朴信奎	1923		평북	운산군				1897.8.29 생, 1928.1.9(관보407), 30, 31, 34, 37 갱신, 1940.8.29 영업정지 (10일)	
310										
311	小川作一				경성부	3				1925.12.12(관보 4020), 1927, 30 갱신, 1932.6.24 사망
312	金己京		2.10	충남	전북	3	3181	23 3.21		
313	平賀需		2.10	岐阜	충북	3	3181	23 3.21		
314	金鐘吳		3.17		전북	3	3202	23 4.17	1926, 29 갱신	
315	朴泰圭		3.27	경남	사천군	3	3202	23 4.17	1926, 29 갱신, 1932.5.1 폐업	
316	村上義則		4.12	愛媛	평남	5	3223	23 5.11	1928, 31, 34, 37, 40 갱신, 1943.4.12 폐업	
317	金英一		5.8		함남	3	3225	23 5.14	1926, 29, 32, 35, 38, 41 갱신	
318	藤井多三郎		5.8		전북	3	3225	23 5.14	1926.2.23 폐업	
319										
320	樫井爆	1924	5.30	廣島	함북	경원군	2	3247	23 6.8	1926, 29, 32, 35, 38, 42 갱신
321	神谷政雄		5.30	함북	경원군	3	3247	23 6.8	1923.7.23 폐업	
322	劉日成		6.28	경북	전북	3	3275	23 7.11	1924.3.24 폐업	
323	仁禮竹夫		6.28	강원	강원	3	3275	23 7.11	1926.3.25 폐업	
324	浦本則		7.7	熊本	충북	3	3280	23 7.17	1924.6.14 폐업	
325	梁暎湜		7.7	함남	함남	3	3280	23 7.17	1926 갱신, 1928.9.2 사망	
326	金洪達		7.26		경북	3	3301	23 8.11	1924, 27, 30, 36, 39, 42 갱신, 1942.1.22 창씨개명(大山晴繁)	
327	宮下義貞		8.22		함북	2	3319	23 9.3		
328	徐相晩		8.22		경북	3	3319	23 9.3	1924, 27, 30, 33, 36, 29, 42 갱신, 1940.9.2 창씨개명(達川綠野)	
329	尹橋炳		9.1		경기	3	3329	23 9.14	1926, 29, 32, 35, 38 갱신, 1939.12.24 사망	
330	梅月右一		9.20		경남	3	3354	23 10.16	1926, 29 사망	
331	徐明勳		9.20	함북	함북	3	3354	23 10.16		
332	春田武彦	1924	9.26	함남	함남	1	3374	23 11.10	1924, 26, 29, 32 갱신	
333	吉岡馬吉		9.22	高知	경북	3	3374	23 11.10	1926.3.25 폐업	
334	金成正之		9.22		경남	2	3374	23 11.10	1925 갱신	
335	楓萬		11.15	福岡	평남	3	3385	23 11.24	1928.3.10 폐업	
336	金鎮漢		11.20	경기	경기	3	3390	23 11.30	1926 갱신, 1930.5.28 폐업	
337	佐藤忠義		11.25		함북	2	3401	23 12.13	1925 갱신	
338	後藤摩助		12.10	岐阜	충성군		3404	23 12.17	1926, 29, 32, 36, 38, 42 갱신	
339	鄭道成	1924	12.17	충남	충남	3	3411	23 12.25	1927, 29, 32, 38 갱신, 1940.8.4 폐업, 1940.7 치과의사(837)	
340	孫田晴人		12.25	山形	전남	3	3424	24 1.15	1926, 30, 33, 36, 39, 42 갱신	
341	平源龍		1.1	鹿兒島	충남	3	3424	24 1.15	1927, 29, 32 갱신, 1933.6.29 사망	
342	辛慶得		1.18	충남	충남	3	3437	24 1.31		
343	興會信義		2.25	鹿兒島		3	3469	24 3.10	1927, 30, 33, 36, 39 갱신, 1942.3.24 폐업	
344	岡琦時雄		4.19			3	3522	24 5.13		
345	徐明勳		5.7	함북	경성군	3	3531	24 5.23		
346	劉日成		5.7	전남	영광군	3	3531	24 5.23	1927 지역확장, 1928.7.2 폐업	
347	橫溝猛男		5.7	황해	재령군	2	3531	24 5.23	1926, 29, 32, 35, 38 갱신	
348	金益信		5.7	평북	황해	2	3531	24 5.23	1926, 28, 31, 34, 37, 40 갱신, 1943.6.8 창씨개명(大山益信)	
349	申正休		6.12		경성부	3	3563	24 6.30	1927, 30, 33, 36, 39, 42 갱신, 1942.4.1 창씨개명(神山隆敏)	
350	金煥杓		6.23		경성부	3	3573	24 7.11	1924.8.29 사망	

번호	이름	등록연월일	본적	지역	기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351	坂元鶴茂	1924.7.3	高知	장흥군	3	3588	24	7.29	1927, 30, 33, 36, 38, 42 갱신
352	清永喜三郎	7.3	東京	경원군	3	3588	24	7.29	1927.4.25 사망
353	松江降	7.3		시흥군	3	3588	24	7.29	
354	全用瑄	8.8		담양군	3	3619	24	9.4	
355	西本新市	9.25	廣島	제주도	3	3651	24	10.14	
356	金允石	11.20	경남	남해군	3	3695	24	12.6	1927, 30, 33, 36, 39, 42 갱신, 1940.10.10 창씨개명(金田賴興)
357	朴允文	11.20		철원군	3	3695	24	12.6	1928.3.19 폐업
358	李錫道	12.1	평남	삼영군	3	3723	25	1.15	1928 갱신, 1930.3.15 사망
359	河利植	12.1	강원	홍원군	3	3723	25	1.15	
360	宮元祐弘	12.1	高知	김해군	3	3723	25	1.15	1928, 30, 34, 36, 39 갱신, 1942.10 폐업
361	李弘圭	12.25	경기	양평군	3	3746	25	2.12	1927.12.24 기간만료
362	岡戸幹二	12.25	愛知	진안군	3	3746	25	2.12	1928, 31, 34 갱신
363	加藤金次郎	1925.2.15	三重	침곡군	3	3755	25	2.23	
364	尹古斗里	4.1	충북	보은군	3	3819	25	5.12	1928, 31, 34, 37, 40, 43 갱신
365	劉光成	4.1		사천군	3	3819	25	5.12	1928.4.19 폐업
366	裴正道	5.18	경북	안성군	3	3843	25	6.9	1927 지역변경(시흥군), 1930 갱신, 1931.3.30 폐업
367	徐明勳	5.18		평강군	3	3843	25	6.9	1928, 31, 34, 35, 37, 40, 43 갱신, 1940.9.2 창씨(利川明勳)
368	劉富成	5.18	전북	금산군	3	3843	25	6.9	1928, 31, 34, 37, 40, 43 갱신, 1941.2.8 창씨개명(金岡弘益)
369	梁昌珍	6.2		고성군	3	3859	25	6.27	1928, 30, 33, 36, 39, 42 갱신, 창씨(松山昌珍)
370	藤田定二	6.2		인천부	3	3859	25	6.27	1928, 31, 34, 37, 40, 43 갱신
371	嚴鉉宗	6.2	황해	평원군	3	3859	25	6.27	1926.5.29 폐업, 1938.3 사망
372	羅文甲	6.2	전남	나주군	3	3859	25	6.27	1928, 31, 34, 37, 40 갱신, 1938.9 개명(羅熊山), 1943 창씨명(三川泰山)
373	姜潤旭	6.2	강원	홍천군	3	3859	25	6.27	
374	美國憲	7.25	황해	양구군	3	3907	25	8.24	403 동일인
	平松憲夫	7.		영일군 동해면	3				1928.6.7 갱신 (관보 46416), 1931.34, 37 갱신, 1940.8.6 폐업
375	杉山惣太郎	7.25		밀양군	3	3907	25	8.24	지역변경, 1927, 30, 33, 37, 39, 43 갱신
376	岡崎時雄	7.25		창영군	3	3907	25	8.24	지역변경, 1926.6.25 폐업
377	梅野春次郎	7.25		괴산군	3	3907	25	8.24	1892.2.25 생, 지역변경, 1926.5.26 면허취소(규칙 8조1항)
378	永田利治	9.4	鹿兒島	영광군	3	3941	25	10.6	1925.11.7 폐업
379	酒井千代一	9.25	山口	양주군	3	3941	25	10.6	1928.8.13 폐업
380	四村八郎	10.21	福岡	함안군	3	3968	25	11.10	1928, 31, 33 갱신
381	洪性鳳	10.21	경북	동래부	3	3968	25	11.10	
382	佐伯文太郎	11.12	山口	아산군	3	3978	25	11.21	1928, 31, 34, 38, 41, 44 갱신
383	柄井源七	12.10		?성군	3	4020	26	1.16	40번 동일인, 1926.11.8 사망
384	劉尙烈	12.15	전북	예성군	3	4020	26	1.16	1927, 28, 31, 33, 36 갱신
385	杉木義滿	1926.1.11		연기군	3	4032	26	1.30	1929.1.10 폐업
386	松江降	1.13		금화군 이천군	3	4032	26	1.30	1928, 29, 32, 35, 38 갱신
387	仁禮竹夫	1.20		영양군 봉화군	3	4032	26	1.30	1929.2.4 폐업
388	高山茂雄	1.25	山口	의성군	3	4032	26	1.30	1929.2.9 폐업
389	李斗傑	1.25	함북	고원군 문천군	3	4032	26	1.30	1927 지역변경(경흥군), 1929, 31 갱신
390	鄭承敏	1.25		황주군 황주면	3	4032	26	1.30	1929, 32, 35 갱신, 1936.11.20 사망
391	嚴鉉宗	1.25		신천군 안악군	3	4032	26	1.30	371번 동일인, 1938.3 사망
392	西本新市	1.9		광주군	3				1928.1.9 갱신 (관보 407, 1928.5.10), 1931, 34, 37, 40, 43 갱신
393	瀬川吉太郎	2.10	長崎	천안군	3	4061	26	3.6	1929, 32 갱신
394	安部榮太郎	3.22	岡山	당래군	3	4086	26	4.6	1929, 32, 35, 38, 41, 44 갱신
395	原田照		평남	?성군	3				1941.8.6 갱신 (관보 4387, 1941.9.5)
	中島清	5.7	福岡	김해군	3	4113	26	5.7	1929, 32, 35, 38, 41 갱신
396	金奉烈	5.5	함남	진성군	3	4133	26	5.31	1929, 32, 35, 38, 41 갱신, 1941.11.10 창씨개명(金山佳永)
397	吉澤忠三	5.5	長崎	논산군	3	4133	26	5.31	1929 갱신, 1931.7.3 사망
398	岡崎時雄	5.19		부천군	3	4133	26	5.31	지역변경(1926.7 시흥군, 1928 용인군), 1931.4.30 기간종료
399	韓秉周		황해	장연군	3	4148	26	6.18	1929 갱신, 1932.7.20 폐업
400	中村菊千代	6.24		여수군	3	4164	26	7.7	1927 지역변경(남원군), 1929.4.5 폐업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401	崔寅源	1926	7.19	경기		3	4191	26	8.9	1929, 32, 35, 38, 42 갱신, 1940.10.10 창씨개명(島河榮雄)	
402	金國鎮		7.13	평북		3	4191	26	8.9		1928, 31, 34, 37, 40, 43 갱신, 1940 창씨개명(金田重信) 374년 동일. 1928.31.34,37,40,43 갱신 1943.1.13 창씨개명(富田憲二)
403	姜國憲		8.2		곡산군	3	4207	26	8.27		
404	竹下春高	8.16	鹿兒島	논산군	3	4207	26	8.27	1929.8.13 폐업		
405	洪性鳳	8.19		거창군	3	4207	26	8.27	1929,32,35,38,41 갱신, 1941.7.3 창씨개명(德山大榮)		
406	近藤早茂	8.30	高知	북청군 신평면	3	4230	26	9.25		1928.8.16 폐업	
407	河利植	9.28		밀양군	3	4244	26	10.13			1929.10.4 폐업
408	姜鳳桓	9.28	전남	제주도	3	4244	26	10.13			
409	福田菊恵	10.27	愛媛	몽도군	3	4265	26	11.8	1929,30,33,36,39,42 갱신		
410	金鍾旻	10.27	전남	함평군	3	4265	26	11.8		1929,32,25,38,41 갱신, 1941.2.8 창씨개명(大原鍾旻)	
411	朴泰順	10.27	강원	이천군	3	4265	26	11.8			1928,31,34,37,40,43 갱신, 1943.5.17 창씨개명(富原豊一) 1929 갱신, 1931.8.20 폐업
412	辻常太郎	10.27		정읍군	3	4265	26	11.8			
413	竹本止	12.9	大分	침곡군	3	9	27	1.11			
414	朴完根	12.14	충남	공주군	3	9	27	1.11	지역변경		
415	金洪弼	12.17	경북	군위군	3	9	27	1.11			
416	韓競洙	1927	3.30	강원	고창군	3	85	27		4.14	
417	奈良文太郎		3.30	青森	신흥군	3	85	27	4.14		
418	永野風生		3.30	長崎	연백군	3	85	27	4.14		
419	渡邊力藏	4.27	福岡	경흥군	3	104	27	5.7	지역변경		
420	松澤好貞	5.9	長崎	부여군	3	131	27	6.8			
421	辛慶得	6.1		공주군	3	156	27	7.7			
422	樞本勝	6.1	高知	영광군	3	156	27	7.7	지역변경		
423	李聖五	6.1	경남	동연군	3	156	27	7.7			
424	武田喜市	6.1	兵庫	울산군	3	156	27	7.7			
425	金成正之	7.5		강진군	3	205	27	9.2	지역변경		
426	宮下義貞	9.1		경성군	3	233	27	10.9			
427	安藤保	9.1	岡山	덕천군	3	233	27	10.9			
428	鈴木榮	9.21	愛知	개령군	3	233	27	10.9	지역변경		
429	方思喆	9.22	충남	연기군	3	233	27	10.9			
430	李廣浩	10.3	강원	횡성군	3	267	27	11.18			
431	近藤武俊	10.3	香川	영주군	3	267	27	11.18	지역변경		
432	片岡長五郎	10.3	德島	이천군	3	267	27	11.18			
433	野島將	1.13	高知	계속	3	2266	20	3.4			
434	伊藤勝基	10.3	熊本	풍양군	3	267	27	11.18	지역변경		
435	姜賢翼	11.18	경남	창령군	3	406	28	5.9			
436	松浦鐵市	12.2	愛知	경주군 양남면	3	406	28	5.9			
437	渡邊進藏	1928	1.9	板木	광주군	3	407	28	5.10	지역변경	
438	朴允文		4.30		금화군	3	412	28	5.16		
439	布勢勝則		5.16		고성군	3	430	28	6.6		
440	藤田恵	6.20	山口	경남 창원군 철동면	3	464	28	7.16	지역변경		
441	劉光成	7.14	전북	부안군	3	502	28	8.29			
442	成田義雄		충남	충남 대덕군							
442	吳鍾律	7.14	황해	황해 은율군 은율면	3	502	28	8.29	1941.7.19 갱신(관보4365, 1941.8.11)		
443	金鳳聲	7.27	황해	황해 은율군 은율면	3	793	29	8.22			
443	松本恩郁		충남	부여군	3						
444	朴張柱	7.28	전남	선산군	3	502	28	8.29	1943.9.11 갱신 (관보 5007, 1943.10.9)		
444	元村健次郎		충남	연기군	3						
445	朱南淳	8.	함남	함남	3	518	28	9.17			
446	近藤早茂	9.12		신흥군	3	572	28	11.26	406 연결		
447	鄭完順	10.11	전북	전북 전주군 김례면	3	565	28	11.17			
448	趙鳳九	10.26	전북	전북 화순군	3	565	28	11.17			
449	德増庚亥	10.26	大阪	장성군	3	565	28	11.17	지역변경		
450	崔光壽	11.15	경북	경북 성주군	3	584	28	12.10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관보			비고
						호수	년	월일	
451	坂本則	1928	11.30	愛知	고성군	3	584	28 12.10	1930.3.3 폐업
452	梁允謨	1929	1.9	평북	선천군	3	616	29 1.23	
453	李應高		1.9	경기	고양군 지도면	3	616	29 1.23	1930.5.5 폐업
454	山下一郎		1.21	熊本	무주군	3	634	29 2.14	1931.12.20 폐업
455	盧載赫		2.16	황해	양구군 화천군	3	657	29 3.13	1931, 34, 37, 40 갱신, 1941.7.15 사망
456	高山 茂雄		2.27		의성군	3	657	29 3.13	1929.11.20 폐업
457	張丙日		2.27	평북	영일군	3	657	29 3.13	1932, 37, 40 갱신, 1940.8.17 창씨(大山丙日), 1941.12.30 영업정지(3달)
458	文淳泓		3.22	경기	신흥군	3	682	29 4.13	1932, 35, 38, 41, 44 갱신, 1941.2.8 창씨(永松淳泓)
459	仁禮竹夫		3.22		영양군 청송군	3	682	29 4.13	1932, 35 갱신, 1935.10.15 사망
460	江村潔		4.5	山口	영동군	3	700	29 5.6	1932 갱신, 1933.9.7 폐업
461	金河突		4.5	함북	경성군 주북면	3	700	29 5.6	주남면 어랑면, 1932.4.17 사망
462	渡邊進藏		4.10		괴산군	3	700	29 5.6	1930.2.28 폐업
463	朴再順		4.19	경남	양산군 양산면	3	700	29 5.6	1932, 35, 38 갱신
464	橋本ソヤ		4.19	熊本	김해군 대도면	3	700	29 5.6	1932 갱신, 1935.10.28 폐업
465	曹萬開		4.10	경남	양산군 상서면	3	700	29 5.6	1929 갱신, 1932.4.23 폐업
466	申東鎭		5.21	함남	홍원군	3	732	29 6.12	1932, 35, 38, 41 갱신, 1941 창씨개명(平山富新)
467	永野勝實		6.5	長崎	천안군	3	755	29 7.9	1931.3.12 폐업
468	全用瑄		7.27	함남	덕원군	3	793	29 8.22	1932, 35, 38 갱신
469	探見史郎		8.12	高知	양주군	3	812	29 9.13	1930.2.5 폐업
470	右田正喜		8.31	大分	부천군	3	812	29 9.13	1930.7.15 폐업
471	三山新利		10.10	長崎	고흥군	3	861	29 11.14	1932 갱신, 1938.1.15 사망
472	朴元奎		1.20	평북	홍천군	3	895	29 12.16	1931, 34, 37, 40, 43 갱신, 1943 창씨개명(密城常司)
473	金衡○		1.21	평남	북청군 신포면	3	895	29 12.26	속후면 양화면 후창면, 1929.11.21 기간만료
474	簡井友吹		1.25	長崎	청양면	3	895	29 12.26	1932 갱신, 1933.12.26 폐업
475	金秉玉		1.25	충남	사천면	3	895	29 12.26	1932 갱신, 1933.12.26 폐업
476	高岸喜十郎	1930	1.8	岡山	매성군(별교면제외)	3	927	30 2.6	1933 갱신, 1936.1.27 폐업
477	尹成龍		1.21	충북	충주군 충주면	3	927	30 2.6	1936, 39, 42 갱신, 1942.2.27 창씨개명(伊道義盛)
478	朴麟範		3.3	경남	달성군 현풍면	3	979	30 4.11	1933, 34, 27 갱신
479	田中重隆		3.24	廣島	의성군	3	979	30 4.11	1931.1.31 반납
480	文得友		6.11	평북	풍산군 금와면	3	1050	30 7.4	서종면 기천면, 1931, 34 갱신, 1937.5.30 폐업
481	岡崎臍		6.11	熊本	사천군	3	1050	30 7.4	1933.6.22 갱신, 1933.12.2 폐업
482	姜潤昶		6.27		춘천군	3	1050	30 7.4	1933, 36, 39 갱신, 1941.8.11 사망
483	金應俊		8.5	전남	담양군	3	1105	30 9.6	1933, 36 갱신
484	吳龍柱		8.5	전남	구례군	3	1105	30 9.6	1931,33,36, 39 갱신, 1942.11.20 창씨개명(香山光守)
485	竹崎武二		8.26	長崎	울산군	3	1105	30 9.6	1933, 36, 39, 42 갱신
486	河利植		9.19		진양군	3	1129	30 10.7	
487	李貞忠		11.26	황해	평산군	3	1177	30 12.4	1932.2.27 폐업
488	姜桓求	1931	1.14	함남	서천군	3	1226	31 2.7	1933, 37, 39, 42 갱신, 1942.12.10 창씨(大山恒求)
489	橋本金作		3.13		산청군 산청면	3	1275	31 4.9	1931.7.27 폐업
490	趙鎭國		5.18		개성부 개풍군	3	1324	31 6.6	1934, 37, 40, 43 갱신, 1941.3.14 창씨(松本鎭國)
491	金鳳浩		5.28	충남	진천군	3	1324	31 6.6	1934, 37, 40 갱신, 1941.8 반납
492	裴萬祚		6.11	경북	달성군 현풍면	3	1349	31 7.6	1933, 36, 39, 43 갱신, 1940.10.10 창씨개명(星山晁一)
493	金一浩		6.20	평남	강서군 함종면	3	1349	31 7.6	1934, 35, 38, 39, 42 갱신, 1941.8.6 창씨(西島一浩)
494	太山勝基		6.24	熊本	감산군	3	1349	31 7.6	1934, 37, 40, 43 갱신
495	金鍾珪		6.30	전남	장성군	3	1349	31 7.6	1934, 37, 40, 43 갱신, 1942.7.8 창씨개명(鶴林應治)
496	古原芳松		7.28		춘천면	3	1376	31 8.6	1934, 37, 40, 43 갱신
497	崔俊風		1.10	강원	양양군	3	1436	31 10.19	1934, 37, 43 갱신, 1942 창씨(山江俊風)
498	裴正道		10.19	전북	양평군	3	1450	31 11.5	1932.5.21 폐업
499	增永增美		11.16	熊本	의주군	3	1474	31 12.4	1934.11.15 폐업
500	山路義郎		11.18	廣島	괴산군	3	1474	31 12.4	

번호	이름	등록연월일		본적	지역	기간	관보			비고	
							호수	년월일			
501	杉木義滿	1931	11.18		연기군	3	1474	31	12.4	1933.1.25 폐업	
502	飯田豊		11.25	山口	경주군 양남면 양북면	3	1474	31	12.4		
503	梁鳳奎		11.25	황해	재령군 남유면 서호면	3	1474	31	12.4		
504	劉鳳仁		11.25	평북	송탄면	3	1474	31	12.4		
505	佐藤重喜		12.12	熊本	영암군	3	1505	32	1.16		
506	辻常太郎		12.18		안주군 신안주면	3	1505	32	1.16		
507	布勢勝則		1932	1.8		사천군 사천면	3	1519	32		2.2
508	江野村重雄			1.25	岡山	길주군	3	1519	32		2.2
509	長迫俊雄			2.10	廣島	제주군	3	1552	32		3.1?
510	金鍾和		7.4	전남	광양군	3	1676	32	8.8	1935, 38, 41 갱신, 창씨(大原鍾和)	
	朴昌蕓		3.18	평남	삭주군 서천군	3	1572	32	4.6		1933, 35, 36 갱신, 1937.11.10 사망
511	曹萬開		5.13		협천군 협천면	3	1624	32	6.8	1934, 37 갱신	
512	近藤二郎		5.27	香川	봉화군	3	1624	32	6.8	1935 갱신, 1937.1.14 폐업	
513											
514	方允玉		7.8	충북	음성군	3	1700	32	9.5	1935, 38 갱신	
515	高橋豊		9.7	宮崎	함안군 북면	3	1725	32	10.6	가야면 죽남면 함안면, 1934.4.5 폐업	
516	劉泰亨		9.22		옥구군	3	1725	32	10.6	1935 갱신, 1938.10.25 폐업	
517	池本正		11.11	和歌山	의성군	3	1771	32	12.2	1934.10.14 폐업	
518	高畑均		11.25	함남	장유군 군내면	3	1771	32	12.2	1935, 38, 41 갱신, 1940.9.2 창씨개명(高木良二)	
519	金寬善		11.25	함남	삼영군	3	1771	32	12.2	1938, 41 갱신, 창씨개명(金九豊正)	
520	金用点		12.26	전남	곡성군	3	1801	33	1.12	1935, 38, 41, 44 갱신, 창씨개명(金澤点用)	
521	金河奎	1933	5.19	함북	?성군	3	1908	33	5.23	1936, 42 갱신	
522	近藤早茂		6.12	高知	북청군 신포면	3	1934	33	6.2	446번 동일인, 1936 갱신	
522	申龍雨		7.4	강원	인제군	3	1967	33	7.31	1935, 37, 39, 42 갱신, 1940.4.2 창씨개명(高木正義)	
524	朴寧來		7.17	충남	임실군	3	1967	33	7.31	1936.39 갱신, 1940.10.10 창씨개명(淸木義陽)	
525	望月敎		7.17	靜岡	장진군	3	1967	33	7.31	1934, 36, 37, 43 갱신	
526	申東寅		7.17	함남	풍산군	3	1967	33	7.31	1936 갱신, 1940.3.8 폐업	
527	西野金藏		7.24	富山	제천군	3	1967	33	7.31	1936 갱신, 1940.4.26 폐업	
528	白奉學		7.24	경북	괴산군 증평면	3	1967	33	7.31	1936 갱신	
529	絲瀬國三		7.24	長崎	영동군	3	1967	33	7.31	1935.10.20 폐업	
530	吉岡實		7.24	愛媛	부여군	3	1967	33	7.31	1936 갱신, 1937.12.8 폐업	
531	本岡三郎		7.24	福岡	삼수군	3	1967	33	7.31		
532	趙彬		8.19	함남	경성군 주을은면	3	1998	33	9.5	1936, 39 갱신, 창씨개명(大倉芳義), 1942.3.22 폐업	
533	和田喜之助		10.19	鹿兒島	통천군	3	2046	33	11.2	1934, 36, 39 갱신	
534	梁允模		10.31		선천군	3	2046	33	11.2	1936, 39 갱신	
535	安榮生		11.1	평북	귀성군	3	2072	33	12.5	1936, 40, 43 갱신, 1940.5.18 창씨개명(安田榮次郎)	
536	張京順	11.24	평북	곡산군	3	2072	33	12.5	1935.10.11제교부, 1936.39.42갱신,창씨개명(松山忠治)		
537	田宅成	11.24	평남	봉산군	3	2072	33	12.5	1934 갱신, 1937.3.3 사망		
538	金台煥	11.24	충남	봉산군 구연면	3	2072	33	12.5	1936, 39, 42 갱신, 창씨개명(金太輔)		
539	安榮生	5.8		영변군	3	3115	37	6.5			
540	金京福	12.27	경남	화순군	3	2099	33	1.12	1936 갱신		
541	崔尙候	1934	1.11	평남	양덕군	3	2119	34	2.3	1936 갱신	
542	金一鳳		4.6	경기	경성군	3	2193	34	5.5	1937, 40, 45 갱신, 1941.2.8 창씨개명(金光勝雄)	
543	郭雲鏞		6.2		신계군	3	2243	34	7.3	1934.12.10 사망	
544	林鳳根		6.2	황해	재령군	3	2243	34	7.3	1937, 40 갱신	
544	林鐵雄				재령군					1942.12.1 갱신(관보 5071, 1943.1.11), 1937, 40 갱신	
545	時松二男		9.1	熊本	논산군	3	2329	34	10.13	1937, 40, 43 갱신	
546	木下濯男		9.1	福岡	청양군	3	2329	34	10.13	1937, 40, 43 갱신	
547	金容鎬		9.1	전남	여수군	3	2329	34	10.13	1936, 39, 42 갱신, 창씨개명(菅原光信)	
548	韓基伍		9.1	평남	강서군	3	2329	34	10.13	1933.8.20 사망	
549	沈昌燮		9.1	평남	함천군	3	2329	34	10.13	1936, 37 갱신, 1940.9.2 창씨(松本昌燮)	
550	林用淳	9.1	평남	용강군	3	2329	34	10.13	1936.12.24 사망		

번호	이름	등록연월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월일		
551	齊藤新	1934	10.27	宮城	청주군	3	2347	34	11.6 1937.5.25 폐업
552	金豪傑		11.21	황해	해주군 추화면	3	2372	34	12.6 1937.41, 44 갱신, 창씨(金城豪傑)
553	池本正		12.27		사천군	3	2398	35	1.12 1937, 41, 43 갱신
554	増永増美	1935	1.12		의주군	3	2418	35	2.5 1938.7.28 폐업
555	趙泰英		2.9	평남	강서군 반석면	3	2440	35	3.4 1938, 41, 44 갱신, 1940.10.10 창씨(昌松泰英)
556	金相熙		2.9	평남	강서군 신정면	3	2440	35	3.4 1938, 41, 44 갱신, 1940.10.10 창씨(金原相熙)
557	鈴木榮		2.9		신흥군	3	2440	35	3.4 1938, 41 갱신
558	崔寬善		4.13	평북	창성군	3	2492	35	5.7 1937, 41, 44 갱신, 1941.4.16 창씨(山田寬善)
559	杉野市平		6.15	福岡	봉화군	3	2542	35	7.4 1938 갱신, 1941.8 반납
560	申在善		6.22	황해	황주군	3	2542	35	7.4 1937, 40, 43 갱신, 1943.4.7 창씨(平山在善)
561	葛岡金吾		8.8	長野	정읍군 태인면	3	2590	35	8.29 1938, 41 갱신
562	城島一次		9.26	佐賀	당진군	3	2623	35	10.9 1938, 41 갱신
563	姜泰狹		4.14		정주군	3	2785	36	4.28 1939, 42 갱신, 1941.3.14 창씨개명(富永光雄)
564	李雲經		12.9	경남	평원군 순안면	3	2696	35	1.11 1937, 38, 40 갱신, 창씨(三川雲經), 1941.7.2 폐업
565	李永漢		12.9	황해	해주군	3	2696	36	1.11 1937, 7.2 사망
566	朴麟浩		12.9	전북	영산군	3	2696	36	1.11 1938, 41 갱신, 1941.3.14 창씨(小林麟浩)
567	丸野盛隆		12.9	鹿児島	대덕군	3	2696	35	1.11 1938 갱신
568	崔晟圭		12.9	전남	순천군	3	2696	36	1.11 1938, 41 갱신, 1940.9.2 창씨개명(高山原太郎)
569	金洛先		12.	경북	김천군	3			1938.10.12 갱신(관보 3540), 1938.40.43 갱신, 1940.9.2 창씨개명(金台照弘)
570	柳秉呂		12.	평북	용강군	3			1939.12.6 갱신 (관보 3595, 1939.1.16), 1941.6.12 폐업
571	堀永儀人	1936		山口			3003	36	1.21 1935.12.28 폐업
572	高岸喜十郎		3.7		보성군	3	2769	36	4.9 1939, 42 갱신
573	崔元官		6.3	평북	강계군	3	2839	36	7.1 1937 갱신
574	林長洙		8.7	전남	보성군	3	2895	36	9.4 1939, 42 갱신
575	石崎政儀		8.7	宮城	장성군	3	2895	36	9.4 1939 갱신
576	金貴孫		10.19	황해	증화군	3	2951	36	11.1 1938.7.27 폐업
577	李明燮		12.5	황해	곡산군	3	2999	37	1.16 1939, 43 갱신, 1941.10.22 창씨개명(宮本光盛)
578	永田忠富	1937	1.10	鹿児島	금화군	3	3017	37	2.6 1938 갱신
579	徐明勳		5.8		정평군	3	3115	37	6.5 1938, 42 갱신, 창씨개명(金平明禹)
579	利川廣			함남	홍남읍	3			1940.12.2 갱신 (관보 4495, 1941.1.23)
580	徐順泰		6.7	전북	고창군	3	3138	37	7.2 1940 갱신, 1942.12.15 폐업
581	金禮東		6.7	경북	영주군	3	3138	37	7.2 1940, 43 갱신, 1941.6.5 창씨개명(伍堂文博)
582	稻葉實		6.7	京都	영덕군 영해면	3	3138	37	7.2 1940.6.18 폐업
583	全四星		8.10	황해	연백군	3	3193	37	9.4 1939, 41 갱신, 창씨개명(松山義政)
584	張鳳瑞		8.10	평북	송탄군	3	3193	37	9.4 1937, 40, 43 갱신, 창씨개명(平山 水吉)
585	文得友	1938	2.8		벽계군	3	3341	38	3.9 1941, 44 갱신, 창씨개명(石川文太郎)
586	姜弼周		5.4	평북	철산군	3	3413	38	6.4 1941.5.3 폐업
587	許正燁		5.4	평북	후창군	3	3413	38	6.4 1941, 44 갱신, 창씨개명(陽川正淸)
588	金龍萬		6.4	경남	창원군	3	3438	38	7.4 1941 갱신, 창씨개명(國村哲昌)
589	李春培		6.4	황해	제주도	3	3438	38	7.4 1944 갱신, 창씨개명(平山淸)
590	崔吉洙		6.4	평남	서안군	3	3438	38	7.4 1939, 42 갱신, 창씨(山本吉洙)
591	徐斗元		7.2	경북	경산군	3	3464	38	8.3 1941.2.8 반납(치과의사 면허)
592	柳大圭		7.2	충남	음성군	3	3464	38	8.3 1941 갱신, 창씨개명(柳井熙世)
	平沼斗巖		7.	경북	선산군	3			1941.6.5 갱신 (관보 4342, 1941.7.15)
593	金玟洙		7.2	전남	청주군	3	3464	38	8.3 1940.2.21 폐업
	石原重一			경북	고령군	3			1941.6.5 갱신 (관보 4342, 1941.7.15)

번호	이름	등록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월일		
594	大和教賢 周元根	1937		경북 충북	개령군 단양군	3 3				1941.6.5 갱신 (관보 4342, 1941.7.15) 1941, 44 갱신, 1940.10.10 창씨개명(吉原英雄)
595	邊世照 森内文平		8.16		양성군 영일군	3 3	3492	38	9.5	1942.10.3 갱신 (관보 4737, 1942.11.13)
596	金山明熙 櫻井武彦 尹壬孫			평북 평남	창성군 용위군	3 3				1941.9.8 갱신 (관보 4412, 1941.10.7) 1941.7.3 (관보 4365, 1941.8.11). 1943 갱신
			11.10	경기	용흥군	3	3563	38	12.3	1939 갱신
597	桃園郷淑 松山茂 李源珪	1938		경기 경북	벽제군	3				1941.9.8 갱신 (관보 4412, 1941.10.7) 1940.9.2 창씨개명(관보 4124, 1940.10.21).1941 갱신
			11.10	경북	평원군	3	3563	38	12.3	
598	久禮眞積 金城英雄 吳馬石			경북 평북	양성군 삼풍면	3				1940.9.2 창씨개명 (관보 4124, 1940.10.21) 1943.7.13 갱신 (관보 4969, 1943.8.21)
			11.10	경북	안주군	3	3563	38	12.3	
599	江村正治 李道承			평북 경남	영변군 창원군	3				1943.7.13 갱신 (관보 4969, 1943.8.21) 1941 갱신, 1940.9.2 창씨개명(完本清生)
600	林陽淑		12.6	전남	영광군	3	3595	39	1.16	1941 갱신
601	趙元淳		12.6	황해	서흥군	3	3595	39	1.16	1942, 44 갱신, 1940.9.2 창씨(白川元淳)
602	白義正		12.6	평북	김천군	3	3595	39	1.16	1941 갱신, 1941.8.6 창씨개명(白原秀康)
603	方奎煥	1939	3.2	경기	개풍군	3	3662	39	4.7	1940.5.30 폐업
604	尹泳河		3.9		함주군	3	3662	39	4.7	1939.8.26 폐업
605	高判中		5.3	전남	무안군	3	3710	39	6.5	1942 갱신, 1942.9.3 창씨(高山判中)
606	星本明平			경남	남해군	3				1942.6.2 갱신 (관보 4634, 1942.7.10)
607	盧東暹		9.9		풍산구	3	3816	39	10.6	1939.11.5 폐업
608	李圭榮		10.7	평남	용강군	3	3843	39	11.10	1942 갱신, 1940.10.10 창씨개명(水谷榮宏)
609	石川保		10.7	徳島	강동군	3	3843	39	11.10	
610	金光旭		10.7	평남	증화군	3	3843	39	11.10	1942 갱신, 창씨(金原光旭)
611	崔成益		10.7	평남	고원군	3	3843	39	11.10	1942, 43 갱신, 1942.9.3 창씨개명(三井成益)
612	朴宗圭		11.8	충북	영동군	3	3863	39	12.5	1942 갱신, 1941.1.10 창씨(森本宗圭)
613	李再道 坂原岡石		12.5	경남 충북	선령군 청주군	3 3	3895	39	1.8	1942 갱신, 1942.12.21 창씨(山本再道) 1943.7.13 갱신 (관보 4969, 1943.8.21)
614	松山明珪 李君三	1940	3.7	황해	청주군 장연군	3	3965	40	4.11	1943.7.13 갱신 (관보 4969, 1943.8.21) 1942, 43 갱신, 창씨(森山君三)
615	權藤泰旭 邊東周			충북 황해	청주군 등 연백군	3				1943.7.13 갱신 (관보 4969, 1943.8.21) 1943 갱신, 창씨개명(原邊光雄)
616	崔常厚		3.7	평남	밀양군 부북면	3	3965	40	4.11	1943 갱신, 창씨(森山常厚)
617	申鳳祚		6.13	경남	창영군	3	4042	40	7.12	1943 갱신, 창씨개명(平山行信)
618	裴卜生		6.13	경남	국영군	3	4042	40	7.12	1943 갱신, 1941.1.10 창씨개명(城本文夫)
619	衛藤重年 趙秉錫			大分	무산군					1941.7.3 갱신 (관보4365, 1941.8.11)
			7.2	전북	구례군	3	4065	40	8.8	1943 갱신, 1941.5.4 창씨개명(玉川榮治)
620	吳鳳柱		7.2	전남	곡성군	3	4065	40	8.8	1943 갱신, 1942.12.13 창씨개명(香山光園)

번호	이름	등록연월일	본적	지역	기간 (년)	관보			비고	
						호수	년월일			
621	金一公		7.2	전북	익산군	3	4065	40	8.8	1943 갱신, 1941.2.8 창씨(金山一公) 1942. 43 갱신
622	田村元三		10.10	평남	영원군	3	4147	40	1.16	
623	五味厚		1.11	長野	북청군	3	5102	44	2.8	
	原金永吉		7.3	평남	덕천군	3	4365	41	8.11	
624	金子滢承		1.13	평남	대동군	3	4804	43	2.8	
	金平明禹		2.24	함남	정평군	3	4830	43	3.11	
	華山龍官		1.10	경남	창원군	3	4212	41	2.7	
625	坡山泰替	1941	1.10	경남	협천군	3	4212	41	2.7	1943 갱신
626	光原基善		2.8	황해	벽성군	3	4246	41	3.20	
	雲川辰一		12.2	경남	고성군	3	4495	42	1.23	
627	大山時勳		2.8	평북	신천군	3	4246	41	3.20	1944.2.8 갱신(3년)
	三井富基		11 17	경남	진양군	3	4759	42	12.10	
628	金子滢承	1941	12.2		벽성군	3	4495	42	1.23	1943.12.1 갱신(3년)
	金澤平吉		2.8	황해	안악군	3	4246	41	3.20	
	德山他鎭	1942	11.10	경남	양산군	3	4759	42	12.10	
629	新川清磨	1943	5.17	경남	하동군	3	4903	43	6.8	
	重光安則		11.10	황해	웅진군	3	4759	42	12.10	
630	金澤永彦		5.17	경북	함안군	3	4903	43	6.8	
	島埼忠信		11.19	황해	황주군	3	5056	43	12.9	
	石原重一		5.5		고령군	3	5198	44	6.5	
631	大和教賢		5.3		개령군	3	5198	44	6.5	
	芝山清		11.19	황해	곡산군	3	5056	43	12.9	
632	林孟基		12.1	전남	화순군	3	5071	44	1.11	
633	成田義雄		5.27		대덕군	3	5198	44	6.5	
	田村富彦		12.1	경남	총영군	3	5071	44	1.11	
634	白川末福		12.1	경남	울산군	3	5071	44	1.11	
635	廣原正武		12.1	강원	횡성군	3	5071	44	1.11	
636~659 번호 누락										
659	玉山相俊	1944	1.11	강원	통천군	3	5102	44	2.8	
660	大山壽郷		2.8	경북	산청군	3	5125	44	3.7	
661	金岡弘索		3.3	전북	사천군	3	5151	44	4.8	
662	鳥川岡二		4.8	함북	무산군	3	5174	44	5.8	
663	木山千吉		4.8	강원	은성군 남양면	3	5174	44	5.8	
664	岡木永信		5.28	전북	임실군	3	5198	44	6.5	

제3장 은상시대의 구강의학 (약 기원전 16-11세기)

김 재 형*

제1절 은허 갑골문자중에서 본 구강질환

우리나라 은상시대로부터 이미 비교적 믿음직한 문자기재가 있다. 상 탕왕에서 주왕에 이르기까지 17대 31왕이다. 상 탕에서 판경으로 전하였을 때 그들은 강을 건너 은(하남 안양 소둔촌일대)에 도착하였다. 판경 후 즉 상왕조 후기에 상을 은이라고 했다. 때문에 갑골문이 포함된 시대는 응당 “판경에서 은으로 이주할 때 주나라는 멸망”이 된 273년이다.(기원전 1384년부터 1112년)

청광서년간, 농민이 안양 서북 소둔촌에서 밭을 파다가 문자가 새겨진 갑골을 발견했다. 청광서 25년에 와서(1899년), 금석가 왕이명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는 은상시대 유물로 판정하였다. 은나라사람은 미신을 믿어서 인해 은대 왕실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모두 점을 쳐서 길흉을 결정한다. 점치는 순서는 귀갑 혹은 짐승뼈를 오목하게 파내고 불로 태운 후 점을 쳐서 갈라진 무늬로 길흉을 판단한다. 사후에 사관이 갑골문자를 뼈면에 새겨 답안으로 보존해 놓는다.[1]

은인의 구강질환을 연구할 때 제일 흔히 보는 글은 갑골문자 중에 질자와 치자다. 질자는 𠂔 𠂕 𠂖 𠂗 𠂘 𠂙 𠂚 𠂛 등 상태, 사람이 침대에 누운 것과 같고, 𠂜 𠂝 𠂞 𠂟 𠂠 𠂡 𠂢 𠂣 𠂤 𠂥 𠂦 𠂧 𠂨 𠂩 𠂪 𠂫 𠂬 𠂭 𠂮 𠂯 𠂰 𠂱 𠂲 𠂳 𠂴 𠂵 𠂶 𠂷 𠂸 𠂹 𠂺 𠂻 𠂼 𠂽 𠂾 𠂿 𠃀 𠃁 𠃂 𠃃 𠃄 𠃅 𠃆 𠃇 𠃈 𠃉 𠃊 𠃋 𠃌 𠃍 𠃎 𠃏 𠃐 𠃑 𠃒 𠃓 𠃔 𠃕 𠃖 𠃗 𠃘 𠃙 𠃚 𠃛 𠃜 𠃝 𠃞 𠃟 𠃠 𠃡 𠃢 𠃣 𠃤 𠃥 𠃦 𠃧 𠃨 𠃩 𠃪 𠃫 𠃬 𠃭 𠃮 𠃯 𠃰 𠃱 𠃲 𠃳 𠃴 𠃵 𠃶 𠃷 𠃸 𠃹 𠃺 𠃻 𠃼 𠃽 𠃾 𠃿 𠄀 𠄁 𠄂 𠄃 𠄄 𠄅 𠄆 𠄇 𠄈 𠄉 𠄊 𠄋 𠄌 𠄍 𠄎 𠄏 𠄐 𠄑 𠄒 𠄓 𠄔 𠄕 𠄖 𠄗 𠄘 𠄙 𠄚 𠄛 𠄜 𠄝 𠄞 𠄟 𠄠 𠄡 𠄢 𠄣 𠄤 𠄥 𠄦 𠄧 𠄨 𠄩 𠄪 𠄫 𠄬 𠄭 𠄮 𠄯 𠄰 𠄱 𠄲 𠄳 𠄴 𠄵 𠄶 𠄷 𠄸 𠄹 𠄺 𠄻 𠄼 𠄽 𠄾 𠄿 𠅀 𠅁 𠅂 𠅃 𠅄 𠅅 𠅆 𠅇 𠅈 𠅉 𠅊 𠅋 𠅌 𠅍 𠅎 𠅏 𠅐 𠅑 𠅒 𠅓 𠅔 𠅕 𠅖 𠅗 𠅘 𠅙 𠅚 𠅛 𠅜 𠅝 𠅞 𠅟 𠅠 𠅡 𠅢 𠅣 𠅤 𠅥 𠅦 𠅧 𠅨 𠅩 𠅪 𠅫 𠅬 𠅭 𠅮 𠅯 𠅰 𠅱 𠅲 𠅳 𠅴 𠅵 𠅶 𠅷 𠅸 𠅹 𠅺 𠅻 𠅼 𠅽 𠅾 𠅿 𠆀 𠆁 𠆂 𠆃 𠆄 𠆅 𠆆 𠆇 𠆈 𠆉 𠆊 𠆋 𠆌 𠆍 𠆎 𠆏 𠆐 𠆑 𠆒 𠆓 𠆔 𠆕 𠆖 𠆗 𠆘 𠆙 𠆚 𠆛 𠆜 𠆝 𠆞 𠆟 𠆠 𠆡 𠆢 𠆣 𠆤 𠆥 𠆦 𠆧 𠆨 𠆩 𠆪 𠆫 𠆬 𠆭 𠆮 𠆯 𠆰 𠆱 𠆲 𠆳 𠆴 𠆵 𠆶 𠆷 𠆸 𠆹 𠆺 𠆻 𠆼 𠆽 𠆾 𠆿 𠇀 𠇁 𠇂 𠇃 𠇄 𠇅 𠇆 𠇇 𠇈 𠇉 𠇊 𠇋 𠇌 𠇍 𠇎 𠇏 𠇐 𠇑 𠇒 𠇓 𠇔 𠇕 𠇖 𠇗 𠇘 𠇙 𠇚 𠇛 𠇜 𠇝 𠇞 𠇟 𠇠 𠇡 𠇢 𠇣 𠇤 𠇥 𠇦 𠇧 𠇨 𠇩 𠇪 𠇫 𠇬 𠇭 𠇮 𠇯 𠇰 𠇱 𠇲 𠇳 𠇴 𠇵 𠇶 𠇷 𠇸 𠇹 𠇺 𠇻 𠇼 𠇽 𠇾 𠇿 𠈀 𠈁 𠈂 𠈃 𠈄 𠈅 𠈆 𠈇 𠈈 𠈉 𠈊 𠈋 𠈌 𠈍 𠈎 𠈏 𠈐 𠈑 𠈒 𠈓 𠈔 𠈕 𠈖 𠈗 𠈘 𠈙 𠈚 𠈛 𠈜 𠈝 𠈞 𠈟 𠈠 𠈡 𠈢 𠈣 𠈤 𠈥 𠈦 𠈧 𠈨 𠈩 𠈪 𠈫 𠈬 𠈭 𠈮 𠈯 𠈰 𠈱 𠈲 𠈳 𠈴 𠈵 𠈶 𠈷 𠈸 𠈹 𠈺 𠈻 𠈼 𠈽 𠈾 𠈿 𠉀 𠉁 𠉂 𠉃 𠉄 𠉅 𠉆 𠉇 𠉈 𠉉 𠉊 𠉋 𠉌 𠉍 𠉎 𠉏 𠉐 𠉑 𠉒 𠉓 𠉔 𠉕 𠉖 𠉗 𠉘 𠉙 𠉚 𠉛 𠉜 𠉝 𠉞 𠉟 𠉠 𠉡 𠉢 𠉣 𠉤 𠉥 𠉦 𠉧 𠉨 𠉩 𠉪 𠉫 𠉬 𠉭 𠉮 𠉯 𠉰 𠉱 𠉲 𠉳 𠉴 𠉵 𠉶 𠉷 𠉸 𠉹 𠉺 𠉻 𠉼 𠉽 𠉾 𠉿 𠊀 𠊁 𠊂 𠊃 𠊄 𠊅 𠊆 𠊇 𠊈 𠊉 𠊊 𠊋 𠊌 𠊍 𠊎 𠊏 𠊐 𠊑 𠊒 𠊓 𠊔 𠊕 𠊖 𠊗 𠊘 𠊙 𠊚 𠊛 𠊜 𠊝 𠊞 𠊟 𠊠 𠊡 𠊢 𠊣 𠊤 𠊥 𠊦 𠊧 𠊨 𠊩 𠊪 𠊫 𠊬 𠊭 𠊮 𠊯 𠊰 𠊱 𠊲 𠊳 𠊴 𠊵 𠊶 𠊷 𠊸 𠊹 𠊺 𠊻 𠊼 𠊽 𠊾 𠊿 𠋀 𠋁 𠋂 𠋃 𠋄 𠋅 𠋆 𠋇 𠋈 𠋉 𠋊 𠋋 𠋌 𠋍 𠋎 𠋏 𠋐 𠋑 𠋒 𠋓 𠋔 𠋕 𠋖 𠋗 𠋘 𠋙 𠋚 𠋛 𠋜 𠋝 𠋞 𠋟 𠋠 𠋡 𠋢 𠋣 𠋤 𠋥 𠋦 𠋧 𠋨 𠋩 𠋪 𠋫 𠋬 𠋭 𠋮 𠋯 𠋰 𠋱 𠋲 𠋳 𠋴 𠋵 𠋶 𠋷 𠋸 𠋹 𠋺 𠋻 𠋼 𠋽 𠋾 𠋿 𠌀 𠌁 𠌂 𠌃 𠌄 𠌅 𠌆 𠌇 𠌈 𠌉 𠌊 𠌋 𠌌 𠌍 𠌎 𠌏 𠌐 𠌑 𠌒 𠌓 𠌔 𠌕 𠌖 𠌗 𠌘 𠌙 𠌚 𠌛 𠌜 𠌝 𠌞 𠌟 𠌠 𠌡 𠌢 𠌣 𠌤 𠌥 𠌦 𠌧 𠌨 𠌩 𠌪 𠌫 𠌬 𠌭 𠌮 𠌯 𠌰 𠌱 𠌲 𠌳 𠌴 𠌵 𠌶 𠌷 𠌸 𠌹 𠌺 𠌻 𠌼 𠌽 𠌾 𠌿 𠍀 𠍁 𠍂 𠍃 𠍄 𠍅 𠍆 𠍇 𠍈 𠍉 𠍊 𠍋 𠍌 𠍍 𠍎 𠍏 𠍐 𠍑 𠍒 𠍓 𠍔 𠍕 𠍖 𠍗 𠍘 𠍙 𠍚 𠍛 𠍜 𠍝 𠍞 𠍟 𠍠 𠍡 𠍢 𠍣 𠍤 𠍥 𠍦 𠍧 𠍨 𠍩 𠍪 𠍫 𠍬 𠍭 𠍮 𠍯 𠍰 𠍱 𠍲 𠍳 𠍴 𠍵 𠍶 𠍷 𠍸 𠍹 𠍺 𠍻 𠍼 𠍽 𠍾 𠍿 𠎀 𠎁 𠎂 𠎃 𠎄 𠎅 𠎆 𠎇 𠎈 𠎉 𠎊 𠎋 𠎌 𠎍 𠎎 𠎏 𠎐 𠎑 𠎒 𠎓 𠎔 𠎕 𠎖 𠎗 𠎘 𠎙 𠎚 𠎛 𠎜 𠎝 𠎞 𠎟 𠎠 𠎡 𠎢 𠎣 𠎤 𠎥 𠎦 𠎧 𠎨 𠎩 𠎪 𠎫 𠎬 𠎭 𠎮 𠎯 𠎰 𠎱 𠎲 𠎳 𠎴 𠎵 𠎶 𠎷 𠎸 𠎹 𠎺 𠎻 𠎼 𠎽 𠎾 𠎿 𠏀 𠏁 𠏂 𠏃 𠏄 𠏅 𠏆 𠏇 𠏈 𠏉 𠏊 𠏋 𠏌 𠏍 𠏎 𠏏 𠏐 𠏑 𠏒 𠏓 𠏔 𠏕 𠏖 𠏗 𠏘 𠏙 𠏚 𠏛 𠏜 𠏝 𠏞 𠏟 𠏠 𠏡 𠏢 𠏣 𠏤 𠏥 𠏦 𠏧 𠏨 𠏩 𠏪 𠏫 𠏬 𠏭 𠏮 𠏯 𠏰 𠏱 𠏲 𠏳 𠏴 𠏵 𠏶 𠏷 𠏸 𠏹 𠏺 𠏻 𠏼 𠏽 𠏾 𠏿 𠐀 𠐁 𠐂 𠐃 𠐄 𠐅 𠐆 𠐇 𠐈 𠐉 𠐊 𠐋 𠐌 𠐍 𠐎 𠐏 𠐐 𠐑 𠐒 𠐓 𠐔 𠐕 𠐖 𠐗 𠐘 𠐙 𠐚 𠐛 𠐜 𠐝 𠐞 𠐟 𠐠 𠐡 𠐢 𠐣 𠐤 𠐥 𠐦 𠐧 𠐨 𠐩 𠐪 𠐫 𠐬 𠐭 𠐮 𠐯 𠐰 𠐱 𠐲 𠐳 𠐴 𠐵 𠐶 𠐷 𠐸 𠐹 𠐺 𠐻 𠐼 𠐽 𠐾 𠐿 𠑀 𠑁 𠑂 𠑃 𠑄 𠑅 𠑆 𠑇 𠑈 𠑉 𠑊 𠑋 𠑌 𠑍 𠑎 𠑏 𠑐 𠑑 𠑒 𠑓 𠑔 𠑕 𠑖 𠑗 𠑘 𠑙 𠑚 𠑛 𠑜 𠑝 𠑞 𠑟 𠑠 𠑡 𠑢 𠑣 𠑤 𠑥 𠑦 𠑧 𠑨 𠑩 𠑪 𠑫 𠑬 𠑭 𠑮 𠑯 𠑰 𠑱 𠑲 𠑳 𠑴 𠑵 𠑶 𠑷 𠑸 𠑹 𠑺 𠑻 𠑼 𠑽 𠑾 𠑿 𠒀 𠒁 𠒂 𠒃 𠒄 𠒅 𠒆 𠒇 𠒈 𠒉 𠒊 𠒋 𠒌 𠒍 𠒎 𠒏 𠒐 𠒑 𠒒 𠒓 𠒔 𠒕 𠒖 𠒗 𠒘 𠒙 𠒚 𠒛 𠒜 𠒝 𠒞 𠒟 𠒠 𠒡 𠒢 𠒣 𠒤 𠒥 𠒦 𠒧 𠒨 𠒩 𠒪 𠒫 𠒬 𠒭 𠒮 𠒯 𠒰 𠒱 𠒲 𠒳 𠒴 𠒵 𠒶 𠒷 𠒸 𠒹 𠒺 𠒻 𠒼 𠒽 𠒾 𠒿 𠓀 𠓁 𠓂 𠓃 𠓄 𠓅 𠓆 𠓇 𠓈 𠓉 𠓊 𠓋 𠓌 𠓍 𠓎 𠓏 𠓐 𠓑 𠓒 𠓓 𠓔 𠓕 𠓖 𠓗 𠓘 𠓙 𠓚 𠓛 𠓜 𠓝 𠓞 𠓟 𠓠 𠓡 𠓢 𠓣 𠓤 𠓥 𠓦 𠓧 𠓨 𠓩 𠓪 𠓫 𠓬 𠓭 𠓮 𠓯 𠓰 𠓱 𠓲 𠓳 𠓴 𠓵 𠓶 𠓷 𠓸 𠓹 𠓺 𠓻 𠓼 𠓽 𠓾 𠓿 𠔀 𠔁 𠔂 𠔃 𠔄 𠔅 𠔆 𠔇 𠔈 𠔉 𠔊 𠔋 𠔌 𠔍 𠔎 𠔏 𠔐 𠔑 𠔒 𠔓 𠔔 𠔕 𠔖 𠔗 𠔘 𠔙 𠔚 𠔛 𠔜 𠔝 𠔞 𠔟 𠔠 𠔡 𠔢 𠔣 𠔤 𠔥 𠔦 𠔧 𠔨 𠔩 𠔪 𠔫 𠔬 𠔭 𠔮 𠔯 𠔰 𠔱 𠔲 𠔳 𠔴 𠔵 𠔶 𠔷 𠔸 𠔹 𠔺 𠔻 𠔼 𠔽 𠔾 𠔿 𠕀 𠕁 𠕂 𠕃 𠕄 𠕅 𠕆 𠕇 𠕈 𠕉 𠕊 𠕋 𠕌 𠕍 𠕎 𠕏 𠕐 𠕑 𠕒 𠕓 𠕔 𠕕 𠕖 𠕗 𠕘 𠕙 𠕚 𠕛 𠕜 𠕝 𠕞 𠕟 𠕠 𠕡 𠕢 𠕣 𠕤 𠕥 𠕦 𠕧 𠕨 𠕩 𠕪 𠕫 𠕬 𠕭 𠕮 𠕯 𠕰 𠕱 𠕲 𠕳 𠕴 𠕵 𠕶 𠕷 𠕸 𠕹 𠕺 𠕻 𠕼 𠕽 𠕾 𠕿 𠖀 𠖁 𠖂 𠖃 𠖄 𠖅 𠖆 𠖇 𠖈 𠖉 𠖊 𠖋 𠖌 𠖍 𠖎 𠖏 𠖐 𠖑 𠖒 𠖓 𠖔 𠖕 𠖖 𠖗 𠖘 𠖙 𠖚 𠖛 𠖜 𠖝 𠖞 𠖟 𠖠 𠖡 𠖢 𠖣 𠖤 𠖥 𠖦 𠖧 𠖨 𠖩 𠖪 𠖫 𠖬 𠖭 𠖮 𠖯 𠖰 𠖱 𠖲 𠖳 𠖴 𠖵 𠖶 𠖷 𠖸 𠖹 𠖺 𠖻 𠖼 𠖽 𠖾 𠖿 𠗀 𠗁 𠗂 𠗃 𠗄 𠗅 𠗆 𠗇 𠗈 𠗉 𠗊 𠗋 𠗌 𠗍 𠗎 𠗏 𠗐 𠗑 𠗒 𠗓 𠗔 𠗕 𠗖 𠗗 𠗘 𠗙 𠗚 𠗛 𠗜 𠗝 𠗞 𠗟 𠗠 𠗡 𠗢 𠗣 𠗤 𠗥 𠗦 𠗧 𠗨 𠗩 𠗪 𠗫 𠗬 𠗭 𠗮 𠗯 𠗰 𠗱 𠗲 𠗳 𠗴 𠗵 𠗶 𠗷 𠗸 𠗹 𠗺 𠗻 𠗼 𠗽 𠗾 𠗿 𠘀 𠘁 𠘂 𠘃 𠘄 𠘅 𠘆 𠘇 𠘈 𠘉 𠘊 𠘋 𠘌 𠘍 𠘎 𠘏 𠘐 𠘑 𠘒 𠘓 𠘔 𠘕 𠘖 𠘗 𠘘 𠘙 𠘚 𠘛 𠘜 𠘝 𠘞 𠘟 𠘠 𠘡 𠘢 𠘣 𠘤 𠘥 𠘦 𠘧 𠘨 𠘩 𠘪 𠘫 𠘬 𠘭 𠘮 𠘯 𠘰 𠘱 𠘲 𠘳 𠘴 𠘵 𠘶 𠘷 𠘸 𠘹 𠘺 𠘻 𠘼 𠘽 𠘾 𠘿 𠙀 𠙁 𠙂 𠙃 𠙄 𠙅 𠙆 𠙇 𠙈 𠙉 𠙊 𠙋 𠙌 𠙍 𠙎 𠙏 𠙐 𠙑 𠙒 𠙓 𠙔 𠙕 𠙖 𠙗 𠙘 𠙙 𠙚 𠙛 𠙜 𠙝 𠙞 𠙟 𠙠 𠙡 𠙢 𠙣 𠙤 𠙥 𠙦 𠙧 𠙨 𠙩 𠙪 𠙫 𠙬 𠙭 𠙮 𠙯 𠙰 𠙱 𠙲 𠙳 𠙴 𠙵 𠙶 𠙷 𠙸 𠙹 𠙺 𠙻 𠙼 𠙽 𠙾 𠙿 𠚀 𠚁 𠚂 𠚃 𠚄 𠚅 𠚆 𠚇 𠚈 𠚉 𠚊 𠚋 𠚌 𠚍 𠚎 𠚏 𠚐 𠚑 𠚒 𠚓 𠚔 𠚕 𠚖 𠚗 𠚘 𠚙 𠚚 𠚛 𠚜 𠚝 𠚞 𠚟 𠚠 𠚡 𠚢 𠚣 𠚤 𠚥 𠚦 𠚧 𠚨 𠚩 𠚪 𠚫 𠚬 𠚭 𠚮 𠚯 𠚰 𠚱 𠚲 𠚳 𠚴 𠚵 𠚶 𠚷 𠚸 𠚹 𠚺 𠚻 𠚼 𠚽 𠚾 𠚿 𠛀 𠛁 𠛂 𠛃 𠛄 𠛅 𠛆 𠛇 𠛈 𠛉 𠛊 𠛋 𠛌 𠛍 𠛎 𠛏 𠛐 𠛑 𠛒 𠛓 𠛔 𠛕 𠛖 𠛗 𠛘 𠛙 𠛚 𠛛 𠛜 𠛝 𠛞 𠛟 𠛠 𠛡 𠛢 𠛣 𠛤 𠛥 𠛦 𠛧 𠛨 𠛩 𠛪 𠛫 𠛬 𠛭 𠛮 𠛯 𠛰 𠛱 𠛲 𠛳 𠛴 𠛵 𠛶 𠛷 𠛸 𠛹 𠛺 𠛻 𠛼 𠛽 𠛾 𠛿 𠜀 𠜁 𠜂 𠜃 𠜄 𠜅 𠜆 𠜇 𠜈 𠜉 𠜊 𠜋 𠜌 𠜍 𠜎 𠜏 𠜐 𠜑 𠜒 𠜓 𠜔 𠜕 𠜖 𠜗 𠜘 𠜙 𠜚 𠜛 𠜜 𠜝 𠜞 𠜟 𠜠 𠜡 𠜢 𠜣 𠜤 𠜥 𠜦 𠜧 𠜨 𠜩 𠜪 𠜫 𠜬 𠜭 𠜮 𠜯 𠜰 𠜱 𠜲 𠜳 𠜴 𠜵 𠜶 𠜷 𠜸 𠜹 𠜺 𠜻 𠜼 𠜽 𠜾 𠜿 𠝀 𠝁 𠝂 𠝃 𠝄 𠝅 𠝆 𠝇 𠝈 𠝉 𠝊 𠝋 𠝌 𠝍 𠝎 𠝏 𠝐 𠝑 𠝒 𠝓 𠝔 𠝕 𠝖 𠝗 𠝘 𠝙 𠝚 𠝛 𠝜 𠝝 𠝞 𠝟 𠝠 𠝡 𠝢 𠝣 𠝤 𠝥 𠝦 𠝧 𠝨 𠝩 𠝪 𠝫 𠝬 𠝭 𠝮 𠝯 𠝰 𠝱 𠝲 𠝳 𠝴 𠝵 𠝶 𠝷 𠝸 𠝹 𠝺 𠝻 𠝼 𠝽 𠝾 𠝿 𠞀 𠞁 𠞂 𠞃 𠞄 𠞅 𠞆 𠞇 𠞈 𠞉 𠞊 𠞋 𠞌 𠞍 𠞎 𠞏 𠞐 𠞑 𠞒 𠞓 𠞔 𠞕 𠞖 𠞗 𠞘 𠞙 𠞚 𠞛 𠞜 𠞝 𠞞 𠞟 𠞠 𠞡 𠞢 𠞣 𠞤 𠞥 𠞦 𠞧 𠞨 𠞩 𠞪 𠞫 𠞬 𠞭 𠞮 𠞯 𠞰 𠞱 𠞲 𠞳 𠞴 𠞵 𠞶 𠞷 𠞸 𠞹 𠞺 𠞻 𠞼 𠞽 𠞾 𠞿 𠟀 𠟁 𠟂 𠟃 𠟄 𠟅 𠟆 𠟇 𠟈 𠟉 𠟊 𠟋 𠟌 𠟍 𠟎 𠟏 𠟐 𠟑 𠟒 𠟓 𠟔 𠟕 𠟖 𠟗 𠟘 𠟙 𠟚 𠟛 𠟜 𠟝 𠟞 𠟟 𠟠 𠟡 𠟢 𠟣 𠟤 𠟥 𠟦 𠟧 𠟨 𠟩 𠟪 𠟫 𠟬 𠟭 𠟮 𠟯 𠟰 𠟱 𠟲 𠟳 𠟴 𠟵 𠟶 𠟷 𠟸 𠟹 𠟺 𠟻 𠟼 𠟽 𠟾 𠟿 𠠀 𠠁 𠠂 𠠃 𠠄 𠠅 𠠆 𠠇 𠠈 𠠉 𠠊 𠠋 𠠌 𠠍 𠠎 𠠏 𠠐 𠠑 𠠒 𠠓 𠠔 𠠕 𠠖 𠠗 𠠘 𠠙 𠠚 𠠛 𠠜 𠠝 𠠞 𠠟 𠠠 𠠡 𠠢 𠠣 𠠤 𠠥 𠠦 𠠧 𠠨 𠠩 𠠪 𠠫 𠠬 𠠭 𠠮 𠠯 𠠰 𠠱 𠠲 𠠳 𠠴 𠠵 𠠶 𠠷 𠠸 𠠹 𠠺 𠠻 𠠼 𠠽 𠠾 𠠿 𠡀 𠡁 𠡂 𠡃 𠡄 𠡅 𠡆 𠡇 𠡈 𠡉 𠡊 𠡋 𠡌 𠡍 𠡎 𠡏 𠡐 𠡑 𠡒 𠡓 𠡔 𠡕 𠡖 𠡗 𠡘 𠡙 𠡚 𠡛 𠡜 𠡝 𠡞 𠡟 𠡠 𠡡 𠡢 𠡣 𠡤 𠡥 𠡦 𠡧 𠡨 𠡩 𠡪 𠡫 𠡬 𠡭 𠡮 𠡯 𠡰 𠡱 𠡲 𠡳 𠡴 𠡵 𠡶 𠡷 𠡸 𠡹 𠡺 𠡻 𠡼 𠡽 𠡾 𠡿 𠢀 𠢁 𠢂 𠢃 𠢄 𠢅 𠢆 𠢇 𠢈 𠢉 𠢊 𠢋 𠢌 𠢍 𠢎 𠢏 𠢐 𠢑 𠢒 𠢓 𠢔 𠢕 𠢖 𠢗 𠢘 𠢙 𠢚 𠢛 𠢜 𠢝 𠢞 𠢟 𠢠 𠢡 𠢢 𠢣 𠢤 𠢥 𠢦 𠢧 𠢨 𠢩 𠢪 𠢫 𠢬 𠢭 𠢮 𠢯 𠢰 𠢱 𠢲 𠢳 𠢴 𠢵 𠢶 𠢷 𠢸 𠢹 𠢺 𠢻 𠢼 𠢽 𠢾 𠢿 𠣀 𠣁 𠣂 𠣃 𠣄 𠣅 𠣆 𠣇 𠣈 𠣉 𠣊 𠣋 𠣌 𠣍 𠣎 𠣏 𠣐 𠣑 𠣒 𠣓 𠣔 𠣕 𠣖 𠣗 𠣘 𠣙 𠣚 𠣛 𠣜 𠣝 𠣞 𠣟 𠣠 𠣡 𠣢 𠣣 𠣤 𠣥 𠣦 𠣧 𠣨 𠣩 𠣪 𠣫 𠣬 𠣭 𠣮 𠣯 𠣰 𠣱 𠣲 𠣳 𠣴 𠣵 𠣶 𠣷 𠣸 𠣹 𠣺 𠣻 𠣼 𠣽 𠣾 𠣿 𠤀 𠤁 𠤂 𠤃 𠤄 𠤅 𠤆 𠤇 𠤈 𠤉 𠤊 𠤋 𠤌 𠤍 𠤎 𠤏 𠤐 𠤑 𠤒 𠤓 𠤔 𠤕 𠤖 𠤗 𠤘 𠤙 𠤚 𠤛 𠤜 𠤝 𠤞 𠤟 𠤠 𠤡 𠤢 𠤣 𠤤 𠤥 𠤦 𠤧 𠤨 𠤩 𠤪 𠤫 𠤬 𠤭 𠤮 𠤯 𠤰 𠤱 𠤲 𠤳 𠤴 𠤵 𠤶 𠤷 𠤸 𠤹 𠤺 𠤻 𠤼 𠤽 𠤾 𠤿 𠥀 𠥁 𠥂 𠥃 𠥄 𠥅 𠥆 𠥇 𠥈 𠥉 𠥊 𠥋 𠥌 𠥍 𠥎 𠥏 𠥐 𠥑 𠥒 𠥓 𠥔 𠥕 𠥖 𠥗 𠥘 𠥙 𠥚 𠥛 𠥜 𠥝 𠥞 𠥟 𠥠 𠥡 𠥢 𠥣 𠥤 𠥥 𠥦 𠥧 𠥨 𠥩 𠥪 𠥫 𠥬 𠥭 𠥮 𠥯 𠥰 𠥱 𠥲 𠥳 𠥴 𠥵 𠥶 𠥷 𠥸 𠥹 𠥺 𠥻 𠥼 𠥽 𠥾 𠥿 𠦀 𠦁 𠦂 𠦃 𠦄 𠦅 𠦆 𠦇 𠦈 𠦉 𠦊 𠦋 𠦌 𠦍 𠦎 𠦏 𠦐 𠦑 𠦒 𠦓 𠦔 𠦕 𠦖 𠦗 𠦘 𠦙 𠦚 𠦛 𠦜 𠦝 𠦞 𠦟 𠦠 𠦡 𠦢 𠦣 𠦤 𠦥 𠦦 𠦧 𠦨 𠦩 𠦪 𠦫 𠦬 𠦭 𠦮 𠦯 𠦰 𠦱 𠦲 𠦳 𠦴 𠦵 𠦶 𠦷 𠦸 𠦹 𠦺 𠦻 𠦼 𠦽 𠦾



그림 3-1. “갑진, 복, 질치”(속 5, 17, 3)



그림 3-2. 정 질혀(복26)



그림 3-3. “, 질언”

(1) “갑진, 질혀”(속 5, 17, 3)

은 무정시대의 정민의 이름이고, 의는 혀병알이에 방해자가 있다는 것이고 불길한 징조이다.(그림 3-1)

(2) “정, 질혀, 비경에 간청하다.(복260)”

무정이 혀병알이를 하여 그 선모(소을지배)에게 간청하니 비경이 치료하여 주었다.(그림 3-2)

(3) “정, 왕질혀,”

은왕이 혀병알이 하는 것은 일정한 연고가 있다.

(4) “신해, 복, 왕질 유혀, 가지”(일 89을사)

양수달에 의하면 <적미거갑문설 복사소기>에서 말하기를 “지이 이동 고유환병 친지지속” 점쟁이에게 물어보기를 혀병이 있는데 병을 낫게 자리를 옮기는 것이 어떤가? 이 4개예의 혀병에서 보니 오랜병은 여러번 점쳐봐도 어느 종류의 혀병인지 판단하기 아주 어려웠다.

III. 질언

질언(음)은 소리내는 것이 곤란함을 말한다. 우성우 <갑골문자 석림>에서 말하기를 “말()

과 소리()는 옛날에는 같은 이름이다. 주대 고문자에는 말과 소리는 늘 보게된다.

(1) “정기, 복 질언, 어(후하 10.3)

(2) “질언, 우각(록904) (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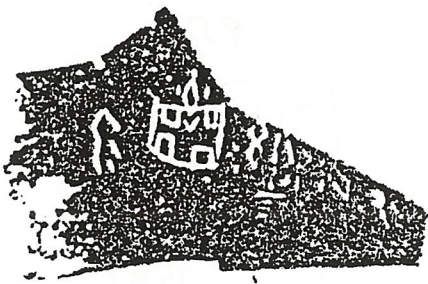
(3) “질언, (전5, 20, 3)(그림 3-4) 이것은 3예 질언의 복사라.

예1. 선목소리 얇이로 인해 발음이 곤란하여 선조에 제사를 지내서 낮게 기도드렸다.

질언이 구강의학 방면에서 예를 들면 급성 치관주위염, 편도선주위농양, 인두염감염등도 발음 곤란을 야기한다. 목이 쉬거나 기타 소리 장애자도 질언 범위에 속한다.



그림 3-4. , 질언 

그림 3-5. “ 어우우 ”

IV. 우치

- (1) “……녀……어……우(엽 3F35,2)”
 (2) “ 어우우,  (전 6, 54, 4) (그림 3-5)
 (표1) 1-2에는 무정의 부인이 충치앓이를 해서 부왕호의 갑영전에 제사를 지내서 낫게 기도드렸다.
 (3) “……어우(전 6, 54, 4)”
 (4) “……어우(경 1684).”
 (5) “정, 우갑어 소조우(을 366)”
 (6) “우갑어 소조우(합 232)”

이 6개 우치증례는 우리나라가 가장 고대의 우치문헌이다.

문일다가 말하기를 “… 등당히, 우자다, <설문>의 해석은 우는 치아가 쯤에게 먹었다.  인데, 증문에서 우는 치아가 부식된 것을 말하며, 벌레가 쯤먹어 치아가 결여되고 완전하지 못하다. <편해>에서 우자에 대한 해석은 치아가 병들어 결여되어 완전하지 못하다. 우는 뜻 글자다. 한쪽은 벌레, 한쪽은 치아, 그 뜻을 합한 것이 우자를 비교적 접근하는 증거이다. 우, 다른 한 가지 쓰는 방법은 충  다 虫변은 곳 禹의 최초의 문자다.[4]

양수달이 말하기를  는 치아속에 벌레가 있는 모양이기에 후에  자라고 하였고, 또  로 써서 지금의 蛀이다.

이전에 모두가 인정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치아 우식에 대한 기재는 한나라 초기로부터 시작했고 사기 창공예전을 많이 인용하였다. “제증의사가 충치병을 하는데, 신하의 뜻은 좌측 태양 명맥에 침을 넣고 쓴 인삼황으로 하루에 3리터씩 양치질하여 5-6일이면 낫고, 밥을 먹고 양치질을 안해도 된다.” 이런 사실로서 치아우식병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갑골 각사가 출토된 것으로 충치의 기재가 한대로부터 은대로 당겨졌다.

애굽에서 충치를 기원전 400-300년에 발견했다. 인도에서 충치에 대한 최초 기재는 기원전 600년인데 이것은 기원전 6세기의 인도명의 Susruta(수사라타)의 저서 Susruta Samhita(묘문집)에서 기재되었다. 동시에 명의 HIPOCRATES(히포크라테스)의 저작중에서 처음 나왔다.

은왕 무정시대의 갑골 복사는 기원전 13세기의 문자기록에 이미 충치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볼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충치에 대한 기재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빠르다. 그 기록은 우리나라 구강의학사에서 진귀한 역사 자료다.I

V. 질치

질치에 대한 증례는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옛 은상시대에 이미 이병은 많이 발생하는 병 혹은 흔히보는 병이라는 것을 충족하게 증명한다.

- (1) “임무, 복, 정, 질치, 가(속5, 54)”
 (2) “갑진, 복, 정, 질치, 가(유)  (수 1, 5, 19)(그림 3-6)”

무정시대 이름이 정이라는 사람이 잇병환자에게 양화를 입히는자가 없는가 하고 점을 쳐서 물었다.

- (3) “정, 질치, 불가(철 190, 2)”(그림 3-7)
 부친을은 무정선부소울의 이름이라, 이같은 그는 잇병알이를 하는데 그의 선부소울이 압화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했다.
 (4) “정, 질지, 정에 알렸다(고 1957)”

정은 곧 조정이다. 이 말은 이병알이 때문에 조정에 지지내며 알렸다.(그림 3-8)



그림 3-6. 갑진, 복, 𠂔정, 질치, 가뵤



그림 3-8. 정질치



그림 3-7. 정, 질치, 불가 𠂔 2 𠂔



그림 3-9. 질치 𠂔

(5) 질치 𠂔 (재(일 716)

이것은 정복이 치아 질병 있음으로 재난이 있는가?(그림 3-9)

(6) “갑자, 복, 𠂔정, 왕질치, 가(유) 노(유) 이(석) 𠂔 (전 4, 4, 2)”

(7) “갑자, 복, 𠂔정, 왕질치, 망이(석) 𠂔 (전 9, 32, 1)(그림 3-10)”

호후선이 <갑골학상사론총초집>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한 개 귀갑 좌우변이 정에 대한 두마디 복사이다. 한 개의 정은 정면으로서 은왕 무정이 이 앞이를 하는데 상제께서 낮게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말이고, 다른 한정은 반면으로서 무정

이 이 앞이를 하는데 불행하게 상제가 치료해 줄 수 없다는 말이다.[5]

그러나 양수달은 <적미거갑문설복사소기>에서 인정하기를 “유이”, “망이”의 이는 <소문>에 소위치경이고, 즉 치아가 빠지면 갱생하는데 이것을 이같이라고 한다. <석명>에서 자우가 해석하기를 “90 혹은 연세가 높은 사람의 치아가 빠진 후 새이가 나오는 것은 어린아이의 치아와 같다.” 그러나 필자의 50년 임상 경험으로 보면 이것은 근근히 일종전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보기 아주 힘든 일이다. 소위 제3생치아가 있더라도 가능하게 매복된 지치의 만기 맹출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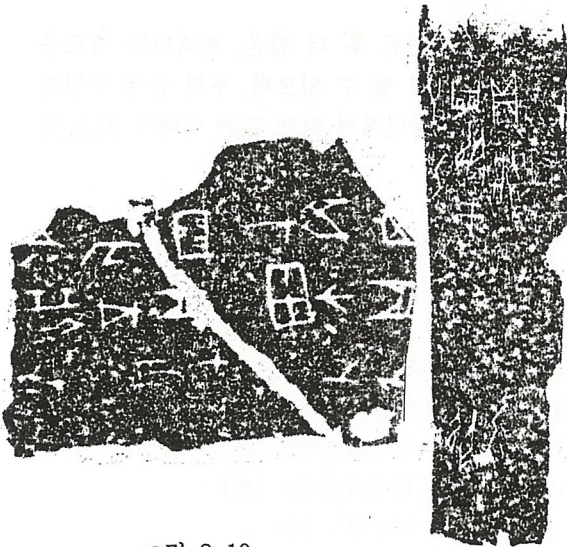


그림 3-10.

“갑자, 복, 왕질치, 망이”

그림 3-11.

“정, 질치”

(8) “정추, 복, 𐄂정, 𐄂질치, 부을가(유)유문제
도(외65).”

(9) “정, 질치, 𐄂우부을(전 12, 5, 1)

은왕이 여기저기를, 이왕이를 하는 것은 대개
는 선부소을이 양화를 입히기 때문이라고 여기
고 제를 지내 낮게 해 주기 바래야 된다.(그림
3-11)

(10) “𐄂卯복, 질치(둔을 1907)”

(11) “𐄂𐄂복, 질치(둔을 2405).“

이것은 2개의 정복잇병의 복사다.

(12) “질치 𐄂(현)(둔을 4608).”

(13) “ 𐄂, 질치, 𐄂(둔을 3312).”

상술한 𐄂자의 인식에 대해 목전에 두가지 다
른 관점이 있다.

엄일평은 <은계정의>에서 말하기를 “𐄂는 현
이고, 눈이 움직이지만 밝지 않다.” 또 말하기를
“질치𐄂(현), 이같은 이가 혼들린다.”

우성오는 <갑골문자석림>에서 말하기를 “갑
골문룡자는 일반적으로 총애라고 한다” 또 말하
기를 “이알이로인해 총우(부경)을 받을 수 있
다.”

지금으로서는 이 글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결
론이 없다.

(14) “질, 𐄂질치, 가 (둔을2003)”

(15) “정, 𐄂질치, 불가유을(둔을 4626)”

(16) “정, 질치, 정, 질치, 불가무, 정 질치, 가
정, 질치, 불ꄂ.(둔을 4511)”

이것은 한편의 갑골에 새긴 4마디 복사이다.
이 갑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은왕이 앓았던 잇
병의 시달림은 아주 심했다는 것을 나타냄.

(17) “소호부질치(둔을 3164)”

무왕의 부인이 앓는 이의 질병을 잘 보살펴 보
주었다.

(18) “정, 우질치, 불가부을 (을 4626)

(19) “...질치, 불가부을 (을4511)”

(20) “정, 불가...을...치(합 476)”

(21) “갑신, 복, 정가...을...치(합 476)”

상술한 증례의 관찰에 근거하면 알 수 있는 것
은 그 환자는 은 11세왕 무정이고, 그가 소을을
부친으로 하는 것이 곧바로 증명이다. 질치의 원
인은 선부 소을의 영혼이 양화를 입히기 때문이
라고 인정한다.

(22) “질치, 가고 (을 7310).”

(23) “정, 지...치...고(경 1962).”

(24) “.....치.....고 9인(454).”

이 3범례가 인정하건데 우식치의 원인은 독별
례로 야기된 것이다.

(25) “.....치어간...(경 297)”

(26) “우어우.....치(전 1374).”

이것은 무정이 치아질환 때문에 제사를 지내
는 것으로 부왕소을에게 병이 낫도록 빌었다.

(27) “정, 질치(을 4511)”

(28) “정, 질치, 불가남...(을 4511).”

(29) “우.....경.....질치(홍 IIIB).”

(30) “우.....경.....질치(을 7355).”

(31) “...절경, 복, 질치(을 1907)”

(32) “갑신, 복, 정, 가을치(병114).”

(33) “복, 정, 가을치(병114).”

이것은 모두 질치와 유관된 복사이고, 그 상세
한 상황은 아직 진일보로의 고찰이 요구된다.[7]

VI. 토론

위의 서술을 종합하여 보면 필자가 기술한 이 48개의 증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 어떤 글자는 잔문이고, 어떤 것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글이며, 어떤 글자의 뜻은 아직 최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갑골문의 연구작업은 이미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출토된 갑골이 근 10만여편이 되며, 어떤 것은 국내외 각지에 널려 있다. 왕력(1963)이 <중국어음학사>에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갑골문단 글자가 3000개 정도 있으나 알게 된 글자는 절반도 안된다.” 갑골문에 유관된 구강 질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갑골문자는 필경 은대 왕실(노예주)이 전용하는 복사에만 국한되었기에 어떤 평민과 백성(자유평민과 노예)의 구강 상황에 대해 문자 기재가 없는 것으로 오직 구강 병리학자가 출토된 인골로 연구를 해야만 한다.

VII. 결어

필자가 소개한 이 50례도 되지 않는 은허 갑골문 중에서 볼 수 있는 구강 병례는 흔히 은나라 사람 구강 질환의 일부분이고, 장래에 대량의 갑

골무자가 발견된 후 더 많은, 전례없는 새로운 재료를 생각해 낼 수 있으며, 우리 중국 구강의 학사의 연구방면에서 더욱 깊은 이해가 있을 것이다.

본절에서 인용된 갑골서책 목.

동작빈 : <은허문자를 편> (을)

동작빈 : <은허문자를 편> (갑)

동작빈 : <은허문자를 편> (외)

동작빈 : <은허갑골문자병편> (병)

라진옥 : <은허세계전편> (전)

라진옥 : <은허세계전편> (후)

곽말약 : <은허수편> (수)

곽말약 : <복사통편찬> (통)

곽약우 : <은허문자체합> (합)

승조 : <복씨소장갑골문자> (복)

상승조 : <은허일존> (일)

손해파 : <갑골문록> (록)

황 준 : <업중편우 3집> (업3)

호후선 : <전후경진신학갑골집> (경)

류 악 : <철운장귀> (철)

방법회 : <고방이씨장갑골복사> (고)

패총무수 : <경도대학이문과 연구소장갑골문자> (인)

<史料>

齒牙의 衛生*

金 敬 執

<新文界> 1913; 1(2):73-75

◀人身百體에 最貴最重者는 齒牙▶이라.
人相篇에 치아가 三十八개 以上 四十개에 達하면
壽가 百歲에 至하고 二十八개 이하 二十四개에
至하면 壽가 弱冠에 不過하다 亨앗스나 人의 壽
夭도 此에 在亨앗고 其色이 燦然有光하야 編貝와
如하면 淸貴文章하고 其形이 黯然無色하야 編蟹
와 如하면 貧賤昧識하다하니 人의 貴賤賢不肖도
亦此에 在亨앗스니 一身上 關係가 如此히 至貴至
重한 大關係가 有하니.

◀齒가 無하면 食物을 咀嚼키 不能▶하는지라.
人은 食物을 須하야 生命을 보전하고 食物은 치
아를 賴하야 咀嚼하느니 齒牙가 不堅不固하면 食
物을 咀嚼키 不能하야 生命의 關係가 果然 何如
하며 且 齒牙가 無한 者 生命을 爲하야 食物을
不嚼下吸하는 경우에는 縱然 八珍味라도 其 味를
不知하거니와 魚肉菜果등의 強硬物이 消化키 不
能하야 胃病을 成할지며 衛生上 不良好는? 尙矣
勿論하고 反히 切迫한 위험을 致키 易한 則 生命
상 關係가 果如何하뇨.

◀然則 齒牙는 不得不 貴重히 保護▶할 者이라.
고로 仙家의 養生論에는 淸晨에 叩齒 三十六通을
日課하야 玉池靈液을 丹田으로 輪廻하야 長生不
死의 丹을 成한다는 眞訣도 有하거니와, 醫方에도
各種 固齒方이 有하야 齒水를 含하랴 松脂를 嚼
하랴 靑鹽으로 漱하랴 하는 俗世百忙에 此를 試
키 不能하야 無限한 故障을 生함에 至하느니 卽

◀風痛 蛀痛 生孔 及 早脫 등의 厄會▶가 종종 多
數히 妨害를 胎함을 推究할진대, 其實은 齒牙가
방해를 胎함이 不是라. 卽人이 齒牙를 自妨自害함
이니 齒牙를 自妨自害함이 豊히 自家의 生命을
自妨自害함이 安이리오. 然하느니 齒牙에 對한 保護
上 觀念이 平日에 等閑하다가 及其 風蛀孔脫 등
고장이 發生한 然後에 응급수술을 求하야 暫時
止痛키를 求할 짜름인즉 能히 永久히 堅固키를
期待할 道理가 有하리오. 不得不 此를 預防하고
此를 보호하야 現世 流行하는 齒磨藥으로 此를
매일 摩之漱之하야 何等의 故障이 生함을 防禦함
이 可하고 不幸히 高장이 生하는 境遇에한 早速히

* 이 글은 대한제국 시기 入齒師 金敬執이 1913년에 <新文界>에 기고한 글이다. 그는 1908년에 개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총독부의 '입치영업취체규칙'에 의거 1917년 4월 1일 면허번호 제13호로 지역은 京城, 기간 2년으로 등록하였고 그 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여 마지막으로 1942년 3월 11일에 기한 3년의 계속 면허를 받았다. <新文界>는 타케우찌, 최영년, 최찬식, 백대진 등의 주도로 일제의 한국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와 여론 형성을 도모한 월간지로, 위생에 관련된 글이 적지 않게 게재되어 있는데 이 글은 3회에 걸친 <衛生學講話> 연재의 첫 회에 해당된다.

◀齒科醫院에 治療 及 手術을 猛施▶하야 安全 保護키를 希望홀지니 其 治療 及 手術의 方法은 과연 何如호뇨. 疼痛이 發生호거든 風虫 등 各症을 隨호야 相當호 약을 施호지오, 孔隙이 露出호거든 “소무” 及 “세멘소” 等으로 填充호고, 或 金과 銀으로 甲齒을 粧飾호야 食物의 不便을 無得케호며 無病한 傍齒에 傳染을 豫防호지오. 不幸히 脫齒되는 境遇에는 一齒가 脫落호면 十齒가 俱動호느니 如此호時에는 迅速히

◀金이느 玉이느 銀으로 義齒을 入▶하야 本位 脫落도 掩迹호 썬 不是라. 傍齒의 動搖를 防禦호지오. 若其 沒數 脫落호는 大不幸에 至호야는 上下齒牙 全部를 金銀玉으로 粧飾호야 食物을 咀嚼케 함이 上項所說과 如호 胃病을 防禦호지오. 且 何等 故障이 無호 齒라도 金으로 甲齒을 入호는 事도 有호니 此는 世人의 “하이칼느” 的 華飾이라는 批評이 有호느 其實은 決코 不然호 理由는 蛀病 及 穢臭를 防禦호이니 大抵 至貴至重호 齒牙를 至貴至重히 待遇호미 若是치 안이호면 萬萬 不可호줄로 思量호노라

齒牙의 衛生

金玉堂主人

金敬執

華飾이라는 批評이 有호느 其實은 決코 不然호 理由는 蛀病 及 穢臭를 防禦호이니 大抵 至貴至重호 齒牙를 至貴至重히 待遇호미 若是치 안이호면 萬萬 不可호줄로 思量호노라

[한자 풀이]

編貝	엮을 편, 조개 패
編蟹	엮을 편, 게 해
清晨	맑을 청, 새벽 신
叩齒	두드릴 고, 이 치
齒水	소금 로, 물 수
蛛痛	거미 주, 아플 통
磨漱	갈 마, 양치질할 수
甲齒	첫째 천간 갑, 이 치
傍齒	두려워할 방, 이 치
蛀病	나무좀 주, 병 병
穢臭	더러울 예, 냄새 취

연세대학교 치의학박물관의 개관과 소개*

김희진** · 김성오***

‘연세치의학박물관’을 개관하며

연세대학교의 치의학박물관은 1915년 11월 1일 셰프리 (W. J. Sheifley)가 세브란스 연합의학교에 한국 최초의 치과학교실을 열고 병원 내에 치과를 개설한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현재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90여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2006년 11월 9일에 개관하였다. 이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치과의료 및 교육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역사적 지표이기도 하다.

‘연세치의학박물관’의 위치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내의 1층에 있으며, 128 m² 규모의 박물관자료 전시실과 기타 도입 및 영상실, 그리고 복도 공간에 연세치의학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1).

‘연세치의학박물관’은 서구의 근대 치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세계적 수준의 현대 치의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동서양간의 치의학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의 기획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의 치의학사’와 ‘90년 역사의 연세치의학의 발자취’, ‘치의학 유물’, ‘앞으로의 미래비전’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의 위상을 확인하

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국과 세계의 치의학사를 연표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의학적으로 가치있는 유물들은 한국사의 흐름과 종류에 따라 구체화하여 전시하였다.

이에 지면을 빌려 연세치의학박물관의 박물관자료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연세치의학박물관’의 치의학 박물관자료 소개

1) 근대 서구식 치의학의 한국도입 - 개항기 (1876-1910)

한국의 전통적인 ‘구강병’치료는 한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따른 것이었다. 서구의 근대 치의학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문호가 개방된 이후 미국과 일본을 통해 도입되었다. 1885년 미국의 의료 선교사 알렌(H. N. Allen)이 제중원에서 ‘발치’를 한 것이 한국의 근대 치과치료에 있어서 효시라 할 수 있다 (사진 2). 특히, ‘제중원 1차 보고서’ (1886)에는 모두 2,320건의 진료 기록 중 ‘치아우식증’ 60예, ‘구내염’ 55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1년 제중원 의학생들도 274개의 치아를 발치하여 한국치의학 교육의 시발점이 되었다 (사진 2, 3).

*본 과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정책과제연구비 (6-206-0004)에 의해 지원되었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해부 및 발생생물학 연구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사진. 1. 연세치의학박물관의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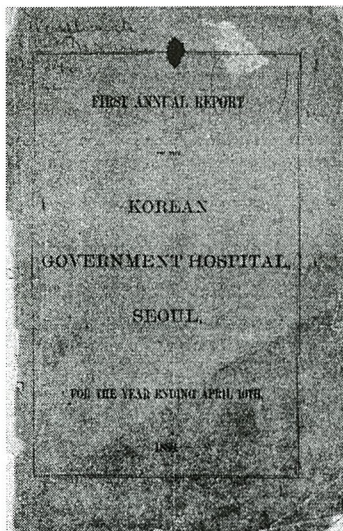


사진 2.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 (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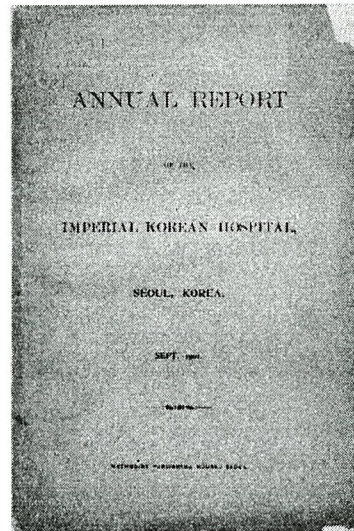


사진 3. 제중원 연례보고서 (1901)

한편, 본격적인 치과진료가 시작된 것은 1893년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오지(野田應治)가 인천에 개업하고, 1907년 한국인 '입치사'가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구강병'만을 전문으로 치료

하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본 박물관에서는 중요한 사진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다. (사진 4)는 조선시대 후기에 어느 민가에서 어머



사진 4. 조선시대 후기 집에서 어머니가 딸의 치아를 뽑는 장면 (1903)

니가 딸의 치아를 뽑는 장면을 촬영한 것(1903)으로 고종의 어의를 지낸 분쉬 (Richard Wunsch) 박사의 손녀(Ute Claussen)가 기증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내 최초의 치과관련 사진이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치의학사적 자료로 전시되어 있다.

2) 일제강점기 세브란스연합의학교내 치과학교실의 역할 (1910-1945)

1914년 함석태가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로 등록하였으나, 일제는 조선 내의 치의학교 설립이나 치과의사시험에는 무관심하였다. 한편 1915년 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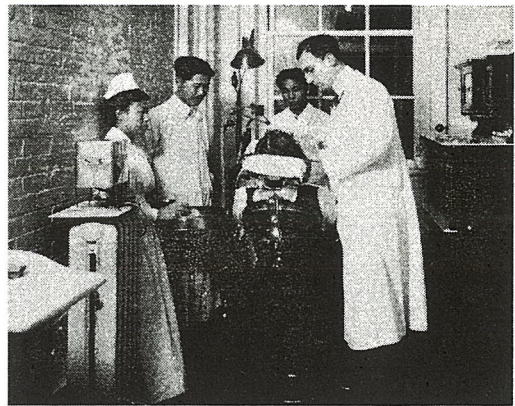


사진 5. 세브란스병원 초대 치과과장 웨프리의 진료사진 (Dr. W.J. Scheffley)

프리(W. J. Scheffley)는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 한국 최초의 '치과학교실'을 열었고 병원 안에 치과를 개설하였다 (사진 5, 6, 7). 이는 장차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웨프리는 세브란스병원 초대 치과과장을 역임하였다.

2대 치과과장인 부츠 (Dr. J. L. Boots)는 1930년에 '치과센터'의 건축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모금운동을 하였으며, 이 기금으로 '치과센터'를 착공하였다. 이듬해 동양 최고 규모의 최신식 '치과센터'가 세브란스병원 건물 옆에 세워졌다 (1931. 10. 28) (사진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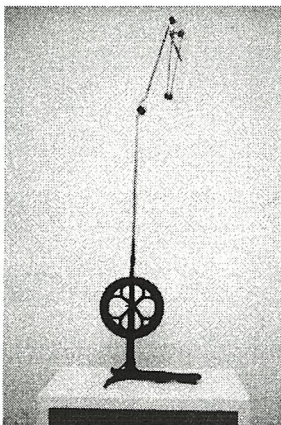


사진 6. 치과용 족탑엔진 (19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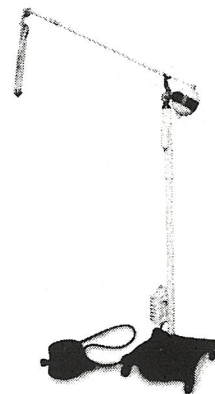


사진 7. 치과용 전기엔진 (19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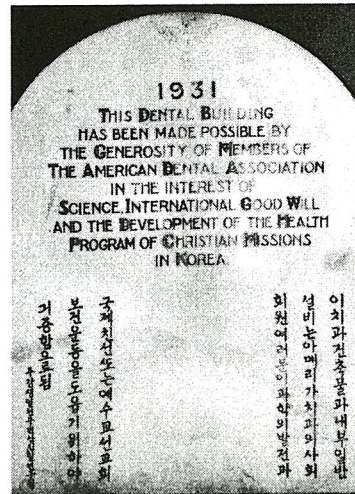


사진 8. 세브란스병원 부속 '치과센터'의 전경과 이를 기념으로 제작된 건물 현판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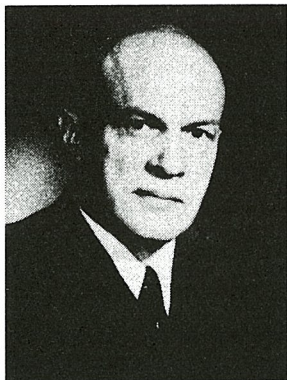


사진 9. 제2대 치과 과장 부츠 (1921-1939)



사진 10. 리터사의 치과 진료의자 (1920)

3대 치과과장인 맥안리스(Dr. J. A. McAnlis, 1921-1941)는 이유경, 정보라의 미국유학 등 한국인 치과의사의 육성 및 진료와 연구에 힘썼다 (사진 11).

3) 한국 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시련 (1945-1953)

해방 후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자주적인 치과의료체계를 세우기 위해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 의사회'를 창립하고 1946년 5월 1일 '조선치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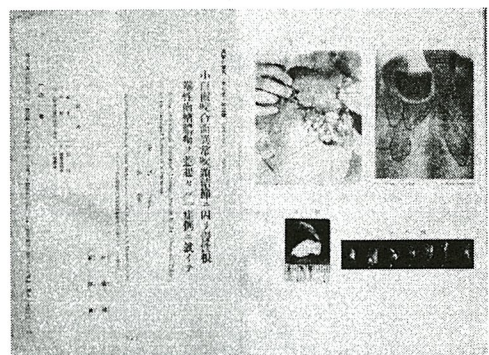


사진 11. 만선지치계 제9권 제1호-12호 합본호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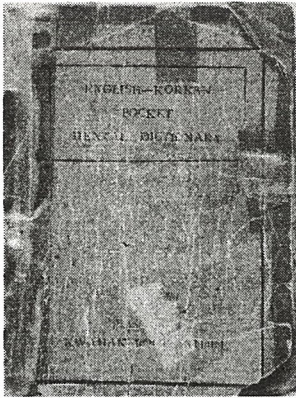


사진 12. 한국 최초의 영한 치과의학 소사전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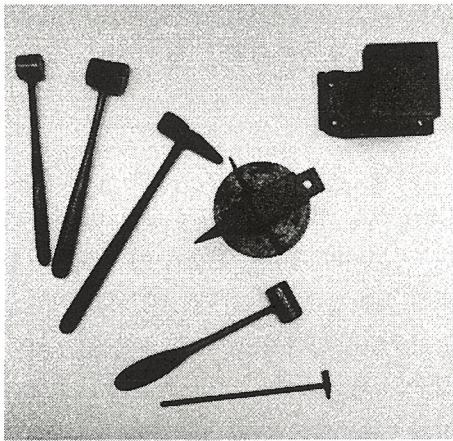


사진 13. 치과의 기공용 망치와 도구

발간하였다. 1945년 10월 27일 미군정은 ‘치무과’를 신설하였고, 치과기자재 및 금의 배급과, 일본인 치과적산처리, ‘치과의사면허 및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 ‘경성치대’의 ‘국립서울대’ 합병을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9년 ‘조선치과 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하였고 치의학과 치과 의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1951년 세브란스병원도 ‘1·4 후퇴’시에 경상남도의 거제도로 내려가 구호민을 대상으로한 병원을 열었고, 치과는 이동섭이 맡아 진료하였다. 이 시절 치과기자재의 품귀로 인해 보철 및 보존 기공장비는 상당히 낙후된 방식이었다 (사진 13, 14).

한국 현대 치과의료체계의 발전 (1954- 현재)

한국전쟁 후 ‘군진치의학’의 대두와 함께 한국의 치과 의사들의 해외유학을 통하여 치과의 전문 과목별 학회가 발족하였다. 사진 15는 이 시기에 발족한 보철학회의 초기 회원증서이다. 사진 16은 이 시기에 사용된 치과기구를 보관하는 가구이다. 한편, 50년대 후반에 ‘원심주조기’가 국내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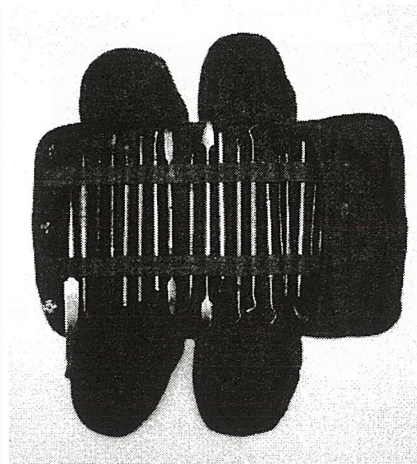


사진 14. 군용 치과진료 의자와 진료기구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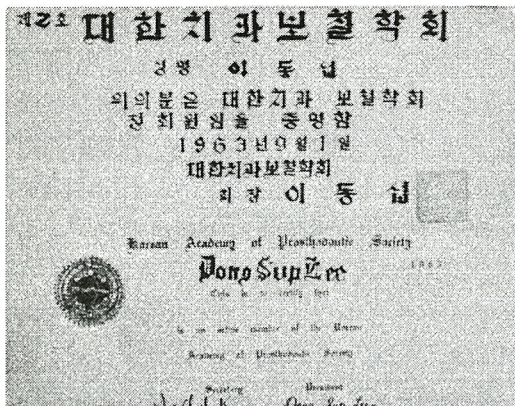


사진 15. 이동섭 선생의 대한치과보철학회 정회원 증서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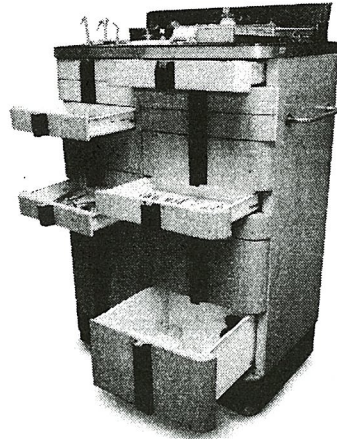


사진 16. 미국산 치과기구함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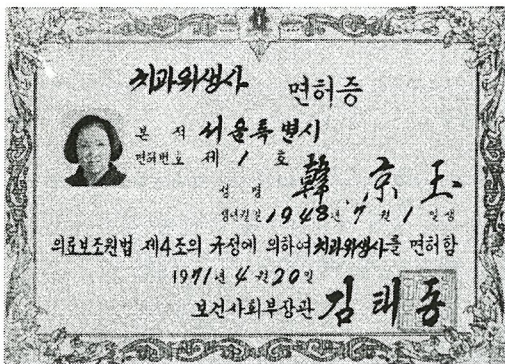


사진 17. 치과위생사 면허증 제1호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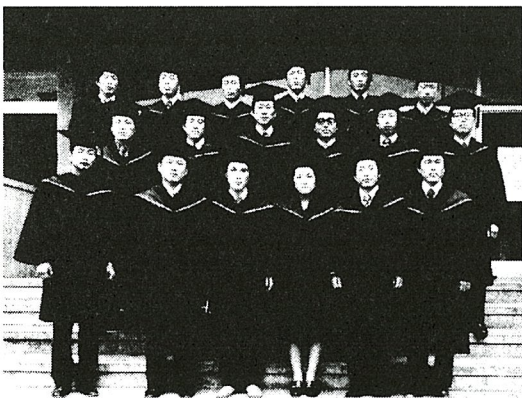


사진 18.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1회 졸업생 사진 (1974)

되고, 60년대 중반에 '고속에어터빈'이 소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접착성 재료 및 광중합재료와 초음파장비, 레이저와 같은 첨단 치료기술이 개발되어 치의학에 응용됨으로써, 치과 진료장비와 치료기술에 있어서 매우 현저하고도 급속한 발전이 있어왔다.

세브란스병원의 치과는 구강외과학의 맥인스(J. W. McInnes, 1956)와, 교정학의 김귀선(1958), 치주학의 김락희(1960) 등이 현대적인 치과치료 기술을 선도하였다. 또한 1965년 세브란스병원의 '의학기술과'에 치과위생사과정을 신설하여, 최초의 치과위생사(면허1호 한경옥 선생)를 배출하였다(사진 17). 그 후 한국사회의 발전과 함께 새로이 개발된 우수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치과의사의 양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연세대학교는 문교부에 치과대학 설립을 신청하였으며 1967년 12월 4일 인가를 받고 1974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사진 18). 지금까지의 연세 치의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의 연표로 정리하였다.

연세 치의학의 발자취 연표

- 1885년 제증원 선교의사 알렌(H.N. Allen)과 헤론(J.W. Heron)이 치과진료 197건 시행
- 1901년 제증원 의학생들이 발치 274건 시행
- 1905년 미국인 선교치과의사 한 대위(D.E. Hahn) 내한
- 1915년 셰프리 (W.J. Scheifley)가 세브란스병원 내에 치과 및 의학교 치과학교실 개설
셰프리 초대 세브란스 치과과장 역임 (1915-1920)
- 1921년 부츠(J.L. Boots)와 맥안리스(J.A. McAnlis)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치과학교실'에 부임
부츠 제2대 세브란스 치과과장 취임 (1921-1939)
에비슨(O.R. Avison)의 치의학교 설립안이 일제에 의해 거부됨
- 1925년 부츠가 '치과센터' 건축을 위해 미국에서 모금
- 1930년 세브란스병원 내에 '치과센터' 신축공사 시작
- 1931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최신식 치과센터 완공 (1931. 10. 28)
- 1939년 맥안리스 제3대 세브란스 치과과장 취임 (1939-1940)
-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맥안리스가 강제 소환됨
이유경 제4대 세브란스 치과과장 한국인 최초 취임 (1940-1944)
- 1944년 박용덕 제5대 세브란스 치과과장 취임 (1944-1956)
- 1956년 이동섭 제6대 세브란스 치과과장 취임 (1956-1964)
-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통합으로 '연세대학교' 탄생
- 1958년 세브란스병원의 치과 김귀선이 '자라박시스템 (Jarabak System)'을 도입하여 교정치료 시작
- 1962년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역 앞에서 신촌으로 이전함으로써 현재의 '연세의료원'으로 발전
- 1964년 지현택 제7대 세브란스 치과과장 취임 (1964-1969)
- 196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 내에 '의학기술과'의 설립과 치과위생사과정의 수련

시작

- 1967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설립
- 1969년 박용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초대학장 취임
- 1971년 김귀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2대 학장 취임
- 1974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1회 졸업생 18명 배출.
치과대학 부속병원 인가
7개 교실 개설
- 1975년 김용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3대 학장 취임
'구강진단 및 방사선과학교실'이 '구강진단과학교실'과 '방사선과학교실'로 분리개설
- 1977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건물 2차 준공(4·5층).
일본 '동경치대'와 자매결연
- 1982년 윤중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4대 학장 취임
- 1984년 '임상전단계실습실(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설
- 1986년 이정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5대 학장 취임
우리나라 최초의 '원내생진료실' 신설
- 1988년 '연세대학교 구강과학연구소' 설립
유영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6대 학장 취임
- 1989년 '교합과학교실'의 신설 및 '원내생진료실' 개설 승인
- 1990년 '구강생물학교실' 신설
- 1992년 이의웅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7대 학장 취임
- 1993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 신설 및 '임상연수원' 설립
- 1994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신축기공식
- 1995년 치과대학병원 (지상7층, 지하2층) 봉헌식
- 1996년 치과대학 (지상4층, 지하2층) 봉헌식
'예방치과학교실' 신설
이호용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8대 학장 취임
- 199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30주년 기념식'
- 2000년 손홍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9대 학장 취임
- 2001년 제1회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개최
- 2003년 과학기술부 '기초과학 연구센터(MRC)' 선정
- 2004년 박영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제10대 학장 취임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PACS 가동 기념식'
치과대학 3개층 증축
- 2005년 연세 창립 120주년 및 연세 치의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영동세브란스 치과병원' 개원
- 2006년 학술진흥재단에서 '구강종양연구소'를 중점연

구소로 선정

2단계 BK21 사업지정

맺음말

쉐프리가 세브란스병원에 치과학교실을 개설한 시점인 1915년이 ‘연세치의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근대 한국 치의학의 태동시점 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따라서 치의학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연구를 시행하는 것 또한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개관에 앞서 어떻게 하면 방문하는 분들의 치

의학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고심하였다. 연세치의학 박물관은 가치 있는 유물선정과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작지만 새롭고도 알찬 전시문화를 선보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자료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주신 연세의료원 ‘동은의학박물관’의 박형우 교수님과 이병태 선생님, 지현택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치과대학의 박영철 학장님과 연세대학교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치의학박물관으로는 세 번째로 개관한 연세대학교의 치의학박물관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개관이 ‘완료’가 아닌 ‘시작’으로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박물관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고자 한다.

일본국 최초의 치과의사회 규칙*

내무성령 제7호

치과의사회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대정 9(1920)년 4월 1일

내무대신 도꼬쓰기 다케지로오 다이소오

치과의사회 규칙

제1조 본령에서 치과의사회라 함은 도부현(道府縣)치과의사회 또는 군시구(郡市區)치과의사회를 말한다.

제2조 본령에 따라 설립한 치과의사회가 아니면 도, 부, 현, 군 시, 또는 구라는 문자를 붙인 치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제3조 도부현치과의사회는 도부현을 구역으로 하고 군시구 치과의사회는 군시 또는 홋카이도 혹은 오키나와현의 구를 구역으로 삼는다. 토지 사정에 따라 군시구 치과의사회의 구역은 그 군시구의 구역에 따르지를 않을 수도 있다.

제4조 치과의사회를 설립시키려 할 때에는 그 회원으로 될 자 10명 이상이 설립의원이 되어 회칙안을 정해서 설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설립총회의 소집 및 의사(議事)의 정리는 설립의원이 행한다. 설립총회에서는 치과의사회의 회원이 될 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그 의결은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단, 설립총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자는 미

리 서면으로서 출석자에게 위임해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것을 설립총회에 출석한 자로 본다.

제5조 치과의사회의 설립총회에서 치과의사회 설립을 의결을 했을 때에는 설립의원은 회칙안을 첨부해서 속히 그 인가를 지방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치과의사회는 설립 인가가 있을 때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치과의사회가 성립된 때에는 지방장관은 그 치과의사회의 명칭, 구역, 사무소 소재지 및 성립 연월일을 고지해야 한다. 그 고지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7조 公私立의 진찰소 또는 치료소 및 그 출장소에서 진찰 혹은 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는 그 진찰소, 치료소 또는 출장소 소재지 구역 치과의사회의 회원으로 한다. 전항 이외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전문을 표방하며 혹은 금속충전, 인레이, 의치, 치관계속가공(架工), 치열교정 및 구개보철 기술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의사는 회칙에 따라 치과의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치과의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명칭 및 구역
2. 사무소 소재지
3. 임원의 종류, 수, 직무권한, 선임, 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을 두는 치과의사회는 대의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이 자료는 일본국(日本國)의 옛 문헌인 2006년도 월간지 치과신보(齒科新報) 제13권 제4호(p.29~p.35)를 신재의(辛在義)가 발견, 이한수(李漢水) 번역, 이병태(李丙台)가 정리한 것이다.

5. 총회 기타 회의에 관한 규정

6. 경비의 부담, 징수에 관한 규정

7. 재산 및 영조물(營造物)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8.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

9. 지부를 두는 치과의사회는 그 지부(支部)에 관한 규정

10. 해산에 관한 규정

제9조 치과의사회 회칙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지방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치과의사회 총회는 그 지역의사회 회원을 갖고 이를 조직한다. 회원 백명이 넘을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중에서 선거한 대의원을 갖고서 조직할 수 있다.

제11조 치과의사회는 그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일내에 지방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장관이 전항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연월일을 고시한다.

제12조 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아래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대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를 않았으면 회의를 열 수가 없다. 그 의결은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행한다.

1. 회칙 변경의 의결

2.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의결

3. 해산의 의결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회의 및 의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치과의사회에는 다음처럼 임원을 두어야 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 외에도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치과의사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거해야 한다. 단, 제1회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까지 회칙으로써 가임원(假任員)을 정

해 회무를 처리케 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은 회무를 총리(總理)하며 치과의사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치과의사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또는 회칙에 규정한 사항

2. 치과의사(醫事)위생에 관하여 관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항

3. 치과 의사(醫事)위생에 관하여 관청에 건의하는 사항

4. 치과의사(醫事)위생의 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 구료(敎療)에 관한 사항

제17조 행정관청은 치과의사(醫事)위생에 관한 보고 또는 조사를 치과의사회에 명할 수 있다.

제18조 치과의사회 경비 및 치과의사회 설립경비는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치과의사회는 회원 중 치과의사법 제2조 제3호 또는 의사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또는 업무에 관해 부정행위가 있어 면허취소 또는 치과의업(醫業)정지 및 의업(醫業)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지방장관에게 제언할 수 있다. 치과의사법 제10조 제3항 혹은 의사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도 같다.

제20조 치과의사회는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회원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각 항을 동시에 합쳐서 할 수도 있다.

1. 견책

2. 3백원 이하의 과태금

3. 3년 간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대의원의 피선거권의 정지 대의원 또는 임원

인 자가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의 정지를 당했을 적은 해임된 것으로 함.
제21조 치과의사회 회칙 및 의결은 그 회원을 기속(羈束)한다.

제22조 지방장관은 치과의사회 의결 또는 선거 시행하는 사항이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의결이나 선거를 취소시키든가 또는 그 시행사항을 폐지,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장관은 치과의사회의 임원 및 가임원의 행위가 법령과 회칙에 위반되며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가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3년간 치과의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 치과의사법 제10조 또는 의사 제10조 규정에 따라 치과의업(醫業) 또는 의업을 정지당한 자는 정지기간 중에 치과의사의 총회에 출석해서 표결권을 행할 수 없고 치과의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 치과의사회는 지방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 결산 및 회무 상황을 지방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홋카이도오(北海島), 오키나와겐 및 도서(島嶼)에 대해서 본령 규정을 적용키 어려운 사항은 내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지방장관이 따로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6조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메이지(明治) 39(1906)년 내무성령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28조 본령 시행에 현재 존재하는 치과의사회는 본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전항의 치과의사회 회칙 기타 사항이 본령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령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취해야 한다.

참 조

메이지 39(1906)년 11월 17일 내무성령 제34호는 치과의사회에 대해서 의사회 규칙을 적용하는 공고(公告)이다.

2006년 12월 일

번역정리 후기(後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자체로 법령으로 미처 정하지 못한 것이 많으므로 식민지통치를 받던 우리나라는 일본 본토에서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을 준용(準用)하였다.

일제강점기간중 1906년부터 1920년까지는 일본의 의사회규칙을 따랐으며 그 이후는 여기에 번역 정리한 치과의사회규칙에 따라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활동했다. 치과의사회규칙에 들어있는 내용 중 눈에 띄이는 사항을 추려보았다.

1. 치과의사는 1906년 의사법에 따라 지내오다가 1920년부터 처음으로 치과의사규칙이 발효하여 이를 따르게 되었다.
2. 치과의사회라는 명칭은 개인단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3. 일반의사도 치과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치과의사회 회원이 될 수 있었다.
4. 회원의 복지나 친목에 관한 조항은 없다.
5. 학술 및 임상 연마와 발전에 관한 조항이 없다.
6. 규칙(회칙)은 전적으로 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장관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었다.

學會 活動 (2006. 3~2006. 11)

1. 정기총회

2006년 3월 24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
동 가든뷰

안건 : 2005년도 회무보고, 결산 보고, 감사 보
고, 임원 선출:김평일 회장, 변영남, 허정규 감
사 선출.

2006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2. 학술집담회

1) 2006년 3월 24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연구동 가든뷰

연제 : “일제 강점기 치약과 칫솔 광고에 관
한 연구” (연자 : 신재의 명예회장)

2) 2006년 5월 16일(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연구동 가든뷰

연제 : “중국의 구강의학사” (연자 : 김재
형 이사)

3) 2006년 9월 19일(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연구동 가든뷰

연제 1. : “치과계 바둑의 역사” (연자: 임용
준 부회장),

연제 2. : “일본 치과의료보험의 역사” (연
자 : 권호근 교수)

4) 2006년 11월 21일(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연구동 가든뷰

연제 : “도시빈민과 영세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치과봉사진료, 김평일 회장)

3. 간담회 :

2006년 11월 1일(수), 大韓齒科醫史學會 五十
年 편찬위원회 개최, 학회 사무실(김평일치과
의원 내) 편찬위원장 김정균 명예회장, 부위원
장 신재의 명예회장 선출 및 편찬위원장 선임.

4. 이사회

1) 2006년 4월 28일(금), 프레스센터 마로니에
안건 : 정기총회 보고, 임원진 확정, 2006년도 사
업계획 확정. 학회 50주년사 준비위원회 구
성의 건, 공공도서관 학회지 합본 납권의 건.

2) 2006년 6월 20일(금), 프레스센터 마로니에
안건 : 회무보고, 회원 배가의 건, 학회 사무실
설치 및 자료보관의 건, 학회 50주년사 준비
위원회의 건, 치과전문의제에 대한의견 제출
의 건,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신청의 건.

3) 2006년 10월 17일(화), 프레스센터 마로니에
안건 : 회무보고, 기초치의학학술대회 참가의 건,
정기학술집담회 개최의 건, 학회지 발간의
건, 학회 50주년사 발간준비의 건, 공공도서
관 학회지 합본 납권의 건.

4) 2006년 12월 19일(화), 프레스센터 마로니에
안건 : 회무보고, 학회지 발간의 건, 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운용의 건, 학회지 합본 및 공공
도서관 납권의 건, 2007년도 학회 사업 계획
의 건.

5. 전직회장단 회의

2006년 9월 6일(금), 서울대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안건 : 대한치의학회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
준화사업의 치의학분야 용어 검토를 위한 전
직회장단 회의.

6. 제5회 기초치의학학술대회 참가

2006년 11월 11일(토), 코엑스. 연제 : “식민
지 조선의 齒科醫業者 : 1905~1945”

연자 : 조영수 총무이사.

會 員 動 靜

회원 여러분의 동정·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리고저 하오니 수시로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종신명예회장):월간 치과연구에 칼럼 “이달의 휴계실” 연재.

▷이병태(명예회장 겸 편집위원장):금강산온정인민병원:치과진료소 개소1주년 기념행사를 2006년 9월
15·16·17 (2박 3일간)일 금강산 외금강호텔에서 《북한/북측구강의학용어집》출판기념회를 겸하여
온정리 소재 치과진료소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박승오(명예회장):유라이트 전국연합회 군포상임대표직에서 전국연합중앙위원으로 추대 되었다.

▷신재의(명예회장):서울대학교병원사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위촉됨.

▷변영남(직전회장):지금까지 성가복지병원·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보훈병원 등에서 장기간 무료진료
에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홍예표(본학회 이사):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수석부회장에서 동창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따라서 3월1일부로 회장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취임소감을 통해 “지난해 세계 5위 그룹”에 드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성장한 동창회를 위해 임기 동안 동문회 역할에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모교와 병
원, 동문회,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간 조율자’ 역할에 충
실 할 것을 밝혔다.

▷신덕재(부회장):열린치과의사회 고문으로 봉사진료와 아울러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금강산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소 방북봉사진료에 참가. 《북한/북측 구강의학용어집》 공동저자.

▷조영수(총무이사):2006년 11월 11일(토)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회 기초치의학 학술대회에서 “식민지
조선의 치과의업자(齒科醫業者):1905~1945” 를 발표.

▷김희진(편집위원·연세대치대 부교수):연세치의학 박물관장으로 개관준비에 많은 힘을 기우려 개관
(2006년 11월 9일) 하였다.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終身名譽會長：李 德 一(이덕일치과의원)

〃：李 漢 水(齒科研究編輯指導委員)

名譽會長：金 正 均(김정균치과의원)

〃：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朴 勝 五(박승오치과의원)

〃：任 慶 彬(신라치과의원)

〃：辛 在 義(신재의치과의원)

直 前 會 長：邊 榮 男(성심치과의원)

會 長：金 平 一(김평일치과의원)

副 會 長：林 鎔 準(임용준치과의원)

〃 愼 德 緯(중앙치과의원)

〃：李 俊 奎(이준규치과의원)

總 務 理 事：趙 英 秀(백상치과의원)

學 術 理 事：李 宗 贊(아주대학병원)

教 育 理 事：金 在 衡(김재형치과의원)

公 報 理 事：洪 禮 杓(홍치과의원)

情 報 理 事：朴 永 濬(박영준치과의원)

企 劃 理 事：洪 景 澤(홍경택치과의원)

國 際 理 事：崔 暢 均(온누리치과의원)

監 查：邊 榮 男(성심치과의원)

〃：許 正 圭(중앙치과의원)

學術誌 編輯委員會

編輯委員長：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編輯委員：裴 珖 植(서울치대)

〃：鄭 鎮 亨(단국치대)

〃：金 熙 眞(연세치대)

〃：李 周 妍(세브란스치과의원)

學術誌 倫理委員會

倫理委員長：金 秀 男(원광치대)

倫理委員：權 皓 根(연세치대)

〃：姜 信 益(강릉치대)

理 事：金 鍾 萬(김종만치과의원)

〃：李 興 洙(원광치대)

〃：金 景 哲(경북치대)

투 고 규 정

1. 본지는 치과의학사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 종설, 논문 등을 게재한다.
2.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되 제목, 저자, 본문, 참고문헌, 초록의 순으로 한다. 한글논문에는 영문초록을, 영문논문에는 한글초록을 첨부하고 6개 이내의 색인단어(key words)를 하단에 별도 표기한다.
4. 원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고, 원고가 저장된 컴퓨터 디스켓을 같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원저 및 종설의 경우 표(Table)와 그림(Figure)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구분은 1, 1), (1)과 같이 한다.
6. 학술용어는 한글로 하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예) 100cm (x) → 100 cm (o)
7. 도안이나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8. 참고문헌은 각주 처리한다. 본문에는 괄호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고 다음 양식에 따른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 1) 잡지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연도:권(호):시작면-종료면
(한글) 최정봉, 치학 15년의 회고와 반성, 최신의학 1960:3(12)-31-34
(영문) Suddick RP, Harris NO. Historical Perspectives of Oral Biology: a series. Crit Rev Oral Biol 1990: 1(2)135-51
- 2) 단행본 : 저자명, 저서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발행연도 : 시작면-종료면
(한글)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 민음사, 1966:480-7
(영문) Hoffman-Axthelm W. History of Dentistry. Chicago : Quintessence Publishing Co., 1980: 16-8
- 3) 단행본 속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저자명, 문헌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발행연도 : 시작면-종료면
(한글) 조현영, 동서의학 비교 비판의 필요성, 박계조, 한의학은 부흥할 것인가, 1판, 서울 : 학민사, 1997: 71-88
(영문) Granshaw L. The Rise of the Modern Hospital in Britain. Wear A. ed. Medicine in Society: Historical Essay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197-218
9.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상의하여 원고의 자구와 체제등을 수정할 수 있다.
10.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第25卷 第1號 通卷 27號. (Vol. 25. No. 1., Series 27) 2006

2006년 12월 15일 인쇄
2006년 12월 20일 발행

發行人: 金 平 一 (Publisher: Kim Pyung Il)

編輯人: 李 丙 台 (Editor in Chief: Lee Byung Tai)

發行所: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Associatio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所在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42 (우)150-045, Dangsang-Dong #5-42, Yungdoongpo-gu Seoul.

電 話: (02) 2634-0406. Tel: 82-2-2634-0406.

電 送: (02) 2636-0356 Fax: 82-2- 2636-0356

〈비 매 품〉

